



저작자표시-비영리-변경금지 2.0 대한민국

이용자는 아래의 조건을 따르는 경우에 한하여 자유롭게

- 이 저작물을 복제, 배포, 전송, 전시, 공연 및 방송할 수 있습니다.

다음과 같은 조건을 따라야 합니다:



저작자표시. 귀하는 원저작자를 표시하여야 합니다.



비영리. 귀하는 이 저작물을 영리 목적으로 이용할 수 없습니다.



변경금지. 귀하는 이 저작물을 개작, 변형 또는 가공할 수 없습니다.

- 귀하는, 이 저작물의 재이용이나 배포의 경우, 이 저작물에 적용된 이용허락조건을 명확하게 나타내어야 합니다.
- 저작권자로부터 별도의 허가를 받으면 이러한 조건들은 적용되지 않습니다.

저작권법에 따른 이용자의 권리는 위의 내용에 의하여 영향을 받지 않습니다.

이것은 [이용허락규약\(Legal Code\)](#)을 이해하기 쉽게 요약한 것입니다.

[Disclaimer](#)

博士學位論文

陸游 茶詩를 통한 宋代 茶文化 研究

濟州大學校 大學院

中語中文學科

宋 仁 姝

2015年 12月

# 陸游 茶詩를 통한 宋代 茶文化 研究

指導教授 林 東 春

宋 仁 姝

이 論文을 文學 博士學位 論文으로 提出함

2015年 11月

宋仁姝의 文學 博士學位 論文을 認准함

審査委員長

趙 成 植



委 員

趙 紀 貞



委 員

嚴 英 旭



委 員

趙 洪 善



委 員

林 東 春



濟州大學校 大學院

2015年 12月



A study on tea culture of Song Era  
through Luyou's tea poems

In-Ju Song  
(Supervised by professor Dong-Chun Lim)

A thesis submitted in partial fulfillment of the requirement for the degree of  
Doctor of Literature

2015. 11

This thesis has been examined and approved.

Sheng-Shik Cho

Kee-Jung Cho

Young-Uk Um

Hong-Sun Cho

Thesis director, Dong-Chun Lim, Prof. of Chinese Language and Literature

2015. 12

Department of Chinese Language and Literature

GRADUATE SCHOOL

JEJU NATIONAL UNIVERSITY

## 목 차

I. 緒論 .....	1
1. 研究 동기 및 목적 .....	1
2. 既存 研究 및 研究 方法 .....	9
II. 陸游의 生涯와 創作 背景 .....	13
1. 陸游의 生涯 .....	13
2. 陸游 茶詩 概括 .....	21
3. 茶詩 創作 背景 .....	24
1) 山陰出身 .....	25
2) 陸羽仰慕 .....	27
3) 官職生活 .....	29
4) 憂國精神 .....	32
5) 田園生活 .....	34
6) 文學的 傾向 .....	36
III. 宋代 茶文化 .....	39
1. 宋代 以前의 茶文化 .....	40
2. 宋代 茶文化 .....	45
1) 貢茶制度 .....	45
2) 研膏茶 製造 .....	51
3) 茶館의 盛行 .....	56
4) 茶書編纂 .....	61
5) 茶馬貿易 .....	65
6) 茶道의 變遷 .....	67
IV. 陸游 茶詩에 나타난 茶文化 .....	71
1. 茶事 .....	71
1) 煎茶 .....	72

2) 點茶 .....	77
3) 鬪茶 .....	80
4) 分茶 .....	86
5) 活水 .....	91
6) 活火 .....	96
2. 茶名 .....	99
1) 貢茶 .....	100
(1) 北苑茶 .....	100
(2) 日鑄茶 .....	104
(3) 壑源茶 .....	107
(4) 蒙頂茶 .....	112
(5) 顧渚茶 .....	116
2) 花(果)茶 및 기타 .....	120
(1) 菊花茶 .....	120
(2) 茱萸茶 .....	124
(3) 橄欖茶 .....	129
(4) 薑茶 .....	133
(5) 梅花茶 .....	137
(6) 기타 .....	139
3. 茶具 .....	147
1) 兔毫盞 .....	147
2) 風爐 .....	151
3) 茶籠 .....	157
4) 茶鐮 .....	161
5) 磑, 碾 .....	164
V. 結論 .....	169
參考文獻 .....	175

## 【국문 초록】

陸游는 역대 中國 詩人들 중에서 가장 많은 茶詩를 써낸 詩人이며 蔡襄, 蘇軾과 더불어 宋代 3대 茶人으로 알려지고 있다. 그의 고향은 名茶가 생산되는 山陰이다. 그래서 그의 생활은 저절로 茶事와 친숙하게 된다. 그는 《茶經》를 탐독하며 茶道를 익혔고 茶官 생활을 하면서 茶事에 대한 경험을 풍부하게 쌓았다. 그런 그의 茶에 대한 지식들은 茶詩에 고스란히 담겨져 있어서, 宋代 茶詩 연구에 중요한 자료가 되고 있다. 그래서 筆者는 본 論文에서 陸游의 茶詩를 통해 宋代 茶文化을 고찰했다.

본 논문 제2장, ‘陸游의 生涯와 創作 背景’ 부분에서는 ‘陸游의 生涯’, ‘陸游 茶詩 概括’, ‘茶詩 創作 背景’ 등으로 나누어 考察했다. ‘陸游의 생애’ 부분에서는 陸游의 생애를 시대별로 간단히 살펴보고, ‘陸游 茶詩 概括’ 부분에서는 그의 茶詩 내용을 간단히 살펴보고, 그리고 ‘茶詩 創作 背景’에서는 陸游가 茶詩를 창작하게 된 背景을 山陰出身, 陸羽仰慕, 官職生活, 憂國精神, 田園生活, 文學的 傾向 등으로 나누어 고찰하였다.

제3장, ‘宋代 茶文化’ 부분에서는 ‘宋代 以前の 茶文化’와 ‘宋代 茶文化’ 부분으로 나누어 살펴보고, ‘宋代 以前の 茶文化’에서는 차를 마시기 시작한 기원과 魏晉 南北朝 그리고 唐代의 茶文化을 간단히 살펴보고, 이어서 ‘宋代 茶文化’ 부분에서는 貢茶制度, 研膏茶 製造, 茶館의 盛行, 茶書編纂, 茶馬貿易, 茶道의 變遷 등으로 나누어 고찰했다. ‘貢茶制度’ 부분에서는 貢茶의 유래와 唐代를 거쳐 宋代로 이어지며 발전한 貢茶制度를 살펴보고, ‘研膏茶 製造’ 부분에서는 研膏茶의 製造 시기 및 그 製造 과정 등을 살펴보고, ‘茶館의 盛行’ 부분에서는 宋代에 성행했던 茶館을 고찰하였다. 宋代 茶館은 여러 계층의 사람들이 交遊하며 정보를 교환했던 곳으로, 陸游의 시에서는 군대가 주둔하는 陣營 근처의 茶館을 언급하고 있다. 그리고 ‘茶書編纂’ 부분에서는 宋代 茶書들의 내용을 간단히 기술하였다. 그리고 茶書에 실려 있는 내용들이 陸游의 茶詩에 반영되어 나타나고 있음 얘기하였다. ‘茶馬貿易’ 부분에서는 軍馬를 얻기 위해 宋代 茶馬貿易의 규모가 확대되었으며, 茶馬貿易은 몇 가지 기본 규정이 있었음을 기술하였다. ‘茶道의 變

遷’에서는 茶道에 대한 정의를 간단히 살펴보고, 뒷부분에서는 宋代에 들어오면서 변천된 몇몇 茶道들을 살펴보았다.

제4장의 ‘陸游 茶詩에 나타난 茶文化’ 부분에서는 茶事, 茶名, 茶具 등으로 나누어 고찰 하였다. ‘茶事’ 부분에서는 煎茶, 點茶, 鬪茶, 分茶, 活水, 活火 등을 차례대로 살펴보았다. ‘煎茶’에서는 唐代에 유행했던 煎茶法이 陸游의 茶詩에 자주 등장하고 있기 때문에 宋代에도 여전히 煎茶 방식이 존재했음을 기술하였다. ‘點茶’ 부분에서는 陸游의 <茅亭>, <秋日郊居> 등에서 읊고 있는 點茶를 고찰하였다. 點茶는 鑪에 茶를 넣고 물을 부어 筌으로 擊拂하여, 찻잔 위에 乳花가 피어오르면 나눠 마시는 방법으로 宋代에 성행했다. ‘鬪茶’에서는 陸游의 <四月旦作時立夏已十餘日>, <晨雨>에서 언급하고 있는 宋代 茶俗인 鬪茶를 고찰하였다. 鬪茶는 찻잎의 품질과 茶를 우려내는 기술로 승부를 겨루는 技藝로 茶의 色, 香, 味를 중시 여겼다. ‘分茶’ 부분에서는 陸游의 茶詩에 나타난 分茶에 대하여 고찰하였다. 分茶는 茶를 다루는데 능한 사람이 茶湯 위에 다양한 物像을 그려내는 일종의 技藝로 宋代에 성행했다. ‘活水’와 ‘活火’ 부분에서는 茶를 마실 때 茶의 色, 香, 味를 좌우할 수 있는 물과 불의 선택을 중요시하는 宋代 茶俗을 들여다보았다.

다음으로 茶名 부분에서는 ‘貢茶’, ‘花(果)茶 및 기타’로 나누어 살펴보았다. ‘貢茶’ 부분에서는 陸游의 茶詩에 나타난 宋代 貢茶들을 살펴보았다. 예를 들자면 北苑茶, 日鑄茶, 壑源茶, 蒙頂茶, 顧渚茶 등이다. ‘北苑茶’ 부분에서는 宋代 황실 전용 御茶園이 있던 建安 鳳凰山의 東溪 水畔에 있는 北苑 지역에서 생산되는 北苑茶를 고찰하였다. 北苑茶는 陸游의 <飯後偶題>, <雪夜作> 등에서 언급하고 있다. ‘日鑄茶’ 부분에서는 陸游의 茶詩에서 나타난 日鑄茶를 고찰하였다. 이 茶는 越洲 會稽縣 東南의 日鑄嶺에서 생산되었고, 南宋 때 貢納다. 그리고 ‘壑源茶’ 부분에서는 陸游의 <謝王彥光提刑見訪並送茶>, <堂中以大盆漬白蓮花石菖蒲儻然無復暑意睡起戲書>에서 언급하고 있는 壑源茶를 고찰 하였다. 이 茶는 宋代 御茶園이 있었던 北苑의 남쪽에 위치한 壑源 지역에서 생산되었던 茶이다. 이 茶는 正焙라 칭해졌으며, 宋代 皇室에 貢茶했다. 그 외, 陸游의 <睡起試茶>, <菴居> 등에서 읊고 있는 蒙頂茶 그리고 그의 <仲秋書事>, <齋中弄筆偶書示子聿> 등에서 언급하고 있는 顧渚茶에 대해서도 자세히 고찰하여 宋代 貢茶를 들여다보았



다.

‘花(果)茶 및 기타’ 부분에서는 菊花茶, 茱萸茶, 橄欖茶, 姜茶, 梅花茶와 기타 茶를 살펴보았다. ‘菊花茶’ 부분에서는 陸游의 茶詩에서 언급하고 있는 菊花茶를 고찰하였다. 宋代에는 甘菊을 茶에 띄워 茶의 쓴맛을 제거 하였고, 菊花의 싹은 茶 대신 이용하였다. ‘茱萸茶’ 부분에서는 陸游의 <荊州歌>에 나타난 茱萸茶를 살펴보았다. 宋代 사람들은 茱萸를 神物로 여겼으며, 瘴氣 때문에 일어나는 병을 물리치기 위하여 茶로 마시기도 하였다. ‘橄欖茶’ 부분에서는 陸游의 <夏初湖村雜題>에 나타난 橄欖茶를 고찰하였다. 여기서는 宋代 사람들이 橄欖으로 차의 향기를 돕게 하는 飲茶 방식을 들여다볼 수 있었다. 그 외에 陸游의 茶詩에서 언급하고 있는 薑茶, ‘梅花茶’의 독특한 風習들도 고찰하였다.

‘기타’에서는 陸游의 시에 나타난 名茶이지만 貢茶하지 않았던 桃花茶, 丁坑茶, 花塢茶, 安樂茶 등을 살펴보았다.

‘茶具’ 부분에서는 陸游의 茶詩에 나타난 茶具인 兎毫盞, 風爐, 茶籠, 茶鐺, 磑, 碾 등을 살펴보았다. ‘兎毫盞’ 부분에서는 宋代 사람들이 茶의 乳花와 잘 어울리는 토끼털 같은 무늬가 있는 흑색 兎毫盞을 귀하게 여겼음을 기술하였다. ‘風爐’ 부분에서는 陸游의 茶詩에 나타난 宋代茶具인 風爐와 그 쓰임은 같지만 모양과 명칭이 다른 茶鼎, 茶灶 등을 비교하며 고찰하였다. 그리고 ‘茶籠’ 부분에서는 宋代 官吏들이 茶를 선물로 주고받을 때 金銅茶籠을 이용하는 모습을 살펴보았다. 그 외 宋代茶具인 茶鐺, 磑, 碾 등과 같은茶具들도 그 특징과 쓰임에 대하여 陸游의 시와 여러 자료들을 통해 고찰했다.

陸游의 茶詩에는 위에서 살펴 본 것처럼 다양한 宋代茶俗들이 들어 있어서 宋代茶文化를 한 눈에 들여다볼 수 있다. 이처럼 내용이 풍부한 陸游의 茶詩는 宋代茶文化 經典이라고 해도 손색이 없다.

# I. 緒論

## 1. 研究 동기 및 목적

陸游(1125~1209)는 北宋과 南宋이 교차하는 격변의 시기에 越州, 山陰縣에서 태어났다. 그의 字는 務觀이고 號는 放翁이다. 그는 尤袤, 楊萬裏, 范成大와 함께 南宋을 中興시킨 四大家라고 불려진다.<sup>1)</sup> 그가 태어난 시기는 문학적으로는 北宋 中期 黃庭堅을 중심으로 형성된 江西詩派의 詩風이 宋詩에 커다란 영향력을 미치던 시기이다. 그는 어려서부터 암울한 조국의 현실을 보고 자랐으며 애국적인 집안의 분위기 속에서 저항과 투쟁의식을 키웠다. 陸游는 이런 분위기에서 비분강개하는 愛國詩를 많이 써서 中國 歷史上 위대한 愛國詩人<sup>2)</sup>으로 알려지고 있다. 그는 역대 中國의 시인들 중에서 가장 많은 詩를 남기고 있는 시인으로, 그가 남긴 詩는 9239首<sup>3)</sup>에 달한다. 陸游는 曾幾에게서 詩를 배웠는데, 初期(45세까지)에는 그에게서 江西詩派의 이론을 전수 받아 형식미 추구에 힘을 기울였다. 中期의 前半時期(46~55세)인 蜀時期는 南鄭에서의 從軍 경험을 계기로 江西詩風에서 벗어나 憂國의 열정과 호방한 기개를 나타내는 愛國詩을 써냈고, 中期의 後半(56~65세)인 山陰時期는 蜀時期와 같이 憂國詩을 써 냈는데, 蜀時期와 구별되는 특징은 북벌에 대한 좌절감으로 인해 울분과 비탄의 감정이 나타난다는 것이다. 晩期(66~85세)는 고향인 山陰에 閑居하면서 질박한 농촌의 일상생활을 題材로 한 詩를 썼으며, 이 시기는 작품의 양이 폭발적으로 증가한 시기이다.<sup>4)</sup>

그가 평생에 걸쳐 창작한 詩속에는 愛國, 愛民, 寫景詠物, 田園閑適, 交遊 등과 같은 다양한 시의 주제가 나타남을 볼 수 있다. 이 중에서 陸游 詩의 중심 주제를 찾는다면 바로 愛國이라고 말할 수 있다. 그의 愛國詩의 내용 중에는 오랑캐를

1) 于北山, 《陸游年譜》, 上海古籍出版社, 2006, 1쪽.

2) 鄒志方, 《陸游詩詞選》, 中華書局, 2005, 1쪽.

3) 嚴修, 《陸游詩詞導讀》, 中國國際廣播出版社, 2009, 53쪽.

4) 주기평, 《육유시가연구》, 도서출판 역락, 2010, 42~64쪽 참조.

무찌르고 중원을 수복하고자 하는 항전의 의지를 써내려 간 것, 중원의 수복을 이루지 못한 것에 대한 비분의 감정을 토로하는 것, 屈原과 諸葛亮 등과 같은 愛國志士들을 칭송하는 것 등을 읊고 있다.

陸游는 나라를 사랑하는 마음만큼이나 일반 서민들의 생활에 관심이 많았다. 그는 백성들의 고통의 원인은 나라의 정책과 관료들의 횡포 때문이라고 생각하고, 그 실상을 시를 통해 고발하는 愛民詩도 창작하였다.

陸游는 寫景詠物을 읊은 詩도 창작하였는데, 그의 山水自然詩는 단지 山水自然이라는 객관적인 사물을 읊는 것에 그치지 않고 자신의 감정을 자연 경물에 이입하여 묘사하기도 하고 때로는 의인화 방법을 이용하여 情景交融을 하는 경우도 있다.

위와 같은 시의 주제들 외에 田園을 주제로 하는 시도 창작하였다. 그는 관직 생활을 하다가 면직을 당할 때면 항상 고향인 山陰으로 돌아와 생활을 하였다. 그리고 만년에는 고향에서 20여 년 동안 은거 생활하였는데, 이때 그는 산촌 사람들의 넉넉한 인심과 순박하고 한가로운 정취를 시로 읊기도 하고, 고향에서 기거하며 느끼는 평온하고 기쁜 작자의 마음 등을 노래하기도 하였다.

예로부터 시인들은 서로 교류하면서 시를 주고받는 酬唱을 즐기며 和答詩 혹은 次韻詩등을 읊기도 했고, 때론 이별에 앞서 시를 써서 이별의 아쉬운 정을 벗에게 전하며 이후의 만남을 당부하는 贈別詩를 읊기도 하였다. 陸游의 交遊詩 중에도 이와 같은 贈別, 寄贈, 和答, 次韻詩 등이 있다. 陸游는 평생 여러 계층의 사람들과 교류를 했기 때문에 이와 같은 交遊詩가 500수<sup>5)</sup> 넘게 전해지고 있다.

위에서 살펴본 愛國, 愛民, 寫景詠物, 田園閑適, 交遊 등과 같은 특징적인 주제 외에 陸游 詩의 또 다른 특징적 주제를 찾는다면 茶詩를 들 수 있다.

陸游는 평생 동안 多量の 茶詩를 창작했는데, 陸游가 창작한 茶詩의 수에 대해서는 여러 의견이 있다. 劉黎明의 <宋代茶俗과 陸游의 詠茶詩><sup>6)</sup>와 <<中國茶文化>><sup>7)</sup>에서는 320여 首라고 말하고 있고, 劉煥群의 <陸游爲何茶詩多多><sup>8)</sup>에서는 390여 首, 付玲玲의 <陸遊茶詩研究><sup>9)</sup>에서는 300여 首라고 말하고 있다. 위의 자

5) 주기평, 앞의 책, 280쪽.

6) 劉黎明, <宋代茶俗과 陸游의 詠茶詩>, 文史雜誌, 1998, 第 5期.

7) 叢書編委會編撰, <中國茶文化>, 北京, 外文出版社, 2010. 212쪽.

8) 劉煥群, <陸游爲何茶詩多多>, 農業考古, 2004, 1쪽.

료들을 보면 茶詩의 수량만 제시를 하였을 뿐, 陸游의 茶詩를 어떤 기준으로 분류했는지 아무런 언급이 없다. 그러나 顧云艷의 <論陸游的茶詩與茶事><sup>10)</sup>에서는 300여 首의 茶詩가 전해지고 있다고 언급하고 있으며, 더불어 茶詩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정의를 내리고 있다.

“茶詩可以分爲廣義與狹義兩大類. 狹義的是指單純‘詠茶’之詩, 卽以茶爲主題的詩 : 廣義的茶詩不僅包括了狹義的詠茶詩, 而且也包括了‘茶’的詩”

차시는 광의적인 차시와 협의적인 차시로 분류할 수 있다. 협의적인 차시는 단순히 차를 읊는 시로, 차를 주제로 하는 시이고, 광의적인 차시는 협의적인 차시를 포함할 뿐만 아니라 시의 주제가 차가 아니더라도 차를 언급한 시까지 포함한다.

위의 논문에서 顧云艷은 陸游의 茶詩도 대부분 이와 같이 분류 할 수 있음을 말하고 있다. 그러나 그는 茶詩의 정의에서 “광의적인 차시는 협의적인 차시를 포함할 뿐만 아니라 시의 주제가 차가 아니더라도 차를 언급한 시까지 포함한다.”라고 말하고 있지만 ‘차를 언급한 詩’의 기준이 어떤 것인지 정확히 밝히지 않고 있다.

茶는 예로부터 여러 가지 글자로 나타냈다. 예를 들면, 茶, 檟, 茗, 莛, 葭, 葭茶, 臬芦, 過羅, 物羅, 酪奴<sup>11)</sup> 등이다. 陸游의 시에도 ‘茶’라는 글자의 표현 외에 茗, 莛 등의 글자로 茶를 표현하고 있는데, 그의 <閑居書事><sup>12)</sup>에서는 다음과 같이 읊고 있다.

玩易焚香消永日 주역을 감상하고 향을 사르며 긴 하루를 보내고  
聽琴煮茗送殘春 거문고를 듣고 차를 다리며 늦봄을 보내네

이 시에서는 茶를 茗으로 표현하고 있음을 볼 수 있다. 그리고 그의 <午睡起消搖園中因登山麓薄暮乃歸><sup>13)</sup>에서는 다음과 같이 읊고 있다.

9) 付玲玲, <陸游茶詩研究>, 曲阜師範大學, 碩士論文, 2006, 1쪽.

10) 顧云艷, <論陸游的茶詩與茶事>, 江南大學, 2008, 2쪽.

11) 高澤雄, 黎安國, 劉定鄉, <古代茶詩名篇五百首>, 湖北人民出版社, 2014, 4쪽.

12) 錢仲聯, <陸游全集校注>, 杭州, 浙江教育出版社, 2011, 권3, 85쪽.

13) 錢仲聯, 위의 책, 권4, 56쪽.

毫甌羞茗薺 찾잔에 차를 드리고  
銅洗供盥濯 구리 대야로 씻을 물을 바치네

이 시에서는 茶를 나타내는 글자인 茗薺이라는 글자가 등장하고 있다. 陸游의 茶詩 중에는 이와 같은 茶를 나타내는 글자 외에, 본 논문의 뒷부분에서 논하고 있는 宋代 茶名과 茶具 등도 더불어 나타나고 있다. 茶를 나타내는 글자와 茶名, 茶具들은 陸游 茶詩뿐만 아니라 다른 시인들의 茶詩에서도 나타나고 있다. 그러나 顧云艷의 茶에 대한 정의에서는 이와 같은 세세한 부분에 대하여 전혀 언급함이 없다. 그리고 陸游의 茶詩에는 다른 詩에서는 볼 수 없는 독특한 표현들이 있다. 이런 표현은 비단 陸游의 茶詩에서만 나타나고 있는 것이 아니라 다른 시인들의 詩에서도 나타나고 있는 표현들이다. 여기서 陸游의 <午睡><sup>14)</sup>를 살펴보기로 하겠다.

聊呼蟹眼湯 에오라지 끓는 물을 호호 불며  
淪我玉色塵 나의 차를 끓이네

이 詩에서 나타난 蟹眼은 찻물을 끓일 때 거품이 일어나는 모습을 표현한 것이다. 그리고 <午睡>의 두 번째 句에서는 茶를 玉色塵으로 묘사하고 있다. 이와 같이 茶를 塵으로 표현하는 것은 北宋, 范仲淹의 <和章岷從事鬪茶歌><sup>15)</sup>에서도 찾아 볼 수 있다.

黃金碾畔綠塵飛 황금 맷돌 가에는 찻가루 날리고  
紫玉甌心雪濤起 흑유다완에는 흰 물결 일어나네

이 詩에서는 맷돌에서 떨어지는 茶를 綠塵이라고 표현하고 있음을 볼 수 있다. 그리고 이 시에서는 黑釉茶碗이 나타나고 있다. 茶에 대한 표현은 이것 뿐 만이 아니다. 陸游의 <喜得建茶><sup>16)</sup>에서는 다음과 같이 읊고 있다.

14) 錢仲聯, 앞의 책, 권2, 295쪽.  
15) 김길자, 《中國茶詩》, 현암사, 1999년, 46쪽.  
16) 錢仲聯, 위의 책, 권5, 325쪽.

雪霏庾嶺紅絲磈 눈이 유령산의 홍사석 멧돌에 날리고  
乳泛閩溪綠地材 유화가 민계 건안지역의 토호잔에 떠다니네

이 詩에서는 멧돌에서 갈아져 내려오는 茶를 雪로 표현하고 있다. 그리고 茶잔에 떠다니는 茶의 거품을 乳라고 표현하고 있다. 그리고 蘇軾의 <試院煎茶><sup>17)</sup>에서는 다음과 같이 읊고 있다.

蒙茸出磨細珠落 차를 가니 구슬같이 떨어져 나오고  
眩轉繞甌飛雪輕 빙글빙글 茶사발에 얹히며 가벼운 눈이 날리네

이 詩에서 蘇軾은 멧돌에서 떨어지는 茶의 모습을 細珠라고 표현하고 있으며 茶잔에 얹혀 있는 茶를 雪로 표현하고 있다. 그리고 陸游의 <幽居卽事><sup>18)</sup>을 보면 다음과 같이 읊고 있다

臥石聽松風 돌에 누워 송풍을 들으며  
蕭然老桑苧 옥우가 쓸쓸히 늙어 가네

이 시에서는 茶물을 끓일 때 나는 소리를 松風이라고 표현하고 있다. 그리고 羅大經의 <瀹茶><sup>19)</sup>에는 다음과 같은 내용이 있다.

松風檜雨到來初 茶물 끓는 소리 들리니  
急引銅瓶移竹爐 급하게 동병을 죽로에서 옮기네

이 시에서는 茶물 끓는 소리를 松風檜雨라고 표현하고 있다. 이처럼 위의 詩들은 독특한 표현들을 사용하여 茶와 茶를 마시는 일들을 표현하고 있다. 이와 같

17) 도서출판아라 편집부, 《중국차문화대사전》, 도서출판아라, 2013, 권1, 147쪽.

18) 錢仲聯, 앞의 책, 권7, 289쪽.

19) 김길자, 앞의 책, 69쪽.

이 시에 직접적으로 茶를 거론하지 않았지만 위와 같은 표현들을 이용하여 飲茶 생활을 詩로 표현하는 경우를 자주 볼 수 있다.

그러므로 茶詩란 顧云艷의 <論陸游的茶詩與茶事>에서 정의한 ‘茶를 주제로 한 詩, 茶언급하고 있는 詩’ 외에, ‘茶名을 직접 언급하고 있는 詩’, ‘茶具를 언급하며 노래한 詩’, 그리고 ‘茶를 직접적 언급하지는 않지만, 茶를 나타내는 시적 표현이 들어 있는 詩’ 등을 모두 포함시킬 수 있다.

위와 같은 茶詩의 개념을 적용해 筆者가 분류한 陸游의 茶詩는 360여 首라고 말할 수 있다.

茶詩의 창작은 유구한 歷史를 가지고 있다. 中國文學史上 최초의 茶詩는 <詩經>의 <邶風·谷風>중의 ‘誰謂茶苦其甘如薺’라는 구절이라고 付玲玲은 말하고 있다.<sup>20)</sup> 그러나 <中國茶典><sup>21)</sup>에는 다음과 같은 기록이 있다.

“雖說在《詩經》中已有“茶的影子”浮現了，但嚴格來講，那還只是推測爲茶的祖宗“茶，其意義究竟是否實指茶，許多人認爲尙不可得知..... 那麼完整意義上的第一首茶詩是誰寫的呢？據陸羽《茶經》節錄文中顯示，中國古代第一首茶詩是西晉左思的《嬌女詩》”

비록 <시경> 중에 차의 그림자가 보인다고 하나, 엄격히 말하면 단지 차의 祖宗을 茶로 추측하는 것이다. 많은 사람들이 그 실제 의미가 차인지 아닌지에 대한 여부는 아직까지는 알 수가 없다고 여긴다..... 그렇다면 완성된 의미의 최초의 차시는 누가 쓴 것인가. 육우 <다경>의 <節錄文>중에 뚜렷이 보인다. 중국 고대 최초의 차시는 서진 좌사의 <교녀시>이다.

여기서는 최초의 茶詩를 西晉 左思의 <嬌女詩><sup>22)</sup>라고 말하고 있다. 左思의 <嬌女詩>는 아버지가 어린 딸을 사랑하는 모습과 어린 딸이 茶를 끓이는 모습을 생생하게 묘사하고 있는 시이다. 西晉시기에는 左思의 시 외에 張載의 <登成都樓><sup>23)</sup>에서도 茶를 언급하고 있다. 그리고 최초로 賦의 형식으로 茶를 읊은 杜

20) 付玲玲, <陸游茶詩研究>, 曲阜師範大學, 2006.

21) 龔建華, <中國茶典>, 經史文庫, 2002. 92, 93쪽 참조.

22) 徐海榮, <中國茶事大典>, 華夏出版社, 北京, 2000년, 615쪽. 左思의 <嬌女詩> : “吾家有嬌女, 皎皎頗白皙. 小字爲紈素, 口齒自清歷.(중략), 心爲茶薺劇, 吹噓對鼎鑪.. (우리 집 아리따운 딸이 있는데, 맑디맑아 자못 백옥 같다네, 이름은 환소라 하는데, 치아는 분디 가지런하고.(중략), 마음에서 차를 마시고 싶은 생각이 들어 鼎에 대고 훌훌 입 바람을 불어대네)”.  
23) 도서출판아라 편집부, 앞의 책, 卷1, 3쪽. 張載의 <登成都樓> : “芳茶冠六清, 溢味播九區. (향기



育의 <菴賦><sup>24)</sup>가 있다. 여기에서는 사람들이 무리지어 茶를 채취하는 일, 茶를 마시기 위해 민강의 물을 취하는 것, 그리고 陶器를 가지고 茶를 달이는 모습, 茶를 달인 뒤의 湯의 모습 등을 자세히 읊고 있다. 이는 晉代 飲茶의 전 과정을 기록하고 있는 것으로 晉代의 차 문화 연구에 귀한 자료가 되고 있다.

이런 茶詩 創作의 흐름은 唐代의 飲茶 문화의 발전과 발맞추어, 여러 시인들의 茶詩 창작으로 이어진다. 이와 같은 茶詩는 唐代의 대표적인 시인인 李白의 <答族侄僧中孚贈玉泉仙人掌茶><sup>25)</sup>에서도 읊고 있는데, 그는 이 시에서 唐代 玉泉山에서 생산되는 선인장 茶를 노래하고 있다. 이 시에서는 茶의 향기와 효능, 선인장 茶의 신묘함을 나타내고 있다. 唐代는 李白 외에, 다른 시인들의 시에서도 茶詩를 찾아 볼 수 있다. 예를 들자면, 杜甫의 <進艇><sup>26)</sup>, 劉禹錫의 <嗜茶><sup>27)</sup> 등이 있으며, 이 외에도 陸龜蒙, 皮日休, 杜牧 등의 시에서도 茶詩를 찾아 볼 수 있다. 이런 茶詩 창작은 宋代로 이어져 내려오는데, 宋代의 茶詩는 唐代의 風貌를 계승했으며 詞로써 茶를 읊는 형식도 출현했다. 통계에 의하면 宋代의 茶詩, 茶詞는 모두 1,000여首에 달하며 많은 著名 詩人, 詞人들이 인구에 회자되는 茶詩, 茶詞를 남겼다.<sup>28)</sup> 茶詩를 읊은 詩人들을 보면, 蘇軾, 陸遊, 王禹偁, 林逋, 梅堯臣, 歐陽修, 王安石, 黃庭堅, 范成大, 楊萬里 등등이 있다.<sup>29)</sup>

로운 차는 음료 중에 으뜸이고, 넘치는 차 맛은 천하에 가득하구나.)”.

漢語大詞典, 上海辭書出版社, 권2, 43쪽, 2008 : “六清: 《周禮·天官·膳夫》: “凡王之饋.....飲用六清” 鄭玄注: “六清. 水, 漿, 醴, 涼, 醫, 醕.” 孫詒讓正義: “此即《漿人》之‘六飲’也.” 後用以泛指飲料. (《周禮·天官·膳夫》에 “凡王之饋.....飲用六清.”라는 문장이 있는데, 鄭玄은 六清은 水, 漿, 醴, 涼, 醫, 醕라고 주를 달았다. 孫詒讓은 “이것은 바로 《漿人》의 여섯 가지 음료이다.”라고 정의 하였다. 후에 음료를 총괄하여 가리킨다)”.

24) 도서출판아라 편집부, 앞의 책, 권1, 3쪽. 杜甫의 <菴賦> : “靈山唯嶽, 奇產所鍾.(중략) 農功少休, 結偶同旅, 水則岷方之注, 是采是求,(중략) 惟茲初成, 沫沉華浮, 煥如積雪, 燁若春敷. (신령스런 산은 오로지 큰 산이고, 기이한 것들이 모두 생산되네.(중략), 농사일이 조금 한가로울 때, 짝을 짓고, 함께 무리지어, 민강의 물을 뜨고, 차를 판다네(중략), 첫 탕을 이루니, 沫은 가라앉고 華는 떠오르네, 빛나기는 하얀 눈과 같고, 환하기는 봄꽃이 핀 것 같네.)”.

25) 도서출판아라 편집부, 위의 책, 卷1, 35쪽. 李白, <答族侄僧中孚贈玉泉仙人掌茶> “根柯灑芳津, 采服潤肌膚.(중략), 曝成仙人掌, 似拍洪崖肩. (뿌리와 가지는 향기로운 진액을 뿜고, 케어서 먹으면 살과 뼈가 튼튼해지네.(중략), 햇빛에 말려 만든 선인장차, 옛날에는 신선과 친근했네)”. 洪崖; 중국 전설 속의 신선의 이름이다.

26) 김길자, 앞의 책, 22쪽. 杜甫의 <進艇> “茗飲蔗漿攜所有, 瓷罍無謝玉爲缸. (마실 차와 사탕수수즙도 가져왔으니, 도자기 병은 옥 같은 항아리 뒀을 사양하지 않네.)”.

27) 김길자, 위의 책, 177쪽. 劉禹錫의 <嗜茶> “生怕芳叢鷹嘴芽, 老郎封寄謫仙家 (돌아나는 향기로운 어린 차잎 바로 따서, 귀양 오신 신선의 집으로 보냅니다.)”.

28) 劉黎明, 앞의 논문. 餘悅, 周春蘭, <中國宋代茶文化的繁榮與特色(續)>, 《農業考古》, 2007, 第2期, 26쪽, 참조.

29) 위의 주)와 같음



宋代는 茶文化가 매우 흥성했고, 여러 茶書들이 편찬 되는 등, 空前의 茶文化 興盛期를 누린다. 그리고 宋代에는 飲茶생활의 보편화로 누구나 쉽게 茶와 친근 할 수 있는 사회분위기가 조성되어 있었다. 그런 분위기 속에서 시인들은 茶를 詩의 소재로 다루었으며, 많은 시인들이 茶詩 창작에 동참하게 된다. 그 결과로 茶詩의 수량이 대폭 증가하게 된다.

이런 문학적 분위기 속에서 陸游도 다량의 茶詩를 창작한다. 그의 茶詩 속에는 ‘조정의 혼란함에 대한 탄식’, ‘첫 부인에 대한 회상’, ‘宋代 茶 시장의 형성’, ‘陸羽에 대한 仰慕’ 등을 읊고 있고, 宋代 飲茶俗을 한 눈에 들여다 볼 수 있는 내용들도 들어 있다. 예를 들자면, 宋代에 유행했던 點茶, 찻잎의 품질과 茶를 우려내는 기술로 승부를 겨루었던 鬪茶, 茶를 다루는데 능한 사람이 茶湯 위에 그림, 文字, 禽獸, 꽃 등의 다양한 物像을 그려내는 일종의 技藝인 分茶 등을 읊고 있다. 그리고 茶를 달일 때 茶의 色, 香, 味를 좌우할 수 있는 活水, 活火의 이용 등에 대한 내용들도 들어 있다.

陸游의 茶詩에는 위의 내용 외에, 宋代에 貢茶에 대한 내용도 들어 있다. 예를 들자면 宋代 皇室 전용 御茶園이 있던 建安 鳳凰山の 東溪 水畔에서 생산되었던 北苑茶, 越洲 會稽縣 東南의 日鑄嶺에서 생산되는 日鑄茶, 北苑과 멀리 떨어져 있지 않았으며 北苑과 더불어 正焙라 칭해졌던 壑源茶, 唐 宋의 名茶로 四川 邛崃山脈 중의 蒙山에서 생산되는 蒙頂茶, 長興縣 顧渚山에서 생산되는 顧渚茶 등이 있다. 이런 茶詩속에는 茶의 제작 방법과 독특한 飲茶俗, 茶의 저장 방법 등에 대하여 언급하고 있다.

위에서 살펴본 貢茶 외에, 그의 茶詩에서는 다른 자료들에서는 찾아보기 힘든 여러 종류의 花(果)茶가 등장한다. 예를 들자면, 甘菊을 茶에 띄워 茶의 쓴맛을 제거했던 菊花茶, 중국의 습하고 열기가 많은 지역의 瘴氣 때문에 일어나는 병을 물리치기 위하여 마셨던 茱萸茶, 술을 해독하고 소화를 촉진해 주는 효과가 있는 橄欖茶, 그 외 薑茶가 있으며, 梅花의 꽃술을 담가두었던 薑물을 이용하여 茶를 달았던 梅花茶도 읊고 있다. 이 梅花茶는 宋代의 다른 시인들의 시에서는 찾아보기 힘든 아주 귀한 자료이다.

陸游의 茶詩에는 宋代의 다양한 茶具들도 등장한다. 이 茶具들은 唐代의 茶具와 비교해 보면 그 재료와 모양 등에서 차이점을 발견 할 수 있다. 이처럼 陸游

의 茶詩에는 宋代 茶文化을 들여다 볼 수 있는 자료들이 풍부하다. 그렇기 때문에 역사가 깊은 중국의 茶詩는 宋代 陸游에 이르러 찬란하게 꽃을 피었다고 할 수 있다.

위와 같은 내용의 茶詩를 쓴 陸游는 중국의 역대 시인들 중에서 茶詩를 가장 많이 쓴 시인으로 알려지고 있다.<sup>30)</sup> 그는 茶書를 탐독하며 茶道를 익히는데 힘을 썼고, 茶官生活의 경험이 있기 때문에 茶에 대한 지식이 매우 풍부한 전문가라고 할 수 있다. 그리고 그는 蔡襄, 蘇軾과 더불어 宋代 3대 茶人으로 알려지고 있다.<sup>31)</sup> 그렇기 때문에 陸游의 茶詩는 宋代 茶文化에 대한 權威있는 자료라고 할 수 있다. 그래서 筆者는 宋代 茶文化에 대한 權威 있는 자료인 陸游의 茶詩를 통해 宋代 茶文化을 고찰하고자 한다.

위에서 살펴본 바에 의하면 중국의 茶詩는 西晉으로부터 시작되어 唐, 宋代로 이어지는 유구한 茶詩 創作의 전통을 가지고 있음을 알 수 있다. 게다가 宋代의 유명 시인들은 대부분 茶詩를 읊었고, 그 외의 여러 시인들의 詩에서도 茶詩를 다량으로 발견할 수 있다. 이와 같은 茶詩 창작의 경향은 이전의 時期에서는 찾아 볼 수 없다. 그러므로 茶詩의 창작은 宋代 詩의 특징의 하나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그러나 中國文學을 연구하는 여러 서적들을 살펴보면, 宋代의 茶詩창작의 경향에 대하여 거의 언급하지 않고 있는 실정이다. 그래서 筆者는 본 논문에서 宋代 茶文化에 대한 권위 있는 자료인 陸游의 茶詩를 연구하여 宋代 文化를 고찰하고, 더불어 ‘茶詩 創作’을 宋代 詩의 특징으로 부각 시키는데 일조하고자 한다.

## 2. 既存 研究 및 研究 方法

陸游는 다량의 茶詩를 창작 했는데, 그의 茶詩의 80%는 晩年에 고향인 山陰에서 거주할 때 창작한 것이다.<sup>32)</sup> 그가 남긴 多量の 茶詩는 宋代 茶 文化 研究에

30) 顧云艷, <論陸游的茶詩與茶事>, 앞의 논문.

31) 조기정, <한·중 차문화 연구>, 학연문화사, 2014. <茶文化漫談>, 79~85쪽 재인용.

중요한 자료가 되고 있다. 그래서 中國에서는 그의 茶詩에 대한 연구가 많이 이루어지고 있는 추세이다. 그러나 國內에서는 陸游의 茶詩에 대한 연구가 그리 많지 않다.

여기서 陸游의 茶詩에 대한 기존의 연구를 간단히 살펴보기로 하겠다. 陸游의 茶詩에 대한 中國의 研究를 우선 살펴보면, 錢仲聯의 《陸游全集校注》<sup>33)</sup>를 들 수 있다. 이 서적은 陸游의 전체 詩에 注釋을 꼼꼼히 달아 놓고 있어서, 陸游 전체 詩의 연구에 도움을 줄 뿐만 아니라 茶詩 연구에도 커다란 도움을 주고 있다. 그리고 劉黎明의 <宋代茶俗과 陸游의 詠茶詩><sup>34)</sup>에서는 宋代 飲茶俗과 陸游의 茶詩를 간단히 논하고 있다. 付玲玲의 <陸游茶詩研究><sup>35)</sup>에서는 陸游 茶詩 속에 나타난 茶事의 物化層面, 茶禮活動, 宋代 茶俗 등을 고찰하고 있다. 그는 ‘茶事의 物化層面’에서 宋代 名茶인 建溪의 官茶와 蒙山の 紫箏茶에 대하여 언급하고 있다. ‘茶禮活動’ 부분에서는 煎茶, 分茶, 鬪茶에 대하여 언급하고 있다. ‘宋代 茶俗’ 부분에서는 以茶會友, 以茶待客 등의 茶情을 논하고 있다. 그리고 劉煥群의 <陸游爲何茶詩多多><sup>36)</sup>에서는 陸游 茶詩의 多作 背景을 고찰하고 있다. 이 論文에서는 多作의 背景을 ‘宋代 茶文化의 흥성’, ‘名茶 產地에서 출생한 陸游’, 그리고 ‘노년의 閑適生活’ 등으로 나누어 고찰하고 있다. 顧云艷의 <陸游의《晨雨》與宋代的“鬪茶”><sup>37)</sup>에서는 陸游의 <晨雨>에 나타난 鬪茶를 고찰하고 있다. 또 그의 <論陸游的茶詩與茶事><sup>38)</sup>에서는 陸游 茶詩 속에 나타난 花(果)茶와 貢茶, 分茶 問題, 鬪茶, 點茶, 試茶 등을 고찰하고 있다. 그는 이 논문에서 菊花茶, 茱萸茶, 薑茶, 橄欖茶, 梅花茶 등과 같은 花果茶를 고찰하고 있다. 그리고 ‘貢茶’ 부분에서는 貢茶의 제작소와 貢茶의 特질, 茶型, 貢茶의 採取時期 등을 고찰하고 있으며, 公납되는 茶로는 建安茶와 顧渚茶 등을 예로 들고 있다.

위에서 살펴본 연구 외에 陸游의 茶詩에 관한 국내 연구는 嚴英旭의 <宋代 茶文化和 陸游의 茶詩研究><sup>39)</sup>가 있다. 이 論文에서는 宋代 茶文化, 陸游 茶詩의 創

32) 顧云艷, <論陸游的茶詩與茶事>. 앞의 논문.

33) 錢仲聯, 앞의 책.

34) 劉黎明, 앞의 논문.

35) 付玲玲, 앞의 논문.

36) 劉煥群, 앞의 논문.

37) 顧云艷, <陸游의《晨雨》與宋代的“鬪茶”>, 鎮江高專學報, 第 21卷, 第 2期, 2008.

38) 顧云艷, <論陸游的茶詩與茶事>, 위의 논문.

39) 嚴英旭, <宋代 茶文化和 陸游의 茶詩研究>, 中國人文科學 第49輯, 2010.

作 내용, 茶事, 茶詩에 나타난 예술적 특색을 연구하고 있다. 그리고 박병선의 <中國 茶詩 研究><sup>40)</sup>에서는 陸游의 <啜茶示兒輩>, <試茶>등을 언급하고 있다. 그 외의 陸游 茶詩에 대한 국내 연구는 찾아보기 어렵다.

위의 연구 자료들을 보면, 陸游의 茶詩와 宋代 茶文化를 고찰하면서 陸游의 茶詩를 그리 많이 언급하고 있지 않다. 顧云艷의 <論陸游的茶詩與茶事><sup>41)</sup>에서는 60여 首의 茶詩를 고찰 하고 있고, 付玲玲의 <陸遊茶詩研究><sup>42)</sup>에서는 70여 首를 언급하고 있다. 그리고 그 외의 논문들은 20여 首 內外로 陸游의 茶詩를 언급하고 있어서 陸游 茶詩의 내용을 폭넓게 고찰하기에는 부족한 부분들이 있다. 그러나 본 論文에서는 120여 首의 陸游 茶詩를 직접 예로 들어가며 陸游 茶詩의 創作背景, 茶事, 貢茶, 花(果)茶, 茶具, 宋代茶文化 등을 고찰하고 있어서 다른 논문들에 비해 폭넓게 陸游 茶詩속에 나타난 宋代 茶文化를 들여다 볼 수 있다. 이렇게 많은 양의 陸游 茶詩를 분석하는 작업은 이전에는 시도하지 않았던 것이다. 그러므로 본고의 연구의의는 바로 여기에 있는 것이다.

筆者는 陸游의 茶詩를 고찰하기 위해 錢仲聯의 <陸游全集校注>에 실려 있는 陸游 茶詩를 텍스트로 삼았다. 지금까지 전해지는 茶詩는 360여 首이지만, 이 詩들의 創作 時期 및 내용들을 자세히 알아 볼 수 있도록 체계적으로 분류해 놓은 書籍은 찾아 볼 수 없다. 그래서 筆者는 錢仲聯의 <陸游全集校注><sup>43)</sup> 총 13권에 실려 있는 茶詩 360여 首를 創作 時期 및 詩의 소재별로 꼼꼼히 분류하여 본 논문에서 참고 하였다.

본 論文의 서론에서는 陸游에 대하여 간략하게 논하면서 愛國, 愛民, 寫景詠物, 田園閑適, 交遊 등과 같은 주제별로 陸游의 시에 대하여 잠시 서술하였고, 이어서 茶詩의 개념을 정리 하였다. 그리고 ‘陸游의 生涯와 創作 背景’ 부분에서는 陸游의 生涯, 陸游 茶詩 概括, 茶詩 創作 背景으로 나누어 살펴볼 것이다. ‘茶詩 創作 背景’ 부분에서는 山陰 出身, 陸羽仰慕, 官職生活, 憂國精神, 田園生活, 文學的 傾向 등의 내용으로 나누어 陸游 茶詩의 創作 背景을 살펴보고자 한다.

3장 ‘宋代 茶文化’에서는 宋代 茶文化를 이해하는데 도움이 되도록 宋代 以前

40) 박병선, <中國 茶詩 研究>, 中國語文學論集, 제77호, 2009.

41) 顧云艷 <論陸游的茶詩與茶事>, 앞의 논문.

42) 付玲玲, 앞의 논문.

43) 錢仲聯, 앞의 책.

의 茶文化를 잠시 살펴보고, 이어서 宋代의 貢茶制度, 研膏茶 製造, 茶館의 盛行, 茶書編纂, 茶馬貿易, 茶道の 變遷 등으로 나누어 고찰한다. ‘貢茶制度’에서는 宋代에 들어와서 성행한 貢茶에 대하여 고찰하는데, 여기서는 茶의 생산지, 茶의 채취와 제작시기, 貢茶의 형태 등을 陸游의 詩와 여러 기록들을 예로 들며 살펴보고자 한다. 그리고 ‘研膏茶製造’ 부분에서는 晚唐代에 시작되어 宋代에 성행했던 研膏茶를 陸游의 시를 통해 고찰한다. 研膏茶로 만들어진 茶는 공납을 하기도 했는데 이런 茶가 어떤 과정을 거쳐 만들어 졌는지 살펴 볼 것이다. ‘茶館의 盛行’ 부분에서는 宋代 유행했던 茶館의 모습과 茶館의 기능에 대하여 고찰하여, 宋代 사람들이 드나들던 茶館의 문화가 어떻게 형성이 되었는지, 陸游의 詩에는 어떤 형태의 茶館이 등장하는지 살펴보고자 한다. ‘茶書編纂’에서는 현존하는 茶學에 관련된 宋代 茶書들의 내용을 간략하게 살펴보면서, 宋代 飲茶俗들이 수록되어 있는 茶書들을 간단히 소개할 것이다. 더불어 茶書의 編纂이 宋代 茶學 발전에 큰 역할을 했고, 陸游의 茶詩에도 많은 영향을 끼쳤음을 서술하고자 한다. ‘茶馬貿易’ 부분에서는 唐代에 시작되어 宋代에 이르러서 규모가 확대된 茶馬貿易을 알아보고, ‘茶道の 變遷’에서는 茶道에 대한 정의와 宋代에 新生된 茶道들을 고찰한다.

이어서 ‘陸游 茶詩에 나타난 茶文化’ 부분에서는 茶事, 茶名, 花(果)茶 및 기타, 茶具 등으로 나누어 살펴보겠다. ‘茶事’ 부분에서는 煎茶, 點茶, 鬪茶, 分茶, 活水, 活火 등으로 나누어 살펴볼 것이다. ‘煎茶’에서는 唐에서 유행했던 煎茶가 陸游의 詩에도 자주 등장하기 때문에 煎茶가 宋代에도 여전히 유행했음을 이야기하고자 한다. ‘點茶’에서는 宋代에 유행했던 點茶에 대하여, 陸游의 詩와 《大觀茶論》을 중심으로 고찰한다. ‘鬪茶’ 부분에서는 陸游의 시에서 언급하고 있는, 즉 茶의 맛을 비교하고 겨루기도 하였던 鬪茶를 고찰한다. ‘分茶’에서는 宋代의 品飲技藝인 分茶에 대하여 여러 서적들을 예로 들며 살펴 볼 것이다. 그 외의 ‘活水’, ‘活火’ 부분에서는 당시 사람들이 차를 달일 때 어떤 종류의 불과 물을 선호했는지 살펴보겠다.

‘茶名’ 부분에서는 陸游 茶詩에 나타난 ‘貢茶’, ‘花(果)茶 및 기타’ 라는 조목으로 나누어 살펴보고자 한다. 현재 국내의 연구를 살펴보면, 宋代의 北苑茶나 顧渚茶, 蒙頂茶 정도만 연구되었고, 그 외의 茶는 거의 연구가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 그

리고 陸游의 詩에 나타난 여러 종류의 貢茶에 대한 연구는 찾아보기 힘들다. 그렇기 때문에 筆者는 이 부분에서 宋代의 貢茶였던 北苑茶, 日鑄茶, 壑源茶, 蒙頂茶, 顧渚茶 등을 우선 살펴보고, 뒷부분에서는 ‘花(果)茶 및 기타 茶’들을 고찰한다.

지금까지 우리나라에서는 宋代의 花(果)茶들에 대한 연구가 거의 없는 상황이다. 그래서 필자는 이 부분에서 陸游 茶詩에서 언급하고 있는 宋代의 독특한 花(果)茶 제작 방법과 飲茶방식을 고찰하고, 그 花(果)茶가 前後時代로 이어가며 어떻게 변화하는지 살펴볼 것이다.

‘茶具’ 부분에서는 陸游 茶詩에 나타난茶具인 兔毫盞, 風爐, 茶籠, 茶鑪, 磴, 碾 등을 고찰한다. 지금까지 국내외 연구를 보면, 陸游의 茶詩에 나타난茶具 研究는 찾아보기 어렵다. 그래서 筆者는 이 부분에서 陸游 茶詩에 나타난茶具의 形態와 그 쓰임을 고찰하고자 한다.

위와 같이 본 논문의 ‘陸游의 生涯와 創作 背景’에서는 陸游의 生涯를 간단히 들여다보고, 茶詩 創作 背景을 여섯 조목으로 나눠서 세세하게 고찰한다. ‘宋代 茶文化’ 부분에서는 宋代 以前의 茶文化를 간단히 살펴보고 이어서 宋代 茶文化들을 자세하게 고찰한다. ‘茶事’조목에서는 宋代 飲茶俗 및 活水, 活火 등을 살펴보고, ‘茶名’ 부분에서는 ‘貢茶’와 ‘花(果)茶 및 기타’로 나누어 宋代 名茶들을 고찰한다. ‘茶具’ 부분에서는 陸游 茶詩에 나타난茶具들을 통해 宋代茶具의 형태와 그 쓰임을 살펴볼 것이다.

이와 같이 陸游 茶詩를 통해 폭넓게 宋代 茶文化를 고찰하여, 陸游 茶詩 研究와 宋代 茶文化 研究에 一助 하고자한다.

## II. 陸游의 生涯와 創作 背景

### 1. 陸游의 生涯



陸游은 북송과 남송이 교차하는 시기인 徽宗 宣和 7년(1125)에 태어났다. 그가 태어난 이듬해에 북송의 도읍인 汴京은 金에 의해 함락되고, 1127년에는 南京에서 趙構가 高宗으로 즉위하면서 남송이 시작된다. 이와 같은 격변의 시기에 陸游은 아버지를 따라 3년간의 피난생활을 하다가 紹興 3年(1133), 陸游의 나이 9세 되던 해, 宋과 金 사이에 紹興和議가 이루어지자 陸游의 가족은 피난생활을 마치고 東陽에서 고향인 山陰으로 돌아와 정착하게 된다.<sup>1)</sup>

陸游의 조상은 대대로 높은 관직을 지냈고, 특히 부친인 陸宰는 애국심이 무척 강한 사람이었다. 시대적으로 어수선한 환경에서 애국지사들과 父親의 모습은 陸游에게 저항과 투쟁의식을 심어주었다. 陸游은 젊은 시절에 애국의 큰 뜻을 펼치기 위해 兵書와 검술에 관심을 가졌다.<sup>2)</sup> 애국심이 불타는 陸游은 18세 때, 曾幾에게서 시를 배운다. 그의 스승인 曾幾도 또한 主戰派의 인물로 애국사상을 가지고 있었으며, 이런 曾幾의 애국사상은 陸游에게 큰 영향을 주었다. 이와 같은 환경에서 자라난 陸游의 마음속에는 중원의 회복이라는 굳은 의지가 가득하였고, 陸游은 그런 생각들을 그의 시 속에 거침없이 담아내었다. 그리고 그는 또 曾幾에게서 江西詩派의 詩 이론을 익혔다. 그 영향으로 初期 陸游의 시는 표현의 기교와 字句의 단련 및 형식미의 추구에 치중하는 江西詩風의 詩를 쓰게 된다.<sup>3)</sup>

그 후 紹興 14년(1144) 陸游의 나이 20세 때 唐琬과 결혼한다. 陸游은 부부의 정이 매우 돈독했으나 陸游의 어머니는 며느리를 늘 못 마땅하게 여겼다. 이런 어머니의 핍박 때문에 陸游은 어쩔 수 없이 결혼하고 3년이 채 지나기도 전에 부인과 뼈아픈 이별을 하게 된다. 그 후 陸游은 31세 때 沈園에 갔다가 우연히 전 부인을 만나게 되는데, 그때 애뜻하고 비통한 마음을 <釵頭鳳><sup>4)</sup>詞로 읊었다.

紅酥手 불그래하고 매끄러운 손

黃藤酒 황등주

滿城春色宮牆柳 온 성에는 봄빛이 가득하고 궁궐 담장에는 버들이 흔들리는데

東風惡 동풍은 심하고

1) 鄒志方, 《陸游研究》, 人民出版社, 北京, 2008, 389쪽 참조. 주기평, 앞의 책, 44쪽 참조.

2) 嚴修, 앞의 책, 7쪽 참조.

3) 주기평, 앞의 책, 46쪽 참조.

4) 錢仲聯, 앞의 책, 권8, 335쪽.

歡情薄 기쁜 정은 얇어지네  
 一懷愁緒 가슴에는 온통 근심  
 幾年離索 몇 년이나 이별하고 찾았던가  
 錯錯錯 잘못됐어 잘못됐어 잘못됐어  
 春如舊 봄은 옛날과 같으나  
 人空瘦 사람은 공연히 여위어 버렸네  
 淚痕紅溫鮫綃透 눈물자국 앓은 옷감을 붉게 적시는데  
 桃花落 복사꽃은 떨어지고  
 閑池閣 언뜻 누각은 한가롭네  
 山盟雖在 산에 두고 한 맹세는 비록 있으나  
 錦書難托 비단편지 부치기 어렵구나  
 莫莫莫 아서라 아서라 아서라

이 詞에서는 곱디고운 唐琬의 모습에 대한 회상과 몇 년의 세월동안 야위어 버린 아내의 모습을 노래하며, 어머니 때문에 어쩔 수 없이 헤어져야만 했던 아내에 대한 陸游의 애뜻하고 깊은 情을 잘 나타내고 있다. 첫 결혼의 실패와 함께 그의 첫 벼슬길도 그리 순탄하지 않았다. 陸游는 紹興 23년(1153) 그의 나이 29세 때 臨安에서 省試에 참가하여 합격한다. 그러나 2차 시험인 殿試에서는 秦檜의 농간으로 낙방하는 뼈아픈 경험을 하게 된다. 이처럼 陸游의 청년 시기는 애정 상에서도 불행했고, 벼슬길에서도 좌절을 맛 봐야만 했다.

紹興 25년(1155), 그의 나이 31세 때는 茶詩 創作이 시작되는 시기이다. 이 시기에 창작된 茶詩로는 <寄酬曾學士學宛陵先生體比得書雲所寓廣教僧舍有陸子泉每對之輒奉懷><sup>5)</sup>가 있다. 그리고 2년 뒤인 紹興 27년에도 山陰에서 <送陳德邵宮教赴行在二十韻><sup>6)</sup>과 <酬妙湛閣梨見贈妙湛能棋其師璘公盖嘗與先君游云> 등을 창작한다. 이렇게 시작된 茶詩 創作은 평생토록 꾸준히 이어갔으며, 이런 茶詩들은 宋代 茶文化를 한눈에 들여다 볼 수 있게 해준다.

陸游는 紹興 28년(1158)년 그의 나이 34세 때 福州寧德縣主簿라는 관직에 처음으로 발을 들여 놓게 된다. 그리고 紹興 31년(1161), 그의 나이 37세 때는 수도 臨安에서 관직 생활을 한다. 이때 그는 정치의 폐해를 지적하며 자신의 견해를

5) 錢仲聯, 앞의 책, 권1, 11쪽.

6) 錢仲聯, 위의 책, 권1, 20쪽.



적극적으로 피력하다가 파면되어 고향으로 돌아온다.

紹興 32년(1162)에는 효종이 즉위하면서 主戰派들을 기용한다. 이때 陸游는 다시 樞密院編修兼太上皇帝聖政所檢討官으로 임명이 된다. 이때 그는 중원의 수복을 제안하며, 張浚의 북벌군을 지지하였다. 그러나 張浚의 북벌군은 金軍에 패하게 되고, 이에 남송은 金과 굴욕적인 화약을 맺게 된다. 陸游도 이때 좌천되었다가 乾道 2년(1166) 그의 나이 42세 때 張浚의 용병을 역설한다는 죄목으로 면직되어 고향에서 4년간 지내게 된다. 이 시기에 그가 쓴 <霜風>7)을 아래에서 살펴보기로 하겠다.

十月霜風吼屋邊 시월 서릿바람은 집 주위에서 소리 내어 우는데  
布裘未辦一絺綿 배 갓옷에는 한 줌의 솜도 마련하지 못했네  
豈惟饑索鄰僧米 어찌 굶주린다고 이웃 스님께 쌀만을 구하리  
眞是寒無坐客氈 진정 추위도 손님께 내어 놓을 방식조차 없다네  
身老嘯歌悲永夜 늙은 몸으로 노래 읊조리며 긴 밤을 슬퍼하나니  
家貧撐拄過兪年 집은 가난하지만 지탱하며 흉년을 넘을 수밖에  
丈夫經此寧非福 장부가 이런 일을 겪음은 어찌 복이 아니리  
破涕燈前一粲然 눈물을 거두고 등 앞에서 한번 미소를 지어 보네

이 시는 乾道 3년 (1167) 그의 나이 43세 때 쓴 시이다.8) 이 시에서 그는 고향에서의 궁핍한 생활을 읊으며, 가난은 슬프지만 견디어 낼 수밖에 없음을 말하고 있다. 그리고 그는 그런 생활에서도 비관하지 않고 낙관적인 태도를 취하며 미소를 짓는 여유를 보여주고 있다.

陸游는 고향에서 4년을 지낸 뒤, 乾道 6년(1170) 그의 나이 46세 때 夔州通判으로 임명된다. 夔州에서 3년의 임기가 끝나자 四川宣撫使인 王炎의 부름을 받고 幕府에서 幹辦公事를 맡게 된다. 이 시기에 陸游는 王炎에게 진취적인 책략을 제안했고, 王炎이 적극적으로 진행하는 北伐의 계획에 협조를 하였다. 그러나 王炎은 臨安으로 소환되고, 陸游의 북벌의 뜻은 좌절되고 만다. 王炎의 부름을 받은 시기에 陸游는 아래의 <歸次漢中境上>9)을 썼다.

7) 錢仲聯, 앞의 책, 권1, 86쪽.

8) 위의 주)와 같음.

9) 錢仲聯, 위의 책, 권1, 197쪽.

遺虜孱孱寧遠略 남은 오랑캐들 쇠잔하여 어찌 원대한 계략이 있으랴만  
孤臣耿耿獨私憂 외롭고 충직한 신하 홀로 걱정 한다네  
良時恐作他年恨 좋은 시기가 언젠가는 한이 될 터인데  
大散關頭又一秋 대산관 위로 또 한 해가 지나가네

이 시는 乾道 8년(1172)년 그의 나이 48세 때 쓴 시이다.<sup>10)</sup> 이 시에서는 중원 회복의 자신감은 있지만 실행할 수 없는 현실을 안타까워하는 마음을 표현하고 있다.

王炎이 臨安으로 소환된 후에 陸游는 成都府安撫司參議官을 역임한다. 그 뒤로 1173~1174년에는 蜀州, 嘉州, 榮州 등지에서 지방관을 역임하고, 淳熙 2年(1175) 그의 나이 51세 때는 成都에서 成都府路安撫司參議官兼四川制置司參議官을 지낸다. 當時 그는 范成大的 요청으로 參議官을 역임하는데, 陸游와 范成大는 서로 詩文을 주고받으며 격식에 억매이지 않는 교유를 한다. 이런 모습들은 동료들의 비방을 야기하게 된다. 그리고 陸游는 북벌에 대한 좌절감으로 술집에 자주 드나들며 마음의 근심을 달랜다. 이런 陸游의 생활을 본 臣僚들은 그를 ‘燕飲頽放’하다는 이유를 내세워 탄핵한다. 이 때문에 陸游는 淳熙 3年(1176)에 또 면직을 당하게 된다. 이렇게 면직을 당한 陸游는 자기 자신의 號을 ‘放翁’이라고 지어서 불렀다.

그 이후, 淳熙 5年(1178) 그의 나이 54세 때부터는 川陝地區에서 9년을 생활한다. 그 시기인 淳熙 5年(1178)에는 建安에서 提舉福建常平茶鹽公事를 역임했고, 淳熙 6年(1179)에는 撫州에서 提舉江南西路常平茶鹽公事를 역임한다. 그는 이 때 두 지역에서 茶를 관리하는 업무를 담당한다. 그 시기에 그가 쌓은 茶에 대한 경험과 지식은 그의 茶詩에 반영되어 나타나고 있다.

淳熙 7년에는 江西에 수해가 발생하여 撫州일대에 큰 피해를 입게 된다. 이에 陸游는 즉시 義倉을 열어 수재민을 救恤한다. 이런 일이 조정에 알려지자, 조정의 명령을 기다리지 않고 ‘마음대로 권력을 행사했다.’는 죄명으로 陸游는 또 파면된다. 이것이 네 번째 파면이다. 여기서 그의 시 <早行><sup>11)</sup>을 살펴보기로 하겠다.

10) 錢仲聯, 앞의 책, 권1, 197쪽. 鄒志方, 앞의 책, 392쪽.

11) 錢仲聯, 위의 책, 권2, 369쪽.

다.

江路迢迢馬首東 강변의 길은 말 머리 동쪽으로 아득하고  
臨川一夢又成空 임천에서의 한바탕 꿈은 또 헛될 뿐이구나(중략)  
山市人經飢饉后 산과 저자의 사람들이 기근을 겪은 후에  
孤生身老道途中 외롭게 살아가는 이 몸은 도중에서 늙어 가네

이 시는 淳熙 7年(1180) 그의 나이 56세 때 撫州에서 쓴 시이다.<sup>12)</sup> 이 시에서 는 백성들을 위한 일이 죄가 되는 현실을 직접 체험하고, 거기에서 느끼는 처량한 작자의 심경을 노래하고 있다.

과면 당하고 고향으로 돌아온 陸游는 6년 동안 산음에서 머물다가 淳熙 13년(1186)년에 嚴州知事로 가게 된다. 嚴州 지역의 땅은 척박하고 백성들은 가난하였다. 陸游는 그곳의 사람들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기 위해 ‘勸農’을 가장 중요한 임무로 삼았다. 그리고 그는 그곳에서 소박하게 생활을 하면서 주야로 백성들을 위하여 애썼으며, 빈곤한 이 지역의 백성들을 위하여 조세를 감면해 줄 것을 조정에 건의하기도 하였다.

1188년에 嚴州에서 임기를 마친 陸游는 臨安에서 軍器少監의 직무를 맡아 보았다. 그 다음해에는 禮部郎中兼實錄院檢討官을 역임하였으며, 修撰國史의 일에도 참여를 하였다. 이때 陸游는 光宗 趙惇에게 군대를 가다듬어 전쟁을 준비하고 중원을 되찾기 위해 항전할 것을 건의한다. 그러나 主和派들에게 시기를 받게 되고, 마침내 諫議大夫 何澹에 의해 “吟詠專嘲風月(시문을 읊으며 풍월을 오로지 조롱한다.)”라는 죄명으로 탄핵을 받고 관직에서 과면을 당하게 된다.

그 후, 紹熙 元年(1190) 그의 나이 66세 때 고향으로 돌아와 書室의 명을 ‘風月’로 삼아 ‘風月軒’이라고 칭했는데, 이는 주화파들에 대한 불만과 항쟁의 뜻을 나타낸 것이다. 이때 고향에서 지내면서 1년 동안은 臨安에서 《孝宗實錄》, 《光宗實錄》의 편찬을 맡아서 했다. 陸游는 이후 죽을 때까지 20여 년간 고향에서 지낸다. 그는 晩年에 고향에서 직접 농사일을 하였으며, 농민들과 매우 깊은 감정의 교류를 하였다. 陸游는 농민들의 생활에 관심을 가졌고 그들의 고달픈 생활

12) 錢仲聯, 앞의 책, 권2, 369쪽. 鄒志方, 앞의 책, 394쪽.

을 同情하였다. 그리고 그는 통치 계급의 잔혹한 억압에 대하여 詩로 거침없이 폭로하기도 하였다. 그리고 陸游는 만년에 고향에서 생활하면서 전원생활에서 느끼는 한가로운 마음을 시로 표현해 내기도 하였다. 그의 <看花><sup>13)</sup>를 보면 다음과 같이 읊고 있다.

好樹典衣買 옷을 잡혀 좋은 나무 사와  
 新花扶杖看 새로 핀 꽃을 지팡이 짚고서 보네  
 村醪雜清濁 마을의 술은 맑고 탁한 것이 섞여 있고  
 山果半甘酸 산의 열매는 반은 달고 반은 시네  
 家事貧尤簡 집안일이야 가난하여 더욱 간소하지만  
 詩情老未闌 시정은 늙어도 아직 다함이 없네  
 鷓鴣閑似我 물새도 나와 같이 한가로워  
 日暮立清灘 저물녘 맑은 여울에 서 있구나

이 시는 慶元 2년(1196) 그의 나이 72세, 봄에 산음에서 쓴 시이다.<sup>14)</sup> 이 시의 首聯에서는 옷을 저당 잡혀 사다가 심은 나무에 핀 꽃을 지팡이 짚고 감상하는 시인의 모습을 나타내고 있다. 頷聯은 마을의 맑고 탁한 술과 산열매를 표현하면서 시골의 정취를 한껏 나타내고 있다. 頸聯은 살아가는 살림이야 궁핍하지만 시에 대한 정감은 나이가 들어도 늘 변함이 없음을 이야기 하고 있다. 尾聯에서는 물새가 한가롭다고 표현하고 있는데, 이는 작자의 마음이 한없이 한가롭기 때문에 눈에 비치는 정경들이 한가롭게 받아들여지고 있는 것이다.

위의 시보다 4년 뒤인 慶原 6년(1220년)에는 산음에서 <新泉絕句><sup>15)</sup>를 창작한다.

澗泉可瀹茗 샘물을 부어 차를 끓일 수 있고  
 就泉可洗藥 샘물에 가서 약초도 씻을 수 있네  
 楚人曾未知 초나라 사람은 일찍이 알지 못했으니  
 但謂纓可濯 단지 갓끈을 씻을 수 있다고 말했네

13) 錢仲聯, 앞의 책, 권4, 367쪽.  
 14) 錢仲聯, 위의 책, 권4, 367쪽. 鄒志方, 앞의 책, 396쪽.  
 15) 錢仲聯, 위의 책, 권5, 303쪽.

이 시에서는 샘물로 茶를 끓일 수도 있고 약초도 씻을 수 있는데, 楚나라 사람은 알지 못하고 단지 갓끈을 씻었음을 얘기 하고 있다. 이 詩는 楚나라 시인 屈原의 <漁父辭><sup>16)</sup>에 나오는 “滄浪之水清兮，可以濯吾纓，滄浪之水濁兮，可以濯吾足 (창랑의 물이 맑으면 나의 갓끈을 씻을 수 있고, 창랑의 물이 흐리면 나의 발을 씻을 수 있다.)”라는 典故를 이용하고 있다. 陸游는 이 시기에 전원생활을 하면서 마음은 한가로웠지만, 경제적으로는 빈곤을 면하지 못했다. 그의 <貧甚戲作絕句><sup>17)</sup>를 보면 다음과 같은 내용을 볼 수 있다.

糴米歸遲午未炊 쌀 사러간 사람은 돌아오지 않으니 낮이 되어도 밥은 아직 짓지 못하고  
家人竊閔乃翁飢 집안사람들은 이 늙은이 굶주릴세라 은근히 걱정하네

이 시는 開禧 元年(1205년) 가을, 그의 나이 81세 때 산음에서 지은 詩이다.<sup>18)</sup> 이 詩를 보면 밥을 지을 쌀이 없을 정도로 심한 가난을 겪고 있는 작자의 모습을 있는 그대로 그리고 있다. 陸游는 이런 궁핍한 생활 속에서도 시의 창작을 꾸준히 하였다. 특히 그는 晩年에 茶詩를 많이 창작했는데, 開禧 2年 겨울에는 산음에서 <啜茶示儿輩><sup>19)</sup>를 읊고 있다.

圍坐團欒且勿嘩 단락하고 조용하게 둘러 앉아  
飯餘共舉此甌茶 식후에 함께 차를 마시네

이 詩에서는 老年에 가족들과 단락하게 茶를 마시는 작가의 모습을 엿볼 수 있다.

開禧 元年(1205년)초에는 陸游의 長子인 子虞가 그의 시를 모아 《劍南詩續稿》 40권을 편찬하였고, 開禧 2년에는 그의 막내아들인 子遜이 《劍南詩續稿》 48권을 편찬하였다.<sup>20)</sup> 여기서 지금까지 전해지는 陸游의 시를 살펴보겠다.

16) 기세춘, 신영복, 《中國歷代詩歌選集》, 돌베개, 1994년, 348쪽.  
17) 錢仲聯, 앞의 책, 권7, 9쪽.  
18) 錢仲聯, 위의 책, 권7, 9쪽. 鄒志方, 앞의책, 397쪽.  
19) 錢仲聯, 위의 책, 권7, 249쪽.  
20) 주기평, 앞의 책, 59쪽 참조.

《劍南詩稿》, 85卷, 6633題, 9144首  
《放翁逸稿》, 毛普輯, 23題, 43首  
《逸稿續添》, 毛辰輯, 17題, 20首  
《逸稿補遺》, 錢仲聯輯, 14題, 32首

위의 수량을 모두 합해보면 陸游의 현존하는 시는 모두 6687題, 9239首이다.<sup>21)</sup> 이처럼 많은 詩를 남긴 陸游는 노년의 궁핍한 생활에서도 나라를 걱정하는 마음은 식을 줄을 몰랐다. 그런 그는 임종하기 직전에 아들에게 유언으로 아래의 <示兒><sup>22)</sup>를 남겼다.

死去元知萬事空 죽고 나면 만사가 헛됨을 이미 알고 있었지만  
但悲不見九州同 다만 구주가 하나 됨을 보지 못함이 슬프구나  
王師北定中原日 왕의 군대가 북벌하여 중원을 평정하는 날  
家祭無忘告乃翁 집에서 제사를 지낼 때면 잊지 말고 네 아비에게 아뢰어라

이 詩는 嘉定 2년(1209) 12월, 陸游의 나이 85세 때 산음에서 쓴 시이다.<sup>23)</sup> 이 시에서는 중원의 회복을 보지 못하고 죽음을 맞이하게 되는 한스러운 작자의 마음을 담고 있으며, 죽어서라도 중원 회복의 소식을 듣고 싶어 하는 陸游의 간절한 소망을 엿볼 수 있다. 陸游는 이처럼 평생 동안 憂國忠情의 마음을 버리지 않았기 때문에 지금까지도 중국 최고의 애국시인으로 추앙을 받고 있는 것이라고 할 수 있다. 陸游는 그가 바라던 중원수복을 보지 못한 채 嘉定 2년(1209), 85세의 나이로 세상을 떠난다.<sup>24)</sup>

## 2. 陸游 茶詩 概括

21) 嚴修, 앞의 책, 53쪽 참조.

22) 錢仲聯, 앞의 책, 권8, 286쪽.

23) 錢仲聯, 위의 책, 권8, 286쪽. 鄒志方, 앞의 책, 398쪽.

24) 주기평, 앞의 책, 37~59쪽 참조. 嚴修, 앞의 책, 1~32쪽 참조. 鄒志方, 위의 책, 388~398쪽 참조.

陸游은 南宋에서 茶를 즐기며 茶道를 詩로 담아낸 최고의 시인으로, 그는 중국의 역대 시인들 중에서 가장 많은 茶詩를 창작했다. 그가 평생 創作한 茶詩는 360여 首에 달한다. 그 중에 250여 首는 晩期(66~85세)에 고향에서 創作한 것들이다. 이것으로 보면 그의 茶詩는 晩期에 집중적으로 창작되었음을 볼 수 있다.

陸游의 茶詩에는 五言詩도 있지만 七言詩가 훨씬 많이 등장 한다. 이 七言詩들 중에는 絶句와 排律 형식들도 간혹 보이지만 대부분은 七言律詩의 형식을 갖추고 있다. 七言律詩의 구성을 보면 韻字의 이용과 對句의 구성이 아주 노련하게 運用이 되고 있음을 볼 수 있다. 그는 한정된 律格이라는 틀 안에서 自由自在로 자신의 생각을 표현해 나감으로서 독자들에게 詩의 大家의 風貌를 느끼게 한다.

그리고 그의 茶詩에서는 茶事, 貢茶, 花(果)茶, 茶具 등과 같은 내용들이 풍부하게 들어 있어서 宋代의 茶文化를 한 눈에 들여다 볼 수 있다.

陸游의 茶詩에 나타난 茶事에서 특징적인 것은 煎茶이다. 中國과 우리나라의 茶書들은 대부분 煎茶法에 대해서 唐代에 유행했던 飲茶俗으로 분류하고 있다. 그러나 陸游의 茶詩를 살펴보면, 多數의 煎茶와 관련된 詩가 등장한다. 이것으로 보면 宋代에는 點茶法이 유행했다고 하지만, 陸游와 같은 시대에 사람들은 여전히 煎茶를 즐겼다는 것을 알 수 있다.

陸游의 茶詩에 나타난 내용 중에 또 다른 특징적인 내용은 點茶와 分茶이다. 點茶와 分茶는 宋代에 유행했던 飲茶法으로, 點茶는 末茶를 蠶속에 넣고 湯水를 부어 茶筴으로 擊拂하며 茶에 거품을 내어 마시는 방법으로 宋代에 성행했던 飲茶法이다. 그리고 分茶는 飲茶技藝의 향상으로 茶로써 흥취를 돋우는 茶藝 활동으로 宋代에 성행하였다. 分茶는 茶湯위에 그림, 文字, 禽獸, 꽃 등의 다양한 物像을 그려내는 茶藝로 이전 시대에서는 찾아 볼 수 없는 宋代의 독특한 飲茶俗이다. 그리고 陸游의 茶詩에는 茶의 맛을 비교하고 겨루기도 하는 鬪茶도 등장한다. 陸游의 茶詩에서는 이런 宋代의 독특한 飲茶俗들이 자주 등장하고 있어서 宋代 사람들의 독특한 茶文化를 한 눈에 들여다 볼 수 있다.

위에서 살펴본 내용 외에 陸游 茶詩에서는 여러 지역의 貢茶가 등장한다. 宋代에는 北苑의 御茶園에서 研膏茶를 만들었고, 그 研膏茶에 龍과 鳳모양의 금무늬를 새겨서 龍鳳團茶를 만들었다. 이는 이전 시기에서는 볼 수 없는 宋代 貢茶의 특징이다. 이외에도 以前 時代에서는 볼 수 없었던 日鑄茶, 壑源茶 등과 같은 貢



茶들이 陸游의 茶詩에 등장한다. 日鑄茶는 北宋 때 이름이 드러났고, 南宋에 들어와서 貢納하였다. 그리고 壑源茶는 北苑과 더불어 正焙라 칭해질 정도로 품질이 아주 뛰어난 名茶로 宋代에 들어와서 貢茶했던 茶이다. 이처럼 陸游 茶詩에서는 宋代의 貢茶들을 자주 언급하고 있어서 宋代 貢茶 연구에 많은 도움이 되고 있다.

그의 茶詩에서는 宋代의 독특한 飲茶俗을 들여다볼 수 있는 花(果)茶도 등장한다. 宋代에는 甘菊으로 茶의 쓴맛을 제거하며 차의 맛을 돕게 했다. 그리고 菊花의 짙은 茶 대신 이용했는데, 陸游의 시에서는 이런 독특한 飲茶俗을 가지고 있는 菊花茶가 등장하고 있다. 그리고 약을 물리친다는 의미를 가지고 있으며, 瘴氣로 인해 나타나는 지방병을 물리치기 위하여 마셨던 茱萸茶도 그의 茶詩에서 찾아 볼 수 있다. 이 외에, 샘물에 梅花를 담가 두었다가 차를 달여 마시는 宋代의 독특한 梅花茶 달이는 법도 그의 詩에 등장하고 있다. 이런 梅花茶는 다른 시인의 詩에서는 찾아보기 힘든 내용이기 때문에 陸游 茶詩의 가치는 아주 크다고 할 수 있다. 위에서 언급한 花(果)茶 외에, 橄欖茶와 薑茶도 등장하고 있다. 이처럼 陸游 茶詩에서는 宋代 여러 종류의 花(果)茶 製造 방법과 飲茶俗을 들여다 볼 수 있다.

위에서 살펴본 花(果)茶 외에 陸游 茶詩에서는 여러 지역의 名茶들을 자주 읊고 있다. 예를 들자면, 建安 北苑 지역의 北苑茶, 越洲 會稽縣 東南의 日鑄嶺에서 생산되는 日鑄茶, 壑源 지역에서 나는 壑源茶, 四川 邛崃山脈 중의 蒙山에서 생산되는 蒙頂茶, 長興縣의 顧渚山에서 생산되는 顧渚茶, 興國軍의 남쪽 桃花寺의 샘물을 이용하여 만든 桃花茶, 陸游의 고향에서 생산되는 丁坑茶와 花塢茶 그리고 建昌에 있는 雲居山에서 생산되는 명차인 安樂茶 등이다. 이처럼 陸游는 여러 지역의 名茶들을 골고루 詩로 읊고 있어서 宋代 名茶들을 한눈에 들여다 볼 수 있다.

陸游의 詩에서 찾아 볼 수 있는 또 다른 특징은 《茶經》을 쓴 陸羽를 자주 언급하고 있다는 것이다. 陸游는 陸羽를 자신의 조상이라고 여겼고, 그를 자랑스럽게 여기면서 자신을 陸羽와 동일시하는 모습도 살펴 볼 수 있다. 그리고 그는 《茶經》을 항상 손에 들고 다니면서 탐독하여 茶에 대한 지식을 넓혔고, 그 지식들을 茶詩 속에 고스란히 담아내었다.



이런 陸游의 茶詩에는 茶에 대한 독특한 표현들이 들어 있다. 그는 찻물이 끓는 소리를 松鳴, 松聲, 松風 등으로 묘사하고 있고, 물이 끓는 모습은 蟹眼이라고 표현하고 있다. 그리고 맷돌에서 갈아져 내려오는 茶를 雪, 雪花, 細珠로 표현하고 있으며, 찻잔에 떠다니는 茶의 거품을 乳, 細乳, 雪花乳 등으로 표현하고 있고, 茶를 玉塵, 玉色塵으로 표현하고 있음을 볼 수 있다. 이런 표현들은 그의 茶詩에 高雅한 風味를 더해주고 있다.

宋代에는 사람들이 茶館에서는 交遊도 하고, 서로 정보도 교환했으며, 오락프로그램과 축구 등도 즐길 수 있었다. 陸游의 茶詩에서도 茶館 읊고 있는데, 특이한 점은 군대 진영 부근에 있는 茶館을 언급하고 있다는 것이다. 이런 茶館은 다른 茶書에서는 찾아보기 힘든 내용으로 宋代 茶館의 연구에 귀한 자료가 되고 있다.

陸游는 蔡襄, 蘇軾과 더불어 宋代 3대 茶人으로 꼽힌다. 그런 그는 《茶經》 탐독하며 茶에 대한 전문 지식을 익혔고, 그 지식들을 茶詩 속에 고스란히 담아내고 있다. 그리고 그는 宋代 茶書의 내용들도 茶詩에 반영하여 나타내고 있다. 예를 들자면 北宋 徽宗皇帝의 《大觀茶論》에서 언급하고 있는 點茶와 兔毫盞에 관한 내용들이 陸游의 茶詩에서 자주 등장한다는 것이다. 그리고 그의 茶詩에서는 《茶錄》을 쓴 蔡襄을 직접 언급하고 있으며, 《茶錄》속에 실려 있는 碾茶, 點茶, 茶籠, 茶碾 등에 관한 내용들도 詩로 자주 읊고 있다. 그리고 陸游는 茶官의 경험까지 가지고 있기 때문에 茶에 대한 전문가라고 할 수 있다. 그러므로 그의 茶詩는 宋代 茶文化 研究에 큰 도움이 되는 權威있는 자료라고 할 수 있다.

### 3. 茶詩 創作 背景

宋代는 茶文化의 繁榮期로 도시가 발달하고, 상업 활동이 활기를 띠면서 도시 인구가 급증했는데, 이에 발 맞춰 茶의 수요 또한 증가하였다. 그리고 이 시기에는 貢茶制度가 구체적으로 시행되었으며, 茶馬貿易도 성행했다. 그리고 飲茶 생

활의 보편화 등으로 茶館까지 성행하게 되는데, 茶館은 문인들이 모여 詩를 짓기도 하고 벗들과 교류하는 문화의 공간으로도 이용되었다.

이 시대는 茶文化의 흥성에 따라 茶學에 관련된 서적들도 많이 편찬되었고 鬪茶, 分茶와 같은 풍습이 성행하는 등, 茶文化의 번영기였다. 이와 같은 사회의 분위기 속에서 여러 문인들의 茶詩 창작도 이어지게 되고, 陸游 또한 많은 茶詩를 남기게 된다. 陸游茶詩의 創作 배경은 ‘山陰出身’, ‘陸羽仰慕’, ‘官職生活’, ‘憂國精神’, ‘田園生活’, ‘文學的 傾向’ 등, 여러 가지 측면에서 살펴볼 수 있다.

### 1) 山陰出身

陸游는 北宋과 南宋이 교차하는 격변기에 태어났고, 越州 山陰縣 사람이다. 山陰은 名茶가 생산되는 곳으로, 唐代 陸羽가 쓴 《茶經》의 八之出 조목에 “浙東以越州上 (절동에서는 월주에서 나는 차가 최상이다.)”라고 기록할 정도로 唐代부터 越州는 名茶의 산지로 알려졌다. 茶의 產地로 유명한 이 곳은 茶 市場이 열릴 정도로 차 산업이 흥성했던 곳이다. 아래의 陸游의 <蘭亭<sup>25)</sup>道上><sup>26)</sup>을 보면 그 당시 山陰의 모습을 들여다 볼 수 있다.

蘭亭步口水如天 난정의 어귀를 걷는데 물이 하늘과 같이 푸르고  
茶市紛紛趁雨前 비 내리기 전에 차시가 분분하네  
烏笠遊僧雲際去 샷갓 쓴 客僧은 구름 가로 떠나가고  
白衣醉叟道傍眠 하얀 옷의 취한 늙은이 길가에서 잠을 자네

이 詩는 嘉定 2년(1209) 봄, 그의 나이 85세 때 산음에서 쓴 詩이다.<sup>27)</sup> 이 詩의 첫 句는 陸游의 고향에 있는 蘭渚의 물이 푸름을 노래하고 있다. 2句에서는 이 고장에서 茶市가 분분하게 열리고 있는 모습을 읊고 있다. 그리고 3, 4句는 시야에 들어오는 한가로운 모습들을 읊고 있다. 이 詩를 보면 陸游의 고향에서는 茶

25) 錢仲聯, 앞의 책, 권1, 294쪽. 《嘉泰會稽志》 “山陰縣, 蘭渚, 在縣西二十五里, 舊經雲, ‘山陰縣西蘭渚有亭, 王右軍所置, 曲水賦詩作序於此’ 王羲之<蘭亭集序>, “會於會稽山陰之蘭亭 (산음현의 蘭渚는 縣의 서쪽 25리에 있다. 옛 경서에 말하기를 ‘산음현의 蘭渚에 정자가 있는데 왕희지가 설치했다. 이곳의 흐르는 물에서 시를 짓고 서를 썼다.’ 王羲之의 <蘭亭集序>에 “회계군 산음현의 난정에 모여)”.

26) 錢仲聯, 위의 책, 권8, 165쪽.

27) 위의 주)와 같음. 鄒志方, 앞의 책, 398쪽.

市가 열릴 정도로 차 산업이 盛했음을 알 수 있다. 그리고 그의 <湖上作><sup>28)</sup>에서도 “蘭亭之北是茶市 (난정의 북쪽은 차시이고)”라고 읊고 있는데 이 詩에서는 陸游의 고향 山陰에 있는 蘭亭의 북쪽에 茶 시장이 있음을 밝히고 있다. 이 외에 <倚杖><sup>29)</sup>에서도 그 고장의 모습을 살펴 볼 수 있다.

倚杖柴門外 싸리문 밖에서 지팡이 의지해  
 踟躕到日斜 해가 질 때 까지 머뭇거리네  
 兒童拾筍籜 아이들은 죽순을 줍고  
 婦女賣茶芽 부녀자들은 차 싹을 파네  
 掠岸過漁艇 언덕을 지나가니 작은 배 떠가는 모습 보이고  
 隔離聞緯車 울타리 너머 길에서는 수레소리 들리네  
 年來詩料別 근래에는 시 소재가 달라져  
 滿眼是桑麻 눈에는 뽕나무와 삼이 가득하네

이 詩는 慶元 元年(1195) 여름, 그의 나이 71세 때 山陰에서 쓴 詩이다.<sup>30)</sup> 이 시의 首聯은 노년에 고향 山陰에서 한가하게 지내는 자신의 모습을 읊고 있다. 頷聯은 시야를 먼 곳으로 돌려서, 아이들이 죽순을 줍고 부녀자들이 차싹을 파는 모습을 읊고 있다. 그리고 頸聯에서도 頷聯과 마찬가지로 눈으로 들어오는 모습을 읊고 있다. 그리고 尾聯은 근래에는 詩의 소재가 달라져서, 뽕나무와 삼에 관심이 있음을 말하고 있다. 이 詩에서는 山陰 지역의 부녀자들이 茶를 파는 모습을 언급하고 있어서, 그 당시 山陰의 부녀자들의 모습을 엿볼 수 있다. 위에서 살펴본 詩 외에, 그가 紹熙 5년 산음에서 쓴 <幽居><sup>31)</sup>에서는 시골 여자들이 茶를 파는 모습을 읊고 있고, 淳熙 13년 봄과 여름 사이에 山陰에서 쓴 <小憩村舍><sup>32)</sup>에서도 아이들이 茶를 따는 모습을 노래하고 있다. 陸游는 여기서 筆者가 제시한 詩 외에도 고향 山陰에서 많은 茶詩를 창작했다.

위의 자료들을 보면, 陸游의 고향 山陰은 유명한 茶 產地로 茶 산업이 興盛했

28) 錢仲聯, 앞의 책, 권5, 227쪽.

29) 錢仲聯, 위의 책, 권4, 294쪽.

30) 위의 주)와 같음. 鄒志方, 앞의 책, 396쪽.

31) 錢仲聯, 위의 책, 권4, 244쪽. <幽居> “園丁刈霜稻, 村女賣秋茶 (동산의 장정들은 서리 맞은 벼를 베고, 시골 여자들은 가을 차를 파네)”.

32) 錢仲聯, 위의 책, 권3, 156쪽. <小憩村舍> “群童摘晚茶 (무리를 이룬 아이들은 늦은 차를 따네)”.

다. 이런 환경에서 생활한 陸游는 보고 듣고 경험한 것들을 茶詩 속에 고스란히 담아내었다.

## 2) 陸羽仰慕

陸游는 陸羽를 仰慕하여 《茶經》을 손에 항상 들고 다녔고, 그 책을 耽讀하여 茶道를 익혔으며, 茶에 대한 전문 지식을 넓혀 갔다. 아래에서 그의 <戲書燕幾><sup>33)</sup>를 먼저 살펴보기로 하겠다.

平生萬事付天公 평생 만사는 하늘에 맡기고  
白首山林不厭窮 흰머리로 산림에서 가난함을 싫어하지 않네  
一枕鳥聲殘夢裏 덜 깬 잠, 베개 머리 가득 새소리 들리니  
半窗花影獨吟中 반쯤 열린 창외 꽃 그림자 혼자 읊는 중이라  
柴荆日晚猶深閉 사립문은 날이 저물도록 여전히 깊게 닫혀있고  
煙火年來只僅通 인가와는 요즘 들어 다만 근근이 통할뿐이네  
水晶<sup>34)</sup>茶經常在手 수품과 다경은 항상 손에 있으니  
前身疑是竟陵翁 전신은 필경 육우인 듯하네

이 詩는 開禧 3년(1207) 여름, 그가 생을 마감하기 3년전 인, 그의 나이 83세 때 산음에서 쓴 詩이다.<sup>35)</sup> 이 詩의 首聯은 관직 생활에서 물러나 고향에서 한적하게 지내는 시인의 모습을 읊고 있다. 頷聯에서는 잠을 자다 일어나 반쯤 열린 창으로 내다보이는 광경을 읊고 있는 시인의 모습을 볼 수 있다. 그리고 이 聯은 “一枕-半窗, 鳥聲-花影, 殘夢-獨吟 裏-中”으로 對句를 이루고 있다. 頸聯은 작가가 고향 산음에서 한적 생활을 하며, 단지 이웃들과 근근이 왕래를 할 뿐, 다른 곳과는 왕래가 없음을 말하고 있다. 그리고 尾聯은 《茶經》을 항상 들고 다니는 자신의 모습을 읊고 있다. 그는 여기에서 “前身疑是竟陵翁 (전신은 필경 육우인 듯하네.)”라고 읊으며, 작자 자신을 唐代 《茶經》을 쓴 陸羽와 동일시하는 작가의 모습을 살펴볼 수 있다. 아래에서 그의 <村舍雜書><sup>36)</sup>를 한 편 더 살펴보기로

33) 錢仲聯, 앞의 책, 권7, 304쪽.

34) 徐海榮, 《中國茶事大典》, 華夏出版社, 北京, 2000년, 570쪽. 水晶: 唐代 차물을 품평한 책, 陸羽가 구술로 전한 것으로, 張 又新의 《煎茶水記》에서 내용을 찾아 볼 수 있다.

35) 錢仲聯, 위의 책, 권7, 304쪽, 鄒志方, 앞의 책, 397쪽.

36) 錢仲聯, 위의 책, 권5, 117쪽.

하겠다.

我本杞菊家 나는 본래 구기자와 국화를 재배하는 사람  
桑苧亦吾宗 육우는 또한 나의 조상이라네  
種藝日成列 씨를 뿌리니 나날이 열을 이루고  
喜過萬戶封 만호의 봉토를 기쁘게 지나가네  
今年夏雨足 금년 여름은 비가 충분하고  
不復憂螟蟲 또 벌레 걱정을 하지 않네  
歸耕殆有相 돌아와 농사를 지으니 겨우 내가 있는 듯 하고  
所願天輒從 바라는 바는 오로지 하늘을 쫓는 거라네

이 詩는 慶元 5년(1199) 여름, 그의 나이 75세 때 山陰에서 지은 詩이다.<sup>37)</sup> 陸游는 이 詩의 首聯에서 “桑苧亦吾宗 (육우는 또한 나의 조상이라네.)”라고 읊고 있다. 여기서 말하는 桑苧는 唐代 《茶經》을 쓴 陸羽(陸羽의 號 “桑苧翁”)를 말하는데, 陸游는 이 부분에서 陸羽를 자신이 조상이라고까지 여기고 있다. 이 詩의 頷聯은 씨를 뿌려 나날이 푸르러 가는 넓을 들판을 지나가는 작자 자신의 모습을 노래하고 있다. 頸聯은 농사에 필요한 비가 내리고, 벌레도 없기 때문에 농사 걱정이 없음을 말하고 있다. 그리고 尾聯은 山陰에 돌아와 농사를 지으며, 자신의 존재를 새로이 인식하게 되고, 바라는 바는 하늘을 따르겠다는 작자의 마음을 읊으며 시를 마무리하고 있다. 위에서 예로 든 詩 외에, <八十三吟><sup>38)</sup>에서도 陸羽를 언급하고 있다.

桑苧家風君勿笑 육우의 가풍을 그대 비웃지 마시게  
它年猶得作茶神<sup>39)</sup> 어느 해인가 이미 다신이 되었다네

이 詩에서 알 수 있는 것처럼 그는 陸羽의 家風을 자랑스럽게 여겼고<sup>40)</sup>, 그 家風을 이어 《續茶經》을 쓰고자 했다. 그의 나이 76세 때 山陰에서 창작한 <開東園路北至山脚因治路傍隙地雜植花草>를 보면 다음과 같이 읊고 있다.

37) 錢仲聯, 앞의 책, 권5, 117쪽. 鄒志方, 위의 책, 396쪽.

38) 錢仲聯, 위의 책, 권7, 262쪽.

39) 위의 주)와 같음.

40) 위의 주)와 같음.

遙遙桑苧家風在 오래된 육우의 가풍이 있으니  
重補茶經又一編<sup>41)</sup> 다경을 또 한편 증보하리라

위의 詩에서 언급하고 있는 陸游가 써내고자 했던 《續茶經》은 전해지지 않아 찾아 볼 수 없지만, 수많은 그의 茶詩들은 족히 《續茶經》을 대표할 만하다고 할 수 있다.<sup>42)</sup> 이처럼 陸羽에 대한 仰慕와 《茶經》의 耽讀은 그의 茶詩의 내용을 깊이 있게 만들었으며 또한 茶詩를 創作할 수 있는 밑거름이 되었다고 할 수 있다.

### 3) 官職生活

陸游는 평생 동안 福州, 江蘇, 四川, 江西 등에서 벼슬을 한다. 특히 그는 孝宗 淳熙 5年(1178)에 소금과 茶를 관리하는 提舉福建常平茶鹽公事를 맡아 建安으로 부임하였으며, 그 이듬해인 淳熙, 6年(1179)에는 撫州에서 提舉江南西路常平茶鹽公事를 맡아 보았다. 그는 10여년의 茶官生活를 경험했고, 또한 평생 동안 各地에서 벼슬을 했기 때문에 여러 지방의 名茶들을 골고루 맛 볼 기회를 가질 수 있었다. 아래에서 그의 詩 <建安雪><sup>43)</sup>을 살펴보기로 하겠다.

建谿官茶天下絕 건계의 관차는 천하에 빼어나고  
香味欲全須小雪 향기와 맛은 하얀 차를 반드시 온전하게 해야 한다네  
雪飛一片茶不憂 눈처럼 날리는 차는 근심이 없게 하는데  
何況蔽空如舞鷗 하물며 하늘을 덮고 춤추는 갈매기 같음에랴  
銀瓶銅碾春風裏 봄바람 부는 속에 은병과 동연이 있으니  
不枉年來行萬里 연래에 만리를 행한 것이 헛되지 않네  
從渠荔子腴玉膚 이것을 본받아 여지도 살찌고 눈처럼 흰데  
自古難兼熊掌魚<sup>44)</sup> 예로부터 곰발바닥과 물고기는 겸하기 어렵다네

41) 錢仲聯, 앞의 책, 권5, 298쪽.

42) 顧云艷, <論陸游的茶詩與茶事>, 앞의 논문.

43) 錢仲聯, 위의 책, 권2, 238쪽.

44) 錢仲聯, 위의 책, 권1, 206쪽, 熊掌 : 《孟子》 “魚我所欲也, 熊掌亦我所欲也, 二者不可得兼, 舍魚而取熊掌者也. (물고기도 내가 원하는 바요, 곰발바닥도 내가 원하는 바이지만, 이 두 가지를 겸하여 얻을 수 없다면, 물고기를 버리고 곰발바닥을 취하겠다.)”

이 시는 淳熙 6년(1179) 正月 그의 나이 55세 때 建安에서 쓴 시이다.<sup>45)</sup> 이 시기는 그가 提學福建常平茶鹽公事를 맡아 建安으로 부임하였을 때이다. 그는 이 지역에서 소금과 茶를 관리하는 일을 하며 이 지역의 名茶인 建溪茶를 맛보고 이 시를 쓴다. 이 시의 제목에서 말하는 建安은 지금의 福建 建甌 일대를 말하며, 이 지역 일대에 있는 北苑은 宋代 황실 전용의 차밭인 御茶園이 있는 곳이다. 주위에는 나라에서 관리를 파견해서 관리를 하는 官焙<sup>46)</sup>와 개인이 운영하는 私焙가 있었다. 이 시의 首聯은 建溪의 官茶 즉, 나라에서 운영하는 官焙에서 나는 茶가 천하에 빼어남을 읊고 있다. 그리고 頷聯은 훗날리는 눈 같은 茶는 근심을 없게 하는데, 하물며 하늘을 나는 갈매기처럼 하얀 茶라면, 두말 할 나위도 없음을 말하고 있다. 그리고 頸聯은茶具인 銅碾을 언급하고 있으며, 尾聯은 荔枝도 때마침 살찌고 눈처럼 희지만, 곰발바닥과 물고기는 겹하기 어려운 것처럼 작자 자신은 荔枝보다는 建安茶를 선택하겠다는 의지를 표현하고 있다.

위의 시 외에도 고향을 떠나 타향에서 관직생활 중에 쓴 작품들이 있다. 그의 <午睡><sup>47)</sup>는 撫州에서 提學江南西路常平茶鹽公事를 맡아 보던 시기인 淳熙 6년(1179) 9월에 衢州에서 쓴 시이고<sup>48)</sup> 아래의 <雨中睡起><sup>49)</sup>는 또 다른 지역에서 官職生活 할 때 쓴 시이다.

磔磔寒禽無定棲 지저귀며 추위에 떠는 날짐승들 깃들 곳을 정하지 못하고  
 纖纖小雨欲成泥 보슬보슬 내리는 가는 비에 진흙이 되려고 하네  
 松鳴湯鼎茶初熟 물 끓는 茶鼎에서는 차가 바야흐로 익어가고  
 雪積爐灰火漸低 눈처럼 쌓인 화로재의 불은 점차 낮아지네  
 一氣推移均野馬<sup>50)</sup> 단숨에 변하여 모두다 티끌이 되니  
 百年蒙覆等醯雞 평생토록 먼지 뒤집어쓴 초파리와 같네  
 靑山黃葉蘭亭路 푸른 산 나뭇잎이 노랗게 물든 난정길

45) 錢仲聯, 앞의 책, 권2, 238쪽, 鄒志方の 앞의 책, 394쪽.

46) 도서출판아라 편집부, 앞의 책, 권2, 402쪽. “茶焙有官,私正外之別, 官焙由朝廷命官管理, 造茶入貢, 私焙造茶主要流販四方, 正焙在北苑,曾坑,壑源一帶, 相去不遠者稱淺焙, 相去深遠者稱外焙. (차배는 관, 사, 정, 외배가 구별이 있다. 관배는 조정에서 파견한 관리가 관리하며, 차를 제조하여 공납한다. 사배는 차를 제조하여 주로 지방에 돌아다니며 판다. 정배는 복원, 증경, 학원일대에 있다. 여기에서 서로 멀리 떨어지지 않는 곳은 천배라 하고, 서로 멀리 떨어진 곳을 외배라고 한다.)”.

47) 錢仲聯, 위의 책, 권2, 295쪽.

48) 錢仲聯, 위의 책, 권2, 295쪽.

49) 錢仲聯, 위의 책, 권1, 297쪽.

50) 錢仲聯, 위의 책, 권1, 297쪽, 《莊子·逍遙遊》, 野馬也, 塵埃也.



憶喚鄰翁共架犁 이웃 노인을 불러 쟁기를 함께 받쳐 들던 것을 추억하네

陸游는 이 詩를 쓰기 1년 前인 乾道 8년(1172)년에 四川宣撫使司幹辦公事兼檢法官을 맡게 되고, 그때 王炎과 그 막부의 장군은 북벌준비를 하고 있었는데, 이 때 陸游도 그들과 뜻을 함께 했다. 그러나 王炎이 돌연 臨安으로 소환되는 일이 발생하게 된다. 이에 막부는 해체되어 북벌은 실행도 못하고 접어야만 했다. 이후 陸游는 四川의 여러 지역, 즉 蜀州, 嘉州, 榮州 등에서 지방관으로 일을 하게 된다.<sup>51)</sup> 이 詩는 이 시기인 乾道 9년(1173), 11월 그의 나이 47세 때 嘉州에서 쓴 詩이다.<sup>52)</sup> 이 詩의 首聯은 비 내리는 초겨울에 짐승들이 등지를 찾지 못하는 모습을 읊고 있고, 頷聯은 茶鼎을 이용하여 茶를 끓이는 모습을 볼 수 있다. 頸聯은 시기적 상황으로 봤을 때 자신의 도모하던 일에 대한 좌절로 失意하는 작가의 심정을 토로하는 것으로 볼 수 있다. 尾聯은 陸游의 고향에 있는 蘭亭의 길을 추억하며 마무리하고 있다.

陸游는 위의 詩 외에, 乾道 7년 夔州에서 通判으로 있을 때 쓴 <西齋雨後><sup>53)</sup>가 있고, 또 淳熙 3년, 嘉州知事에서 면직되기 한 달 전인 2월에 成都에서 쓴 <菴居><sup>54)</sup>있으며, 그의 <同何元立蔡肩吾至東丁院汲泉煮茶><sup>55)</sup>는 또 다른 지역에서 쓴 시이다.

雪芽近自峨嵋得 백설 같은 짙은 가까운 아미산으로부터 얻으니  
不減紅囊顧渚春 붉은 주머니의 고저에서 나는 차보다 뒤지지 않네

여기서 말하는 峨嵋山은 四川省에 있는 것이고, 顧渚茶는 浙江省의 顧渚山 일대에서 나는 茶이다.

陸游는 이처럼 여러 지역에서 官職生活을 하면서 각 지역의 名茶를 맛볼 기회를 가질 수 있었다. 그런 생활에서 그는 茶에 대하여 보고 느끼는 것들을 詩로 써 내었다.

51) 주기평, 앞의 책, 55쪽 참조.  
52) 錢仲聯, 앞의 책, 권1, 297쪽. 鄒志方の 앞의 책, 393쪽.  
53) 錢仲聯, 위의 책, 권1, 148쪽.  
54) 錢仲聯, 위의 책, 권2, 13쪽.  
55) 錢仲聯, 위의 책, 권1, 245쪽.



#### 4) 憂國精神

陸游는 文武를 겸비한 詩人으로서 愛國詩人으로 알려지고 있다. 그는 北宋에서 南宋으로 넘어가는 어수선한 시대상황을 직접 목격했고, 직접 參戰의 경험도 가지고 있다. 그런 그의 평생의 염원은 오랑캐를 섬멸하여 中原을 회복하는 것이었다. 그러나 陸游는 臨終 직전까지도 中原 수복이라는 자신의 念願을 이루지 못했다. 게다가 宋朝는 여전히 무능한 사람들이 많아 백성들의 삶은 더욱 곤궁해졌다. 이런 시대의 상황은 陸游로 하여금 우울하고 한탄스런 마음을 솟아나게 했다. 여기서 그의 <效蜀人煎茶戲作長句><sup>56)</sup>를 살펴보기로 하겠다.

午枕初回夢蝶床 낮잠을 자다 침상에서 호접몽을 깨보니  
紅絲小磑破旗槍 홍사석 작은 맷돌로 차를 잘게 부수네  
正須山石龍頭鼎 마땅히 산석으로 만든 龍頭鼎으로 차를 달여야 하지만  
一試風爐蟹眼湯 풍로의 게눈처럼 끓어 오른 물로 맛을 보네  
岩電已能開倦眼 바위에 번개 치 듯 피로한 눈을 풀리게 하고  
春雷不許殷枯腸 봄날의 우뢰처럼 울리는 빈 배속을 울리지 않게 하네  
飯囊酒甕紛紛是 저 밥통, 술주정뱅이 널려 있으니  
誰賞蒙山紫筍香 누가 몽산의 뛰어난 자순 향을 완상할까?

이 詩는 紹熙 5年(1194年) 그의 나이 70세 때 山陰에서 쓴 것이다.<sup>57)</sup> 이 詩의 首聯은 낮잠을 자다 깨어 맷돌에 차를 갈고 있는 모습을 보는 작자의 모습을 읊고 있다. 頷聯은茶具인 龍頭鼎과 風爐를 언급하고 있으며, 물이 끓는 것을 ‘蟹眼’이라고 표현하고 있다. 頸聯은 차를 마신 뒤에 피로가 풀리는 차의 효능을 언급하며 자신의 느낌을 노래하고 있다. 그리고 마지막 聯은 술주정뱅이 같은 무능한 사람들이 많아 蒙山의 紫筍茶처럼 품질이 우수한 차가 쓸모없이 방치되고 있음을 말하고 있다. 그는 이 시에서 차를 노래하는 중에 世態를 비판하고 있으며, 더불어 그것에 대한 자신의 우울한 心境을 드러내고 있다. 여기서 또 그의 <病酒新愈獨臥蘋風閣戲書><sup>58)</sup>를 한 首 더 살펴보기로 하겠다.

56) 錢仲聯, 앞의 책, 권4, 258쪽.

57) 錢仲聯, 위의 책, 권4, 258쪽. 鄒志方の 앞의 책, 396쪽.

58) 錢仲聯, 위의 책, 권1, 318쪽.

用酒驅愁如伐國 술로 근심을 몰아내는 것은 마치 나라를 토벌하는 것 같아서  
 敵雖摧破吾亦病 적은 비록 다 격파했지만 나 또한 병이 들었네  
 狂呼起舞先自困 미친 듯이 외치며 춤을 추니 내 몸의 피곤이 먼저하고  
 閉戶垂帷眞廟勝 문을 닫고 휘장을 두르니 참으로 묘당이 훌륭하네  
 今朝屏事臥湖邊 오늘 사람들과 교제를 끊고 호수 변에 누우니  
 不但心空兼耳靜 마음이 텅 빌 뿐만 아니라 귀도 조용하네  
 自燒沉水瀹紫筍 스스로 물에 자순차를 끓이며  
 聊遣森嚴配堅正 애오라지 엄중함을 내쫓고 굳고 바름과 짝 하네  
 追思昨日乃可笑 지난날을 생각하니 이내 우습고  
 倚醉題詩恣豪橫 술에 취해 마음이 내키는 대로 시를 짓네  
 逝從屈子學獨醒 죽은 굴원으로 부터 홀로 깨어 있음을 배웠나니  
 免使曹公怪中聖<sup>59)</sup> 조조라도 술에 취한 나를 탓하지 못하네

이 詩는 淳熙 元年(1174) 여름, 그의 나이 50세 때 蜀州에서 쓴 詩이다.<sup>60)</sup> 1, 2句는 술로 자신의 근심은 몰아냈지만 몸은 병이 들었음을 말하고 있고, 3句는 미친 듯이 외치며 춤을 추는 작자의 격한 心境을 표현하고 있다. 5, 6句는 앞의 句와는 대조적으로, 사람들과의 교제를 끊고 호수 변에 누워 마음을 비운 작자의 모습을 그리고 있다. 7, 8句는 紫筍茶를 끓이며, 자신의 마음은 正을 쫓고 있음 말하고 있다. 그리고 9, 10句는 지난날을 돌아보며 술에 취해 내키는 대로 詩를 쓰지만 강직함을 버리지 않는 작자의 모습을 나타내고 있다. 11句는 屈原이 漁父辭에서 “舉世皆濁我獨清, 衆人皆醉我獨醒 (온 세상이 모두 혼탁하고, 못 사람들은 모두 취했는데 나만 홀로 깨끗하네.)”라고 한탄했던 것처럼 陸游도 屈原을 좇아 홀로 깨어 있음을 배운다고 말하고 있다. 그리고 12句는《三國志》, 卷二十七, 〈魏書·徐邈傳〉의 고사를 이용하여 1, 2句에서 나타난 자신의 모습을 은근히

59) 錢仲聯, 앞의 책, 권1, 318쪽. 注釋, 免使曹公怪中聖 :《三國志》卷二十七〈魏書·徐邈傳〉“時科禁酒, 而邈私飲, 至於沈醉. 校事趙達, 問以曹事, 邈曰: 中聖人. 達白之太祖, 太祖甚怒, 度遼將軍鮮于輔進曰: 平日醉客謂酒清者爲聖人, 濁者爲賢人, 邈性脩慎, 偶醉言耳. (때마침 금주령이 내려졌는데, 서막은 몰래 술을 마셔 흠뻑 취하기에 이르렀다. 교사(校事)조달(趙達)이 서막에게 직무에 대해 묻자 서막이 대답했다. “(中聖人)성인에 취했습니다.” 조달이 이 말을 태조에게 아뢰자 태조는 몹시 화를 냈다. 요동의 장군 선우보(鮮于輔)가 간언을 했다. “평소 취객들은 청주를 성인이라 이르고, 탁주를 현인이라 이릅니다. 서막은 성품이 신중한데 우연히 취해서 이 같이 말한 것입니다.””).

60) 錢仲聯, 위의 책, 권1, 318쪽. 鄒志方の 앞의 책, 393쪽.

합리화 시키는 妙味를 발휘하고 있다. 陸游는 이 詩 외에 <菑居><sup>61)</sup>, <阻風><sup>62)</sup>에서도 屈原을 언급하고 있다. 陸游는 평생 北伐을 주장하지만 그의 꿈은 실현되지 못했다. 그래서 이루지 못하는 안타까운 마음을 ‘屈原’이라는 인물을 끌어 들여, 자신의 마음을 간접적으로 토로하고 있다. 이외에 <雨中睡起><sup>63)</sup>, <大堤><sup>64)</sup>, <適閩><sup>65)</sup>등의 詩에서도 憂國하는 마음을 들여다 볼 수 있다.

陸游는 寫景詠物, 田園閑適, 交遊 등의 詩에서 憂國精神과 일상에서 느끼는 감정을 함께 담아내는 것처럼<sup>66)</sup> 茶詩에서도 어지러운 세상에 대한 비판과 탄식을 읊으며 憂國의 마음을 묘사해 내고 있다. 陸游는 이런 類의 詩를 여러 首 썼기 때문에 憂國精神도 茶詩의 創作 배경이라고 할 수 있다.

## 5) 田園生活

陸游는 老年에 臨安에서 1년 동안 實錄院同修撰을 지낸 것을 빼고는 66세부터 85세까지 줄곧 고향 山陰에서 지낸다. 이 시기의 작품은 농촌의 정취나 개인의 小事 등을 한가롭게 읊은 작품이 많은데, 그중에는 茶를 소재로 한 詩들도 여러 首 찾아볼 수 있다. 아래에서 陸游의 <五月十一日睡起><sup>67)</sup>를 살펴보기로 하겠다.

病眼慵於世事開 눈에 병이 들어 세상일에 눈을 뜨는게 게으르고  
 虛堂高臥謝氛埃 빈집에 은거하며 세상 티끌 사양하네  
 簾櫳無影覺雲起 창외 발에 그림자가 없으니 구름이 일어남을 깨닫고  
 草樹有聲知雨來 초목에서 소리가 들리니 비가 올음을 알겠네  
 茶碗嫩湯初得乳 찻그릇에 부드럽게 끓인 물로 우유 같은 거품 방금 얻었는데  
 香篝微火未成灰 향기 나는 배롱의 약한 불은 아직 재는 되지 않았네  
 儵然自適君知否 소연하게 자적함을 그대는 아는가 모르는가

61) 錢仲聯, 앞의 책, 권2, 13쪽. “南浮七澤吊沉湘 (남쪽으로 초나라 칠택(雲夢)을 떠다니다, 상수에 빠진 사람(屈原)을 조문하고)”.  
 62) 錢仲聯, 위의 책, 권2, 195쪽. “微言入孤夢 恍與屈宋遊 (뜻 깊은 말들은 외로운 꿈속으로 들어오고, 황홀하게 굴원, 송옥과 함께 노니네)”.  
 63) 錢仲聯, 위의 책, 권1, 297쪽.  
 64) 錢仲聯, 위의 책, 권2, 195쪽.  
 65) 錢仲聯, 위의 책, 권2, 225쪽.  
 66) 주기평, 앞의 책, 241~250쪽, 271~277쪽, 280~286쪽 참조.  
 67) 錢仲聯, 위의 책, 권5, 256쪽.

一枕清風又過梅 잠시 잠을 자는데 청풍은 또 매화를 지나가네

이 시는 慶元 6년(1120) 여름, 陸游의 나이 76세 때 산음에서 지은 시이다.<sup>68)</sup> 이 시의 首聯에서는 고향에서 은거하며 세상의 티끌을 멀리하는 작자 자신을 읊고 있다. 頷聯은 구름이 일어나 비가 내리고 초목에서는 빗소리 들려움을 묘사하고 있다. 그리고 ‘簾櫳-草樹, 無影-有聲, 覺-知, 雲起-雨來’로 對句를 이루고 있다. 頸聯은 한가롭게 차를 끓이며 하얀 乳花을 얻었음을 표현하고 있고, ‘茶碗-香篝, 嫩湯-微火, 初得-未成, 乳-灰’로 對句를 완벽하게 이루고 있다. 尾聯에서는 유유자적하며 지내는 작자의 모습과 맑은 바람이 매화를 스치고 지나가는 모습을 읊고 있다. 그리고 그의 <小憩臥龍山亭><sup>69)</sup>에서도 전원생활의 한적한 모습을 볼 수 있다.

山高風浩浩 산이 높아 바람이 세차고  
堂豁海冥冥 집은 텅 비고, 바다는 어두컴컴하네  
綠李分猿嘯 푸른 오얏은 원숭이에게 나눠주고  
蒼苔墮鶴翎 푸른 이끼에는 학의 깃이 떨어지네  
松寒詩思健 소나무가 차서 시 생각이 간절하고  
茶爽醉魂醒 차가 상쾌해 취한 것이 깨네  
安得丹青手 어디서 화공을 얻어  
傳摹入素屏 전하여 그려서 흰 병풍에 들여 놓을까?

이 시는 嘉定 2년(1209) 여름, 그의 나이 85세 때 山陰에서 쓴 시이다.<sup>70)</sup> 이 시기에 陸游는 會稽石帆別業에 기거하고 있었다. 그는 그때 이 시의 제목에 나오는 臥龍山을 자주 올랐다.<sup>71)</sup> 이 시는 그 산에 있는 亭子에서 잠시 쉬면서 쓴 것이다. 이 시의 首聯은 臥龍山의 세찬 바람과 어두컴컴한 바다를 노래하고 있고, 頷聯은 한가롭게 노닐며 지내는 陸游의 모습을 읊고 있다. 그리고 頸聯은 산의 소나무는 차기 때문에 시에 대한 생각의 간절함과 차를 마신 후에 술이 깨는 느낌

68) 錢仲聯, 앞의 책, 권5, 256쪽. 鄒志方的 앞의 책, 396쪽.

69) 錢仲聯, 위의 책, 권8, 209쪽.

70) 錢仲聯, 위의 책, 권8, 209쪽.

71) 위의 주)와 같음. 鄒志方的 앞의 책, 398쪽.

을 썼다. 尾聯은 여기서 보고 느끼는 풍경들을 畫工을 빌어 병풍에 그려 놓고 싶은 작가의 마음을 읊고 있다. 그 외에, 아래의 <出遊><sup>72)</sup>에서도 그의 평화로운 전원생활을 들여다 볼 수 있다.

山童負擔賣紅果 산 아이는 붉은 과일을 팔고  
村女緣籬采碧花 시골여자는 울타리에 연하여 푸른 꽃 따네  
篝火就炊朝甑飯 모닥불을 피서 시루에 아침밥을 하고  
汲泉自煮午甌茶 샘물을 길어 몸소 낮에 차를 끓이네

이 시는 開禧 2년(1226) 가을, 陸游의 나이 82세 때 山陰에서 쓴 시이다.<sup>73)</sup> 이 시에서는 과일을 파는 시골 아이와 꽃을 따는 여인, 아침밥을 짓는 모닥불, 그리고 샘물을 길어 차를 끓이는 모습들을 표현함으로써, 평화로운 시골을 묘사한 한 폭의 그림을 시에 옮겨 놓은 것 같은 느낌을 갖게 한다. 이와 같은 시는 그의 <耒陽令曾君寄禾譜農器譜二書求詩><sup>74)</sup>, <初夏閑居><sup>75)</sup>, <述閑><sup>76)</sup> 등에서도 찾아볼 수 있다.

그는 晩年에 故鄉으로 돌아와 한적한 전원생활을 하는 중에, 자신의 꿈에 대한 좌절과 조정애 대한 불만 등에서 솟아나는 우울한 감정들을 조금이나마 스스로 위로 할 수 있었다. 이때 陸游는 농촌의 閑適한 생활을 노래하는 많은 양의 詩를 창작했는데 그중에 茶를 노래하는 詩도 여러 首 들어 있다. 그러므로 그의 晩年의 田園生活 또한 陸游 茶詩의 創作 背景이라고 할 수 있다.

## 6) 文學的 傾向

宋代는 많은 시인들의 茶詩 창작도 이어지게 된다. 茶詩는 唐代의 風貌를 계승했으며, 詞로써 茶를 음풍하는 형식도 출현했다. 많은 著名 詩人, 詞人들은 인구에 회자되는 茶詩, 茶詞를 남겼는데, 대표적인 인물들을 보면, 北宋 초기의 王禹, 林逋, 中期의 梅堯臣, 歐陽修, 王安石, 蘇軾 등이 있고, 後期에는 陸游, 黃庭堅, 范

72) 錢仲聯, 앞의 책, 권7, 188쪽.

73) 위의 주)와 같음. 鄒志方の 앞의 책, 397쪽.

74) 錢仲聯, 위의 책, 권7, 163쪽.

75) 錢仲聯, 위의 책, 권7, 136쪽.

76) 錢仲聯, 위의 책, 권7, 158쪽.

成大, 楊萬里 등이 있다.<sup>77)</sup> 이것으로 보면 宋代 유명 시인들이 대부분 茶詩를 읊었다고 볼 수 있다. 아래에서 蘇軾이 쓴 <汲江煎茶><sup>78)</sup>를 살펴보기로 하겠다.

活水還須活火烹 활수는 활화로 달여야 하니  
 自臨釣石取深清 낚시터에서 깊고 맑은 물을 스스로 길어 오네  
 大瓢貯月歸春甕 큰 바가지로 달을 떠다 봄의 향아리에 담고 돌아가고  
 小杓分江入夜瓶 밤에 작은 표주박으로 강물을 나누어 병에 담네  
 雪乳已翻煎處脚 하얀 유화가 이미 나부끼며 차 달이는 곳에 솟구치고  
 松風忽作瀉時聲 물 끓은 소리가 홀연 물 붓는 소리를 만들어 내네  
 枯腸未易禁三碗 마른 창자라 석 잔의 차를 마셔도 쉽게 그만두지 못하고  
 坐聽荒城長短更 앉아서 황량한 성의 시간을 알리는 길고 짧은 소리를 듣네

蘇軾은 이 詩의 첫 句에서 茶의 맛을 좌우 하는 活水와 活火에 대하여 언급하고 있고, 頷聯은 바가지로 달을 떠다 향아리에 저장하겠다는 시인의 멋스러운 풍류를 나타내고 있다. 頸聯에서는 茶을 달일 때 일어나는 乳花와 물 끓은 소리를 노래하고 있다. 그리고 마지막 聯은 차를 마시며 城의 시간을 알리는 소리를 듣고 있는 모습을 묘사하고 있다. 그리고 楊萬리도 <六一泉煮雙井茶><sup>79)</sup>에서 茶를 읊고 있다.

鷹爪新茶蟹眼湯 매 발톱 같은 차를 끓는 물에 달이는데  
 松風鳴雪兔毫霜 끓는 소리 내는 차는 토호잔의 서리 같네  
 細參六一泉<sup>80)</sup>中味 육일천의 맛을 조금 알 듯 하고  
 故有涪翁<sup>81)</sup>句子香 옛날 황정건의 시향이 어려 있구나  
 日鑄建溪當退舍 일주차는 견계차 뒤로 놓아야 하리  
 落霞秋水夢還鄉 저녁노을 가을 물빛에 환향을 꿈꾸네  
 何時歸上滕王閣 어느 때 돌아가 등왕각에 올라  
 自看風爐自煮嘗 풍로 불 살펴가며 손수 차 달여 맛볼까

77) 餘悅, 周春蘭, 앞의 논문, 26쪽 참조.

78) 김길자, 앞의 책, 190쪽.

79) 김길자, 위의 책, 201쪽.

80) 김길자, 위의 책, 203쪽. 육일천은 서호 서쪽 孤山에 있다. 이는 六一居士인 구양수를 기념하기 위하여 샘을 파고 이름을 붙인 것이다.

81) 黃庭堅의 字는 魯直이고 號는 山谷, 涪翁.

이 詩의 首聯에서는 매 발톱 같은 茶와 물을 끓일 때 거품이 일어나는 것을 표현하는 ‘蟹眼’, 물 끓는 소리인 ‘松風’, 그리고 兔毫齋의 서리, 즉 乳花를 노래하고 있어서 청각적 효과와 시각적 효과 등을 나타내고 있다. 頤聯의 1句에서는 歐陽脩를 기념하기 위하여 歐陽脩의 號로 샘의 이름을 붙인 六一泉을 읊고 있고, 2句에서는 黃庭堅의 고향에서 나는 雙井茶를 마시며 黃庭堅의 詩香을 떠올리고 있다.<sup>82)</sup> 이 詩의 頸聯에서는 日鑄茶보다 建溪茶가 뛰어난을 이야기 하고 있으며, 尾聯에서는 환향하여 등왕각에 올라 차를 달여 마시고 싶다는 마음을 나타내고 있다. 그 외에, 黃庭堅도 아래의 <以雙井茶送子瞻><sup>83)</sup>이라는 시를 노래했다.

人間風日不到處 세상의 바람과 햇빛이 미치지 못한다는  
 天上玉堂森寶書 대궐의 한림원에는 귀한 책이 많다고 하는데  
 想見東坡舊居士 미루어 짐작해 보건데 예전에 동파 거사께서  
 揮毫百斛瀉明珠 붓 휘둘러 백말이나 되는 진주를 쏟아 놓았으리라  
 我家江南摘雲腴 우리 고향 강남에서 좋은 차 따다가  
 落磴霏霏雪不如 맷돌에 부슬부슬 눈보다 더 곱게 갈았습니다.  
 爲公喚起黃州<sup>84)</sup>夢 공을 위해 황주의 꿈을 부르려 하니  
 獨載扁舟向五湖 홀로 배타고 오호로 오세요.

이 시에서는 黃庭堅이 벼슬 할 때 고향에서 부인이 보내온 雙井茶를 이 시와 함께 한림원에 있는 蘇軾에게 선물하고 있음을 볼 수 있다.<sup>85)</sup> 宋代, 시인들은 詩를 써서 주고받으며 交遊하기도 했는데, 이 詩도 그런 류의 詩이다. 이 詩와 茶를 받아본 蘇軾은 <黃魯直以詩饋雙井茶, 次韻爲謝><sup>86)</sup>를 읊어 회답을 한다. 다음으로 歐陽脩의 <雙井茶><sup>87)</sup>를 살펴보기로 하겠다.

82) 김길자, 앞의 책, 203쪽 참조.

83) 김길자, 위의 책, 120쪽.

84) 김길자, 위의 책, 120쪽. 황정견은 소동파에 대한 존경의 뜻을 표하고 지금은 높은 관직에 있지만 옛 귀양살이 땅 황주를 환기시켜 부침이 많은 벼슬살이에 몸조심하라는 은유의 뜻을 전한다.

85) 김길자, 위의 책, 121쪽 참조.

86) 도서출판아라 편집부, 앞의 책, 권1, 149쪽. “江夏無雙種奇茗, 汝陰六一誇新書. 磨成不敢付僮僕, 自看雪湯生璣珠, 列仙之儒瘠不腴. 只有病渴同相如. 明年我欲東南去, 畫舫何妨宿太湖.(강하의 돌도 없는 기이한 차를 심었다고, 여음의 육일거사가 새 책에서 자랑했네. 차 가는 것을 사내아이종에게 감히 시킬 수 없어서, 스스로 하얀 차탕을 보는데 구슬이 맷히는 것 같네. 신선 같은 선비들이 과리하고 수척한 것은, 오직 사마상여처럼 목마름 병을 앓고 있어서라오. 내년엔 내가 등남쪽으로 가고자 하니, 아름다운 배를 타고 태호에 묵어도 괜찮겠구려.)”.

87) 高澤雄, 黎安國, 劉定鄉, 《古代茶詩名篇五百首》, 湖北人民出版社, 2014, 91쪽.



西江水清江石老 서강수의 맑은 물과 오래된 바위  
 石上生茶如鳳爪 바위 위에서 자란 차는 봉황새 발톱 같네  
 窮臘不寒春氣早 선달이 다하여 춥지 않고 봄기운 이르니  
 雙井芽生先百草 쌍정차의 싹이 못 풀들 보다 먼저 돌아나네  
 白毛囊以紅碧紗 하얀털이 돌아난 차를 홍청색 비단 주머니에 담고  
 十斤茶養一兩芽 열근의 차를 만들 수 있지만 한량 분량의 차로 길러 냈네  
 長安富貴五侯家 장안의 부귀한 오후의 집안들  
 一啜尤須三月誇 한번 마시고 석달이나 자랑하네  
 寶雲日注<sup>88)</sup>非不精 보운차 일주차 정성들여서 만들었지만  
 爭新棄舊世人情 새것들을 다두고 옛것을 버리는 것이 세상의 인정이라  
 豈知君子有常德 군자에게 한결 같은 덕이 있고  
 至寶不隨時變易 지극히 귀한 것은 때에 따라 쉽게 변하지 않음을 어찌 알리오  
 君不見建溪龍鳳團 그대는 보지 못 했는가 건계의 용봉단차  
 不改舊時香味色 예전의 색향미가 변함이 없음을

이 詩에서 읊고 있는 雙井茶는 分寧縣의 雙井에서 생산되는 茶이다. 이 詩에서  
 는 長安의 부귀한 집안사람들이 雙井茶를 한번 맛보고, 그 맛을 석 달이나 자랑  
 하고 있음을 말하고 있다. 그리고 龍井茶 종류의 하나인 寶雲茶와 歐陽脩가 “兩  
 浙第一”<sup>89)</sup>라고 극찬했던 日鑄茶가 있어도, 새것을 다두고 옛것을 버리는 것이 세  
 상의 인심이라고 말하면서 각박한 세태를 풍자하고 있다. 이 시에서는 德이 있는  
 君子가 한결같이 德이 있는 것처럼 품질이 좋은 茶는 항상 建溪의 龍鳳團茶처럼  
 色, 香, 味가 변함이 없음을 말하고 있다.

위에서 살펴 본 것처럼 宋代의 시인들은 茶를 즐겼고, 茶를 소재로 하는 많은  
 詩를 創作하였다. 이런 시인들의 경향처럼, 陸游도 多量の 茶詩를 창작했는데. 이  
 런 宋代 茶詩 창작은 陸游에 의해 화려한 꽃을 피웠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 Ⅲ. 宋代 茶文化

88) 高澤雄, 黎安國, 劉定鄉, 앞의 책, 91쪽. 日注 : 日鑄茶.

89) 高澤雄, 黎安國, 劉定鄉, 위의 책, 91쪽.

## 1. 宋代 以前の 茶文化

中國에서 차 마시는 풍습이 생겨난 시기에 대하여 《茶經》 六之飲에서는 “차를 마시기 시작한 것은 신농씨부터이다.”<sup>1)</sup>라고 기록하고 있다. 그러나 《中國茶文化》<sup>2)</sup>에서는 “神農氏의 전설에서 “查”字를 ‘茶’로 해석하는 것은 단지 전설일 뿐이기 때문에 이것으로 茶의 기원을 설명하기는 부족하고, 아직까지 茶의 기원은 밝혀지지 않았다.”라고 설명하고 있다.

中國에서 茶를 식용으로 사용한 것은 春秋時期이다. 《茶經》 七之事에서 陸羽는 《晏子春秋》<sup>3)</sup>의 내용을 인용하여 “안영은 제 경공의 재상으로 있을 때 현미밥을 먹고 세 꼬지의 구운 날짐승 고기와 달걀 다섯 개 그리고 茶羹만 먹었다.”라는 내용을 기록하고 있다. 晏子는 春秋時期의 사람으로 그가 말하고 있는 “茗菜”는 바로 茶를 이용하여 끓인 茶羹이다. 이것은 이 시기의 茶는 식용으로 간주되었다는 것을 설명해 주고 있다.<sup>4)</sup>

茶는 약용으로도 사용되었다. 西漢의 《神農食經》<sup>5)</sup>에 보면 “茶茗久服, 令人有力, 悅志 (차를 오래 마시면 사람을 하여금 힘이 나게 하고, 마음을 기쁘게 한다.)”라는 구절이 있다. 이 부분에 대하여 藥學에 관련된 著書에서는 치료의 효능이라고 언급하고 있다.<sup>6)</sup> 그리고 《茶經》 七之事에 보면 司馬相如의 《凡將篇》<sup>7)</sup>의 내용을 인용하고 있는데, 그 중에는 “薺詫”이란 글자가 있고 그 외, 20여종의 약재도 함께 소개하고 있다. 여기서 말하는 “薺詫”은 茶를 이르는 말로 이

1) 류건집, 《茶經註解》, 도서출판 이른 아침, 2010, 270쪽. “茶之爲飲, 發乎神農氏”.

2) 叢書編委會編撰, 《中國茶文化》, 北京, 外文出版社, 2010. 2쪽.

3) 도서출판아라 편집부 앞의 책, 권1, 19쪽. 《茶經》 七之事 《晏子春秋》: “嬰相齊景公時, 食脫粟之飯, 炙三弋, 五卵, 茗菜而已”.

4) 叢書編委會編撰, 위의 책, 5쪽.

5) 叢書編委會編撰, 위의 책, 7쪽 재인용.

6) 叢書編委會編撰, 위의 책, 7쪽 참조.

7) 류건집, 《茶經註解》, 위의 책, 313쪽. 《凡將篇》: 《한서예문지》에 따르면 상여가 쓴 천자문 같은 한자 학습서로 지금은 일전되었다. 당대 歐陽詢도 《예문류취》에서 상여가 썼다고 했다.

는 茶가 약용으로 쓰였다는 최초의 기록이다.<sup>8)</sup> 그리고 《茶經》 七之事를 보면 《廣雅》<sup>9)</sup>의 기록을 인용하여 “형주와 파주지방에서는 찻잎을 따서 餅茶을 만들었는데, 잎이 쇠한 것은 쌀미음을 이용하여 만들었다. 차를 끓여 마실 때는 먼저 餅茶을 불에 쪄고 색깔이 홍색을 띠게 되면 찢어서 가루로 만들고, 瓷器에 넣고 끓는 물을 붙는다. 혹은 蔥, 薑, 橘子를 합하여 끓여서 마신다. 그것을 마시면 술을 깨게 하고 사람으로 하여금 잠 생각이 없게 한다.”라고 기록하고 있다. 이 기록은 茶를 가공하여 마시는 것에 대한 가장 오래된 기록으로<sup>10)</sup> 茶를 마시면 술이 깨고 잠이 오지 않는 茶의 효능을 기록하고 있다.

漢代에 들어서면서 茶에 음료의 기능이 점차 강화 된다. 그러나 茶를 약으로 사용하는 용도에서 완전히 탈피는 하지 못하고 음료와 약의 용도가 결합한 형식의 형성된다. 그래서 茶는 어떤 때는 음료로 사용되고 때로는 약용으로 사용되었다<sup>11)</sup>.

漢代의 문인들은 항상 茶를 마시며 즐겼다. 茶는 사람이 정신을 맑게 해 주고 思惟을 활기차게 해 준다. 그렇기 때문에 문인들은 글을 짓는데 만족감을 안겨다 주는 차를 중시했다. 특히 漢末에는 왕조의 몰락으로 점차 玄談의 風潮가 흥기했고, 문인들은 高談闊論하였기 때문에 당연히 흥을 돋우는 물건이 필요했다. 茶를 오래 마시면 사람의 마음을 상쾌하게 해주기 때문에 차를 마시는 풍속은 漢末에 신속하게 발전하게 된다.<sup>12)</sup>

前漢, 宣帝때 사람인 王褒의 《僮約》에서는 茶를 다루는 노비를 돈으로 거래하는 노비매매문서를 작성한 기록이 있다. 이는 茶에 대한 직접적인 기록 가운데 가장 이른 기록으로, 여기서는 漢代 飲茶 풍습이 성행하여 茶事를 담당하는 노비까지 있었음을 보여주고 있다.<sup>13)</sup>

8) 염숙, 엄영옥, 《중국역사 속에 꽃피운 茶 문화》, 전남대학교 출판부, 2009. 36쪽 참조. 류건집, 《茶經註解》, 313쪽 참조. 司馬相如《凡將篇》：“烏啄桔梗芫華，款冬貝母木藜藿，芎藭芍藥桂漏蘆，蜚廉藿菌菴訖，白斂白芷菖蒲，芒消莞椒茱萸。”

9) 도서출판아라 편집부, 앞의 책, 권1, 19쪽. “《廣雅》云：“荊,巴間采葉作餅,葉老者,餅成以米膏出之,欲煮茗飲,先灸令赤色,搗末,置瓷器中,以湯澆覆之,用蔥,薑,橘子芼之,其飲醒酒,令人不眠.”. 류건집, 《茶經註解》, 30쪽. 《廣雅》: 삼국시대 魏의 장음이 찬술했으며 《爾雅》를 바탕으로 증보한 책이라 본다.

10) 류건집, 《茶經註解》, 앞의 책 309~310참조.

11) 叢書編委會編撰, 앞의 책, 9쪽 참조.

12) 위의 주)와 같음

13) 염숙, 엄영옥, 위의 책, 39~40쪽 참조.

魏晉南北朝 시기에는 茶文化의 형성 시기라고 말할 수 있다. 이 시기에는 長江 중, 하류에 까지 茶가 전파되었고 茶는 接待, 祭祀, 宴會에서도 사용되었다. 《茶經》 七之事의 《晉書》<sup>14)</sup>를 보면 “환온이 양주 목사가 되었는데 성품이 검소하여 매번 잔치 때마다 오직 일곱 가지를 내렸는데 차와 과일만 섞여 있을 뿐이었다.”라고 기록하고 있다. 이 시기는 정치가들이 茶로써 清廉를 기르는 것을提起하며 사회의 불량한 풍조를 바로잡으려고 하였는데, 이는 茶로 하여금 절약과 검소함을 상징하는 풍조를 이루게 하였다.<sup>15)</sup>

西晉 시기에는 촉지방의 한 老婆가 茶粥을 만들어 파는데 官吏들이 茶粥을 팔지 못하게 하였다. 그래서 老婆는 할 수 없이 餅茶를 만들어 팔았는데 관리들이 아무런 制裁를 가하지 않았다는 기록이 나온다. 이 기록에서는 茶를 파는 것은 허용하지만 가공해서 파는 것은 금지하는 것을 볼 수 있다.<sup>16)</sup>

西晉시기에는 文人들이 茶를 즐기면서 茶에 대한 詩文을 남겼는데 左思의 《嬌女詩》<sup>17)</sup>가 있다. 이 詩에서는 茶를 끓이는 딸의 즐거운 마음과 딸을 사랑하는 아버지의 마음을 볼 수 있다. 그리고 杜育의 <荈賦>에서는 茶의 성장과 채취방법, 차잎의 성질, 차의 효능 등을 읊고 있다. 이처럼 이 시기는 茶가 文人들에게 친숙했으며 茶를 마시는 행위가 하나의 文化로 형성되는 시기라고 할 수 있다.<sup>18)</sup>

唐代에는 경제가 번영하고 사회적으로도 안정기였다. 이 시기는 茶文化의 發展時期로, 唐代 中期로 들어오면서 茶를 마시는 풍습은 中國 全域으로 전파 되었으며, 茶는 쌀과 소금처럼 일상생활에 필요한 물품이 되었다. 唐代에는 차 생산도 늘어나 43개 州, 郡에서 茶를 생산하였고 생산지는 남쪽 13개의 城에 집중되어 있었다. 이 시기에는 茶를 마시는 풍습이 확산되었는데, 그 원인은 여러 가지가 있다. 첫째로는 불교의 흥성과 관계가 있다. 當時 승려들은 좌선 수행을 할 때면 음식을 먹지 않았다. 그들은 修行時에 졸음과 피로를 없애기 위해 茶를 마셨다. 이런 모습들이 불교 신도들에게 전해지면서 飲茶 風俗이 널리 전파 된다.<sup>19)</sup> 두

14) 도서출판아라 편집부, 앞의 책, 권1, 8쪽. 《晉書》：“桓溫爲揚州牧，性儉，每燕飲，唯下七奠，拌茶果而已”

15) 叢書編委會編撰, 앞의 책, 10쪽 참조.

16) 엄숙, 엄영욱, 앞의 책, 76쪽 참조. 류건집, 《茶經註解》, 앞의 책, 334쪽 참조. 傅咸《司隸教》曰：“聞南方有以困蜀嫗作茶粥賣，爲帘事打破其器具。又賣餅于市，而禁茶粥以蜀姥何哉。”

17) 도서출판아라 편집부, 위의 책, 권1, 3쪽.

18) 棚橋堂峰著, 석도윤, 이다현 共譯 《중국茶문화》, 하늘북, 2006, 161쪽 참조.

19) 棚橋堂峰著, 석도윤, 이다현 共譯 《중국茶문화》, 위의 책, 161쪽 참조.. 162~164 참조.

번째 원인은 唐代의 과거제도이다. 당시 조정에서는 과거 시험을 보는 사람들에게 茶果을 내려서 격려를 했다. 이때 과거시험에서 茶를 맛 본 사람들의 선전으로 茶는 더욱더 널리 전파 된다. 세 번째 원인은 唐代의 貢茶制度이다. 朝廷에 貢納된 茶는 皇室에서 近臣들에게 선물로 하사하기도 하고, 外交時 선물용으로도 사용하였다. 이처럼 茶의 용도가 확대되면서 茶의 수요가 증가하게 된다. 그리고 네 번째 원인은 唐代 中期에 내려진 禁酒 조치이다. 唐代의 통치 계급은 茶業을 중시 하였다. 그리고 朝廷에서는 백성들의 생활양식을 확보하기 위하여 禁酒 조치를 내려 茶 마시기를 권장했다. 그래서 사람들은 술 대신 茶를 마시게 된다. 다섯 번째 원인은 茶馬貿易이다. 이 시기에는 소수민족들의 茶 마시는 풍속이 興起하기 시작하면서 馬를 가지고 茶를 바꿔가는 무역이 발전하게 된다.<sup>20)</sup> 그리고 唐代에는 茶會, 茶宴 등을 즐기기 시작했으며, 文人들 사이에서는 벗들과 모여 茶를 마시며 詩를 짓고 그림을 그리는 文化의 형태도 나타난다. 이것이 飲茶風俗이 널리 퍼진 여섯 번째 원인이다. 그리고 일곱 번째 원인은 陸羽가 《茶經》을 펴낸 것이다. 그는 일생 茶를 좋아했고 茶道에 정통했다. 그는 세계 최초의 茶 연구서적인 《茶經》을 펴냄으로서 中國 茶 文化發展에 커다란 공을 세웠다. 그래서 그는 사람들에게 의해 ‘茶仙’, ‘茶聖’, ‘茶神’이라고 불려진다.

《茶經》의 내용은 10장으로 구성 되었다. 《茶經》의 一之源에서는 차나무의 원산지과 茶의 특징, ‘茶’라는 명칭에 대한 설명, 茶의 재배에 적당한 자연조건, 茶의 품질, 茶의 효능 등을 기록하고 있다. 二之具에서는 茶를 채취하는 도구, 茶製造 도구와 사용법 등 18종의 茶具에 대하여 기술하고 있다. 三之造에서는 餅茶製造法과 名茶의 품질 감별법 등을 언급하고 있다. 唐代에는 餅茶가 유행했고, 煎茶法도 유행했다. 餅茶는 채취한 茶를 시루에 넣어 찐 다음 질구에 찞어 틀에 넣어 여러 모양으로 만들어 烘焙하여 만드는 茶를 말한다. 煎茶法은 뒷부분에서 논하고 있기 때문에 여기서는 생략하겠다. 四之器에서는 茶具의 종류와 명칭, 모양, 사용법 등을 記述하고 있다. 五之煮에서는 餅茶를 끓이는 방법, 물과 찻감의 선택 등에 대하여 기록하고 있다. 六之飲에서는 차를 마시는 방법을 소개 하였고, 차를 마시면서 마음과 몸을 가다듬는 정신적 수양을 강조 하였다. 七之事에서는 古代로부터 唐代까지 茶事와 관련된 인물과 茶에 대한 기록들을 소개 하면

20) 조기정, 앞의 책, 203쪽. 197~199쪽 참조. 叢書編委會編撰, 앞의 책, 14~15쪽 참조.

서 中國 茶의 역사를 알 수 있게 하였다. 八之出에서는 당시 茶產地인 山南, 淮南, 浙西, 劍南, 浙東, 黔中, 江南, 嶺南茶區 등을 소개 하고 있으며, 그 茶區들에서 생산되는 茶의 품질에 등급을 매겼다. 九之略에서는 상황에 따라 생략이 가능한 茶具들을 설명하며 격식에 구애 받지 않는 茶道를 강조 하였다. 十之圖에서는 九之略까지 《茶經》의 내용을 한 폭의 비단에 써서 걸어 두고 茶事에 대한 법도와 지식 등을 논하고 있다.<sup>21)</sup>

陸羽의 《茶經》은 일반적인 茶事を 정신적 차원의 茶道로 끌어 올렸고, 茶의 이론을 정립하였으며, 茶와 관련된 내용들을 규범화하여, 中國 茶文化 발전에 커다란 공을 세웠다.<sup>22)</sup>

唐代에는 禁榷制度, 貢茶, 茶馬貿易, 茶稅 등과 같은 茶政<sup>23)</sup>제도가 있었다.

禁榷制度란 관부에서 소금, 철, 술, 초, 차 등의 상품에 대하여 전매를 실행하고 개인이 자유롭게 경영하는 것을 금하는 제도이다. 이 정책은 국가나 官府가 생산과 매매를 독점하여 고액의 재정 수입을 획득하는 것이다. 文宗 太和 9년(835)에는 江南의 모든 차나무를 官府가 경영하는 다원인 官場으로 옮겨서 製茶하도록 하였다. 그리고 민간에서는 차의 생산과 거래를 금지했고, 官府가 차의 생산과 매매를 독점하였다. 이를 榷茶制라고 한다. 이 榷茶制는 시작한지 2개월도 채 못 되어서 폐지된다. 그러나 榷茶制度는 北宋 초기에 다시 실시되었으며, 後代 왕조의 중요한 茶政이 된다.

唐代에는 貢茶가 制度化되었다. 주요 차산지에서는 官이 직접 관리하는 貢茶院을 설립하여 貢茶를 생산하였다. 顧渚山의 貢茶院은 唐代의 貢茶院 중에서 제일 규모가 컸는데, 明 洪武 8년(1375)년까지 605년 동안 운영이 되었다.<sup>24)</sup>

唐代의 또 다른 특징적인 茶政은 茶馬貿易이라고 할 수 있다. 唐代 안록산의 난이 일어났을 때 위구르족은 唐軍을 도와서 반란을 평정하였다. 이 때 그들은 말과 茶를 바꾸어 돌아갔는데, 이게 바로 茶馬貿易이 시작이다.<sup>25)</sup> 이렇게 시작된 茶馬貿易은 德宗 貞元(785~805) 年間에는 상업적으로 이루어 졌다. 이런 茶馬貿

21) 엄숙, 엄영옥, 앞의 책, 108~115쪽 참조. 류건집, 《茶經註解》, 앞의 책, 41~493쪽 참조.

22) 叢書編委會編撰, 앞의 책, 15쪽 참조.

23) 조기정, 앞의 책, 203쪽. 茶政: “中唐이후 역대 정부가 茶業經濟를 조정하고 통제한 제도, 정책, 법규 등의 總和를 茶政이라 한다.”

24) 조기정, 위의 책, 207쪽 참조.

25) 品維新, <宋代茶馬貿易研究>, 《茶葉機械雜誌》, 1996年, 第2期.



易은 宋代 神宗 熙寧 7년(1074)에 이르러 제도적으로 정착된다.<sup>26)</sup>

唐代에는 財政制度인 茶稅도 부과 되었다. 唐代이전에는 茶 세금을 부과하지 않았으나 차 산업이 興起하면서 唐代 중기 이후부터는 茶稅를 징수하기 시작하였다. 德宗 建中 3년(782)에는 茶의 유통과정에서 발생하는 이익금의 10분의 1를 稅로 거두어 들였는데, 이것은 중국에서 처음으로 이루어진 것으로 茶稅制度의 기원이 된다. 그 이후 興元 元年(784)에 徵稅에 대한 백성들의 불만이 높아져 朱泚의 난이 일어나자 茶稅를 폐지했다가 貞元 9년(793)에 茶稅를 부활시켜 제도로 정착시킨다. 宣宗 大中 6년(852)에는 茶稅의 부과 대상과 그 내용을 정하고 茶의 밀매에 관한 처벌기준 등을 제시한 世法十二條가 시행된다.<sup>27)</sup>

## 2. 宋代 茶文化

### 1) 貢茶制度

中國에서는 아주 오래전부터 茶를 조정에 貢納했는데, 그런 貢茶가 시작된 시기에 대해서는 두 가지 기록을 찾아 볼 수 있다. 그 하나는 “周, 武王이 紂를 토벌한 이후, 巴蜀에서 생산되는 차는 각 부족의 首領이 왕을 알현할 때 가지고 가는 貢品이 되었다.”<sup>28)</sup>라는 기록이고, 또 하나는 “고대 황실에 차를 貢茶한 것은 晉에서 시작되었다.”<sup>29)</sup> 라는 기록이다. 여기서 말하고 있는 두 번째 기록에 대하여, 徐海榮의 《中國茶事大典》에서는 이 기록이 “가장 이르고, 믿을 수 있는 貢茶에 대한 기록이다.”라고 말하고 있다.<sup>30)</sup> 위의 내용으로 보면, 貢茶는 中國에서 아주 이른 시기에 시작되었다는 것만은 분명한 사실이다. 貢茶는 唐代에 이르러 顧渚茶를 공납하면서 점차 制度的인 기틀을 다져갔다. 이렇게 바쳐지는 貢茶는 점차 황실의 중요한 소비물품이 되었으며, 매년 때에 맞추어 新茶를 바치는 일은

26) 조기정, 앞의 책, 211쪽 참조. 品維新, 앞의 논문, 참조.

27) 조기정, 위의 책, 209~210쪽 참조.

28) 도서출판아라 편집부, 앞의 책, 권2, 394쪽. “《華陽國志之巴志》載 早在周武王伐紂之後, 巴蜀所產茶葉, 卽已列爲各部族首領朝見時所帶貢品”.

29) 徐海榮, 앞의 책, 358쪽, “古代進奉給皇室飲用的名茶始於晉”, 宋代, 寇宗奭의 《本草衍義》 卷 14 : “晉溫嶠上表, 貢茶千斤, 茗三百斤 (진의 溫嶠가 茶千斤과 茗三百斤을 공납하였다)”.

30) 徐海榮, 위의 책, 358쪽, 참조.



湖州지방관의 주요한 업무가 되었다. 여기서 唐代의 詩人인 袁高의 <茶山詩><sup>31)</sup>를 살펴보기로 하겠다.

陰嶺芽未吐 그늘진 산에는 싹이 아직 나지 않았는데  
使者牒已頻 사자의 서찰은 이미 빈번하네

이 시를 보면 唐代에 官員들이 차의 싹이 나기도 전에 공문서를 보내 茶 일을 독촉하는 것을 볼 수 있다.

唐代 大曆 5년(770)에는 湖州, 長興 및 常州, 義興이 경계한 곳인 顧渚山에 貢焙<sup>32)</sup>를 설치하였다. 처음에 생산되는 茶의 수량은 500串정도였는데, 점차 2,000串, 10,000串으로 증가하였다. 그리고 會昌(841~846)연간에 이르러서는 18,400斤으로 증가하였다. 이와 같은 貢茶의 증가로 唐代는 17州郡에서 貢茶를 했는데, 그중에 陽羨茶와 紫箏茶, 蒙頂茶가 주요한 공납 품종이었다.<sup>33)</sup> 이런 貢茶制度는 宋代로 이어져 내려와 큰 발전을 이루어서 官營北苑官焙茶園이 출현한다. 이로부터 貢茶 종류와 수량이 나날이 증대되었다.<sup>34)</sup>

貢茶는 陸游의 시에서도 언급함을 볼 수 있다. 아래에서 그의 <自上灶過陶山><sup>35)</sup>를 살펴보기로 하겠다.

蠶家忌客門門閉 누에치는 집은 손님을 꺼리고 문들을 닫는데  
茶戶供官處處忙 차를 재배하는 농가는 관청에 차를 바치느라 곳곳이 바쁘네

이 시에서는 宋代에 茶를 재배하는 농가가 관청에 茶를 바치느라 분주한 모습을 직접적으로 묘사하고 있음을 볼 수 있다.

이와 같이 宋代에 큰 발전을 이룬 貢茶는 茶를 제작하기 이전 작업인 茶를 채취하는 시기와 시간에도 세밀하게 신경을 썼고, 製造 方面에도 정밀함을 중시 여겼다. 아래에서 예로 들고 있는 宋代, 熊蕃의 <御園采茶歌十首><sup>36)</sup> 중의 其一에

31) 徐京美, <宋代茶詩中的貢茶采制特色>, 江南大學人文學院, 재인용.

32) 陳宗懋, 《中國茶葉大辭典》, 中國輕工業出版社, 2015년, 5쪽. 참조 貢焙는 官焙와 같은 뜻이다.

33) 徐海榮, 앞의 책, 358쪽, 참조.

34) 沈冬梅 <論宋代北苑官焙貢茶>, 浙江社會科學, 第4期, 1997.

35) 錢仲聯, 앞의 책, 권3, 159쪽.

서는 茶를 채취하는 모습을 볼 수 있다.

紛綸爭徑蹂新苔 분주하게 다투며 새로 난 이끼를 밟는데  
回首龍園曉色開 머리를 돌리니 어원의 새벽빛이 열리네  
一尉鳴鉦三令趨 어차원의 관리가 징을 세 번 울리며 빨리 나아가게 하니  
急持煙籠下山來 급히 차 바구니를 들고 안개 자욱한 산에서 내려오네

이 詩는 작가가 北苑의 貢茶를 채취하는 정황을 쓴 것이다. 이 詩의 2句에는 새벽이 밝아오는 차 밭의 모습을 노래하고 있다. 그리고 3句에서는 관원이 새벽을 알리는 징을 울리는데, 이는 차 따기를 금지하는 명령을 내리는 것이다. 마지막 句에서는 해가 떠오르자 급하게 대바구니를 가지고 산 아래로 내려오고 있는 모습을 노래하고 있다. 이 詩에서는 茶園의 茶는 해가 뜨면 茶를 채취하는 것을 허락하지 않았음을 분명히 보여주는 것으로, 北苑에서 나는 貢茶는 채취하는 시간의 요구가 엄격했음을 보여주고 있다.<sup>37)</sup>

宋代 貢茶로 가장 유명한 곳은 北苑 지역이다. 이곳에는 皇室 전용 茶밭인 御茶園이 있었다. 그곳의 茶는 조정에 貢茶를 하면서 세상에 알려졌다. <茗溪漁隱叢話><sup>38)</sup>에 보면 北苑에 대하여 기록하고 있다.

“其地暖，才驚蟄，茶芽已長寸許”

그 땅은 따뜻하여 비로소 경칩에 차 싹이 이미 한 마디 만큼 자라났네.

이 기록을 보면 北苑 지역은 경칩에 이미 茶싹이 돋아나고 있음을 볼 수 있다. 여러 조건상 北苑茶는 顧渚나 蒙頂茶보다 일찍 싹이 자라난다. 이는 新茶를 추구하는 宋代 貢茶의 製造에 더욱 편리한 조건을 제공하였고, 北苑이 이름을 더욱 세상에 알려지게 했다.<sup>39)</sup>

太平興國(976~984)에는 北苑에 龍焙를 두어서 官焙라 칭했고, 전문적으로 향

36) 徐京美, 앞의 논문, 재인용.

37) 徐京美, 위의 논문, 참조.

38) 徐京美, 위의 논문, 재인용.

39) 徐京美, 위의 논문, 참조.

제를 위해 貢茶를 만들었는데, 龍鳳茶도 이때 만들어지기 시작하였다. 이곳에서 만들어진 龍鳳茶는 茶 덩이 위에 龍鳳 도안을 새겨 넣은 것인데, 이는 唐代의 貢茶와 구별되는 점이다. 이처럼 새로운 茶를 만들어 내는 것에 대한 욕구는 뒤에도 계속 이어지는데, 이는 皇帝를 만족시키기 위하여 새롭고 뛰어난 것을 추구했던 것이라고 할 수 있고, 이런 貢茶는 서민이 마시는 차와 구별되었다. 이런 龍鳳茶가 만들어진 後, 慶曆(1041~1048)연간에는 蔡襄이 龍團茶를 만들어 天子에게 바쳤다. 龍團茶는 매우 귀하여 금이 있어도 茶를 얻을 수 없을 정도였다. 이처럼 귀하여 여겨졌던 貢茶를 陸游의 <大閱後一日作假><sup>40)</sup>에서도 살펴볼 수 있다.

小院鉤簾掃落花 작은 뜰의 걸린 발은 떨어진 꽃을 쓸고  
 公餘蕭散似山家 공무중의 여가라 한산함이 산사람 같네  
 下岩紫壁臨章草 하암의 자줏빛 벽에 초서를 베끼고  
 正焙<sup>41)</sup>蒼龍試貢茶 정배인 푸른 용이 새겨진 공차를 맛보네  
 塞上遠遊心尙壯 변방 멀리 유랑하니 마음은 강건하고  
 車中深閉發先華 수레 안에 두었으나 머리는 먼저 희끗희끗 하네  
 老來日月眞堪惜 노후의 세월은 참으로 아까워할만하여  
 愁聽高城咽暮笳 고성에서 근심스레 들리는 저녁 호드기 소리에 목이 메이네

이 詩는 淳熙 14년(1187) 봄, 그의 나이 62세 때 嚴州에서 쓴 詩이다.<sup>42)</sup> 이 詩의 首聯은 公務중에 한가한 시간을 이용하여, 뜰에 떨어진 꽃을 쓸고 있는 바람에 날리는 발의 모습을 노래하고 있다. 頷聯은 草書を 쓰고, 龍이 새겨진 貢茶를 맛보는 모습을 표현하고 있다. 그리고 이 聯은 “下岩-正焙, 紫壁-蒼龍, 臨-試, 章草-貢茶”로 對句를 이루고 있다. 頸聯은 고향을 떠나 변방에서 늙어 가는 작자의 모습을 표현하고 있으며, 마지막 聯은 저녁에 들리는 호드기 소리에 목이 메는 작자의 심정을 노래하며 詩를 마무리 하고 있다. 陸游는 위의 詩 외에 <老學庵北窗雜書><sup>43)</sup>에서도 貢茶를 언급하고 있다.

40) 錢仲聯, 앞의 책, 권3, 221쪽.

41) 徐海榮, 앞의 책, 378쪽, 正焙: “指宋代生產貢茶的正宗山地北苑曾坑壑源諸焙. (정배는 송대 공차가 생산되는 전통적인 산지인 북원, 증갱, 학원의 모든 배소를 가리킨다.)”.

42) 錢仲聯, 위의 책, 221쪽. 鄒志方, 앞의 책, 395쪽.

43) 錢仲聯, 위의 책, 권7, 180쪽.

小龍團與長鷹爪 소룡단과 긴 매 발톱 같은 차  
桑苧玉川俱未知 옥우와 玉川子는 모두 알지 못하네

이 詩에서는 唐代 《茶經》을 쓴 陸羽와 <七碗茶歌>를 쓴 唐代的 玉川子(盧仝)는 이 차의 맛을 알지 못할 것이라고 노래하며, 小龍團茶를 언급하고 있다.

위에서 설명했던 龍鳳茶와 龍團茶가 만들어 진 뒤에 또 密雲龍茶가 만들어졌는데, 密雲龍茶는 그 무늬가 세밀하고 매우 정밀하여 龍團茶보다 위의 品數에 높게 되었다. 이런 종류의 貢茶 외에도 北苑에서는 여러 종류의 貢茶가 만들어졌다.

위에 논한 北苑茶 외에 蒙頂茶도 貢茶를 했는데, 이 茶는 唐代에 이미 貢茶했으며, 明代에 이르러 사라지게 된다.<sup>44)</sup> 매년 황제에게 바치는 貢茶로는 正貢과 陪貢이 있었다. 正貢은 황제나 황족에게 바쳐졌는데, 正貢의 차는 皇茶園에서 재배하는 仙茶였고, 陪貢은 귀족이나 조정의 대신들의 飲用에 쓰였으며, 蒙山の 五峰의 곳곳에서 나는 차로 만들었다.<sup>45)</sup> 貢茶를 제조할 때는 예법에 따라 의례를 성대하게 거행하였고, 이곳의 貢茶는 품질이 뛰어 났기 때문에 많은 문인들의 극찬을 하기도 하였다. 이런 蒙頂茶는 唐代 詩人 黎陽王의 <蒙山白雲岩茶><sup>46)</sup>에서도 극찬함을 볼 수 있고, 陸游의 <菴居><sup>47)</sup>에서도 蒙頂茶를 읊고 있음을 볼 수 있다.

雪山水作中濡味 설산의 물은 천하제일 중냉천<sup>48)</sup>의 맛을 만들어 내니  
蒙頂茶如正焙香 몽정차는 마치 정배향 같구나

여기서는 蒙頂茶의 맛을 正焙香, 즉 北苑茶와 日鑄茶의 맛과 같다고 노래하고 있다. 그리고 또 그의 <睡起試茶><sup>49)</sup>에서도 蒙頂茶를 언급하고 있다.

44) 徐海榮, 앞의 책, 142쪽.

45) 박영환 《중국의 차문화》, 도서출판 문헌, 2009, 173쪽 참조.

46) 徐海榮, 위의 책, 622쪽. 唐代 詩人 黎陽王의 <蒙山白雲岩茶> “若教陸羽持公論, 應是人間第一茶 (만약 옥우로 하여금 공정한 말을 하게 한다면, 응당 세상에서 제일가는 차라 하리라)”.

47) 錢仲聯, 앞의 책, 권2, 13쪽.

48) 위의 주)와 같음. 注釋: 中濡: 《太平寰宇記》 “丹徒縣: 中冷天, 天下第一茶 (단도현: 중냉천, 천하의 제일 찬이다.)”

49) 錢仲聯, 위의 책, 권1, 317쪽. <睡起試茶> “朱欄碧甃玉色井, 自候銀餅試蒙頂 (붉은 난간 푸른

위에 제시한 두 종류의 茶 외에 顧渚茶도 宋代에 貢茶하였다. 唐代宗 때 顧渚山 옆의 虎頭岩에 貢茶院을 설립하였고, 貢茶院에는 관리를 파견하여 차의 생산을 관리하였다. 이들은 차의 채취와 제조, 운반에 이르기까지의 모든 과정을 감독하였다. 그리고 황실에서는 1진으로 貢茶하는 茶는 清明 전에 도착하도록 하였는데, 이는 청명절 종묘 제사에 사용하기 위한 것으로, 급히 말을 몰아 운송하였기 때문에 急程茶라고 하였다.<sup>50)</sup> 顧渚茶에 대한 기록은 北宋 蔡寬夫의 <詩話>에도 기록되어 있다.

“唐茶品雖多，亦以蜀茶爲重，然唯湖州紫筍入貢，每歲以清明日貢到，先薦宗廟，然後分賜近臣”

당조의 차품은 비릇 종류가 많으나, 다만 촉차를 귀하게 여겼다. 그러나 오직 호주의 자순차만 공납하였다. 매년 청명일에 공차가 입공되면 먼저 종묘에 바치고, 그런 연후에 가까운 신하들에게 나누어 주었다.

이 기록에서는 당시 朝廷에서는 皇帝가 조상에 제사를 지내는 것을 중요시 여겼기 때문에 새로운 茶를 청명 전에 서둘러 채취하여, 貢茶로 만들어 조상에게 제사를 지내는 모습을 볼 수 있다.

이와 같은 顧渚茶를 陸游의 詩에서도 읊고 있는데, 그의 詩 <齋中弄筆偶書示子聿><sup>51)</sup>에는 “候火親烹顧渚茶 (불을 살피며 친히 고저차를 끓이네)”라는 구절이 있고, 또 그 외의 여러 詩들에서도 顧渚茶를 언급하고 있다.

위에서 살펴본 貢茶 외에 宋代에는 壑源茶와 日鑄茶도 공납하였다. 이 茶에 대해서는 뒤의 茶名조목에서 자세히 살펴보기로 하겠다.

위에서 살펴본 바에 의하면 宋代에는 皇室에 貢茶하기 위해서 北苑 지역에 御茶園을 지정하였다. 여기서는 茶의 표면에 龍鳳 등의 도안을 그려 넣은 龍鳳茶를 만들었으며, 이런 차의 형태는 唐代에 볼 수 없었던 것이다. 宋代 貢茶는 北苑 지역에서만 이루어 졌던 것이 아니라 여러 名茶 산지의 茶들도 貢納되었다. 이런 貢茶制度는 茶의 재배, 교역의 확대 등 宋代 茶文化産業의 興盛에 기여한 바가

벽돌 옥색의 우물, 몸소 은병을 찾아 몽정차를 맛보네”.

50) 박영환, 앞의 책, 178쪽 참조.

51) 錢仲聯, 앞의 책, 권5, 192쪽.

크다.

## 2) 研膏茶 製造

研膏茶의 製造 방법은 매우 복잡하다. 茶의 잎을 시루에 넣어 찐 다음, 압착기에 넣어 茶의 膏을 짜고, 膏를 짠 茶는 절구공이로 갈아서, 圈(틀)에 넣고 세게 눌러 고풍차로 만든다. 宋代에 성행했던 研膏茶가 처음으로 만들어진 時期에 대한 기록은 두 가지가 있다. 먼저 宋代 張舜民의 《畫墁錄》<sup>52)</sup>의 기록을 살펴보겠다.

“有唐茶品，以陽羨爲上供，建溪北苑未著也。貞元中，常袞爲建州刺史，始蒸焙而研之，謂之研膏茶。”

당대의 차 종류 중에서 양선차를 진공하였다. 건계의 복원차는 아직 들어나지 않았다. 정원중에 성하자 건주자사가 관리 했는데, 비로소 찌고 말려 그것을 갈았다. 그것을 일러 연고차라고 한다.

이 기록에서 말하는 貞元(785年 正月~805年 八月)은 唐의 德宗 李適의 年號로 晚唐 때부터 찌고 갈아서 만드는 研膏茶가 이미 만들어지고 있음을 말해 준다. 그리고 아래의 宋代 熊蕃의 <宣和北苑貢茶錄><sup>53)</sup>에도 研膏茶가 처음 제작된 시기에 대하여 기록하고 있다.

“五代之季，建屬南唐(南唐保大三年，俘王延政，而得其地)歲率諸縣民采茶北苑，初造研膏”

오대 말, 건안은 남당에 속해 있었는데(남당의 보대 3년(945)에 왕연정을 사로잡아서 그 땅을 얻었다) 남당에서는 해마다 여러 고을 백성들을 거느리고 복원에서 차를 따게 하여, 처음으로 연고차를 만들었다.

위의 내용을 보면 <宣和北苑貢茶錄>의 기록은 張舜民의 기록보다 훨씬 뒤에

52) 徐海榮, 앞의 책, 227쪽, 재인용.

53) 金明培, 《中國의 茶道》, 서울, 明文堂, 2007, 214쪽.

北苑에서 研膏茶를 만들기 시작했다고 말하고 있다. 위의 두 자료에서 나타난 研膏茶 제작 시기는 서로 다르게 나타나고 있지만, 이 두 기록을 보면 宋代 이전에 研膏茶가 만들어지기 시작한 것은 확실하다. 이런 研膏茶는 宋代에 들어와서 아주 盛하게 되는데, 여러 茶書들에서 이를 확인할 수 있다. 여기서 宋代 楊億의 《楊文公淡苑》<sup>54)</sup>을 살펴보기로 하겠다.

“江左乃有研膏茶供御，即龍茶之品也”

강 왼쪽에 공납하는 연고차가 있어 공납하였으니, 즉 용차의 종류이다.

이 기록에서는 研膏茶를 공납하였는데 ‘龍茶의 종류’라고 말하고 있다. 여기서 말하는 龍茶는 建州 北苑의 官焙에서 생산했던 茶로 團茶의 표면에 龍무늬 도안을 새겨 넣었기 때문에 龍茶라고 했다. 龍茶는 大龍, 小龍이 있고, 龍團이라고도 한다. 이런 龍茶는 陸游의 <雪夜作><sup>55)</sup>에서도 읊고 있음을 볼 수 있다.

龍茶與羔酒 용차와 고주를 더불어 마시니  
得失不足評 좋은 점과 나쁜 점을 평할 수 없네.

여기서 작자는 研膏茶인 龍茶와 羔酒를 마시며 그 맛에 대하여 평할 수 없음을 말하고 있다. 그리고 陸游의 <大閱後一日作假><sup>56)</sup>에서도 “正焙蒼龍試貢茶 (정배인 푸른 용차로 공차를 맛보네.)”라고 읊으며 龍茶를 언급하고 있다.

陸游의 시 외에 毛文錫의 《茶譜》<sup>57)</sup>에서도 研膏茶에 대한 기록을 찾아볼 수 있다.

“蒙頂有研膏茶，作片進之”

몽정에는 研膏茶가 있는데 조각차로 만들어 진공한다.

54) 徐海榮, 앞의 책, 227쪽, 재인용.  
55) 錢仲聯, 앞의 책, 권3, 344쪽.  
56) 錢仲聯, 위의 책, 권3, 221쪽.  
57) 金明培, 앞의 책, 113쪽.



이 기록을 보면 蒙頂에서도 研膏茶를 만들어 공납했음을 말해 주고 있다. 그리고 또 毛文錫의 《茶譜》<sup>58)</sup>에서도 研膏茶를 언급하고 있다.

“衡州之衡山，封州之西鄉，茶研膏爲之，皆片團如月”

형주의 형산과 봉주의 서쪽 마을에서는 차를 갈고 고를 짜서 만들었는데 모두 편차로 둥근 달과 같다.

이 기록에서는 研膏茶를 만드는 법과 모양을 기록해 놓고 있어서 研膏茶 연구에 도움을 주고 있다.

위에서 살펴 본 것처럼 宋代에 성했던 研膏茶는 만드는 과정이 매우 복잡하고 세밀하다. 아래에서 研膏茶 제조과정<sup>59)</sup>을 살펴보기로 하겠다.

#### (1) 開焙 (배소를 여는 일)

차관을 벌이는 것은 경칩 3일 전에 하고, 윤년이 들었을 때는 기후가 좀 늦어지기 때문에 경칩 3일 뒤에 벌인다.

#### (2) 採茶 (차 따기)

차를 딸 때는 동틀 때, 즉 五更(새벽 4시)에 시작하여 辰時(오전 8시)면 그만둔다. 이는 시간이 넘었는데도 차를 많이 따고자 탐내는 것을 막기 위함이다.<sup>60)</sup> 이처럼 研膏茶 제조에 쓰는 차는 시간을 엄하게 지키며 채취하였음을 알 수 있다. 그리고 차를 채취할 때는 손톱으로 하는데<sup>61)</sup>, 이는 땀 냄새 등이 스며들어

58) 金明培, 앞의 책, 113쪽.

59) 류건집, 《宋代茶書의 註解》, 도서출판 이른아침, 2012. 下권, 32~63쪽 참조. 류건집, 《宋代茶書의 註解》, 앞의 책, 上권, 98쪽 참조.

60) 金明培, 위의 책, 233쪽. 趙汝礪, 《北苑別錄》 “故每日常以五更搗鼓, 集群夫於鳳凰山(山有打鼓亭). 監采官人給一牌, 入山, 至辰刻復鳴鑼以聚之, 恐其逾時貪多務得也. (그러므로 날마다 오경에 북을 쳐서 일꾼을 봉황산에(산에 북을 치는 정이 있다) 모아놓고, 차를 따는 것을 살피는 감독관이 일꾼들에게 패 조각을 나누어 주어, 산에 들여보낸다. 진시가 되면 다시 징을 울려 모이게 한다. 그것은 시간이 넘었는데도 많이 얻고자 탐내는 것이 두렵기 때문이다.)”.

61) 도서출판아라 편집부, 앞의 책, 1권, 323쪽. 明代, 張謙德的 《茶經》 “採芽必以甲, 不以指, 以甲則速斷不柔, 以指則多濫易損 (차 싹을 딸 때는 반드시 손톱으로 따고, 손가락으로 따지 말아야 한다. 손톱으로 따면 빨리 끊어져서 품질이 좋고, 손가락으로 따면 따뜻한 기운이 잎에 손상을 주기 쉽다.)”.

깨끗하지 못할까 염려되기 때문이다.

### (3) 揀茶 (차잎 가리기)

차잎은 小芽, 中芽, 紫芽, 白合, 烏蒂의 등급으로 나눈다. 小芽는 작아서 매 발톱과 같은 것이다. 이와 같은 小芽를 찌서 익힌 다음 물에 담가 두었다가, 鍼과 같이 작고 질이 좋은 것을 골라낸 것을 水芽라고한다. 中芽는 槍 하나에 旗 하나가 붙은 모양으로 싹이 하나고 잎이 하나로, 즉 一槍一旗를 말한다. 紫芽는 자줏빛 잎을 말하며, 白合은 소아에 이를 받치듯이 돋아나는 두 잎, 즉 一槍兩旗이고, 烏蒂는 차잎이 줄기와 붙은 부분의 불룩하고 굵게 된 것을 말한다. 이와 같은 여러 가지 차잎 중에 水芽가 으뜸이고, 小芽는 버금간다. 龍園勝雪<sup>62)</sup>과 白茶<sup>63)</sup>는 이것으로 만든다. 紫芽, 白合, 烏蒂는 모두 취할 바가 못 된다.<sup>64)</sup> 白合을 섞으면 맛이 뚱고 얇게 된다. 그래서 이처럼 등급이 낮은 차잎을 상품의 차잎과 섞으며 맛을 해치기 때문에, 宋代 사람들은 紫芽, 白合, 烏蒂처럼 등급이 낮은 차잎은 모두 취할 바가 못 된다고 한 것이다.

### (4) 蒸茶 (차잎 찌기)

차잎을 가리고 나면 차를 찌야 한다. 차잎은 네 번 씻어서 시루에 넣고 찌는데, 찌 때는 지나치게 익으면 맛은 담백하나 빛깔은 누렇고, 덜 익으면 茶色은 푸르나 點茶할 때 가라앉아 풀 냄새가 나기 때문에 지나치게 익거나 덜 익지 않은 중간 상태로 찌는 것이 좋다.

62) 류건집, 《宋代茶書의 註解》, 앞의 책, 下권, 44쪽, 龍園勝雪 : 銀線水芽로 만든 한 변이 3센티미터 정도인 방형단차 이름이다.

63) 류건집, 《宋代茶書의 註解》, 위의 책, 下권, 44쪽, 白茶 : 차 이름으로 《湖北通志》에 이르기를 “《元和志》, 《唐書》 地理志 등에는 歸州의 토산차로 貢茶였다.”고 했다. 북원에서 나는 貢茶에도 백차가 있었으니, 직경 1촌 5푼의 원형 단차로 정화 2년에 만들었다. 류건집, 《宋代茶書의 註解》, 앞의 책, 上권 117~118쪽 참조. 趙佶의 《大觀茶論》白茶 조목 ; 白茶自 力一種, 與常茶不同, 其條數闊, 其葉瑩薄, 崖林之間, 偶然生出. (백차는 저절로 이루어진 한 종으로, 일반적인 차와 다르다. 그 가지는 크게 뽕고 잎은 얇고 선명하다. 언덕의 숲 사이에서 우연히 생겨난 것이다.).

64) 염숙, 염영옥, 앞의 책, 148쪽 참조. 金明培. 앞의 책, 223~224쪽 참조. 宋代, 姚寬의 《西溪叢語》 “採茶, 其或貪多務得又滋色澤, 往往以白合盜葉間之, 試時色雖鮮白, 其味澀淡者, 間白合盜葉之病也 (차를 따면서 만약 많은 것을 탐내거나, 윤이 나는 색을 얻기에 힘써, 왕왕 백합과 도엽을 섞으면, 맛볼 때 색은 비록 선명하고 희지만, 그 맛은 뚱고 얇은 것은, 그 사이 백합과 도엽을 섞은 병폐이다.)”.

(5) 榨茶 (차잎 짜기)

위와 같이 찢은 차잎은 물을 뿌리며 식힌 후 물기를 빼는 소형 틀에 넣어서 물기를 짠다. 그 다음 물기를 짜낸 차잎을 대껍질로 싸서 대형 압착기에 넣어 차의膏을 짠다.膏를 짤 때는 이 과정을 반복하는데, 이때膏가 다 빠지면 중단해야 한다. 이와 같이膏를 짜는 것에 대한 기록은宋代黃儒의《品茶要錄》<sup>65)</sup>의‘漬膏’조목에서도 찾아볼 수 있다.

“榨欲盡去其膏，膏盡則有如幹竹葉之色.”

짜기는 그 고를 다 없어지게 해야 한다. 고가 다 없어진 것은 마른 대 잎의 빛깔과 같다.

이 기록을 보면茶속의膏가 다 없어지면 차의 빛깔이 마른 대 잎의 빛깔과 같음을 말하고 있다. 그리고黃儒의《品茶要錄》의後論에서는 다음과 같은 기록이 있다

“蓋草茶味短而淡，故常恐去膏；建茶力厚而甘，故惟欲去膏”

무릇 초차의 맛은 짧고 담백하기에, 항상 고가 사라질까 두렵다. 건차는 맛이 진하고 달아 오직 고가 사라지기를 바란다.

위의黃儒의 두 기록을 보면茶잎의膏가 다 없어지면 마른 대잎의 색을 띠는 것을 알 수 있고,宋代 성행했던建茶는 맛이 진하고 달아膏가 사라지기를 바란다는 것을 알 수 있다.

(6) 研茶 (차 갈기)

이처럼 정성들여 찢고膏를 짜낸 다음研茶(차 갈기)로 들어간다.研盆(질그릇으로 만든 틀)에 넣어 물을 부어가며 메밀жат밤나무로 만든 절구공이로 가는데勝雪白茶는 16번 물을 첨가하면서 갈고,揀芽은 6번,小龍團은 4번,大龍鳳은 2번, 그 나머지는 모두 12번을 넣으며 간다.

65) 《四庫全書》，子部譜錄，《品茶要錄》.

(7) 造茶 (차 만들기)

차가 갈아졌으면 造茶(차 만들기)를 한다. 盆에서 간 茶를 꺼내어 손가락으로 비비며 매끄럽게 한 다음, 은이나 대나무로 만든 圈(틀)에 넣고 세게 눌러 固形茶로 만든다. 茶의 모양은 사각형, 꽃모양, 大龍, 小龍 등 그 품종이 다르고, 그 이름 또한 다르다.

(8) 過黃 (차 말리기)

固形茶를 만든 다음에는 세찬 불에 쪄여 말리고, 그 다음에는 끓는 물에 한 번 통과시킨다. 이 과정을 세 번 반복한 다음 하룻밤 묵히고, 煙焙<sup>66)</sup>하여 건조시킨다. 이때 두꺼운 固形茶는 10~15일, 얇은 固形茶는 6~8일까지 건조시킨다. 이 과정이 끝나면 끓는 물 위를 통과 시켜서 빛깔을 낸 뒤에 밀실에 놓고 부채질하며 빠르게 말리면 윤기가 발하게 된다. 위와 같이 복잡한 과정을 거치는 研膏茶를 만들 때는 天時을 잘 만나는 것이 중요하다. 가벼운 추위에서는 英氣와 精華가 서린 찻잎이 돌아나고, 차 만드는 사람들은 조용히 힘을 기울일 수 있어서 차 색과 맛이 제대로 나온다. 그러나 차를 팔 때 햇빛이 너무 강하고, 싹이 빨리 돌아나면 차 만드는 공정이 급해지게 된다. 그러다 보면 차를 제조하는 사람은 무리하게 힘으로 손질하고, 찻잎이 말라 버릴까봐 서두르게 되며, 차를 짜거나 갈 때도 제대로 못하여 찌넌 차 속에 膏가 남아 있게 되는데, 이렇게 하면 차의 색과 맛이 제대로 나오지 않게 된다. 그러므로 차를 만들 때는 天時를 만나는 것이 중요하다.<sup>67)</sup>

### 3) 茶館의 盛行

宋代는 상업의 발달로 상업 활동이 활발하게 진행되었다. 北宋 때 도성인 開封은 자정 이후에도 夜市가 열렸으며, 사람들은 시간과 공간에 제약이 없이 자유로이 상업 활동을 하였다. 게다가 宋代는 茶를 마시는 일이 보편화 되어서, 곳곳에 휴식 및 교류 등의 목적으로 茶館이 생겨나게 된다. 여기서 宋代에 유행했던 茶

66) 류건집, 《宋代茶書의 註解》, 앞의 책, 下권, 62쪽. 煙焙 : 알은 불기운으로 말린다는 뜻이다.

67) 류건집, 《宋代茶書의 註解》, 위의 책, 上권, 97쪽 참조.

館에 대하여 언급하고 있는 陸游의 <大堤><sup>68)</sup>를 먼저 살펴보기로 하겠다.

日晚大堤行 날이 저물어 큰 독을 지나는데  
莽然千里平 풀이 무성하여 천리가 평평하네  
天低垂曠野 하늘은 들판에 낮게 드리우고  
風壯撼高城 바람은 높은 성을 세차게 흔드네  
列肆居茶估 열지어선 다관에서는 차를 팔고  
連營宿戍兵 이어지는 진영에서는 주둔한 병사들이 묵네  
累累北門墩 북문에는 보루가 잇달아 있고  
淚盡望神京 눈물이 다하도록 수도를 바라본다네.

이 詩는 淳熙 5년(1178) 5월, 그의 나이 54세 때 江陵에서 쓴 詩이다.<sup>69)</sup> 이 시기는 陸游가 臨安에서 提學福建常平茶鹽公事일을 맡아 보고 있을 때이다. 이 詩의 首聯은 해질녘에 뚝 위를 지나가며 시야에 들어오는 풍경을 읊고 있다. 頷聯은 하늘과 들판이 맞닿은 모습과 세찬 바람이 부는 모습을 읊고 있다. 頸聯은 열지어진 茶館에서 차를 팔고 있는 모습과 병사가 주둔하고 있는 陣營을 노래하고 있다. 그리고 마지막 聯은 그 주변의 보루의 모습과 눈물겹도록 首都를 그리는 작자의 모습을 그리고 있다. 이 詩에서 陸游는 茶館을 언급하고 있다. 이 詩의 내용으로 보면 茶館은 도심에만 있었던 것이 아니라 군대가 주둔하는 陣營 근처에도 있었음을 알 수 있다.

이런 宋代 茶館은 화려하게 장식을 하여 손님들에게 茶를 판매하였는데, 吳自牧의 《夢梁錄》<sup>70)</sup> 卷16, 茶肆條를 살펴보면 다음과 같은 기록이 있다.

“今杭城茶肆亦如之.....插四時花, 掛名人畫, 裝點門面.....今之茶肆列花架, 安頓奇松異檜等物於其上, 裝飾店面, 敲打響盞歌賣”

지금에 항주성 다사 또한 이와 같으니..... 사계절 꽃을 꽂아놓고, 명인의 그림을 내걸어 가게의 문전을 장식하였다..... 지금의 다사에서는 화분걸이를 진열하고, 그 위에 기이한 소나무와 특이한 전나무 등을 배치하여 가게의 입구를 장식하였으며, 향잔을 두드

68) 錢仲聯, 앞의 책, 권2, 195쪽.

69) 위의 주)와 같음. 鄒志方, 앞의 책, 392쪽.

70) 《武林掌故叢編》, 第十四集5, 夢梁錄, 卷十二至卷十六.

리고 노래하면서 차를 판매한다.

이 기록을 보면 宋代 茶館은 손님을 맞이하기 위하여 화려하게 사계절 꽃을 꽂아 놓기도 하고, 명화 및 화분 장식 등으로 가게를 꾸며서, 악기를 연주하며 손님을 맞이하는 모습을 볼 수 있다. 그리고 王明清의 《摭青雜說》<sup>71)</sup>에는 다음과 같은 기록이 있다.

“京師樊樓畔，有一小茶肆，甚瀟灑清潔，皆一品器皿，椅桌皆濟楚，故實賣茶極盛”

수도의 번루반에 작은 다관이 있는데, 매우 시원스럽고 청결하다. 모두 일품의 식기들이고, 나무 탁자들은 모두 초에서 건너온 것이다. 옛날에는 실로 차를 파는 것이 매우 번성했다.

여기서는 북송의 유명한 樊樓畔茶肆의 모습을 자세히 설명하고 있다. 이 기록을 보면 茶館이 매우 시원스럽고 청결함을 엿볼 수 있고, 나무 탁자와 식기들을 갖추어 놓고 茶는 파는 모습까지 자세히 언급하고 있어서, 그 당시 茶館의 모습을 상상할 수 있게 한다. 이런 茶館들은 남녀노소 누구나 자유로이 드나들 수 있는 자유로운 공간이었다.<sup>72)</sup> 아래에서 吳自牧의 《夢梁錄》<sup>73)</sup> 卷16, 茶肆條를 살펴보기로 하겠다.

“更有張賣麵店隔壁黃尖嘴蹴球茶坊，又中瓦內王媽媽家茶肆名一窟鬼茶坊，大街車兒茶肆 蔣檢閱茶肆，皆士大夫朋約友會聚之處”

장매면점은 황침취축구다방에 이웃하여 있고, 또 그 중의 와내에 왕마마가다사 즉, 일명 일굴귀다방이 있으며, 대로에는 차아다사와 장검열다사가 있는데, 이곳 대부분은 사대부들이 친구들과 약속하여 만나는 곳이다.

71) 徐海榮, 앞의 책, 1044쪽 참조.

72) 洪邁 《夷堅甲志》 卷第一, 石氏女 조목: “京師民石氏開茶肆，令幼女行茶。嘗有丐者，病癩，垢汚，藍縷，直詣肆索飲。女敬而與之，不取錢，如是月餘，每旦，擇佳茗以待（경사에 살고 있는 석씨가 다사를 열었는데, 그는 어린 여자 애를 데리고 차를 팔았다. 그 곳에는 비렁뱅이, 정신병자, 의복이 더럽고 남루한 자들까지도 이곳 다사에 와서 차를 찾아 마셨는데, 여인은 정성스럽게 그들에게 차를 주었으며, 돈은 받지 않았다. 이와 같이 하기를 한 달 정도, 매일 아침, 질 좋은 차를 골라 대접하기도 하였다.)”.

73) 《武林掌故叢編》, 第十四集5, 夢梁錄, 앞의 책, 卷十二至卷十六.

당시의 茶館은 신분이나 연령의 多少에 관계없이 드나 들 수 있는 곳이었는데. 이런 茶館은 親友들과의 만남의 장소이자, 그들과 교류하며 한가한 시간을 보낼 수 있는 공간이었다. 그리고 당시 사회의 소식과 각종 진기한 얘기들을 모두 들을 수 있는, 정보와 소식을 교류하는 중요한 장소가 되기도 하였다.<sup>74)</sup> 이런 茶館의 영업은 경쟁도 심했는데, 茶館의 주인은 손님을 끌기 위해 茶館을 정성들여 장식하는 것 외에 많은 오락프로그램을 진행하기도 했다. 그 중에서 현악기를 연주하고 說書を 하는 것이 매우 두드러진다. 아래에서 예로 들고 있는 吳自牧의 《夢梁錄》<sup>75)</sup> 卷16, 茶肆條를 살펴보면 다음과 같은 기록이 있다.

“大凡茶樓多有富室子弟，諸司下直等人會聚，習學樂器，上教曲賺之類，謂之掛牌兒”

대체로 다루에는 부잣집 자제들이 많고, 퇴근길 관리들이 사람을 기다리며 모였는데, 그들은 악기를 배우거나 곡조류에 대하여 가르침을 받았는데, 이들을 ‘괘패아’라고 일컬었다.

茶館에서 현악기에 맞추어 노래 부르는 사람은 두 종류인데, 하나는 茶館 주인이 돈을 주고 고용한 사람이 노래를 부르는 것이고, 다른 하나는 부잣집 자제, 관리, 일반 백성들이 악기 다루는 법과唱을 배우는 것이다. 이와 같이 茶館에서는 다양한 계층의 사람들이 찾아와서 茶館의 음악을 즐기거나 직접 자신이 음악을 배우는 경우까지 있음을 볼 수 있다.

위에서 살펴본 일반적인 茶館 외에 ‘蹴球茶坊’이란 茶館도 있었다. 이곳은 南宋 시대에 축구 활동을 진행할 수 있는 茶館이었다. 축구는 宋代 매우 유행한 놀이이며 몸을 튼튼하게 하는 활동으로 축구로 승부를 겨루기도 하였다. 宋代 太尉 벼슬을 한 高俅는 축구를 잘 했기 때문에 徽宗皇帝의 총애를 얻었다고 할 정도로 이 蹴球茶坊은 바로 역사적 사실을 반영하고 있으며, 이런 활동은 北宋 때 매우 보편적으로 보급되었다.

이외에도 ‘俞七郎茶坊’이라는 茶館이 있었는데, 이곳은 南宋의 都城인 臨安의

74) 楊永兵, <試論宋代茶官的功能>, 雲南大學中國經濟史所, 참조.

75) 《武林掌故叢編》, 第十四集5, 夢梁錄, 앞의 책, 卷十二至卷十六.



유명한 色情 茶館이다. 《夢梁錄》<sup>76)</sup>卷十六, 茶肆 조목에 보면 다음과 같은 기록이 있다.

“大街有三五家開茶肆, 樓上專安著妓女, 名曰花茶坊, 如市西坊南潘節幹, 俞七郎茶坊, 保佑坊北朱骷髏茶坊, 太平坊郭四郎茶坊, 太平坊北首張七相幹茶坊, 蓋此五處多有炒鬧, 非君子駐足之地也.”

큰길의 3, 5가에 다관을 열어서, 루 위에 기녀들을 앉혀 놓았는데, 화차방이라고 부른다. 시서방남반절간, 유칠랑다방, 보우방북주고루다방, 태평방곽사랑다방, 태평방북수장칠상간다방과 같다. 대개 이런 다섯 곳은 매우 시끄러워서 군자가 발붙일 곳이 아니다.

그리고 耐得翁의 《都城紀勝》<sup>77)</sup> 茶坊 조목에도 다음과 같은 기록이 있다.

“水茶坊乃娼家聊設桌凳, 以茶爲由, 後生輩甘於費錢, 謂之乾茶錢”

수다방은 기생집과 마찬가지로인데, 탁자와 걸상을 설치해 놓았다. 차 마신다는 것을 핑계로 삼아, 젊은이들은 기꺼이 돈을 지불하였으니, 이를 일러 ‘건다전’이라 하였다.

위의 두 기록을 보면 妓女들이 상주해 있는 요란한 찻집이 있고, 이런 곳에서 젊은이들이 차를 마신다는 핑계로 돈을 아끼지 않고 쓰고 있는 모습들을 살펴볼 수 있다. 그러나 이런 곳은 사람들이 삼가야 할 곳이라 여겼기 때문에 이런 곳은 군자가 발붙일 곳이 못 된다는 경계의 말을 덧붙이고 있음을 볼 수 있다.

위에서 살펴본 내용을 간단히 정리해 보면, 宋代 茶館은 화려한 장식을 하고 손님을 맞이했다. 이곳에서는 사람들이 交遊도 하고, 서로 정보도 교환했으며, 각종 오락프로그램을 즐기기도 했다. 茶館은 여러 계층의 사람들이 모두 출입이 가능했으며, 축구와 관련된 茶館과 色情 茶館 등, 기능이 다양한 茶館들을 볼 수 있다. 그러나 宋代 茶館을 언급하고 있는 陸游의 詩는 단지 한 首밖에 전해지지 않아서 아쉬움을 남게 한다. 그렇지만 陸游의 시를 통해서 宋代 茶館은 도심에만 있었던 것이 아니라, 軍이 주둔하는 陣營 부근에도 있었음을 밝힐 수 있었다. 軍

76) 《武林掌故叢編》, 第十四集5, 夢梁錄, 앞의 책, 卷十二至卷十六.

77) 《武林掌故叢編》本《御題臨安志: 卷一至卷三·都城紀勝》.

陣營 부근의 茶館에 대한 자료는 흔치 않기 때문에 위에서 예로든 陸游의 詩는 宋代 茶館연구에 귀한 자료가 되고 있다.

#### 4) 茶書編纂

宋代는 茶文化의 흥성에 따라 茶學에 관련된 서적들도 많이 집필되었다. 그 중에서 몇몇 茶書들을 살펴보면, 陶穀의 《荈茗錄》, 丁謂의 《北苑茶錄》, 周絳의 《補茶經》, 葉清臣의 《述煮茶小品》, 劉異의 《北苑拾遺》, 蔡襄의 《茶錄》, 沈立의 《茶法易覽》, 宋子安의 《東溪試茶錄》, 黃儒의 《品茶要錄》, 呂惠卿의 《建安茶記》, 沈括의 《本朝茶法》, 王端禮의 《茶譜》, 趙佶의 《大觀茶論》, 唐庚의 《鬪茶記》, 熊蕃의 《宣和北苑貢茶錄》, 趙汝礪의 《北苑別錄》, 審安老人의 《茶具圖贊》, 章炳文的 《壑源茶錄》 등등이 있고, 이외에도 몇몇 失名氏의 茶書들이 있다. 이들 중에는 宋代 徽宗皇帝인 趙佶이 있고, 朝廷의 大臣과 文學家인 丁謂, 蔡襄이 있으며, 그리고 著名한 科學家인 沈括, 이름을 알지 못하는 隱士인 審安老人 등이 있다. 이런 작자들의 신분을 보면 宋代 茶學 研究의 계층은 다양하다고 할 수 있다. 이처럼 이 시대에는 비교적 많은 茶書가 저술되었는데, 이는 中國 古代 茶書의 30%를 점유하는 것으로, 宋代에는 茶에 대한 관심이 매우 높았음을 알 수 있다.<sup>78)</sup>

이렇게 편찬된 宋代 茶書 중에서 몇몇 작품의 내용을 간단히 살펴보기로 하겠다. 우선 《大觀茶論》<sup>79)</sup>을 살펴보면, 이 책은 北宋말의 徽宗皇帝(1082~1135) 즉, 趙佶이 1107년에 저술한 것이다. 그는 詩文과 서화 등, 예술적 방면에 조예가 깊었다. 풍류를 좋아하여 호사스러운 생활을 하였으며 風流天子라는 칭호를 얻기도 하였다. 그러나 그는 총애하는 신하들에게 정치를 맡기고, 奸臣 등을 등용하여 몰락의 길을 걷게 된다. 그는 茶에 대한 관심이 많아 茶書를 편찬했을 뿐 아니라 친히 茶를 點茶하여 신하들에게 나눠 주기도 한 황제로 유명하다.

이 책에서는 地產, 天時, 采擇, 蒸壓, 製造, 鑿辯, 白茶, 羅碾, 盞, 筥, 瓶, 構, 水, 點, 味, 香, 色, 藏焙, 品名, 外焙 등 20조목으로 나누어 기록하고 있다. <地產>편에서는 茶가 잘 자랄 수 있는 자연 조건과 產地 조건 등을 설명하고 있

78) 徐銀美, <茶書와 宋代 茶文化>, 경성대, 2002, 참조.

79) 도서출판아라 편집부, 앞의 책, 권1, 70~72쪽.

고, <天時>편에서는 茶를 만드는 시기를 언급하고 있다. 그리고 <采擇>편에서는 茶를 따는 방법과 찻잎의 등급에 대하여 언급하고 있다. 點조목에서는 點茶에 대하여, 第 1湯으로부터 시작해서 第 7湯까지 분류하여 상세하게 기록하고 있다.

위의 《大觀茶論》에서 언급하고 있는 <點>편의 點茶에 관한 내용은 陸游가 직접 詩로 읊고 있으며, 이 책의 <蠶>편에 기록되어 있는 兎毫蠶도 陸游의 詩에 반영되어 나타난다. 이 내용은 본 논문 뒷부분의 ‘點茶’와 ‘兎毫蠶’ 부분에서 살펴볼 수 있다. 이것으로 보면 茶書의 탐독을 즐겼던 陸游는 《大觀茶論》의 영향을 받았을 가능성이 크다고 볼 수 있다.

다음으로 宋代 행정가이며, 茶를 좋아하는 茶人인 蔡襄이 쓴 《茶錄》<sup>80)</sup>을 살펴보기로 하겠다. 蔡襄은 福建의 轉運使를 지냈고 茶에 조예가 깊었으며, 小龍團을 만들어 仁宗皇帝에게 인정을 받기도 했다. 그는 《茶錄》의 前序에서 다음과 같이 기록하고 있다.

“昔陸羽茶經，不第建安之品；丁謂茶圖，獨論采造之本，至於烹試，曾未有聞，臣輒條數事，簡而易明，勒成二篇，名曰茶錄。”

옛날 육우의 《다경》에서도 건안차에 대하여 품평을 하지 않았고, 정위의 다도에서는 오직 차를 따서 만드는 기본만을 논했을 뿐, 차를 달이는 문제에 이르러서는 일찍이 들은 바가 없습니다. 신이 몇 가지 조목으로 나누어, 간단하고 알기 쉽게, 두 편으로 묶어, 이름을 다록이라 했습니다.

이 기록은 이 책의 편찬 이유를 황제께 아뢰는 글 형식으로 기록하고 있다. 이 책은 상, 하편으로 나뉘었는데, 상편의 <論茶>에서는 分色, 香, 味, 藏茶, 炙茶, 碾茶, 羅茶, 候茶, 燴蠶, 點茶 등, 10조목으로 이루어 졌다. 하편의 <論茶器>에서는 茶焙, 茶籠, 砧椎, 茶鈴, 茶碾, 茶羅, 茶蠶, 茶匙, 湯瓶 등 9조목으로 이루어져 있다. 이 책 상편의 <香> 부분에서는 貢納하는 茶에는 龍腦를 섞었음을 기록하고 있고, <味> 부분에서는 北苑의 鳳凰山에서 나는 茶의 맛의 우수성 등을 기록하고 있다. 그리고 하편의 <茶蠶>에서는 建安에서 생산되는 兎毫蠶의 우수성을 언급하는 등 宋代 차 문화를 한눈에 들여다 볼 수 있다.

80) 도서출판아라 편집부, 위의 책, 권1, 67쪽.

위의 茶書를 쓴 蔡襄은 陸游의 <耒陽令曾君寄禾譜農器譜二書求詩><sup>81)</sup>에서도 언급하고 있음을 볼 수 있다.

歐陽公譜西都花 구양수는 서도의 꽃을 기록하고  
蔡公亦記北苑茶 채양은 또 북원차를 기록했네

이 시에서는 蔡襄이 北苑茶를 기록했음을 陸游가 언급하고 있는 대목이다. 이것으로 보면 蔡襄의 茶書를 陸游가 탐독했음을 알 수 있다. 그리고 陸游의 다른 시에서도 蔡襄의 《茶錄》에 실려 있는 내용들, 즉 碾茶, 點茶, 茶籠, 茶碾 등에 대하여 언급하고 있음을 볼 수 있다. 이 내용들은 본 논문 뒷부분의 點茶, 茶籠, 碾 등을 논하는 부분에서 자세히 들여다 볼 수 있다.

위의 茶書 외에도 《宣和北苑貢茶錄》<sup>82)</sup>이 있는데, 이 茶書는 熊蕃이 지었고, 뒤에 그의 아들 熊克이 증보하였다. 熊蕃은 太平興國(976~983)초에 건안에서 北苑茶를 공납하는 일을 관장했다. 그는 현장에서 직접 보고 체험한 北苑의 貢茶에 대한 내용들을 기록하여 《宣和北苑貢茶錄》에 남겼다. 그는 이 책에서 唐 말기까지는 北苑茶가 이 세상에 드러나지 않았고, 南唐에서 研膏茶를 만들었음을 언급하고 있다. 그리고 龍鳳茶 제작의 시기와 貢納에 대하여 기록하였으며, 그 뒤에 蔡襄이 만든 龍團茶와 그 외의 名茶들에 대해서도 언급하고 있다. 그리고 50여종의 다양한 茶와 茶의 제조년도를 기록했고, 그의 아들 熊克이 증보하면서 그려 넣은 貢茶의 모형 그림에서는 貢茶의 모양, 貢茶의 크기, 龍鳳의 무늬 등을 살펴볼 수 있다. 그러므로 이 茶書에서는 宋代 御茶園이 있던 北苑의 貢茶文化를 한눈에 들여다 볼 수 있다. 이 茶書에 실려 있는 貢茶인 龍鳳 무늬의 茶는 본 논문 뒷부분의 貢茶 조목에서 예를 들어 놓은 陸游의 詩에서도 살펴볼 수 있다.

다음으로 趙汝礪의 《北苑別錄》<sup>83)</sup>을 보면, 이 책은 宋代 趙汝礪가 福建 轉運司에서 主管帳司로 있을 때인 1186년에 쓴 책으로, 熊蕃의 《宣和北苑貢茶錄》에서 부족한 부분들을 보완하여 편찬한 것이다. 이 茶書는 御園, 開焙, 採茶, 揀茶, 蒸茶, 榨茶, 研茶, 造茶, 過黃, 綱次, 開畚, 外焙 등의 조목으로 이루어져 있다. 이

81) 錢仲聯, 앞의 책, 권6, 163쪽.

82) 도서출판아라 편집부, 앞의 책, 권1, 72쪽.

83) 도서출판아라 편집부, 위의 책, 권1, 82~90쪽.

책의 <御園> 부분에서는 46개소의 御園의 위치와 명칭을 자세하게 기술하고 있다. 그리고 <開焙> 부분에서는 焙所를 여는 시기를 기록하고 있고, 그 외의 조목에서는 차의 채취와 고르기, 차를 찌서 膏을 짜는 과정 등, 茶 제조 과정을 자세하게 설명하고 있다.

審安老人의 《茶具圖贊》<sup>84)</sup>은 南宋 말기에 지어 졌는데, 點茶용 茶器들을 소개하고 있다. 여기서는 擬人法을 이용하여 姓, 官職, 名, 子, 雅號 등으로 茶具를 묘사했는데, 姓은 茶具의 材料를 나타내고, 名은 茶具의 명칭을 나타낸다. 茶具 중 ‘韋鴻臚’를 예로 들면, 韋는 ‘성 위’로 ‘갈대 위(葦)’자의 변형이며, 鴻臚는 당나라 때 벼슬 이름인 鴻臚寺로, 이 글자들을 이용하여 研膏茶와 草茶<sup>85)</sup>를 보관하는 ‘韋鴻臚’라는 茶具의 이름을 만들었다. 그리고 ‘金法曹’라는 茶具의 名도 의인화하여 만들었는데, ‘金法曹’라는 茶具는 姓을 나타내는 글자로 ‘金’자를 썼는데 이는 쇠붙이로 만들었다는 뜻이고, 法曹은 司法官이라는 뜻이지만, 槽(구유조)와 관련이 있다. 여기서 槽는 절구라는 뜻을 가졌으며, 研膏茶를 가루로 내는데 사용하는 茶具를 말한다.<sup>86)</sup>

宋子安의 《東溪試茶錄》<sup>87)</sup>은 ‘序, 焙名, 北苑(曾坑, 石坑附), 壑源(葉源附), 佛嶺, 沙嶺, 茶名, 采茶, 茶病’ 등의 8조목으로 나누어 기술하고 있다. 이 책에서는 여러 焙의 연혁과 각 茶園의 위치와 특징을 상세히 서술하고 있고, 茶名으로는 白葉茶, 柑葉茶, 早茶, 細葉茶, 稽茶, 晚茶, 叢茶 등, 일곱 종류의 茶로 구별하고 있다. 그리고 차나무의 성질과 형상, 茶產地를 포함하고 있으며, 茶를 채취하는 時期와 시간, 방법도 기록하고 있다.

黃儒의 《品茶要錄》<sup>88)</sup>은 熙寧 八年(1075年) 편찬한 것이다. 이 서적은 序言, 采造過時, 白合盜葉, 入雜, 蒸不熟, 過熟, 焦釜, 壓黃, 漬膏, 傷焙, 辨壑園沙溪, 後論 등의 조목으로 나누어 논하고 있는데, 여기서 논하는 대상은 北苑茶를 대상으로 하고 있다.

위에서 살펴본 宋代의 茶書들은 茶의 製造, 貢茶, 飲茶俗 그리고 茶具 등 다양

84) 도서출판아라 편집부, 앞의 책, 권1, 86~90쪽.

85) 徐海榮, 앞의 책, 90쪽. “中國古代茶類名稱之一, 卽散茶(중국 고대 차류의 명칭의 하나, 즉 산차이다.)”.

86) 金明培, 앞의 책, 237~239쪽 참조.

87) 도서출판아라 편집부, 위의 책, 권1, 67~69쪽.

88) 도서출판아라 편집부, 위의 책, 권1, 69~70쪽.

한 내용들을 수록해 놓음으로써 宋代 茶文化를 한 눈에 들여다 볼 수 있게 하였다.

위의 茶書에 실려 있는 내용들은 陸游의 詩에도 자주 나타나는 것으로 보아, 宋代의 茶書의 편찬은 陸游의 詩에 많은 영향을 주었음을 짐작해 볼 수 있다. 그러므로 위에서 살펴본 茶書들과 陸游의 茶詩들을 비교 분석하면 宋代 茶文化를 자세히 들여다 볼 수 있다.

### 5) 茶馬貿易

唐代, 안록산이 난을 일으키자 위구르족은 두 번이나 파병을 하여 唐軍을 도와서 반란을 평정하였다. 그리고 그들은 말과 茶를 바꾸어 돌아갔는데, 이게 바로 茶馬貿易이 시작이다.<sup>89)</sup> 이 때 吐蕃도 난에 편승하기도 했고 唐의 서부 지역을 점령하기도 했었는데, 이 시기 즈음에 吐蕃에도 茶가 전해졌다. 《四庫提要》<sup>90)</sup>에 보면 다음과 같은 기록이 있다.

“常魯公이 西蕃에 사신으로 가서 천막 안에서 차를 달였다. 티벳왕이 ‘이것은 무슨 물건입니까?’ 하고 묻자, 노공이 ‘번뇌를 씻고 갈증을 치유합니다. 이른바 차라고 합니다.’ 라고 답했다. 티벳왕이 ‘그것은 내게도 있소이다.’ 하고는 수하에게 명하여 내게 했다. 그리고는 가리키며 ‘이것은 壽州 것이고, 이것은 舒州 것이며, 이것은 顧渚 것이고, 이것은 蘄門 것이고, 이것은 昌明 것이고, 이것은 瀘湖 것이오.’라고 했다.”

이 기록은 常魯가 781년에 토번으로 사신으로 갔을 때 토번의 왕과 茶를 달이며 나누었던 내용으로 안록산의 난 이후에 토번에게도 茶가 전해 졌음을 보여주고 있다.<sup>91)</sup>

茶馬貿易을 처음 시작할 시기에 茶를 주로 사용한 계층은 西北 지방에서 생활하고 있는 少數民族의 왕과 귀족들이었다. 당시 변방의 소수 민족들은 고기와 우유 등을 주식으로 삼기 때문에 茶를 가지고 느끼한 기름기를 제거하려고 했다. 그들은 심지어 “날고기를 먹으면 茶가 아니면 소화 안된다.” 라는 생각을 가지

89) 品維新, 앞의 논문, 참조.

90) 누노메초후 지음, 정수일 옮김 《중국각다문화사》, 동국대학교 출판부, 2012년, 243쪽, 재인용.

91) 누노메초후 지음, 정수일 옮김, 위의 책, 243쪽 참조.

고 있었고 또한 “쌀보리의 열은 茶가 아니며 제거 되지 않는다.”라고 생각했다. 게다가 그들은 乳酪을 좋아하기 때문에 “茶를 먹지 않으면 병이 생긴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었다.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는 소수 민족들에게 茶는 일상생활에서 없어서는 안 되는 매우 중요한 것이었다. 그래서 대량으로 말을 이용해 茶를 바꿔가기 시작한다. 그리고 음차 풍속도 점차 변방의 소수민족에게 깊게 전파되어 宋代에 이르러서는 소수민족의 왕과 귀족, 아래로는 서민백성들까지 모두 하루라도 茶가 없으면 안 되었다. 이에 宋朝는 軍馬 얻기 위한 방법으로 茶와 그들의 말을 서로 바꾸는 茶馬貿易을 하게 된다. 宋代에는 茶산업이 발달로 茶의 생산량이 증가했는데 이는 宋朝가 茶馬貿易을 하는데 풍부한 물질적 기초가 되었다.<sup>92)</sup>

北宋 때는 요나라 그리고 西夏와 끊임없이 전쟁을 했다. 그래서 많은 양의 戰馬가 필요했다. 이런 시대적 상황은 茶馬貿易이 왕성하게 된 큰 원인이다.

宋朝가 戰馬를 교환하는데 사용한 물자는 絹, 銅, 錢과 茶 등이었다. 宋 太宗 至道년간에는 錢으로 戰馬를 교환했다. 그 때문에 매년 주조된 동전은 80만 貫이었고, 神宗 元豐 3년에 이르러서는 銅錢 506貫이 주조 되었다. 그러나 후에는 돈을 주조하는 원료가 모자라서 돈을 주조하는 수량이 해마다 감소했다. 南宋시기에 이르러서는 돈을 주조하는 수량이 더욱 감소했고 銅錢으로 말을 바꾸는 형식의 무역은 몇 가지 문제점이 발생하게 된다. 첫째로 북방 유목민족들은 돈을 얻으면 그 돈을 녹여 무기를 만들어서 군사능력을 증강시켰다. 이 때문에 宋朝의 군사력은 대대적으로 불리해졌다. 그리고 당시 말 가격은 평균 30貫錢이었기 때문에 매년 25,000匹馬을 사들였던 宋朝는 높게는 75萬貫의 銅錢을 소비하였다. 이것은 당시 국가 재정으로는 부담 할 수 없는 큰돈이었다. 이외에도 絹으로 말을 바꾸는 것을 고려했는데, 太宗과 眞宗 때는 중앙에서 받아들이는 一匹의 絹의 가치는 一貫이었다. 한필의 말을 사려면 絹 30匹이 필요하였다. 그래서 만약 매년 25,000필의 말을 사려면 75萬匹의 絹이 소모되었다. 이것도 당시 宋朝에게는 감당하기에 버거운 것이었다. 그래서 熙寧 7년(1074)에 王韶가 神宗에게 “西疆의 유목민들은 말이 많아 변방에서 貿易을 하는데 그들의 바꾸어 가는 것은 오직 茶이다.”라고 상소를 하자 神宗은 과잉 생산되는 茶로 오랑캐들의 良馬를 바꾸도

92) 品維新, 앞의 논문, 참조.



록 하였다.<sup>93)</sup> 이에 茶馬貿易은 神宗 熙寧 7년(1074)에 이르러 제도적으로 정착된다.<sup>94)</sup>

이런 宋代의 茶馬貿易은 몇 가지 기본 규정이 있었다. 첫째로는 買茶場에서 茶農의 차를 구입할 때는 반드시 국가가 정한 공정한 가격에 따르게 했다. 둘째로는 茶상인은 茶농민과 직접 거래를 할 수 없었고 茶를 살 때는 반드시 買茶場에서 진행했다. 買茶場은 茶馬司가 직접 관리하였다. 그리고 茶場이 소재한 지방의 長官은 감독의 직책이 있었다. 그리고 茶場은 관에서 정해진 가격에 따라 사천에서 운송해 온 茶를 팔았다. 세 번째는 官, 商, 民이 茶를 밀매하는 것을 금지했다. 위반자는 체포하였고 중죄로 처벌하였다. 네 번째는 買馬 기구의 건립이다. 熙寧 8년에 李杞가 6개의 買馬場을 熙和路에 설치했고, 이후에 다른 여러 지역에도 買馬場을 설치하였다.

宋代 茶馬貿易의 구체적인 방식은 차와 말의 가격을 비교하는 문제가 매우 민감했기 때문에 그 합리성 여부는 茶馬貿易의 진행 여부에 직접적으로 관계 되었다. 이에 대하여 宋朝는 “시장에 따라 가격을 일정하게 정한 예가 없다.”라는 원칙을 채용하였다. 元豐 연간에는 말 공급의 충족되었기 때문에 말 한필은 단지 50公斤의 茶를 가지고 교환하였다. 후에 四川 茶 가격이 하락으로 한匹의 말은 도리어 125公斤의 茶가 필요하였고, 宗寧 연간에는 말의 품질 등급에 따라 茶의 양을 정해서 구매하기도 하였다. 南宋 때에는 말의 공급이 급속히 감소했기 때문에 한匹의 말을 구입하는데 500公斤의 茶가 필요 하였다. 그래서 宋朝는 吐蕃에게 말을 가지고 茶를 사가도록 적극적으로 장려하기도 하였다. 宋朝는 또한 茶馬貿易에서 茶를 파는 가격은 專賣茶의 가격보다 가격을 내리는 정책을 규정하는 등 茶馬貿易을 계획적으로 실행하였다. 그 결과로 茶산업 및 목축업의 발전을 가져왔을 뿐만 아니라 동시에 기타 상품, 예를 들자면 유목민들의 牛, 羊, 獸皮 및 한족지방의 絹, 布匹, 陶瓷 등의 상품교환도 진일보 촉진되었다.<sup>95)</sup>

## 6) 茶道의 變遷

93) 品維新, 앞의 논문, 참조.

94) 조기정. 앞의 책, 211쪽 참조. 品維新, 앞의 논문, 참조.

95) 品維新, 위의 논문, 참조.

茶道에 대한 용어가 최초로<sup>96)</sup> 출현한 것은 皎然의 <飲茶歌誚崔石使君><sup>97)</sup> 중에 “孰知茶道全爾眞，唯有丹丘得如此 (누가 알겠는가 다도라는 것은 그 참다움을 보전하는 것임을, 오직 단구자만이 이와 같은 것을 얻음이 있었다.)”라는 구절이다. 그리고 《封氏聞見記》<sup>98)</sup>에는 “因鴻漸之論廣潤色之 于是茶道大行(육우가 문장을 폭넓게 다듬어 논했기 때문에 그래서 茶道가 크게 행해졌다.)”라고 말하고 있다. 김명배의 《中國의 茶道》<sup>99)</sup>에서는 “중국의 茶道는 당나라의 陸羽가 《茶經》을 짓고 호주자사 안진경이 삼계정을 지어 陸羽에게 기부한 773년에 호주에서 완성 되었다.”라고 말하고 있으며, 또한 陸羽의 《茶經》에서 밝힌 茶道 정신인 中庸儉德이 후세에까지 이어지고 있음을 이야기하고 있다. 그리고 1980년대로 들어오면서 茶文化이 부흥하게 되자 몇몇 학자들에 의해 茶道에 대한 정의가 내려지고 있다. 그러나 그 정의들은 각양각색으로 나타나고 있어서 정확한 茶道의 의미를 파악하기가 쉽지 않다.<sup>100)</sup> 그래서 조기정은 《한·중 茶文化 연구》<sup>101)</sup>에서 茶道에 대하여 4개의 단계로 나누어 정의를 내리고 있다.

“제 1단계는 茶를 해갈에 필요한 음료로 보고 마치 물을 마시듯이 茶를 마시는 것으로 이를 喝茶라고 하는데 飲茶라고도 할 수 있다.

제 2단계는 茶의 色, 香, 味를 중시하여 水質과 火候는 물론이고 다구와 品味에 이르기 까지 세세하게 격식과 예절을 갖추어 茶를 마시는 것으로 이를 品茶라고 하는데 品茗이라고 할 수 있다.

제 3단계는 茶를 마시는 환경과 분위기를 강조하여 茶樂과 茶花는 물론이고 茶를 우리고 권하는 기교에 이르기까지 예술적 환경과 예술적 분위기에서 茶를 마시는 것으로 이를 茶藝라고 한다.

제 4단계는 茶事活動을 통해서 정신상의 향유와 인격상의 승화에 도달한다는 것으로 茶를 마시는 최고의 경지라고 할 수 있는데 이를 茶道라고 한다.“

그는 이 4단계를 큰 산에 비유하여 설명하고 있다. 산이 2~3부 능선까지는 喝茶의 단계이고, 4~5부 능선까지를 品茶단계라고 하며, 6~7부 능선까지를 茶

96) 조기정, 앞의 책, 224쪽.

97) 도서출판아라 편집부, 앞의 책, 권1, 37쪽.

98) 조기정, 위의 책, 224쪽 재인용.

99) 김명배, 앞의 책, 39쪽.

100) 조기정, 위의 책 224 참조.

101) 조기정, 위의 책, 225~226쪽.

藝라고 규정하고 있다. 그리고 마지막 정상까지의 단계를 茶道라고 말하고 있다. 그는 위에서 규정한 단계 중 1, 2, 3, 4 단계를 모두 포괄하는 것을 광의적 茶道라고 했고, 제 4단계를 협의적인 茶道라고 말하고 있다. 그리고 《中國茶事大典》<sup>102)</sup>에서는 茶道를 다음과 같이 정의 하고 있다.

“廣義而言：包括物質和精神兩方面，既指茶的采造煮飲的技藝和方法，又指茶事活動中所反映的思想理念和哲學觀念”

광의적으로 말하면 물질과 정신 양 방향을 포괄한다. 茶를 따서 제조하고 달여 마시는 기예와 방법뿐만 아니라 차사활동 중에 반영된 사상이념과 철학 관념을 또한 가리킨다.

이 기록에서는 茶道의 정의를 茶와 관련된 모든 방향의 일들과 飲茶 및 飲茶技藝의 방법, 茶事 활동에 관련된 사상이념 및 철학적 관념들을 모두 포함시키고 있다. 이 茶道의 정의로 본다면 唐代는 茶道의 발전단계였다고 할 수 있고, 宋代는 茶道의 번영을 이룬 단계라고 말할 수 있다.

宋代에는 唐代에서 볼 수 없었던 茶道들이 새로 생겨난다. 宋代에 新生한 茶道는 茶의 製造에서 제일 먼저 찾을 수 있다. 唐代에는 餅茶가 유행한 시대였고 宋代는 研膏茶가 유행한 시대이다. 餅茶는 찻잎을 시루에 넣고 찢 다음 절구에서 찜고 여러 모양의 틀에 넣어 茶를 빻어내어 말리는 과정을 거쳐서 만든 茶이다.<sup>103)</sup> 研膏茶는 茶를 따서 씻은 후, 시루에서 찢고 소형 압착기에서 물기를 제거한 다음 茶를 대접질로 싸서 대형 압착기에 넣고 茶膏를 짜낸 다음, 질그릇으로 만든 研盆(질그릇으로 만든 틀)에 찻잎을 넣고 절구 공이에 갈아서, 여러 모양의 틀에 茶를 찍어 내는 방식으로 만들어 진다. 이렇게 만든 茶는 쉰 불로 찌고 끓는 물에 통과 시키는 것을 되풀이 하여 茶에 빛깔이 돌게 하고, 이런 과정이 끝나면 하루 밤을 묵힌 후 茶를 건조 시킨다. 그 다음 뜨거운 물에 통과 시켜서 밀폐된 방에 넣고 부채질하면서 말리는 과정을 거친다.<sup>104)</sup> 이처럼 研膏茶의

102) 徐海榮, 앞의 책, 252쪽.

103) 조기정, 앞의 책, 224쪽 재인용.

104) 류건집, 《宋代茶書의 註解》, 앞의 책, 下권, 32~63쪽 참조. 류건집, 《宋代茶書의 註解》, 앞의 책, 上권, 98쪽 참조.

제조 과정은 餅茶 製造 과정에는 볼 수 없었던 茶膏를 짜는 과정이 들어 있다. 茶를 말리는 과정도 센 불에 茶를 쪄고, 끓는 물을 통과 시키며 茶의 빛깔을 낸 뒤에 또 다시 뜨거운 물에 통과 시켜서 건조 시키는 모습을 볼 수 있다. 이런 研膏茶가 宋代에 유행하면서 北苑에서는 皇室 전용의 御茶園을 설치하여 研膏茶에 龍과 鳳모양의 금무늬를 새겨 넣고 龍鳳團茶를 만들어 貢茶하였다. 이와 같이 茶 덩이 위에 龍과 鳳의 모양을 새겨 넣는 것은 唐代에는 볼 수 없는 모습이다. 이런 研膏茶의 유행 속에서도 顧渚山의 顧渚茶는 唐代에 이어 宋代에도 餅茶로 만들어 貢茶하였다.<sup>105)</sup> 그렇기 때문에 宋代에는 新생한 研膏茶가 유행했지만 餅茶도 일정지역에서는 공존하였음을 알 수 있다.

宋代에 들어와서 변천한 두 번째 茶道는 飲茶法에서 찾을 수 있다. 唐代에는 煎茶法이 유행했고 宋代는 點茶法이 유행했다. 煎茶法은 물을 끓이다가 처음 끓기 시작하면 소금으로 간을 한 다음, 두 번째로 물이 끓으면 물 한 표주박을 떠내고 대젓가락으로 물을 저으며 茶를 탕 속에 넣은 후, 끓이면서 거품이 솟아오르면 떠 놓았던 물을 더 부어 거품을 솟아나게 하여 마시는 방법이다. 點茶法은 茶를 가루로 낸 다음 찻잔에 넣고 뜨거운 물을 부으며 섬세한 擊拂 과정을 거쳐 유회가 일어나면 마시는 방법이다.

唐代 유행했던 煎茶法은 솥에서 물을 끓이다 茶를 넣고 달이는 방법이었다. 그러나 點茶法은 찻잔에 뜨거운 물을 부어 擊拂하여 마시는 방법이다. 그리고 煎茶法에서는 茶를 끓일 때 소금을 넣어서 끓였다. 그러나 點茶法에서는 소금을 넣지 않는다. 煎茶法에서는 끓는 물을 떠놓아 두었다가 다시 부으면서 거품을 솟아오르게 하는 방법을 이용하였지만 點茶法을 茶筴을 이용하여 擊拂하는 방법으로 乳花를 일어나게 하는 차이점이 있다.

宋代에는 點茶法의 새롭게 유행하긴 했지만 陸游의 詩에서 煎茶法에 대해 자주 언급하는 것을 보면 煎茶法이 南宋 말에 사라지지만, 南宋 초기까지만 해도 點茶法과 한동안 共存했음을 알 수 있다.

宋代 茶道 변천에서 세 번째로 꼽을 수 있는 것은 分茶이다. 宋代는 飲茶技藝의 향상으로 分茶라는 새로운 茶藝 활동이 생겨난다. 分茶는 茶로써 흥취를 돋우는 것으로 茶를 다루는데 능한 사람이 茶湯 위에 그림, 文字, 禽獸, 꽃 등의 다양

105) 류건집, 《茶經註解》, 앞의 책, 112~132쪽, 참조.

한 物像을 그려내는 놀이로 고도의 分茶 기술을 가진 사람은 茶湯 위에 한 首의 詩를 표현해 낼 정도로 고도의 기술을 가지도 했다. 이런 고아한 아취를 즐기는 分茶는 唐代에는 없었던 飲茶 방식으로 宋代의 독특한 茶道이다.

또 다른 宋代의 茶道는 鬪茶이다. 鬪茶는 唐代에 시작되어 宋代로 들어오면서 일반화 된다. 鬪茶는 茶의 맛을 비교하고 겨루는 것으로 차의 품질과 茶를 우려내는 기술로 승부를 겨루었다. 이런 鬪茶는 점차 茶의 技藝로 發展하여 茶의 色, 香, 味를 중시하였으며, 많은 문인들이 애호하였다.<sup>106)</sup>

다음으로 언급할 수 있는 것은 茶館의 성행이다. 宋代에는 茶를 마시는 일이 보편화되어 곳곳에 휴식 및 교류 등의 목적으로 茶館이 생겨났다. 이곳은 누구나 자유로이 드나들며 交遊도 하고, 서로 정보도 교환했으며, 각종 오락프로그램도 즐겼다.

이처럼 宋代에는 차 생활이 일반화 되고 다양한 형태의 茶道가 등장하면서 茶는 문인들과도 친숙하게 된다. 茶에 관심이 많았던 徽宗皇帝와 蔡襄 및 여러 문인들은 茶書를 편찬하여 茶道의 이론적 지식을 後世에 전했다. 그리고 많은 詩人, 詞人들의 붓을 통해 茶道는 文學 속으로 들어갔고, 그들의 표현해 내는 妙文들은 文學 속에서 茶道의 꽃을 찬란하게 피웠다.

## IV. 陸游 茶詩에 나타난 茶文化

### 1. 茶事

唐代에는 煎茶法이 유행하였고, 宋代에 들어서면서 點茶法이 유행하였다. 點茶法은 團茶를 가루 낸 후에 茶碗에 茶 가루를 넣고 끓는 물을 부어 茶筥으로 휘저으며 茶를 타는 방법으로 蔡襄의 《茶錄》과 趙佶의 《大觀茶論》에서 자세히 설명하고 있다.

106) 顧云艷, <論陸游的茶詩與茶事>, 앞의 논문, 28쪽 참조.

唐代에 유행하였던 煎茶法은 北宋에서도 유행했지만 南宋 後期에 이르러서는 완전히 사라진다.<sup>1)</sup> 그렇지만 南宋 詩人인 陸游의 <靑溪道中行古松間因少留瀹茶而行><sup>2)</sup>, <雪中登雲泉上方><sup>3)</sup>, <秋思><sup>4)</sup>등에는 煎茶에 대한 내용이 여전히 들어 있다. 陸游의 茶詩 중에는 宋代에 유행했던 點茶와 관련된 詩보다 煎茶와 관련된 詩가 더 많이 전해지고 있다. 이것으로 보면 宋代에 點茶 방식이 유행하긴 했지만 陸游와 같은 時期의 사람들은 煎茶法을 여전히 많이 이용하고 있음을 볼 수 있다.

그러므로 筆者는 아래에서 唐代부터 南宋 後期까지 사람들이 많이 이용하였던 煎茶法을 우선 논하고, 이어서 宋代에 유행했던 點茶法을 고찰하려고 한다. 그리고 宋代에는 點茶法을 이용하여 茶의 色, 香, 味를 겨루었던 鬪茶와 點茶法에 技藝性을 첨가한 分茶도 있었다. 이런 鬪茶, 分茶와 같은 高雅한 飲茶생활을 즐기기 위해서는 茶를 달일 때 맑고 깨끗한 물, 그리고 불의 선택 또한 소홀히 할 수 없다. 그러므로 煎茶法과 點茶法의 뒷부분에서는 鬪茶, 分茶, 活水, 活火 등을 차례대로 考察해서 宋代 사람들의 飲茶 생활을 들여다보고자 한다.

## 1) 煎茶

唐, 宋의 名茶는 둥근 餅茶<sup>5)</sup>가 많았다. 그래서 茶 마실 때는 茶를 잘게 갈아서 체에 거르고 湯에 넣고 달였다. 이런 과정은 烹茶, 烹茗, 煮茶, 煮茗, 煎茶라고 칭했다.<sup>6)</sup> 이와 같이 茶를 달이는 것은 唐代에 성행했다고 하지만 陸游의 詩에서도 煎茶에 대하여 자주 언급되고 있다. 그렇기 때문에 宋代의 煎茶에 대하여 살펴볼 필요가 있다. 여기서 우선 陸游의 <初夏雜興><sup>7)</sup>을 살펴보기로 하겠다.

老子今朝不用扶 이 몸 오늘 아침에는 부축이 필요하지 않았는데

雨涼百病一時蘇 비 내려 서늘하니 일시에 모든 병이 소생하는 듯 하네

1) 叢書編委會編撰, 앞의 책, 103쪽.

2) 錢仲聯, 앞의 책, 권1, 370쪽.

3) 錢仲聯, 위의 책, 권1, 378쪽.

4) 錢仲聯, 위의 책, 권3, 17쪽.

5) 류건집, <茶經註解>, 앞의 책, 112~132쪽, 참조. 餅茶 : 찻잎을 채취해서 시루에서 찌 다음, 절구에서 찧고, 여러 모양의 틀에 넣어 찍어낸다. 그 다음 불에 찍어 말린 차이다.

6) 徐海榮, 앞의 책, 257쪽 참조.

7) 錢仲聯, 위의 책, 권7, 481쪽.

扇題杜牧故園賦 부채에 두목의 고원부를 적고  
 屏對王維初雪圖 병풍에 있는 왕유의 초설도를 대하네  
 把釣溪頭蹋湍瀨 낚싯대를 잡고 시내 위에서 여울을 밟으며  
 煎茶林下置風爐 차를 달이려고 숲 아래에 풍로를 놓았네  
 個中莫謂無同賞 그 가운데 함께 감상할 사람 없다고 말하지 마라  
 逋客能從折簡呼 은사는 편지 하여 부를 수 있으니

이 詩는 嘉定 元年 여름, 陸游 나이 84세 때 그의 고향 산음에서 지은 詩이다.<sup>8)</sup> 이 詩의 首聯은 비 내리는 날씨에 모든 병이 생겨나는 것 같은 노년의 건강상태를 노래하고 있다. 頷聯은 84세의 노년에도 杜牧의 故園賦를 적고, 王維의 初雪圖를 대하는 모습을 볼 수 있다. 그리고 이 聯은 “扇-屏, 題-對, 杜牧-王維, 故園賦-初雪圖”로 對句를 이루고 있다. 頸聯은 한가롭게 낚싯대 드리우고 차를 달이는 景을 읊고 있으며, “把釣-煎茶, 溪頭-林下, 蹋-置, 湍瀨-風爐”로 對句를 이루고 있다. 그리고 尾聯은 지금은 혼자 감상하지만, 함께 감상할 隱士는 편지 해서 부를 수 있다고 말하고 있다. 이 詩의 전반부는 노년으로 들어선 陸游의 병약한 모습이 보이지만 뒷부분은 한가롭고 평온함이 가득 넘쳐나는 시상을 펼쳐 나가고 있어서, 몸은 나이를 들어 쇠약하지만 마음속의 시상은 여전히 밝고, 맑은 모습이 가득함을 볼 수 있다. 그리고 이 詩의 頸聯에서는 “煎茶林下置風爐(차를 다리려고 숲 아래에 풍로를 놓았네)”라고 읊고 있는데, 이 句에서는 陸游가 煎茶法을 이용하여 차를 달이고 있음을 말해 주고 있다.

煎茶法을 이용하여 차를 달일 때는 活火를 얻기 쉬운 谿이 제일 좋고<sup>9)</sup>, 차를 달이는 물의 선택 또한 중시 여겼는데, “오염되지 않은 산에서 나는 물인 상품의 물”<sup>10)</sup>을 이용 하였다. 唐代 陸羽가 쓴 《茶經》에는 煎茶 할 때 炭물을 끓이는 과정을 자세히 설명하고 있다.

“其沸，如魚目，微有聲，爲一沸，緣邊如湧泉連珠，爲二沸，騰波鼓浪，爲三沸，已上，水老，不可食也。”<sup>11)</sup>

8) 錢仲聯, 앞의 책, 권7, 481쪽. 鄒志方, 앞의 책, 397쪽.

9) 류건집, 《茶經註解》, 앞의 책 240쪽, 《茶經》 五之煮：“其火，用炭(불은 谿을 이용한다.)”.

10) 류건집, 《茶經註解》, 위의 책, 241쪽. 《茶經》 五之煮：“其水，用山水上(물은 산에서 나는 최상의 물을 이용한다.)”.

11) 류건집, 《茶經註解》, 위의 책, 240쪽, 245쪽.



물 끓임에 고기 눈 같은 물의 기포가 생기면서 가느다란 소리가 나면, 첫째 끓음이 되고, 가장자리에 기포가 연달아 구슬처럼 오르며 용솨는 샘물 같으면 둘째 끓음이며, 물결이 파도를 치듯 솨아오르면 세 번째 끓음이다. 이 이상 끓으면 노수가 되어 마실 수 없다.

이 기록을 보면 陸羽는 茶를 달일 때, 물 끓이는 방법을 세 단계로 나누어 설명하고 있다. 煎茶할 때는 위와 같이 물을 끓이다가 처음 끓기 시작하면 소금으로 간을 하는데, 이는 茶의 苦澁한 맛을 덜어주기 위함이다. 두 번째로 물이 끓을 때는 물 한 표주박을 떠낸 다음, 대젓가락으로 물을 저으며 적당한 양의 茶를 탕의 속에 넣는다. 잠시 후에 끓으면서 거품이 솨아오르면 떠 놓았던 물을 더 부어 거품을 더 많이 솨어나게 한다. 이런 煎茶의 모습은 아래의 宋代 蘇軾의 <試院煎茶><sup>12)</sup>에서도 읊고 있음을 볼 수 있다.

蟹眼已過魚眼生 게눈 같은 물방울이 지나면 물고기 눈 같은 것이 생기며  
 颼颼欲作松風鳴 쌩쌩 물 끓는 소리 나려고 하네  
 蒙茸出磨細珠落 어지럽게 찻잎을 갈아내니 잔 구슬이 떨어지는 듯하고  
 眩轉繞甌飛雪輕 사발에는 빙글빙글 가벼운 눈이 흩어지네  
 銀瓶瀉湯誇第二 은병에 물을 붓고 해산의 샘물 자랑하며  
 未識古人煎水意 옛날 사람 차를 달이던 뜻을 아직 알지 못하겠네  
 君不見 그대는 보지 못했는가  
 昔時李生好客手自煎 옛날에 이약이 손님을 좋아하여 손수 차 달이면서  
 貴從活火發新泉 활화와 갓 길어온 샘물을 귀히 여기던 것을

이 작품은 宋代 蘇軾이 煎茶法을 이용하여 茶를 달이는 모습을 읊고 있는 詩이다. 茶를 끓일 때는 물을 알맞게 잘 끓여야 茶의 맛을 제대로 내는 비결이 된다. 물을 끓이는데 기포가 처음에는 작아 蟹眼 처럼 끓어오르다가, 점차 더 끓게 되면 魚眼 같은 모습으로 끓게 되고, 이때 솔바람 같이 물 끓는 소리가 들리게 된다. 이때 蘇軾은 차를 끓여낸 모습을 “眩轉繞甌飛雪輕 (사발에는 차가 하얀 눈처럼 가볍게 흩어진다.)”라고 표현을 하고 있다. 그리고 그는 마지막 句에서 옛날

12) 도서출판아라 편집부, 앞의 책, 권1, 147쪽, 재인용.

李約<sup>13)</sup>이 活火와 물을 끓이는 과정을 귀하게 여겼다는 典故를 이용하여 시를 마무리하고 있다.

이와 같은 煎茶法을 이용하여 茶를 달이는 모습은 陸游의 <題野人壁><sup>14)</sup>에서도 찾아 볼 수 있다.

身如魚鳥出池籠 몸은 물고기와 새가 연못과 새장에서 나온 것 같이  
 常在陂湖草莽中 항상 산비탈 호수의 풀이 우거진 가운데 있네  
 簫鼓相聞村社密 통소와 북소리 뽁뽁한 마을에서 서로 들려오고  
 桑麻無際歲時豐 삼과 마는 끝없이 펼쳐져 사계절 풍년이네  
 市墟買酒何人識 시장에서 술을 사면 누가 알아줄 것이며  
 僧閣煎茶欠客同 승가에서 차를 달여도 함께할 客이 없네  
 久欲瀟湘寄清嘯 소상의 물에 맑은 휘파람을 오래 기탁하고자 하니  
 它年一棹莫匆匆 다른 해에도 노를 저으며 분주하지 말았으면

위의 詩는 開禧 3년(1207) 봄, 陸游의 나이 83세 때 고향 山陰에서 쓴 詩이다.<sup>15)</sup> 首聯의 첫 句는 엇매이는 곳 없이 자유로운 자신의 모습을 읊고 있다. 頷聯은 통소와 북소리가 들려오는 마을과 삼, 마 농사가 늘 풍년임을 묘사하며 청각적 효과와 시각적 효과를 나타나고 있다. 그리고 “簫鼓-桑麻, 相聞-無際, 村社-歲時, 密-豐”으로 정확하게 對句를 이루고 있다. 頷聯은 술을 사도 알아 줄 사람이 없고 僧家에서 茶를 달여도 함께할 사람이 없는 쓸쓸한 작가의 마음을 노래하고 있다. 頸聯에서는 瀟湘의 물에 오래도록 자유롭게 기탁하고자 하는 마음을 노래하며, 다른 해에도 분주하지 않기를 바라고 있다. 이 詩에서도 陸游는 僧家에서 煎茶法을 이용하여 茶를 달이고 있는 모습을 보여 주고 있다. 마지막으로 陸游의 <擁爐><sup>16)</sup>를 살펴보기로 하겠다.

13) 도서출판아라 편집부, 앞의 책, 권1, 28쪽, 재인용, 溫庭筠 《采茶錄》“辦”條에 李約이 차를 맛보고 한 이야기를 기록하고 있다. “茶須緩火炙, 活火煎. 活火, 謂炭之有焰者. 當使湯無妄沸, 庶可養茶. 始則魚目散布, 微微有聲; 中則四邊泉湧, 累累連珠; 終則騰波鼓浪, 水氣全消, 謂之老湯. (차는 반드시 약한 불에서 굽고 활화로 달여야 한다. 활화는 숯불에 화염이 있는 것을 말한다. 탕이 함부로 끓지 않게 해야 차 맛이 제대로 나올 수 있다. 처음에는 고기 눈같이 흩어졌다가 조그마한 소리를 낸다. 중간쯤 되면 사방에서 샘물처럼 솟아오르며 구슬방울이 생긴다. 마지막으로 파도처럼 일어났다가 물 기운이 완전히 사라지는데 이를 노탕이라고 한다.)”.

14) 錢仲聯, 앞의 책, 권7, 253쪽.

15) 위의 주)와 같음. 鄒志方, 앞의 책, 397쪽.

16) 錢仲聯, 위의 책, 권3, 41쪽.

睡少人人笑老生 잠이 적으니 사람마다 노 서생을 비웃고  
 擁爐孤坐欲三更 화롯가에 홀로 앉아 있으니 삼경이 되려 하네  
 月移西去失花影 달이 서쪽으로 이동해 가니 꽃 그림자 사라지고  
 風自北來傳漏聲 바람은 북쪽으로부터 와서 새는 소리 전하네  
 梟鼎煎茶非俗物 오리모양 손잡이 茶鼎에서 차를 다리니 속된 물건이 아니요  
 雁燈開卷愜幽情 안쪽 등에서 책을 펴니 그윽한 정에 흐뭇하네  
 興來自喜猶強健 흥이 나면 절로 기뻐 마치 강건해지는 것 같고  
 一紙清詩取次成 한 장의 종이에 맑은 시를 별안간 완성하네

이 詩는 淳熙 10년(1183) 10월, 陸游의 나이 58세 때 산음에서 쓴 詩이다.<sup>17)</sup> 이 詩의 首聯은 작가가 三更이 되도록 화롯가에 앉아 있는 모습과 생각을 썼고, 頷聯은 시야를 밖으로 돌려 달의 이동으로 인해 꽃의 그림자가 변화하는 모습, 바람소리, 새소리를 읊고 있다. 이 부분에서는 시각적 효과와 청각적 효과가 멋들어지게 표현하고 있음을 볼 수 있다. 頸聯은 茶를 달이고, 책을 보면서 느끼는 감정을 노래하며 시상을 전환하고 있다. 그리고 이 聯은 “梟鼎-雁燈, 煎茶-開卷, 非-愜, 俗物-幽情” 등으로 정확한 對句를 이루고 있다. 그리고 마지막 聯은 興이 나서 순식간에 詩를 완성해 내는 자신의 모습을 노래하며 시를 마무리 하고 있다. 이 詩의 5句에서도 陸游는 煎茶法을 노래하고 있다.

陸游는 위의 詩 외에 <秋懷><sup>18)</sup>, <雪中登雲泉上方><sup>19)</sup>, <自小雲頂上雲頂寺><sup>20)</sup> 등에서도 煎茶를 읊고 있다.

위에서 살펴본 陸游의 詩 외에 宋代 曾幾의 <煎茶><sup>21)</sup>, 張侃의 <煎茶詩><sup>22)</sup>에서도 煮茶의 모습을 찾아 볼 수 있다. 이것으로 보면 宋代에는 點茶法이 유행했

17) 錢仲聯, 앞의 책, 권3, 41쪽. 鄒志方, 앞의 책, 394쪽.

18) 錢仲聯, 위의 책, 권6, 187쪽. “活火閑煎茗, 殘杯靜拾棋 (활화로 한가롭게 차를 달이고, 남은 바둑판에서 바둑을 두네.)”.

19) 錢仲聯, 위의 책, 권3, 378쪽. “煎茶誇坐客, 打竹課蠻童 (차를 달이며 좌객에게 자랑하고, 대나무를 치며 오랑캐 아이를 가르치네.)”.

20) 錢仲聯, 위의 책, 권1, 402쪽. “煎茶清榭下, 童子拾墮薪 (맑은 나무그늘 아래에서 차를 달이는데, 아이는 떨어진 땔감을 주어오네.)”.

21) 《茶山集》, 卷4. “貧中有佳設, 石鼎事煎烹 (가난한 중에 좋은 연회 있어, 石鼎에서 차 달이는 것을 일삼네)”.

22) 《拙軒集》, 卷1. “廬枕石隙, 其下通泉脈, 新開數尺泉, 湧然如乳白, 道人北山來, 閑話到終夕. 徐雲茶已芽, 氣味及高格, 絳囊映綠色, 未嘗齒流液, 汲泉滿鉢, 篝火勿遽迫, 須臾蟹眼生, 茶新手緩擲, 薑鹽宜屏除, 只能添水厄.”.

지만 여전히 煎茶法을 이용하여 茶를 달여 마시는 사람의 많았음을 알 수 있다.

## 2) 點茶

唐末에 시작된 點茶는 唐代 이전부터 있었던 庵茶法에서 調膏와 擊拂이 첨가되면서 발전한 것이라고 할 수 있다.<sup>23)</sup> 庵茶와 點茶는 모두 末茶<sup>24)</sup>를 이용하는데, 庵茶는 瓶缶 중에 末茶를 넣고 湯水를 부어 마시지만, 點茶는 末茶를 盞 속에 넣고 湯水를 부어 茶筴으로 물과 末茶를 잘 반죽한 후에 盞에 다시 湯水를 부어 茶筴으로 擊拂하여 차에 거품을 내어 마시는 것이다. 여기서 點茶를 언급하고 있는 陸游의 <茅亭><sup>25)</sup>을 우선 살펴보기로 하겠다.

終日坐茅亭 종일토록 띠로 엮은 정자에 앉아  
蕭然倚素屏 쓸쓸하게 흰 병풍에 기대네  
兒圓點茶夢 아이는 점차하는 꿈을 꾸고  
客授養魚經<sup>26)</sup> 객은 양어경을 전해 주네  
馬以鳴當斥 말은 울었기 때문에 쫓겨나고  
龜緣久不靈 거북과 오래 있으니 신령스럽지 않네  
詩成作吳詠 시를 짓고 오나라 노래를 만드노라니  
及此醉初醒 이 틈에 취기가 바야흐로 깨네

陸游는 淳熙 16년(1189)에 禮部郎中과 實錄院檢討官을 맡게 되었다. 그때 그는 ‘風月을 嘲詠’한다는 罪名으로 탄핵을 받게 되어, 그해 11월에 면직 당하게 된다. 비록 그에 대한 탄핵의 명분은 嘲詠風月이었지만, 사실은 陸游가 일관된 북벌과 중원의 회복을 주장하는 것에 대한 主和派들의 모략이었다. 그는 면직 당한 후 1190년부터 고향인 山陰에서 농촌생활을 하게 되는데, 이 詩는 그가 고향으로 돌아 온 뒤인 慶元 6년(1200) 봄, 그의 나이 76세 때 쓴 詩이다.<sup>27)</sup> 이 詩의 首聯에

23) 김진숙, <唐代的 飲茶文化>, 韓國茶學會誌, 제13권, 제1호, 2007년, 참조.

24) 徐海榮, 앞의 책, 31쪽, 末茶: “中國古代茶類名稱之一, 頗似今之茶末 (중국고대 차류의 명칭의 하나, 지금의 가루차와 매우 흡사하다.)”. 嚴英旭, 앞의 논문, 참조; 點茶法이 유행하였는데 이것은 한국과 일본에서 행하고 있는 말차법이다.

25) 錢仲聯, 앞의 책, 권5, 236쪽.

26) 위의 책, 권3, 382쪽. <藝文志>: <陶朱公養魚經> 여기서 말하는 陶朱公은 范蠡를 말한다. (公元前536年~公元前448年).

27) 錢仲聯, 위의 책, 권5, 236쪽, 鄒志方, 앞의 책, 396쪽.

서는 시골 정자에 쓸쓸히 앉아 있는 자신의 모습을 읊고 있다. 그리고 頷聯의 앞 부분에서는 宋代에 성행했던 點茶를 언급하고 있고, 뒷부분에서는 객이 《養魚經》을 건네주는 모습을 읊고 있다. 頸聯은 “馬以鳴當斥 (말은 울었기 때문에 쫓겨 나고)”라고 표현하고 있는데, 이 부분은 時期상으로 보면, 조정에 바른 말을 하고 면직당한 자신의 처지를 빗대어 표현하고 있다고 말할 수 있다. 마지막 聯은 詩를 짓고 노래를 만드는 동안 취기가 깨어 정신이 맑아지는 모습을 노래하며 詩를 마무리 하고 있다.

위의 陸游의 시에서 언급하고 있는 點茶法은 宋代에 성행하였으며, 明代까지 유행하였다.<sup>28)</sup> 宋 徽宗皇帝의 《大觀茶論》<sup>29)</sup>을 보면 點茶法에 대해 자세히 기록하고 있다. 여기서 잠시 點茶法에 대해 살펴보겠다.

點茶할 때 第 1湯은 잔의 가장자리를 돌리면서 따라서 茶를 적시지 않도록 하고, 기세가 맹렬하게 해서 안 된다. 먼저, 茶 반죽은 천천히 위아래로 뒤섞으며, 점차적으로 擊拂를 가속화 하는데, 손에 힘을 빼고 손가락으로 에워싸듯이 筴은 단단히 잡고 손목을 빙글빙글 돌린다. 그러면 위아래가 잘 섞여 누룩으로 반죽한 것처럼 부풀어 빛나는 별과 밝은 달 같이 떠오르는데, 이렇게 되면 茶의 근본이 선 것이다. 다음으로 第 2湯은 茶의 표면 위에서부터 직접 따르는데, 둘레로 한 번 돌려 따르되 급히 따르고, 멈추면 茶面이 움직이지 않는다. 이때 힘 주어 擊拂하면 빛깔과 운이 점점 나타나서 珠玉같은 乳花가 쌓인다. 第 3湯은 전과 같이 擊拂을 하되, 가볍고 고르게 돌리며 반복하면 겉과 속이 잘 어우러져 좁쌀무늬나 게눈 같은 乳花가 뒤섞이며 일어난다. 이렇게 되면 茶의 색은 심 중에 육질은 얻어진 것이다. 第 4湯은 물을 아끼듯이 붓고, 筴은 점점 넓게 돌리되 빠르지 않게 하면 그 순수하고 화려한 색이 밝게 피어나 운무 같은 거품이 점차 생겨난다. 그 다음으로 第 5湯은 헤아리면서 조금 따르고, 筴은 가볍고 고르게 하여 온 湯에 미치도록 한다. 그런데도 乳花의 피어남이 미진하면 계속 擊拂해서 乳花를 피어나게 하고, 제대로 피어나면 茶筴을 거두어 擊拂을 멈춘다. 그러면 茶는 짙은 아지랑이가 엷힌 듯, 눈이 쌓인 듯하여 茶色이 모두 나타난다. 그리고 第 6湯은 乳花가 피어난 모습을 보고 하되 乳花가 너무 많이 일어나면 筴을 그

28) 김진숙, 앞의 논문 참조.

29) 류건집, 《宋代茶書의 註解》, 앞의 책, 上권. 140~144쪽 참조.

곳에서 느리게 돌리며 擊拂하면 된다. 第 7湯은 乳花의 가볍고 맑음, 무겁고 탁함을 보고서 하되, 乳花의 농도가 中을 얻으면 點茶를 마친다. 그러면 우유 빛 안개가 세차게 솟아 잔에 넘치게 일어나고, 잔 둘레에 엉켜 붙어 움직이지 않게 되는데, 이것을 咬齧이라 한다. 이와 같이 하여 茶가 완성되면 맑고 가벼운 乳花를 고르게 나누어 마신다.

위의 내용들을 살펴보면 宋代 點茶法은 蠶에 茶를 넣고 물을 부어 筥으로 저으며 擊拂 하는데, 매 과정마다 매우 섬세하고 정성이 가득 들어가는 모습을 볼 수 있다. 그리고 잔 위에 하얀 구름 같은 乳花가 피어오른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이런 點茶법에 대한 내용은 宋代 蔡襄이 쓴 《茶錄》<sup>30)</sup>에서도 살펴 볼 수 있다.

“茶少湯多，則雲脚散，湯少茶多，則粥面聚，鈔茶一錢七，先注湯調令極勻，又添注入環回擊拂。湯上蠶可四分則止，視其面色鮮白，著蠶無水痕<sup>31)</sup>爲絕佳”

차가 적고 탕이 많으면 곧 운각이 흩어지고, 탕이 적고 차가 많으면 다탕의 면이 엉긴다. 찻 가루 한 돈을 떠놓고 탕을 먼저 부어 고르게 잘 섞은 다음, 또 탕을 더 붓고 돌리며 격분 한다. 탕은 잔의 10분의 4정도까지 채우면 멈추고, 그 차탕 표면이 선명하게 희고, 잔에 물 흔적이 없으면 아주 좋은 것이다.

이 기록에서는 湯이 많으면 茶가 찻잔에서 흩어지고, 茶가 너무 많으면 엉겨 붙는다고 설명하고 있다. 그리고 여기서는 茶의 양과 찻물을 채우는 양까지 정확한 수치로 설명하고 있다.

點茶는 宋代에 盛行했기 때문에 陸游 외에도 여러 시인들이 자주 點茶를 읊었다. 宋代 蘇軾의 <送南屏謙師><sup>32)</sup>, 宋代 晁補之의 <直廬聯句><sup>33)</sup>, 그리고 宋代 毛滂의 <訪琳老聞出赴供><sup>34)</sup>에서도 點茶를 언급하고 있다. 여기서 宋代 釋德洪의 <無學點茶乞詩><sup>35)</sup>를 잠시 살펴보겠다.

30) 류건집, 《宋代茶書의 註解》, 앞의 책, 上권. 43~45쪽 참조.

31) 水痕 : 유화가 잘 엉기면 그 엉김이 오래가고, 擊拂을 잘못하면 엉김이 빨리 갈라진다. 이렇게 갈라진 것을 水痕이라 한다.

32) 《東坡全集》. 宋代, 蘇軾의 <送南屏謙師> “來試點茶三昧手 (와서 점차를 맛보니 손을 삼매경에 들게 하고)”.

33) 徐海榮, 앞의 책, 254쪽 재인용. 宋代, 晁補之의 <直廬聯句> “蓬山點茶竹陰底 (봉산에서 점차하는데 대나무 그늘이 드리우네.)”.

34) 徐海榮, 위의 책, 254쪽 재인용. 宋代, 毛滂의 <訪琳老聞出赴供> “聊借僧窗自點茶 (에오라지 승가의 창가에 의지해 스스로 점차하네.)”.

政和官焙來何處 정화 관배가 어느 곳에서 왔나  
 雪後晴窗欣共煮 눈이 갠 창가에서 즐거이 함께 차를 달이네  
 銀瓶瑟瑟過風雨 은병에서는 솔솔 비바람이 지나가고  
 漸覺羊腸挽聲度 양창자가 물 끓는 소리 잡아당기는 것을 점차 느끼네  
 盞深扣之看浮乳 잔을 잡아당기니 유화 떠다니는 것이 보이고  
 點茶三昧須饒汝 점차 삼매경에 빠졌으니 틀림없이 너를 배부르게 하리라

이 詩는 北宋 말기 釋德洪이 읊은 詩로 “銀瓶瑟瑟過風雨 (은병에서는 솔솔 비바람이 지나가고)”라는 표현을 사용하여 찻물을 끓이는 모습을 생생하게 표현하고 있으며, 마지막 聯에서는 點茶할 때 잔에 유화가 떠다니는 모습을 노래하고 있다.

위에서 예로 든 陸游의 시외에 그가 紹熙 3년(1192) 가을에 고향에서 쓴 <秋日郊居><sup>36)</sup>에서도 點茶를 언급하고 있음을 볼 수 있다.

陸游의 詩 중에서 ‘點茶’라는 글자를 직접 언급한 詩는 위에서 살펴본 두 首이다. 그러나 宋代에 유행했던 鬪茶와 分茶가 모두 點茶法을 이용하는 것이기 때문에 點茶法을 언급하며 읊은 詩는 多數라고 말할 수 있다.

### 3) 鬪茶

宋代에는 茶를 마시고 그 맛을 즐기는 것뿐만 아니라 茶의 맛을 비교하고 겨루기도 하였는데, 이를 鬪茶, 鬪試, 茗戰 등으로 불렀다. 당시에 유행했던 鬪茶의 모습은 陸游의 <晨雨><sup>37)</sup>에서도 찾아 볼 수 있다.

揮汗驅蚊廢夜眠 땀을 흠치고 모기를 쫓느라 밤잠을 못 잤는데  
 清晨一雨便愴然 이른 아침 한차례 내린 비에 마음이 자유롭네  
 涼生池閣衣巾爽 서늘함이 연못 누각에 생겨나니 옷과 두건이 상쾌하고  
 潤入園林草木鮮 습기가 원림에 들어가니 초목이 선명하네  
 靑藜雲腴開鬪茗 푸른 구약나물 차로 투차 하려고

35) 徐海榮, 앞의 책, 254쪽 재인용.

36) 錢仲聯, 앞의 책, 권4, 8쪽, “已炊藁散眞珠米, 更點丁坑白雪茶 (이미 진주 같은 쌀로 밥을 지었고, 또 정갱백설차로 점차하네).”

37) 錢仲聯, 위의 책, 1권, 310쪽.



翠甕玉液取寒泉 비취 항아리에 옥같이 맑고 차가운 샘물 길어 오네  
 飯餘一枕華胥夢 식후에 베개를 베고 꿈을 꾸는데  
 不怪門生笑腹便 문하생이 살찐 배를 비웃어도 책망하지 않는다네

이 詩는 淳熙 元年(1174), 그의 나이 50세 때 蜀州에서 쓴 것이다.<sup>38)</sup> 詩의 전반부는 여름밤에 잠을 설치서 생겨나는 심신의 피로를 연못 누각에서 생겨나는 상쾌한 기운과 선명한 草木을 바라보며 날려 버리고 있는 모습을 노래하고 있다. 그리고 頸聯에서는 “靑蕩雲腴開鬪茗, 翠甕玉液取寒泉 (푸른 구약나물 차로 투차하려고, 비취 항아리에 옥같이 맑고 차가운 샘물 길어 오네.)”라고 읊고 있다. 여기서 말하고 있는 “鬪茗”은 鬪茶를 나타내는 것으로, 宋代에 성행했던 鬪茶를 陸游도 즐기고 있음을 볼 수 있다. 그는 또 鬪茶하는데 있어서 옥같이 맑은 물을 선택하고 있음을 더불어 보여주고 있다. 이 詩의 頷聯은 “涼-潤, 生-入, 池閣-園林, 衣巾-草木, 爽-鮮”으로 對句를 이루고 있으며, 頸聯 역시 “靑蕩-翠甕, 雲腴-玉液, 開-取, 鬪茗-寒泉” 등으로 완벽하게 對句를 이루고 있다. 이 詩에서는 여름날의 상쾌하고 閑適한 작자의 모습을 엿볼 수 있다.

위의 시에서 나타난 鬪茶는 貢茶 製造 人들이 茶의 품질을 겨루는 것에서 시작되었으며<sup>39)</sup>, 차잎의 품질과 茶를 우려내는 기술로 승부를 겨루었다. 이런 鬪茶는 점차 茶의 技藝로 發展하여 茶의 色, 香, 味를 중시 여겼다. 鬪茶는 宋代 매우 보편적인 茶事 활동이었으며, 당시 많은 지방, 특히 茶 산지에서는 모두 鬪茶 활동이 있었고, 많은 문인들이 애호하였다.<sup>40)</sup> 이런 鬪茶는 唐代에 사람들이 이미 즐기고 있었음을 唐代 白居易(772~846)의 <夜聞賈常州崔湖州茶山境會想羨歡宴因寄此詩><sup>41)</sup>에서 말해 주고 있다.

遙聞境會茶山夜 다산의 경회정에서 밤에 모임을 갖는다는 소식 멀리서 들으니  
 珠翠歌鐘俱逸身 보석 같은 풍악소리 이 몸을 에워싸는 것 같소  
 盤下中分兩州界 큰 바위 아래에 두 고을의 경계를 나누고  
 燈前合作一家春 등불 앞에서 함께 각각이 봄을 빚어내네

38) 錢仲聯, 앞의 책, 1권, 310쪽. 鄒志方, 앞의 책, 393쪽.  
 39) 嚴英旭, 앞의 논문 참조.  
 40) 顧雲艷, <論陸游的茶詩與茶事>, 앞의 논문, 28쪽 참조.  
 41) <全唐詩>, 第13冊 卷47쪽, 5028.

靑娥遞舞應爭妙 미녀들 번갈아 춤추며 예뻐을 다투고  
紫筍齊嘗各鬪新 자순차 함께 맛보며 새로운 맛을 각각이 다투네  
自歎花時北窗下 꽃 피는 봄날 북쪽 창 아래에서 스스로 탄식하노니  
蒲黃酒對病眠人 부들 술 두고 병들어 누운 사람이라

이 詩는 常州의 賈餗과 湖州의 崔玄亮이 茶山에서 모임을 갖는다는 소식을 듣고, 그들에게 축하의 뜻으로 백거이가 써서 보낸 詩이다. 이 詩에서는 唐나라 때 鬪茶하는 장면을 생생하게 보여 주고 있다. 唐의 中期와 後期에는 차 산지에서 관리들이 貢茶로 쓸 차를 따서 만드는 일을 감독했었다. 여기서는 두 고을의 감독들이 친선경기로 가무를 곁들인 鬪茶 대회를 열고 있음을 볼 수 있는데, 이 詩에서 말하는 茶山の 모임은 長興縣 서북쪽 70리에 있는 懸脚嶺에서 열렸다.<sup>42)</sup> 이 詩를 보면, 唐代에 이미 鬪茶의 풍습이 있었음을 알 수 있다.

이런 鬪茶는 點茶방법을 이용하는 것으로,<sup>43)</sup> 鬪茶의 판정은 찻물 표면의 색과 거품의 균형상태를 가지고 한다. 아래에서 蔡襄의 《茶錄》<sup>44)</sup> 點茶조목을 살펴보기로 하겠다.

“建安鬪試，以水痕先者爲負，耐久者爲勝，故較勝負之說，曰 相去一水兩水”

건안 사람들이 투차 할 때, 물 흔적이 먼저 생기는 자가 지고, 오래도록 지탱하는 이가 이긴다. 그래서 승부를 비교하여 말하자면, 탕수의 유화가 갈라져서 둘로 나뉘는 것에 있다.

이 기록처럼 鬪茶의 승부는 찻잔 속의 찻물이 닿는 부분에 물 흔적의 有無를 확인하고, 거품이 지속되는 시간과 거품의 색이 白色인가를 판정기준으로 삼는다. 이때 찻물이 닿는 곳에 물의 흔적이 있는 쪽이 지고 물이 흔적이 없이 말끔한 쪽이 이기게 된다.

이런 鬪茶에 관한 詩는 宋代 여러 시인들의 시에서도 살펴볼 수 있는데, 특히 北宋의 정치가이며 학자인 范仲淹(989~1052)의 <和章岷從事鬪茶歌><sup>45)</sup>에는 鬪茶

42) 김길자, 앞의 책, 28쪽, 참조.

43) 揚之水, <兩宋茶詩與茶事>, 《文學遺產》, 2003, 第 2期 75쪽, 참조.

44) 도서출판아라 편집부, 앞의 책, 권1, 67쪽.

45) 도서출판아라 편집부, 위의 책, 권1, 136쪽.

에 대하여 자세히 보여 주고 있다.

年年春自東南來 해마다 봄은 동남쪽에서 오는데  
建溪先暖冰微開 건계는 일찍 따뜻해져 얼음 조금 풀렸네  
溪邊奇茗冠天下 계곡가의 기이한 차는 천하 으뜸인데  
武夷仙人從古栽 무이산의 신인이 예로부터 심었다네  
新雷昨夜發何處 첫 뇌성 간밤에 어디서 울렸나  
家家嬉笑穿雲去 집집마다 기쁘게 웃으며 구름을 뚫고 가네  
露牙錯落一番榮 이슬 맺힌 새싹들이 들쭉날쭉 한바탕 무성하고  
綴玉含珠散嘉樹 옥을 단 듯 구슬을 머금은 듯 아름다운 나무가 널려 있네  
終朝採掇未盈襜 아침 내내 따지만 앞치마에 아직 가득 못 채운 것은  
唯求精粹不敢貪 오직 좋은 것만 따고 감히 탐하지 않아서 라네  
研膏焙乳有雅製 즙을 짜고 갈아 말려 유화가 피어나는 것은 정성껏 만듦이 있어서라  
方中圭兮圓中蟾 네모난 가운데 홀 모양이고, 둥근 가운데 달 모양이라  
北苑將期獻天子 북원의 차 천자님께 날짜에 맞춰 올려야만 하니  
林下雄豪先鬪美 숲에서 웅걸들이 먼저 차의 맛을 다투네  
鼎磨雲外首山銅 구름 밖의 수산의 구리로 만든 茶鼎을 문지르고  
瓶攜江上中冷水 병에는 강 위의 중령천을 길어 왔네  
黃金碾畔綠塵飛 황금 맷돌 가에는 녹색 찻 가루가 날리고  
紫玉甌心雪濤起 자수정 다완에는 흰 물결 일어나네  
鬪餘味兮輕醞酬 맛을 겨룬 뒤의 맛은 제호보다 부드럽고  
鬪餘香兮薄蘭芝 맛을 겨룬 뒤의 향은 난지보다 은은하다  
其間品第胡能欺 그것들의 등급을 어찌 속일 수 있으랴  
十目視而十手指 여러 사람들이 지켜보고 있는데  
勝若登仙不可攀 이기면 신선과 같은 느낌이지만 하늘을 날 수는 없고  
輸同降將無窮恥 진다면 패장처럼 부끄럽기가 끝이 없네  
於嗟天產石上英 아아 하늘은 돌에서도 꽃을 피워내니  
論功不愧階前藁 공을 논하자면 섬돌 앞의 신성한 명협<sup>46)</sup>에 부끄럽지 않다  
衆人之濁我可清 못사람들이 혼탁해도 나는 깨끗할 수 있고  
千日之醉我可醒 허구한 날 취한대도 나는 깰 수가 있다네  
屈原試與招魂魄 굴원은 혼백을 불러와 차를 맛보고  
劉伶卻得聞雷霆 유령도 도리어 천둥소리 들었으리라  
盧仝敢不歌 노동은 차 노래를 감히 부르지 못하고

46) 藁莢 : 요(堯) 임금 때 났었다는 상서로운 풀 이름.

陸羽須作經 육우는 모름지기 다경을 썼는데  
 森然萬象中 뽕뽕이 늘어선 이 세상 온갖 것 중에서  
 焉知無茶星 누가 다성 육우를 모르리오  
 商山丈人休茹芝 상산의 은자들은 영지를 먹기 그치고  
 首陽先生休采薇 수양산의 백이, 숙제도 고사리 캐는 것을 멈추리  
 長安酒價減千萬 장안의 술값은 천만이나 낮아졌고  
 成都藥市無光輝 성도의 약 시장은 찬란한 빛을 잃었네  
 不如仙山一啜好 신선이 마시는 것만은 못 하지만 한번 마시면 좋은데  
 洽然便欲乘風飛 시원하고 상쾌해서 바로 바람을 타고 날아오르고 싶네  
 君莫羨 그대여 부러워 말게나  
 花間女郎只鬪草 꽃 속의 여인들은 다만 화초를 다투어  
 贏得珠璣滿鬪歸 이기면 주옥을 가득 얻어 다투며 돌아온다네

이 詩는 宋代 鬪茶에 관한 詩 중에서 가장 대표적인 詩로, 鬪茶하는 장면을 자세하게 기록하고 있다. 이 詩에서는 建溪茶의 채취와 제조, 완성된 茶의 모양, 맛 등에 차를 가는 모습, 물맛이 좋은 중령천에 대하여 언급하고 있다. 그리고 鬪茶하는 茶의 맛까지 읊고 있어서, 宋代의 鬪茶에 대하여 자세히 들여다 볼 기회를 주고 있다. 그리고 “北苑將期獻天子, 林下雄豪先鬪美 (북원의 차 천자님께 날짜에 맞춰 올려야만 하니, 숲에서 웅걸들이 먼저 차의 맛을 다투네)”라는 내용이 있는데, 이것으로 보면 天子에게 茶를 바치기 전에 먼저 茶의 품질을 겨루어 보았음을 알 수 있다. 그리고 鬪茶에서 이기면 신선과 같은 기분이고 지면 敗將과 같이 부끄러워하는 당시 사람들의 모습을 살펴볼 수 있다.

여기서 鬪茶을 언급하고 있는 陸游의 <四月旦作時立夏已十餘日><sup>47)</sup> 한 首를 더 살펴보기로 하겠다.

京塵相值各匆忙 京락에서 서로 만나도 각각이 매우 바쁘니  
 誰信閑人日月長 한가로운 사람이 세월이 길다고 하면 누가 믿을까  
 爭葉蠶饑鬧風雨 잎을 다투는 누에는 굶주렸는데 비바람은 시끄럽고  
 趁虛茶懶<sup>48)</sup>鬪旗槍 영남 시장의 차를 가지고 있으나 투차를 게을리 하네

47) 錢仲聯, 앞의 책, 4권, 293쪽.

48) <欽定四庫全書> 集部, 劍南詩稿, 卷32 에는 “懶”字로 되어 있으나 錢仲聯의 앞의 책 293쪽 에는“懶”字로 되어 있음.

林中晚筍供廚美 숲속의 늦은 죽순 부엌에 갖다 주니 좋아하고  
 庭下新桐覆井涼 뜰아래 새로 돌아난 오동이 우물을 덮으니 서늘하네  
 擘笑山家太早計 산사람의 너무 이른 생각 비웃을 만 하지만  
 已陳竹幾與藤床 대나무 탁자와 등나무침대를 이미 늘어놓았네

이 詩는 慶元 元年(1195) 그의 나이 71세 때 고향인 山陰에서 쓴 詩이다.<sup>49)</sup> 이 시기의 陸游의 詩는 자기 자신의 일상생활들이나 전원생활의 한가로운 정취들을 노래하는 작품들이 많은데, 이 詩도 그런 부류의 詩이다. 이 詩의 首聯은 사람들은 모두 바쁘는데, 고향에서 지내는 자신은 세월의 흐름을 느리게 느끼고 있음을 말하고 있다. 그리고 頷聯에서는 비바람 때문에 굶는 누에와 嶺南 시장의 茶를 가지고 있어도 鬪茶를 게을리 하는 작자 자신을 노래하며, 鬪茶를 언급하고 있다. 그리고 頸聯은 초여름에 볼 수 있는 죽순과 우거진 오동나무를 언급하고 있으며, “林中-庭下, 晚筍-新桐, 供-覆, 廚-井, 美-涼”으로 對句를 이루고 있다. 그리고 尾聯에서는 여름준비 하는 것은 이르다고 사람들이 비웃지만 이미 여름 준비를 완료한 작자의 모습을 볼 수 있다.

위에서 살펴본 詩외에, 北宋 唐庚의 <鬪茶記><sup>50)</sup>에서도 鬪茶의 기록을 찾아 볼 수 있다.

“政和二年三月壬戌，二三君子相與鬪茶於寄傲齋，予爲取龍塘水煮之，而第其品。以某爲上，某次之，某閩人，其所齋宜尤高，而又次之。然大較皆精絕”

정화이년, 삼월, 임술년에 이삼의 군자가 서로 더불어 기오재에서 투차를 하는데, 나는 용당수를 길어다 차를 달여 그 등급을 정했다. 아무개는 상이 되고 아무개는 그 다음이 되고, 어떤 민인이 가져온 것은 매우 좋아서 또 그 다음이 되었다. 이와 같은 것은 대개 모두 절묘하였다.

이 기록에서는 宋代에 鬪茶하면서 등급을 정하는 모습을 자세히 설명해 놓고 있다. 이처럼 宋代의 鬪茶는 보편적인 茶俗이었고, 당시 많은 지방, 특히 茶 산지에서는 鬪茶 활동이 성행하였으며 문인들 또한 鬪茶를 애호 했다. 鬪茶가 宋代에

49) 錢仲聯, 앞의 책, 4권, 293쪽, 鄒志方, 앞의 책, 396쪽.

50) 《眉山文集》, 卷2.

일반화 되면서, 鬪茶는 茶道를 추구하는 우아한 취미로 여겨졌으며, 교양의 필수 조건<sup>51)</sup>으로 여겨졌다. 鬪茶 풍습은 茶 품질의 향상과 茶具의 발전을 가져 왔으며, 茶文化 발전에 큰 역할을 하였다.<sup>52)</sup> 그러나 陸游의 茶詩 중에는 煎茶와 分茶에 대하여 노래한 詩는 비교적 많지만 鬪茶에 대한 詩가 그리 많지 않아 아쉬움을 갖게 한다.

#### 4) 分茶

宋代는 飲茶技藝의 향상으로 茶로써 흥취를 돋우는 茶藝활동이 생겨난다. 分茶<sup>53)</sup>는 바로 당시 성행했던 하나의 茶藝활동이라고 할 수 있다. 여기서 分茶을 언급하고 있는 陸游의 <臨安春雨初霽><sup>54)</sup>를 우선 살펴보기로 하겠다.

世味年來薄似紗 세상인심 근래 들어 얇팍해져 가는데  
誰令騎馬客京華 그 누가 임안에서 나그네 되게 했는가  
小樓一夜聽春雨 작은 누각에서 밤새 봄비소리 들리니  
深巷明朝賣杏花 깊은 골목길에서는 내일 아침 살구꽃을 팔겠지  
矮紙斜行間作草 좁은 종이 비스듬한 줄에 한가히 초서 쓰다가  
晴窗細乳戲分茶 비겐 창가에서 가는 거품 띄우며 분차를 즐기네  
素衣莫起風塵嘆 흰 옷에 바람 먼지 일어남을 탄식하지 마시게  
猶及清明可到家 그래도 청명절에는 집에 갈 수 있다네

이 詩는 淳熙 十三年(1186), 그의 나이 62세 때 臨安에서 쓴 詩이다.<sup>55)</sup> 밤새도록 봄비 내리는데 수심에 찬 詩人은 잠을 이루지 못하고, 草書를 쓰며 비겐 창가에서 分茶를 즐기고 있는 모습을 그리고 있다. 草書를 쓰고 分茶를 즐기는 것으

51) 徐銀美, <宋代的 飲茶生活과 茶 産業의 發展>, 慶星大 韓國學研究所, 2002. 149쪽.

52) 嚴英旭, 앞의 논문, 참조.

53) 揚之水, 앞의 논문, 70쪽, 이 부분에서는 분차에 대한 여러 종류의 의견들을 설명해 놓고 있다. “1958年版, 《宋詩選注》에서는 육유의 <臨安春雨初霽>를 해석하며 ‘分’은 바로 宋 徽宗 《大觀茶論》의 “鑒辨”이라고 생각하였다. 그리고 또 蔣禮鴻은 《“分茶”小記》에서 이와는 다른 견해를 발표했는데 그는 분차는 두 가지로 해석 할 수 있다고 했다. 그 하나는 酒菜店 혹은 面食店이고 다음 하나는 끓는 물을 이용하여 차를 타는 것으로 차 거품으로 하여금 도형 또는 字跡으로 변하게 하는 것이라고 하였다. 그러나 許政揚은 《宋元小說戲曲語釋》의 “分茶” 조목 중에서 상세한 의견을 제시하며 ‘分茶’는 ‘烹茶’, ‘煎茶’라고 말하고 있다. 이에 1982 年版 《宋詩選注》는 옛 해석을 버리고 ‘分茶’는 宋代에 유행한 일종의 茶道라고 말하고 있다.”

54) 錢仲聯, 앞의 책, 권3, 141쪽.

55) 위의 주)와 같음. 鄒志方, 앞의 책, 395쪽.

로만 보면 한적함을 노래한 詩로 보일 수 있으나, “世味年來薄似紗, 誰令騎馬客京華 (세상인심 근래 들어 알팍해져 가는데, 그 누가 임안에서 나그네 되게 했는가)”를 보면 이 詩는 나그네 신세에 대한 한탄과 적적함을 달래기 위해 草書를 쓰며 分茶를 하고 있는 것으로 볼 수 있다. 그리고 그가 淳熙 7年 5月 金溪에서 쓴 <疏山東堂晝眠><sup>56)</sup>에도 다음과 같은 내용이 있다.

吾兒解原夢 내 아이는 꿈을 해몽하며  
爲我轉雲團 나를 위해 구름 같은 하얀 차를 휘젓네

陸游는 이 詩에서 “是日, 約子分茶 (이날 약이 분차 했다)”라고 自注를 하고 있다. “約”은 陸游의 다섯째 아들로 당시 나이 15세였으며, 이 시에서는 아버지를 위해 分茶하는 아들의 情을 엿볼 수 있다. 그리고 陸游는 이 시에서 아래와 같이 注釋을 하고 있다.

“分茶, 宋人泡茶之一種方法, 卽以開水注入茶碗之技術”

분차는 송나라 사람들이 차를 타는 하나의 방법으로 즉 끓는 물을 찻잔에 붓는 기술이다.

이 注釋에서 陸游는 分茶에 대하여 “끓는 물을 찻잔에 붓는 기술이다.”라고 말을 하고 있다. 그리고 揚之水의 <兩宋茶詩與茶事><sup>57)</sup>에서는 分茶에 대하여 “어떤 사람들은 分茶는 點茶의 別稱이라고 한다.”라고 말하고 있으며, 또한 “分茶는 바로 點茶法 중의 특유한 일종의 기교이다.”라고도 말하고 있다.

分茶는 鬪茶와는 달리 혼자서도 茶를 즐길 수 있는 놀이이다. 分茶는 茶를 다루는데 능한 사람이 茶湯 위에 그림, 文字, 禽獸, 꽃 등의 다양한 物像을 그려내는 놀이로 宋初에 시작하여 宋, 元代에 성행한 일종의 茶藝로 湯戲, 茶戲, 茶百戲라고도 불려졌다.<sup>58)</sup>

56) 錢仲聯, 앞의 책, 권2, 325쪽.

57) 揚之水, 앞의 논문, 119~120쪽, “或曰分茶卽點茶之別稱 (어떤 사람들은 분차는 점차의 별칭이라고 한다.)”, “分茶, 便是點茶法中特有的一種技巧 (분차는 바로 점차법 중의 특유한 일종의 기교이다)”

58) 徐海榮, 앞의 책. 244쪽 참조.



《清異錄》<sup>59)</sup>〈茗薺門〉의 ‘生成蠶’, ‘茶百戲’, ‘漏影春’을 보면 묘한 技藝로 分茶하는 모습들을 엿볼 수 있다. 아래에서 우선 ‘生成蠶’의 내용을 살펴보기로 하겠다.

“饌茶而幻出物像於湯面者茶匠通神之藝也. 沙門福全生於金鄉, 長於茶海, 能注湯幻茶成一  
句詩, 竝點四甌共一絕句泛乎湯表”

차를 타면서 다탕 표면에 사물의 형상을 기이하게 나타내는 것은 다장이 신에 통하는 기예이다. 복전은 금향에서 태어나 다해에서 자라나서, 끓인 물을 부어서 차를 변화 시키는데 능하여 한 구의 시를 이루고, 네 사발을 달이어서 나란히 놓으면 하나의 절구가 탕의 표면에 뜬다.

이 기록에서는 茶湯 표면에 사물의 형상을 나타내는 것은 고도의 기술을 요하는 것으로, 茶匠이 神에 통하는 기예라고 말하고 있으며, 福田은 茶湯 위에 한首의 詩의 형상을 이루어 낼 정도로 최고의 分茶 技藝를 가지고 있음을 보여주고 있다.

다음으로 ‘茶百戲’<sup>60)</sup>의 내용을 살펴보기로 하겠다.

“茶至唐始盛, 近世有下湯運匕, 別施妙訣, 使湯紋水脈成物象者, 禽獸魚花草之屬, 纖巧如畫, 但須臾就散滅, 此茶之變也, 時人謂之茶百戲”

차는 당에 이르러 비로소 번성하였다. 근래에는 끓인 물을 부어 숟가락을 돌려 묘한 비결을 특별히 시행하며 끓인 물의 무늬와 물줄기로 하여금 사물의 형상을 이루게 하는 것이 있다. 금수, 물고기, 꽃, 풀 등은 섬세하고 교묘하기가 그림과 같다. 다만 순식간에 바로 흩어져 사라진다. 이것이 차의 변화이다. 당시 사람들은 이를 차백희라고 불렀다.

이 기록에서는 分茶할 때 ‘匕’를 사용하고 있음을 얘기하고 있고, 分茶하면서 만들어낸 여러 가지 문양에 대한 언급도 하고 있다. 그리고 당시 사람들은 이를

59) 《欽定四庫全書》, 子部, 清異錄, 卷下. 고연미, <宋代 分茶와 吉州窯 茶蠶의 문양장식에 관한 一考>, 원광대학교, 2010, 46쪽, 참조.

60) 《欽定四庫全書》, 위의 책. 고연미, 앞의 논문, 46쪽, 참조.

‘茶百戲’라고 불렀다고 말하고 있다.

다음으로 셋째, ‘漏影春’<sup>61)</sup>에 대한 설명을 들여다보기로 하겠다.

“漏影春法，用鏤紙貼盞，糝茶而去紙，僞爲花身，別以荔肉爲葉，松實，鴨脚之類珍物爲蕊，沸湯點攪”

루영춘법은 새겨 넣은 종이를 이용해 잔에 붙이고, 차를 뿌린 뒤 종이를 제거하면, 가지 꽃모양이 나타난다. 따로 여지과육으로 잎을 만들고, 잣, 은행과 같은 진귀한 사물로써 꽃봉오리를 만들고, 끓는 물을 휘저으며 點茶한다.

이 기록에서는 특별한 기예가 없어도 가능한 分茶의 방법을 얘기하고 있다. 여기서 말하고 있는 分茶의 방법은, 꽃 모양을 새긴 종이를 찻잔에 붙이고, 그 위에 茶 가루를 뿌린 뒤 종이를 제거하여 꽃모양을 남게 하는 방법이다. 이때 여지과육을 이용하여 잎을 만드는 과정 까지 자세히 설명하고 있다.

여기서 分茶를 즐기는 모습을 볼 수 있는 陸游의 詩 <北窗><sup>62)</sup>을 더 살펴보기로 하겠다.

北窗無俗物 북창에는 속된 사람이 없고  
三伏有餘涼 삼복인데 서늘함이 남아 있네  
玉塵消長日 차를 가지고 하루를 보내기에는  
風漪可一床 잔물결 일어나는 평상이 좋구나  
盞分新作茗 잔에 분차를 새로 만들어  
爐撥欲殘香 화로를 밀어 내니 향이 사라지려 하네  
卻岸紗巾去 언덕에 돌아가 머릿수건 벗어 버리고  
儵然野水傍 초연히 들 물가 곁에 있네

이 詩는 嘉泰 4년(1204) 여름, 그의 나이 80세 때 山陰에서 쓴 詩이다.<sup>63)</sup> 이 詩의 首聯에서는 北窗에 속된 사람이 없고, 삼복더위이지만 서늘함이 있음을 이야기 하고 있다. 頷聯의 玉塵은 茶를 의미하며, 차를 가지고 평상에서 하루를 보내

61) 《欽定四庫全書》， 앞의 책.. 고연미, 앞의 논문, 46쪽, 참조.

62) 錢仲聯, 앞의 책, 권6, 299쪽.

63) 錢仲聯, 위의 책, 권6, 299쪽. 鄒志方, 앞의 책, 397쪽.

는 것이 좋음을 노래하고 있다. 그리고 頸聯에서는 宋代 유행 했던 分茶를 즐기는 모습과 分茶의 향에 대하여 묘사하고 있다. 그리고 마지막 聯은 노년의 작가가 전원에서 한가하게 지내는 모습을 그리고 있다. 위의 詩 외에도 <入梅>64), <堂中以大盆漬白蓮花石菖蒲翛然無復暑意睡起戲書>65), <雜興>66)에서도 分茶를 노래하고 있다. 陸游의 詩 중에는 위에서 예로 든 詩 외에도 여러 首의 分茶 관련 詩가 더 있다. 이 詩들을 보면 陸游도 그 당시에 유행했던 分茶를 즐겼다는 사실을 알 수 있으나, 자세한 分茶의 文樣 등에 대한 언급이 없어서 조금은 아쉬움이 있다.

宋代에는 陸游 외에 여러 시인들의 詩에서도 分茶에 대하여 언급하고 있는 모습을 찾아 볼 수 있다. 宋代 楊萬里的 <陳蹇叔郎中出閩漕別送新茶李聖俞郎中出手分似>67)를 잠시 살펴보기로 하겠다.

頭綱別樣建溪春 두강차는 건계차에서 특별하여  
 小壁蒼龍浪得名 작은 옥 푸른 용 같은 차라는 이름을 얻었네  
 細瀉谷簾珠顆露 곡렴수를 가늘게 쏟으니 구슬 모양을 드러내고  
 打成寒食杏花餠 한식에 살구 엿을 만들었네  
 鷓斑碗面雲縈字 자고새 무늬 주발에는 구름이 글자처럼 얽혀있고  
 兔褐甌心雪作泓 토끼털 무늬 주발에는 하얀 눈이 맑은 물을 만드네  
 不待淸風生兩腋 맑은 바람이 두 겨드랑이에서 생기기를 기다리지 않았는데  
 淸風先向舌端生 맑은 바람은 먼저 혀끝에서 생겨나네.

이 詩에서 작가는 建溪의 貢茶였던 頭綱茶로 分茶를 하고 있다. 그는 頸聯에서 “鷓斑碗面雲縈字(자고새 무늬 주발에는 구름이 글자처럼 얽혀있고.)”라고 읊고 있다. 이 句는 兔毫盞에 分茶할 때 茶의 湯面이 변화하는 형상을 詩로 나타내고 있는 것이다.68) 楊萬리는 이 詩 외에 <澹庵坐上觀顯上人分茶>69), 李清照의 <滿

64) 錢仲聯, 앞의 책, 권5, 254쪽. <入梅> “茶分細乳玩毫杯 (가는 거품 내며 분차하는 토호잔을 완상하네.)”  
 65) 錢仲聯, 위의 책, 권2, 342쪽. <堂中以大盆漬白蓮花石菖蒲翛然無復暑意睡起戲書> “覺來隱幾日初午, 碾就壑源分細乳 (깨어나니 어슴푸레한데 해는 바야흐로 대낮이고, 곧바로 학원차를 갈아 보드라운 우유처럼 분차하네)”  
 66) 錢仲聯, 위의 책, 권5, 136쪽. <雜興> “暮年常苦睡爲祟 好事新分安樂茶 (노년이 늘 괴로우니 잠을 자는 빌미가 되고, 좋은 일은 있으면 안락차를 새로이 분차하네)”  
 67) 顧雲艷, <論陸游的茶詩與茶事>, 앞의 논문, 재인용.  
 68) 위의 주)와 같음

庭芳>70)에서도 分茶를 언급하고 있다.

위에서 살펴본 내용을 정리해 보면 分茶는 宋代 사람들의 생활 속에 보편화 되었다. 分茶를 할 때는 茶品과 湯水의 요구가 매우 높았고, 茶人이 茶를 끓이는 技藝도 매우 높은 수준을 요구했음을 알 수 있다. 이와 같은 分茶가 추구하는 것은 아름다운 視覺을 享受하는 것과 古雅한 藝術이 情趣이다.<sup>71)</sup> 이런 高雅한 雅趣를 陸游 또한 즐겼음을 그의 詩들을 통해 알 수 있었다.

## 5) 活水

宋代 사람들은 茶를 맛볼 때 淸, 輕, 潔한 물을 취하는 것을 중요시 했으며, ‘活水’의 개념을 제기했는데, 이는 곧 흐르는 근원이 있는 물을 말한다.<sup>72)</sup> 이처럼 茶를 다릴 때는 우선 물이 좋아야 茶의 기이한 맛을 제대로 낼 수 있다고 하여, 예로부터 물의 선택을 중요하게 여겼다. 아무리 좋은 茶라도 하급의 물로 우려내면 茶의 맛이 제대로어나지 않아, 그 茶의 맛을 제대로 맛보지 못한다. 이렇기 때문에 중국의 여러 茶書에서는 차를 달이는 물의 선택에 대해 말하고 있고, 陸游의 시에서도 살펴볼 수 있다. 여기서 陸游의 <試茶><sup>73)</sup>를 살펴보기로 하겠다.

蒼爪初驚鷹脫鞴 푸른 찻잎이 방금 놀란 듯 싹터 나오고  
得湯已見玉花浮 물을 끓이니 눈 같은 거품 떠오르는 것 보이네  
睡魔何止避三舍 졸음만 어찌 구십 리 밖으로 쫓아내겠는가  
歡伯直知輸一籌 술은 생각조차 할 수 없게 한다네  
日鑄焙香懷舊隱 일주차 불에 쪄이는 향기에 옛 추억 어렴풋이 떠오르고  
谷簾試水憶西遊 곡렴 천에서 물을 맛보며 서쪽 녘에서 노닐던 것을 생각하네  
銀餅銅碾俱官樣 은병과 동연 제대로 갖춰 놓고  
恨欠纖纖爲捧甌 차 권했던 가녀린 손이 없으니 한스럽기만 하구나

69) 徐海榮, 앞의 책, 245쪽, 재인용. <澹庵坐上觀顯上人分茶> : “煎茶不似分茶巧 (전차는 분차의 교묘함만 못하네)”.

70) 徐海榮, 위의 책, 245쪽, 재인용. 李清照, <滿庭芳> “生香熏袖活火分茶 (향이 생겨나 소매에 스미고, 활화로 분차하네)”

71) 付玲玲, 앞의 논문, 6쪽 참조.

72) 餘悅, 馮文開, 王立霞, <北宋茶詩與文士雅趣簡論>, 河北學刊, 第27卷 第6期, 2007, 참조.

73) 錢仲聯, 앞의 책, 권1, 406쪽.

위의 詩는 淳熙 二年(1175) 가을 그의 나이 51세 때 成都에서 쓴 詩로,<sup>74)</sup> 이 詩는 陸游의 茶詩를 대표할만한 詩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왜냐하면 이 詩에서는 宋代의 飲茶生活을 자세히 들여다 볼 수 있기 때문이다. 이 詩의 1句에서는 차맛이 싹트는 모습을 나타내고 있고, 2句에서는 고운 거품이 떠 있는 茶의 모습, 3句에서는 졸음을 쫓는 茶의 효능을 나타내고 있다. 5句에서는 宋代 名茶인 日鑄茶를 불에 쪄이며 말리는 과정, 6句에서는 茶의 맛을 최상으로 우려 낼 때 사용한다는 최상급의 물인 谷簾水, 그리고 7句에서는 銀餅과 銅碾 등 茶具에 대하여 읊고 있다. 마지막 8句는 고부간의 갈등으로 어쩔 수 없이 헤어지게 되었던 前 부인을 회상하고 있다.<sup>75)</sup> 이처럼 宋代의 飲茶生活을 자세히 들여다 볼 수 있는 이 詩에서는 최상급의 물인 谷簾水를 언급하고 있다.

아래의 陸羽의 《茶經》<sup>76)</sup>의 “五之煮”에도 보면 차물에 대하여 언급하고 있다.

“其水 用山水上江水中井水下”

차 달일 때 쓰는 물은 산에서 나는 것이 상품이고, 강물이 다음이고, 우물물은 그 아래다.

그리고 또 唐代 張又新的 《煎茶水記》<sup>77)</sup>에는 陸羽가 茶와 어울리는 20등급의 물을 선정해 놓은 것을 기록해 전하고 있다.

廬山康王谷水簾水第一 여산 강왕곡의 곡림수가 제일이요  
 無錫縣惠山寺石泉水第二 무석현 혜산사의 돌샘물이 두 번째이고  
 蘄州蘭溪石下水第三 기주 난계의 돌 아래 물이 셋째라네

이 기록에서는 陸游의 시에서 언급하고 있는 廬山の 谷簾水가 茶와 제일 잘 어울리는 최상의 물이라고 말을 하고 있다. 谷簾泉은 江南 廬山の 漢陽峰 南面の 康王谷 중에 있다. 사람들은 이곳의 물은 淸, 冷, 香, 柔, 甘, 淨하고 물이 목에 메이지 않으며, 질병을 예방할 수 있다고 여겼다.<sup>78)</sup> 이런 천하제일의 물에 대해

74) 錢仲聯, 앞의 책, 권1, 406쪽. 鄒志方, 앞의 책, 393쪽.

75) 김길자, 앞의 책, 137쪽.

76) 唐譯 《圖解茶經》, 內蒙古出版集團, 2011, 312쪽.

77) 도서출판아라 편집부, 앞의 책, 권1, 27쪽.

여 찬미한 기록은 아래 예로 든 王禹偁의 <谷簾泉序><sup>79)</sup>에서도 찾아 볼 수 있다.

“谷簾泉水送來已有一個多月了，但至今水味不變，取水煮茶，其蒸氣如浮雲蔽雪，與井泉水完全不同”

곡렴천의 물을 보내 온지 이미 한 달이 지났다. 그러나 지금까지도 물맛이 변하지 않았다. 물을 취해 차를 달이니, 그 증기가 마치 뜬 구름이 눈을 덮은 것 같다. 우물물과는 완전히 다르다.

이처럼 谷簾泉에 대하여 예찬한 기록들은 여러 서적이나 詩들에서도 찾아 볼 수 있는데, 宋代 蘇軾의 <元翰少卿寵惠谷簾水一器龍團二枚仍以新詩爲貺歎味不已次韻奉和遊諸><sup>80)</sup>에서는 다음과 같이 읊고 있다.

岩垂匹練千絲落 바위에 하얀 명주 드리운 듯 천 갈래로 떨어지니  
雷起雙龍萬物春 우레 소리에 쌍룡이 일어나는 듯하고 만물은 봄이 로다  
此水此茶俱第一 이곳의 곡렴수와 차는 모두가 제일이니  
共成三絕鑿中人 거울 같은 물속의 사람과 함께 삼절을 이루네

이 詩에서 蘇軾은 唐代 陸羽가 가장 좋은 물로 꼽았던 谷簾水가 제일임을 노래하고 있다.

이런 물에 대한 관심은 茶書를 항상 들고 다니며 茶에 대한 지식을 익힌 陸游의 詩에서도 자주 등장한다. 상급의 물이라야 차의 맛을 제대로 맛 볼 수 있으니 陸游 또한 물에 대한 관심을 소홀히 하지 않고 수질이 좋은 물을 이용했음을 보여주고 있다. 아래에서 그의 詩 <幽居卽事><sup>81)</sup>를 살펴보기로 하겠다.

小磴落雪花 작은 맷돌에서 눈꽃 같은 차가 떨어지고  
修綆汲牛乳 긴 두레박으로 우유 같이 맛있는 물을 길네  
幽人作茶供 은자가 차를 끓여 주니

78) 唐譯, 앞의 책, 264쪽 참조.

79) 唐譯, 위의 책, 264쪽 재인용.

80) 도서출판아라 편집부, 앞의 책, 1권, 147쪽.

81) 錢仲聯, 앞의 책, 권7, 289쪽.

爽氣生眉宇 상큼한 기운이 눈썹 언저리에 생겨나네  
 年來不把酒 연래로 술을 들지 않아서  
 杯榼委塵土 잔과 술통에 티끌 먼지가 덮여 있네  
 臥石聽松風 돌에 누워 물 끓는 소리 들으며  
 蕭然老桑苧 옥우가 쓸쓸히 늙어 가네

이 시는 開禧 3년(1207) 여름, 그의 나이 83세 때 山陰에서 쓴 詩이다.<sup>82)</sup> 이 詩의 首聯에서는 땀들에서 눈꽃 같이 떨어지는 茶의 모습과 두레박으로 우유처럼 맛있는 물을 길는 모습을 노래하고 있다. 頷聯은 은자가 끓여 준 차를 마신 후, 상큼한 기운이 눈언저리에 번지는 모습을 묘사하고 있다. 그리고 頸聯에서는 오래도록 술을 마시지 않으니, 술통에 먼지가 자욱하게 쌓인 모습을 그리고 있다. 尾聯은 돌에 누워서 물 끓는 소리를 들으며 늙어 가는 자신을 노래하고 있다. 이 聯에서는 陸游가 자기 자신을 桑苧(陸羽의 號)라고 표현하면서, 자신을 唐代的 陸羽와 동일시함을 보여 주고 있다.

그리고 위에서 살펴본 陸游의 詩 외에, 그의 <雪後煎茶><sup>83)</sup>에서도 물에 대하여 언급하고 있다. 이것으로 보면 陸游도 차물에 대한 관심이 컸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이처럼 당시 사람들은 상급의 물을 찾아, 勝景을 찾아 茶를 음미하며 詩도 읊고 삶 的 雅趣을 즐겼는데, 陸游도 때로는 깨끗한 물이 있는 勝景에서 茶를 마시는 즐거움을 찾기도 했다. 아래의 <三遊洞前岩下小潭水甚奇取以煎茶><sup>84)</sup>는 陸游가 자신이 경험한 일을 詩로 쓴 것이다.

苔徑芒鞋滑不妨 이끼 낀 길이지만 짚신이라 미끄럽지 않고  
 潭邊聊得據胡床 못가에서 의자에 의지하고 앉았네  
 岩空倒看峰巒影 바위 솟은 하늘은 산에 그림자 드리워 거꾸로 보이고  
 磻遠中含藥草香 산골짜기 물은 그 속에 약초 향을 머금었네  
 汲取半瓶牛乳白 반병의 우유 같은 맑은 물을 길는데  
 分流觸石珮聲長 갈라져 흐르며 돌에 부딪히니 패옥소리처럼 뛰어나네  
 囊中日鑄傳天下 주머니 속에 일주차 천하에 전하여지니

82) 錢仲聯, 앞의 책, 권7, 289쪽. 鄒志方, 앞의 책, 397쪽.

83) 錢仲聯, 위의 책, 권8, 121쪽. <雪後煎茶> “雪液清甘漲井泉, 自攜茶灶就烹煎 (눈 녹아 우물과 섞어 맑고 단 물이 부니, 茶灶를 가지고 차를 달이네)”

84) 錢仲聯, 위의 책, 권1, 124쪽.



不是名泉不合嘗 명천이 아니면 맛보기에 맞지 않네

이 詩는 乾道 6년(1170) 10월, 그의 나이 46세 때 峽州에서 쓴 詩이다.<sup>85)</sup> 이 詩에서 말하고 있는 물은 유명하지 않았던 산간의 담수이다. 1169년 陸游가 四川省 奉節縣에 通判으로 부임하여 湖北宜昌을 지날 때 西陵山에 이르렀다. 그는 三遊洞에서 노닐다가 산허리에 있는 담수를 발견하게 된다. 물은 옥같이 맑았다. 맛을 보니 달고 순하여 좋은 술을 마시는 것 같은 느낌이였다. 陸游는 바로 이 물을 떠다가 몸에 지니고 다니던 日鑄茶를 맛보니 맛이 일품이였다. 그래서 그는 “不是名泉不合嘗 (명천이 아니면 맛보기에 맞지 않네)”라고 노래하였다. 이에 사람들은 陸游를 기념하기 위하여 이곳의 담수를 陸游潭, 陸游井, 陸游泉이라고 하였다. 그의 茶물에 대한 위와 같은 깊은 造詣는 宋代 문인의 飲茶 예술로 하여금 최고의 경지에 이르게 하였다.<sup>86)</sup>

宋代 사람들의 茶물에 대한 생각은 蘇軾의 <惠山謁錢道人烹小龍團登絕頂望太湖><sup>87)</sup>에서도 찾아 볼 수 있다.

獨攜天上小團月 하늘 위의 달 같은 소룡단을 홀로 들고가  
來試人間第二泉 세상에서 둘째간다는 샘물로 맛 보았네

이 시에서도 活水를 중시함을 확인할 수 있다. 蘇軾은 이 詩에서 唐代 張又新의 <煎茶水記><sup>88)</sup>의 내용, 즉 “無錫縣惠山寺石泉水第二 (무석현 혜산사의 돌샘물이 제이요.)”라는 구절에서 말하는 혜산의 물을 가지고 차를 맛보고 있다. 여기서 말하고 있는 惠山泉은 맛이 매우 뛰어나서 唐代 재상을 지낸 李德裕가 長安에서 삼천리나 떨어진 이 샘물을 길어다 마셨다는 이야기가 전해지고 있으며,<sup>89)</sup> 宋代 徽宗 때는 貢品으로 지정되기도 하였던 샘물이다.

위에서 제시한 여러 자료들을 보면, 宋代 사람들은 茶를 마실 때 茶의 色, 香, 味를 좌우할 수 있는 물을 중요시하는 욕구가 높았음을 알 수 있고, 陸游도 상급

85) 錢仲聯, 앞의 책, 권1, 124쪽. 鄒志方, 앞의 책, 392쪽.  
86) 餘悅, 周春蘭, 앞의 논문, 25쪽, 참조.  
87) 도서출판아라 편집부, 앞의 책, 권1, 147쪽.  
88) 도서출판아라 편집부, 위의 책, 권1, 27쪽.  
89) 김길자, 앞의 책, 62쪽 참조.

의 물이 있는 勝景을 찾아 茶를 마시며 詩를 노래하는 삶의 雅趣을 즐기고 있음  
을 볼 수 있다.

## 6) 活火

茶의 맛을 살리기 위해서는 불의 선택과 불의 조절 또한 중요하다. 예로부터  
사람들은 活火의 사용을 중시했다. 숯은 活火을 얻기에 가장 좋은 재료이기 때문  
에 차를 다릴 때 선호한다. 明나라 屠隆의 《考槃餘事》<sup>90)</sup>에 보면 다음과 같은  
기록이 있다.

“凡茶須緩火炙 活火煎, 活火謂炭火之有焰者”

무릇 차는 약한 불로 굽고 활화로 달인다. 활화란 숯불에 불꽃이 있는 것을 말한다.

이 기록에서는 숯불에 불꽃이 있는 것을 활화라고 말하고 있다. 숯은 잘 태워  
진 숯이라야 냄새가 나지 않고, 火力도 좋아 물을 끓이는데 편리하다. 나무의 성  
질이 모두 사라지지 않은 숯을 사용하여 만약 연기가 湯에 들어가면 湯은 쓸모  
가 없게 된다. 이처럼 活火로 活水를 적정하게 끓이면 水性을 불러일으키고 水氣  
가 사방에 자욱하게 퍼져, 飲茶하는데 그윽한 아취가 저절로 더해지기도 한다.

活火를 이용하는 모습은 陸游의 詩에서도 찾아볼 수 있다. 그의 詩 <初春感  
事><sup>91)</sup>를 아래에서 살펴보기로 하겠다.

一樹紅梅已半殘 붉은 매화는 이미 반은 시들고  
破裘也復敵春寒 낡은 겹옷으로 다시 봄추위를 대하네  
忍窮過日卻差易 궁핍을 참으며 날을 보내는 건 도리어 다소 쉽지만  
負媿終身良獨難 욕됨을 당하니 평생 홀로 힘이 드네  
活火靜看茶鼎熟 활화를 피워 차가 茶鼎에서 익어 감을 조용히 보고  
清泉自注研池寬 맑은 샘물 벼루에 넉넉하게 따르네  
人生樂處君知否 인생 살면서 즐거운 일 그대는 아는가 모르는가  
萬事當從心所安 만사 마음먹기에 따라 편해지는 것이라네

90) 도서출판아라 편집부, 앞의 책, 권1, 320쪽.

91) 錢仲聯, 앞의 책, 권5, 327쪽.

이 詩는 嘉泰 元年(1201) 봄, 그의 나이 77세 때 山陰에서 쓴 詩이다.<sup>92)</sup> 이 詩의 首聯과 頷聯은 山陰의 봄이 지나가고 있는 모습과 참기 어려운 궁한 삶 그리고 욕을 당한 것을 참기 힘들어 하는 작자의 모습을 그리고 있다. 陸游는 65세 때 免職을 당하고 노년을 고향 산음에서 보냈는데, 이 부분에서는 陸游가 자신의 마음속에 품은 생각들을 토로하는 모습이 그려져 있다. 그리고 이 聯은 “忍窮-負媿, 過日-終身, 卻-良, 差-獨, 易-難”으로 완벽하게 對句를 이루고 있다. 頸聯에서는 마음은 괴롭지만 活火를 이용해 차를 끓이고, 먹을 갈아 글은 쓰며 마음의 여유로움을 찾고 있는 것을 표현하고 있다. 그리고 이 聯에서는 “活火-清泉, 靜看-自注, 茶鼎-研池, 熟-寬”으로 對句를 이루고 있다. 마지막으로 尾聯에서는 ‘萬事當從心所安 (만사는 마음먹기에 따라 편해진다.)’라는 陸游의 생각을 표현하고 있다. 이 시의 頸聯과 尾聯은 때로는 비애를 읊기도 하지만, 어떻게든 희망을 남기는 송시의 특징을 찾아 볼 수 있다.

차를 끓일 때 불의 선택에 대한 기록은 唐代 陸羽의 《茶經》<sup>93)</sup> <五之煮>에서도 살펴 볼 수 있다.

“其火用炭, 次用勁薪<sup>94)</sup>, 其炭 曾經燻灸, 爲膾膩所及, 及膏木 敗器不用之”

불을 일으키기 위해서는 숯을 쓰고, 다음은 단단한 나무(뽕나무, 회나무, 오동나무, 상수리나무)를 쓴다. 이미 고기를 구워서 누린내가 나게 된 숯이나, 진이 많은 나무나, 썩어서 버린 기물의 나무는 쓰지 않는다.

이 기록에서는 茶를 끓일 때 숯을 쓰고, 땀감의 냄새가 茶에 스며들 수 있는 숯이나 나무는 쓰지 않는다고 말하고 있다. 다음으로는 唐代 蕭廙의 <湯品><sup>95)</sup> 第十三의 一面湯을 더불어 살펴보겠다.

“或柴中之麩火, 或焚餘之虛炭, 木體雖盡而性且浮, 性浮則湯有終嫩之嫌. 炭則不然, 實湯

92) 錢仲聯, 앞의 책, 권5, 327쪽. 鄒志方, 앞의 책, 396쪽.

93) 唐譯, 앞의 책, 312쪽.

94) 도서출판아라 편집부, 앞의 책, 권1, 16쪽, “勁薪: “謂桑, 槐, 桐, 樅類也 (뽕나무, 회나무, 오동나무, 상수리나무를 이른다.)”

95) 도서출판아라 편집부, 위의 책, 권1, 28쪽.

之友.”

혹은 땀나무 중의 밀기울, 혹은 타다 남은 속이 빈 숯은, 나무의 형체는 비록 다했더라도 성질은 불안정하다. 성질이 불안정하면 탕은 끝내 꺼림이 있다. 숯은 그렇지 않다. 실로 물을 끓이는 참다운 벗이다.

이 기록에서는 밀기울이나 완전히 타지 않고 불안정한 숯은 사용을 꺼리고 있음을 말하고 있으며, 茶를 끓일 때 사용하는 잘 구워진 숯은 “물을 끓이는 참다운 벗이다.”라고 기록하고 있다. 여기서 육유의 <岩采新茶><sup>96)</sup> 한 首를 더 살펴보기로 하겠다.

槐火初鑽燧 부싯돌로 뚫어 회나무에 불 방금 피우고  
松風自候湯 끓는 소리에 물을 살펴보네  
攜籃苔徑遠 바구니를 드니 이끼 낀 길은 멀고  
落爪雪芽長 매 발톱처럼 떨어지는 설아 차는 뛰어나네  
細啜襟靈爽 천천히 마시니 마음과 정신이 상쾌하고  
微吟齒頰香 나직이 읊노라니 이와 빵이 향기롭네  
歸時更清絕 돌아 올 때는 더욱 맑아져 비할 데가 없고  
竹影踏斜陽 저녁노을에 대나무 그림자 밟는다

이 詩는 慶元 四年(1195), 그의 나이 71세 때 山陰에서 쓴 詩이다.<sup>97)</sup> 首聯에서는 부싯돌로 뚫어 회나무에 불을 피우는 모습을 읊고 있다. 頷聯은 작가의 눈앞에서 펼쳐지는 前景을 읊고 있고, 頸聯은 茶를 마신 뒤 작가가 느끼는 感想을 노래하고 있다. 이 詩도 頷聯은 “攜-落, 籃-爪, 苔徑-雪芽, 遠-長”으로 對句를 이루고 있으며, 頸聯도 “細啜-微吟, 襟-齒, 靈-頰, 爽-香”으로 정확히 對句를 이루고 있다. 그리고 마지막 尾聯은 맑은 마음으로 집으로 돌아오는 작가의 한가로운 모습을 노래하며 마무리하고 있다. 위의 詩는 불을 피워 물을 끓이고 茶를 마신 후 돌아오는 전 과정을 읊고 있는데, 여기서는 숯불 대신 회나무를 이용해 불을 취하고 있음을 볼 수 있다. 《茶經》에서 “불을 일으키기 위해서는 숯을 쓰고, 다

96) 錢仲聯, 앞의 책, 권4, 462쪽.

97) 위의 주)와 같음. 鄒志方, 앞의 책, 396쪽.

음은 단단한 나무, 즉 뽕나무, 홉나무, 오동나무, 상수리나무 같은 재료를 쓴다.”라고 말했던 것처럼 陸游도 좋은 불을 얻기 위해 홉나무를 이용하고 있음을 볼 수 있다.

위에서 예로 든 詩 외에, 그의 <夏初湖村雜題><sup>98)</sup>와 <秋懷><sup>99)</sup>에서도 活火를 언급하고 있다.

위에서 제시한 자료들을 살펴보면, 다른 음식의 냄새가 배인 숯이나 진이 많은 나무, 혹은 썩어서 버린 기물의 나무는 茶를 달일 때 사용하는 것을 꺼리고 있음을 볼 수 있다. 왜냐하면 썰감이 가지고 있는 특유의 냄새가 탕에 스며들면 茶의 참맛을 해치기 때문이다. 그렇기 때문에 茶를 즐기는 사람들은 活火를 이용하여 茶를 달여 마셨음을 알 수 있다. 이런 飲茶의 관습은 <茶經>을 탐독하며 茶道를 익힌 陸游 또한 실천하고 있음을 그의 詩를 통해 살펴볼 수 있었다.

## 2. 茶名

宋代에는 여러 지역에서 名茶들이 생산되었는데, 이런 茶 생산의 증가는 茶 시장의 형성, 茶館의 성행 등과 같은 茶 產業의 흥성으로 이어진다. 이런 사회적 분위기 속에서 陸游는 평생 여러 지역에서 관직생활을 했고, 茶에 관심이 많았기 때문에, 그의 詩 속에는 宋代의 名茶를 읊고 있는 詩를 여러 首 찾아볼 수 있다. 예를 들자면, 宋代 朝廷에서 御茶園을 설치하여 貢茶를 생산했던 北苑지역의 北苑茶와 唐代부터 貢茶했던 顧渚茶, 陸游의 고향에서 생산되는 日鑄茶, 그 외의 蒙頂茶, 壑源茶 등과 같은 宋代 貢茶들이 있다. 그리고 茶와 菊花를 함께 넣어서 끓이는 菊花茶와 약한 것을 물리친다는 의미를 가지고 있는 茱萸茶, 술의 해독과 소화를 돕는 효능이 있는 橄欖茶, 그 외 薑茶와 같은 花(果)茶가 있다. 그리고 앞에서 제시한 茶名들 외에 安樂茶, 花塢茶와 같은 기타 茶名들이 등장한다. 이런

98) 錢仲聯, 앞의 책, 권6, 45쪽. <夏初湖村雜題> “活火閑煎橄欖茶 (활화를 피워 한가하게 감람차를 달인다.)”.

99) 錢仲聯, 위의 책, 권7, 186쪽. <秋懷> “活火閑煎茗, 殘枰靜拾棋 (활화로 한가롭게 차를 달이고, 낡은 바둑판에서 조용히 바둑을 두네.)”.

茶名이 등장하는 詩에는 宋代의 독특한 飲茶俗과 茶의 효능, 茶 產地, 보관방법 등등을 언급하고 있어서 宋代 茶文化 연구에 중요한 자료가 되고 있다. 그러나 우리나라의 論文이나 서적에서는 北苑茶, 顧渚茶, 蒙頂茶 등의 내용은 간혹 연구된 것을 찾아 볼 수 있지만, 그 외의 여러 茶名들은 연구가 거의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 그러므로 필자는 아랫부분에서 陸游의 詩에 나타나는 茶名들을 ‘貢茶’, ‘花(果)茶 및 기타’로 분류하여 고찰해 보고자 한다.

## 1) 貢茶

### (1) 北苑茶

北苑茶는 茶의 產地인 建安(지금의 복건 建甌 일대) 鳳凰山の 東溪 水畔에 있는 北苑이라는 지명에서 이름을 얻었다. 北苑지역은 南唐말부터 宋代를 거쳐 元代까지 조정에 貢茶를 했던 곳으로, 이 지역은 宋나라 때 名茶 산지로 황실 전용의 御茶園이 있었다. 이 지역 주위에는 여러 焙所가 있었는데, 나라에서 관리를 파견해서 관리를 하는 官焙와 개인이 운영하는 私焙가 있었다. 北苑은 관리를 파견하여 관리하는 官焙였으며 龍焙, 正焙라고도 칭했다.<sup>100)</sup>

여기서 北苑茶를 읊고 있는 陸游의 <飯後偶題><sup>101)</sup>를 우선 살펴보기로 하겠다.

環堵蕭然百慮忘 흙담집이 조용하니 모든 근심 잊혀지고  
 天教得飯飯枯腸 하늘은 주린 배에게 실컷 먹을 수 있게 하네  
 長橋鮓美桃花嫩 장교의 어물은 맛있고 복숭아꽃은 연하며  
 北苑茶新帶勝方 북원의 차는 파릇파릇 고리를 두른 듯하네  
 漠漠寒花欹晚照 끝없이 펼쳐진 차가운 꽃에 저녁노을 드리우고  
 翩翩孤蝶弄秋光 훨훨 나는 외로운 나비 가을빛을 희롱하네  
 解衣捫腹西窗下 옷을 풀어 서쪽 창 아래서 배를 어루만지며  
 賴有新詩破日長 새로운 시에 의지해 보낸 날이 많도다

이 詩는 嘉泰 4年(1204) 가을, 그의 나이 80세 때 산음에서 쓴 작품으로<sup>102)</sup> 首聯은 흙담집에서 근심을 잊고 평안하게 지내는 작자 자신의 모습을 노래하고 있

100) 도서출판아라 편집부, 앞의 책, 2권 19쪽. 徐海榮, 앞의 책, 38쪽, 참조.

101) 錢仲聯, 앞의 책, 권6, 336쪽. 鄒志方, 앞의 책, 397쪽.

102) 錢仲聯, 위의 책, 권6, 336쪽.

다. 頡聯은 시야를 다른 곳으로 돌려, 봄 풍경과 파릇파릇 고리를 두른 것처럼 돌아나는 北苑茶를 읊고 있다. 그리고 頸聯도 頡聯과 마찬가지로 景을 읊고 있는데, “漠漠-翩翩, 寒花-孤蝶, 欵-弄, 晚照-秋光”으로 완벽한 對句를 이루고 있다. 尾聯은 편안하게 지내면서 詩에 의지하며 보내는 날이 많음을 얘기하고 있다.

이처럼 陸游의 시에서도 언급하고 있는 北苑茶는 당나라 말기 이전에는 세상에 알려지지 않았었는데<sup>103)</sup>, 宋代에 이르러 北苑의 御茶園에서 貢茶를 만들어 조정에 공납하면서 세상에 이름이 널리 알려 졌다. 北宋 宋子安의 《東溪試茶錄》<sup>104)</sup>에 보면 다음과 같은 기록이 있다.

“山川特異, 峻極廻環, 勢絕如甌 其陽多銀銅 其陰孕鉛鐵 厥土赤墳 厥植惟茶”

산천이 특이하여, 산이 험하고 둥글게 둘러 쌓여있으며, 산세는 빼어나 마치 사발 모양과 같다. 그 곳의 양지 바른 곳에는 은과 동이 많이 나며, 그늘진 곳에는 연철이 많이 함유되어 있어서, 그 토양은 붉으며 그곳에는 오로지 차만 심었다.

위의 기록을 보면 北苑에 있는 봉황산은 산세가 험하고, 사발모양을 하고 있으며 그 곳에는 오로지 차만을 재배했음을 말해 주고 있다.

名茶가 생산 되는 北苑에서는 太平興國 (976~984) 연간에 처음으로 황실의 焙所를 설치하여 해마다 龍鳳의 거푸집으로 貢茶를 만들어 바쳤다. 慶曆(1041~1048)연간에는 그 일을 더욱 중요시 여겨 품목과 수량이 늘어났으며 만드는 법도 나날이 정밀해졌다. 南宋, 趙汝礪의 《北苑別錄》<sup>105)</sup>에 보면 다음과 같은 기록이 있다.

“厥今茶自北苑上者, 獨冠天下, 非人間所可得也. 方春蟲震蟄, 千夫雷動, 一時之盛, 誠爲偉觀, 故建人謂至建安而不詣北苑, 與不至者同.”

오늘날 차는 북원에서 나는 것이 최상으로 천하에서 으뜸이며, 세상에서 얻을 수 있는 것이 아니다. 바야흐로 봄에 벌레들이 겨울잠에서 깨어나게 되면, 수많은 사람들이 시끄럽게 움직여서, 일시에 성대한 모습은 실로 장관이다. 그래서 건안 사람들은 ‘건안에

103) 도서출판아라 편집부, 앞의 책, 권1, 72쪽. 《宣和北苑貢茶錄》 참조.

104) 도서출판아라 편집부, 위의 책, 권1, 68쪽.

105) 류건집, 《宋代茶書의 註解》, 앞의 책, 下권, 21쪽.



와서 복원을 가지 않는다면 건안에 오지 않은 것과 같다.’라고 했다.

위의 내용으로 보면 北苑茶는 천하에서 으뜸으로 여겨졌으며 누구나 쉽게 얻을 수 없는 귀한 茶였음을 알 수 있다. 그리고 茶를 채취하는 시기가 되면 수많은 사람들이 일시에 시끌벅적하게 일을 하는 성대한 모습을 엿볼 수 있다.

위에서 趙汝礪가 北苑茶를 “獨冠天下 (천하에서 으뜸이다.)”라고 말했던 것처럼, 北苑茶를 예찬한 여러 자료들을 찾아 볼 수 있다. 北宋 蔡襄의 《茶錄》<sup>106)</sup> <味>편에도 보면 다음과 같은 기록이 있다.

“茶味主於甘滑 惟北苑鳳凰山連屬諸焙所產者味佳. 隔溪諸山 雖及時加意制作 色味皆重 莫能及也.”

차의 맛은 달고 매끄러운 것을 가장 중요하게 여긴다. 오로지 복원의 봉황산에 연속되는 여러 배소에서 생산되는 것은 맛이 뛰어나다. 계곡의 여러 산에서 비록 시기적절하게 공들여 만들어 빛깔과 맛이 모두 깊어도, 복원의 차에 미치지 못한다.

당시 北苑지역 인근에는 壑源, 沙溪, 葉源 등 名茶 산지가 있었으며, 건안 지역에는 1300여 개의 官私茶焙가 있었다.<sup>107)</sup> 여기서 蔡襄은 봉황산 인근에는 여러 焙所들이 있지만, 그 곳에서 생산되는 차의 맛은 北苑茶에 미치지 못함을 얘기하고 있다. 그리고 北宋, 熊蕃의 《宣和北苑貢茶錄》<sup>108)</sup>에도 보면 다음과 같은 기록이 있다.

“見王岐公珪詩云 北苑和香品最精, 綠芽未雨帶旗新”

왕기공 규의 시를 보면, 복원의 부드럽고 향기 나는 차는 가장 정교하고, 푸른 차 싹은 아직 비가 내리지 않았는데도, 싹을 새롭게 드리웠네.

여기서는 北苑茶의 부드러운 향에 대하여 말하고 있다. 이와 같이 향기로운 茶로 北苑의 御茶園에서는 찻잎을 채취하여, 제조과정을 거쳐 研膏茶를 만들었다.

106) 류진집, 《宋代茶書의 註解》, 앞의 책, 上권, 32쪽.

107) 도서출판아라 편집부, 앞의 책, 권2, 263쪽 참조.

108) 金明培, 《中國의 茶道》, 明文堂, 2007, 215쪽.

太平興國( 976~983)初에는 研膏茶에 龍과 鳳모양의 금무늬를 새겨서 龍鳳團茶를 만들었다. 北宋 熊藩의 《宣和北苑貢茶錄》<sup>109)</sup>에는 이런 龍鳳茶에 대한 기록이 있다.

“太平興國初，特置龍鳳模，遣使卽北苑造團茶，以別庶飲，龍鳳茶蓋始於此。”

태평흥국 초에, 특별히 용봉의 거푸집을 갖추고 사신을 파견하여 북원에서 단차를 만들게 했는데, 일반인들이 마시는 차와 구분하니, 용봉차는 대체로 이때부터 시작된 것이다.

위의 기록을 보면 북원에서 만들어진 龍鳳茶는 일반인들이 마시는 차와 구별됨을 알 수 있다. 이와 같은 차는 매우 귀하어 茶의 品數로서 龍鳳茶보다 귀한 것은 없었다. 그 이후로 蔡襄이 龍團茶를 만들어 공납을 했는데, 龍團茶는 皇帝의 마음을 사로잡았다. 그래서 해마다 공납할 수 있는 영광을 얻게 된다. 이런 龍團茶는 北宋 熊藩의 《宣和北苑貢茶錄》<sup>110)</sup>에서도 언급하고 있다.

“慶歷中，蔡君謨將漕，創造小龍團以進，被旨仍歲貢之。君謨<北苑造茶詩>自序云，其年改造上品龍茶二十八片，才一斤，尤極精妙”

경력 연간에 채양이 막 전운사가 되었을 때, 작은 용단차를 만들어서 진상하였는데, 맛이 좋아서 해마다 바치게 되었다. 채양이 읊은 <北苑造茶詩>의 序에 이르기를, 그 해에 개조해서 상급품의 용차 28개를 만들었다. 그것은 겨우 한 근밖에 안 되는데, 매우 정교하였다.

여기서 말하는 龍團茶는 작은 덩어리차라고 하는데, 무릇 28조각으로 무게는 한 근이며, 이 차는 매우 귀하어 손쉽게 얻을 수 없었다. 龍團茶는 매우 정묘하여 皇帝의 마음에 들었기 때문에 龍鳳茶는 마침내 品數가 龍團茶의 뒤로 밀리게 된다. 이와 같이 名茶인 龍團茶는 陸游의 <雪夜作><sup>111)</sup>에서도 언급하고 있다.

109) 류건집, 《宋代茶書의 註解》, 앞의 책, 上권, 192쪽.

110) 金明培, 앞의 책, 215~216쪽.

111) 錢仲聯, 앞의 책, 권3, 344쪽.

龍茶與羔酒 용단차와 고주를 더불어 마시니  
得失不足評 좋은 점과 나쁜 점을 평할 수 없네

위의 시 외에 그의 <老學庵北窗雜書><sup>112)</sup> 에서도 小龍團을 읊고 있음을 볼 수 있다.

小龍團與長鷹爪 소룡단과 긴 매 발톱 차  
桑苧玉川俱未知 옥우와 옥천자는 모두 알지 못했네  
自置風爐北窗下 스스로 풍로를 북창 아래에 설치해  
勒回睡思賦新詩 억지로 잠 생각을 떨치고 새로운 시를 쓰네

陸游는 이 詩에서 宋代의 名茶인 小龍團을 風爐로 손수 달여 마시고 있으며, 茶의 힘을 빌어서 졸음을 달아나게 하고, 새로운 詩를 쓰고 있는 모습을 그리고 있다. 陸游는 위에서 예로 든 詩 외에 <適園><sup>113)</sup>에서도 북원차를 언급하고 있다.

위에서 살펴본 北苑의 茶는 값도 비싸고 귀해서 구하기 힘들었기 때문에, 北苑 인근의 私焙에서 北苑貢茶와 같은 거푸집과 制茶法을 이용하여 北苑茶와 비슷하게 만들기도 하였다. 그러나 그 가격은 北苑茶에 훨씬 못 미쳤다. 北苑에서는 龍鳳茶와 龍團茶가 만들어 졌고, 그 뒤에 元豐 연간에는 密雲龍이 만들어졌으며, 紹聖연간에는 瑞雲翔龍 등의 名茶가 만들어졌다. 그 외에도 北苑에서는 여러 종류의 차들이 만들어졌는데 예로 들자면, 京銚乳, 石乳, 的乳, 白乳 등등이 있다. 이런 것들은 황제에 대한 신하들의 충성심에서 만들어 지기 때문에 北苑茶가 발전하게 되는 이유가 되기도 했다.

## (2) 日鑄茶

日鑄茶는 宋代의 名茶로 越洲 會稽縣 東南의 日鑄嶺에서 생산된다. 日鑄茶는 地名 때문에 얻어진 이름으로, 日鑄 또는 日注라고 부른다.<sup>114)</sup> 日鑄茶는 北宋 때 이미 이름이 드러났고, 南宋 때 貢納하였다.<sup>115)</sup> 宋代, <<嘉泰會稽志>> 卷17 <日鑄

112) 錢仲聯, 앞의 책, 권7, 180쪽.

113) 錢仲聯, 위의 책, 권2, 225쪽. “春殘猶看少城花 雪裏來嘗北苑茶 (봄이 끝나는데 여전히 소성의 꽃을 보고, 눈 속에 와서 북원차를 맛보네)”.

114) 錢仲聯, 위의 책, 권1, 124쪽 참조.

茶>116)부분에 보면 다음과 같은 기록이 있다.

“日鑄嶺，在會稽縣東南 五十五里，嶺下有僧寺名資壽，其陽坡曰油車，朝暮常有日，產茶絕奇，故謂之日鑄”

일주령은 회계의 동남 55 리에 있으며, 령의 아래에 절이 있는데 자수라 한다. 그곳 양지 바른 언덕을 유거라 하고, 아침저녁으로 항상 해가 비치고, 생산되는 차는 매우 기묘하다. 그러므로 일주라 이른다.

여기서는 日鑄茶가 생산되는 지역의 위치와 기후조건에 대한 설명을 하고 있으며, 그곳 茶가 매우 기묘함을 이야기하고 있다.

陸游는 자신의 고향의 名茶인 日鑄茶를 詩로 읊기도 하였다. 그는 <過武連縣北柳池安國院煮泉試日鑄顧渚茶院有二泉皆甘寒傳云唐僖宗幸蜀在道不豫至此飲泉而愈賜名報國靈泉雲>117)이라는 詩題로 3首의 詩를 읊었다. 그 중 세 번째 詩에서 日鑄茶에 대하여 언급하고 있다.

我是江南桑苧家 나는 강남에서 뽕나무와 마를 농사짓는 사람  
汲泉閑品故園茶 물 길어 한가로이 고향 차를 맛보네  
只應碧缶蒼鷹爪 응당히 푸른 그릇의 푸른 매 발톱 같은 차는  
可壓紅囊白雪芽 붉은 주머니 속의 백설아 차보다 뛰어나도다

이 詩는 乾道 8년 11월 그의 나이 48세 때 南鄭에서 成都로 가는 도중에 武連에서 쓴 詩이다.<sup>118)</sup> 唐代 陸羽는 자신을 ‘桑苧翁’이라고 칭했다. 이 詩의 첫 句는 평소에 陸羽를 양모했던 陸游가 자신도 뽕나무와 마를 농사짓는 농부라고 말을 하면서, 唐代 陸羽와 자신을 同一視하고 있는 모습을 볼 수 있다. 둘째 句는 한가로운 마음으로 故園茶, 즉 고향에서 생산되는 日鑄茶을 달여서 맛보는 모습을 읊고 있다.<sup>119)</sup> 3, 4 句는 日鑄茶는 매 발톱 같이 어린 茶이고 이 茶는 붉은 주머니

115) 徐海榮, 앞의 책, 21쪽 참조.

116) 徐海榮, 위의 책, 20쪽, 재인용.

117) 錢仲聯, 앞의 책, 권1, 209쪽.

118) 錢仲聯, 위의 책, 권1, 209쪽. 鄒志方, 앞의 책, 392쪽.

119) 김길자, 앞의 책, 71쪽 참조.

니 속의 白雪芽 즉 顧渚茶보다 뛰어나다고 말하고 있다. 陸游는 위의 詩에서 다음과 같이 自注하고 있다.

“日鑄貯以小瓶，蠟紙丹印封之”

일주차는 작은 병에 저장하는데, 밀랍을 입힌 종이에 붉은 도장을 찍고 그것을 보관한다.

이 기록을 보면 日鑄茶는 밀랍을 입힌 종이에 붉은 도장을 찍고 작은 병에 저장하는 것을 알 수 있다. 陸游는 이 詩에서 日鑄茶와 顧渚茶를 맛보면서, 자신의 고향의 茶인 日鑄茶가 唐代부터 貢茶를 했던 顧渚茶보다도 맛이 뛰어나다고 말하고 있어서, 고향의 茶를 아끼는 陸游의 마음을 한눈에 들여다 볼 수 있다.

위의 陸游의 詩에서는 日鑄茶의 보관방법을 알 수 있었던 것처럼, 아래의 宋代 楊萬里의 <謝嶽大用提舉郎中寄茶果藥物三首> 중, 그 하나 <日鑄茶><sup>120)</sup>에서도 日鑄茶의 보관방법을 기술하고 있다.

瓷瓶蠟紙印丹砂 오지병의 밀랍을 입힌 종이에 단사를 찍고  
日鑄春風出使家 일주의 봄바람이 부니 관찰사를 나오게 하네  
白錦秋鷹微露爪 하얀 비단 같고, 이슬에 젖은 가을 매 발톱 같은 응조차  
靑瑤曉樹未成芽 푸른 옥 같은 새벽 나무에 아직은 싹트지 않았네  
松梢鼓吹湯翻鼎 소나무 끝에서 북을 치는 듯 탕은 茶鼎에서 끓고  
甌面雲煙乳作花 사발에 구름연기 같은 우유 꽃을 이루었네  
喚醒老夫江海夢 강과 바다의 꿈을 꾸는 노인을 불러서 깨우니  
呼兒索鏡整烏紗 아이를 불러 거울을 찾고 오사모를 바르게 하네

이 詩 首聯에서는 밀랍을 입힌 종이에 단사를 찍고 있음을 볼 수 있다. 이 부분은 위의 陸游의 詩에서 보여줬던, 日鑄茶의 보관방법과 같음을 알 수 있다. 그리고 頷聯에서는 매 발톱 같은 日鑄茶의 모습을 노래하고 있으며, 頸聯에서는 사발에 구름연기처럼 떠다니는 우유 빛의 日鑄茶를 상상할 수 있게 한다. 이 詩에서는 日鑄茶의 모습과 茶를 달여 놓았을 때의 모습, 그리고 보관방법까지 한꺼번에 볼 수 있어서, 日鑄茶를 연구하는 데 많은 도움이 되고 있다. 그리고 陸游는

120) 도서출판아라 편집부, 앞의 책, 권1, 181쪽.

<三遊洞前岩下小潭水甚奇取以煎茶><sup>121)</sup>, <試茶><sup>122)</sup>에서도 日鑄茶를 언급하고 있다.

日鑄茶에 대한 자료는 다른 시인의 詩에서도 자주 등장하는데, 北宋 蘇轍의 <宋城宰韓秉文惠日鑄茶><sup>123)</sup>에서는 日鑄茶를 가는 모습과 日鑄茶가 백색임을 언급하고 있으며, 차를 달였을 때 잔에 들어 있는 茶의 모습은 연유가 흠어지는 모습과 같음을 말해주고 있다. 日鑄茶의 명성은 그 외의 여러 古書들의 기록으로도 증명되고 있다. 아래의 宋代 高似孫의 <剡錄><sup>124)</sup>에 보면 다음과 같은 기록이 있다.

“會稽茶以日鑄名天下，餘行日鑄嶺，入日鑄寺，綆日鑄泉，淪日鑄茶，茶與水味，深入理窟。”

회계산 차는 일주차로서 천하에 명성이 알려졌네, 내가 일주령에 가면 일주사에 들어간다. 일주천으로 일주차를 달이면 차와 물맛은 심오한 도리에 깊게 들어가게 한다.

여기에서는 日鑄茶가 천하에서 명성을 얻었음을 말해주고 있으며, 日鑄茶를 日鑄泉으로 달이면 심오한 도리에 깊게 들어 갈 수 있다는 표현으로 日鑄茶의 신묘한 효능까지 덧붙여 이야기하고 있다.

위에서 고찰한 日鑄茶에 대하여 간단히 정리해 보면, 日鑄茶는 宋代의 名茶로 陸游의 고향인 越洲 會稽縣 東南의 日鑄嶺에서 생산되는 茶이다. 이 茶는 맛이 뛰어나서 北宋 때 이미 이름이 널리 알려졌고 南宋시기에는 貢納하였다. 그리고 이 茶를 달이면 우유처럼 하얀 빛을 발하고, 보관할 때는 밀랍을 입힌 종이에 붉은 색 단사를 찍고 보관한다는 것도 알 수 있었다.

### (3) 壑源茶

121) 錢仲聯, 앞의 책, 권1, 124쪽. <三遊洞前岩下小潭水甚奇取以煎茶> “囊中日鑄傳天下，不是名泉不合嘗 (주머니 속에 일주차 천하에 전하여지니, 명천이 아니면 맛보기에 맞지 않네)”.

122) 錢仲聯, 위의 책, 권1, 406쪽. <試茶> “日鑄焙香懷舊隱，谷簾試水憶西遊 (일주차 불에 쪄이는 향기에 옛 추억 어렵듯이 떠오르고, 곡렴천에서 물을 맛보며 서쪽 녘에서 노닐던 것을 생각하네)”.

123) 도서출판아라 편집부, 앞의 책, 권1, 153쪽. 蘇轍의 <宋城宰韓秉文惠日鑄茶> “君家日鑄山前住，冬後茶芽麥粒粗，磨轉春雷飛白雪，甌傾錫水散凝酥 (그대의 집은 일주산 앞에 있으니, 겨울 뒤에는 차가 싹트고 보리가 거칠게 나겠지, 빙빙 돌리며 차를 갈면 백설이 날리고, 사발에 기울여 물을 부으면 연유가 흠어지며 영기지)”.

124) 徐海榮, 앞의 책, 20쪽, 재인용.

壑源茶는 壑源이라는 地名에서 茶의 이름을 얻었으며, 壑源에서 나는 茶의 품질은 아주 뛰어나서 宋代에는 황실에 貢納 했다.<sup>125)</sup> 壑源은 貢茶 산지인 北苑과 멀리 떨어져 있지 않다. 壑源은 北苑과 더불어 正焙라 칭해지는데, 北苑은 官焙이고 壑源은 私焙이다.<sup>126)</sup> 壑源茶에 대한 여러 기록들을 찾아 볼 수 있는데, 宋代, 宋子安의 《東溪試茶錄》<sup>127)</sup>을 보면 다음과 같은 기록이 있다.

“建安郡東望北苑之南山，叢然而秀，高峙數百丈，如郭郭焉。其絕頂西南下視建之地邑山起壑源口而西，周抱北苑之群山，迤邐南絕其尾，巋然山阜高者爲壑源頭。”

건안군에서 동쪽으로 북원의 남쪽 산을 바라보면 숲이 빼어난데 높고 우뚝 솟아 수백 장이라 성곽과 같다. 그 봉우리의 서남에서 건안 지읍의 산이 학원입구에서 일어난 것을 내려다보면 북원의 못 산을 두루 안고 있다. 구불구불 이어지다 그 꼬리가 남쪽에서 끊어지는데, 우뚝 솟은 산언덕이 학원의 꼭대기이다.

위의 내용을 보면 壑源입구에서 건안 지역의 산들이 이어지고 있으며, 이 산들은 北苑의 못 산들을 두루 안고 있는 지형으로 숲이 빼어나고 우뚝 솟은 지형으로, 성곽과 같이 이어지는 모습임을 이야기 하고 있다. 그리고 壑源은 宋代 御茶園이 있던 北苑의 남쪽에 위치하고 있음도 알 수 있다.

陸游도 壑源茶를 읊고 있는데, 그의 <堂中以大盆漬白蓮花石菖蒲翛然無復暑意睡起戲書><sup>128)</sup>를 우선 살펴보겠다.

海東銅盆面五尺 海동의 구리 동이는 오척이요  
 中貯潤泉涵淺碧 그중에 산골 샘물 담으니 낮고 푸르네  
 豈惟冷浸玉芙蓉 어찌 쓸쓸하게 옥 부용꽃만을 담글까  
 青青菖蒲絡奇石 푸른 창포도 기이한 돌에 감았네  
 長安火雲行日車 장안의 여름 구름이 해에게로 가니  
 此間暑氣一點無 그 사이에는 더운 기운 하나도 없네  
 紗幬竹簾睡正美 얇은 휘장에 대자리에서 잠을 자니 참으로 좋고  
 鼻端雷起驚僮奴 코끝에서 우뢰가 일어나니 어린 종이 놀라네

125) 徐海榮, 앞의 책, 155쪽.

126) 도서출판아라 편집부, 앞의 책, 권2, 24쪽 참조.

127) 도서출판아라 편집부, 위의 책, 권1, 24쪽.

128) 錢仲聯, 앞의 책, 권2, 342쪽.



覺來隱幾日初午 깨어나니 어슴푸레한데 해는 바야흐로 대낮이고  
 碾就壑源分細乳 곧바로 학원차를 갈아 보드라운 우유처럼 분차하네  
 卻拈燥筆寫新圖 차를 물리치고 조필을 잡고 새로운 그림을 그리니  
 八幅冰綃瘦蛟舞 팔 폭의 얇은 비단에 파리한 교룡이 춤추네

이 詩는 淳熙 7년(1180) 7월 그의 나이 56세 때 撫州에서 쓴 詩이다.<sup>129)</sup> 1~4句는 집에 있는 샘물이 담긴 구리 동이에 부용꽃을 담고, 창포로 돌에 두른 모습을 설명하듯이 읊고 있다. 5, 6句는 여름날 구름이 해를 가리니, 더운 기운이 사라짐을 나타내고 있다. 7, 8句는 얇은 휘장과 대자리라는 여름의 소품과 이에 어울리는 낮잠, 그리고 콧소리까지 등장 시키고 있다. 이 부분에서는 詩의 소재를 일상의 평범한 것에서 찾고 있는 모습을 볼 수 있다. 9, 10句는 한바탕 낮잠을 자고 일어나서 壑源茶로 點茶法을 이용해서 分茶를 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다. 10, 11句는 燥筆로 얇은 비단에 그림을 그리고, 그것을 교룡이 춤추는 모습으로 묘사하고 있다. 이 詩는 여름날 정원의 모습을 한가롭게 감상하며, 分茶와 그림을 즐기는 작가의 모습을 그대로 표현하고 있어서, 감상하는 사람들의 마음까지 편안함을 느끼게 한다.

그리고 아래의 宋代 胡仔의 《荅溪漁隱叢話》를 보면, 壑源茶의 품질에 대해 논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다.

“惟壑源諸處私焙茶，其絕品亦可敵官焙，自昔至今，亦皆入貢，其流販四方，悉私焙茶耳”

오직 학원의 여러 곳의 사배 차는, 그 품질이 뛰어나 관배를 대적할 만하고, 예로부터 지금까지 모두 공납하였다. 그것은 돌아다니며 사방에 팔았는데 모두 사배차일 따름이다.

여기서는 私焙인 壑源茶가 품질이 뛰어나서 官焙에 대적할 만하고, 이름이 세상에 알려져서 사방에 팔았으며, 貢納까지 했음을 기록하고 있다.

그리고 黃儒의 《品茶要錄·辨壑源沙溪》<sup>130)</sup>에는 다음과 같은 내용이 있다.

“凡壑源之茶售以十，則沙溪之茶售以五”

129) 錢仲聯, 앞의 책, 권2, 342쪽. 鄒志方, 앞의 책, 394쪽.

130) 徐海榮, 앞의 책, 155쪽 재인용.

무릇 학원의 차는 十으로써 팔면, 사계의 차는 五로써 팔았다.

이 기록을 보면, 壑源茶는 매우 뛰어나서 그 주변의 沙溪의 茶보다 가격이 월등히 높게 형성되었음을 말해 주고 있다. 그리고 宋代 曾鞏의 <方推官寄新茶><sup>131)</sup>에서도 壑源茶의 품질이 좋기 때문에 사람들이 다투며 차를 얻고자 하고, 황제에게 바치고자 하는 마음들을 읊고 있다.

위의 壑源茶에 대한 기록들 외에, 陸游의 또 다른 詩 <謝王彥光提刑見訪並送茶><sup>132)</sup>에서도 언급하고 있다.

邇英帷幄舊儒臣 이영각 장막에서 오래된 신하  
肯顧荒山野水濱 황폐한 산야의 물가를 돌아보네  
不怕客嘲輕薄尹<sup>133)</sup> 객이 경박한 경도의 장관이라 비웃어도 두려워하지 않으니  
要令我識老成人 나로 하여금 경험이 풍부한 사람임을 알게 하네  
颺回鼓轉東城暮 말을 타고 북을 치며 동쪽 성을 돌아다니니 해가 저물고  
酒冽橙香一笑新 술은 차갑고 등자나무 향기로워 한바탕 웃으니 새롭네  
遙想解醒須底物 무엇으로 술을 깰지 아득히 생각해 보니  
隆興第一壑源春 융흥 때 제일가는 학원차라네

이 詩는 隆興 元年(1163) 그의 나이 39세 때 山陰에서 지은 詩이다.<sup>134)</sup> 1~4句는 <<世說新語·寵禮>>의 내용, 즉 “許玄度が 京都에 한 달이나 머물고 있었는데, 丹陽尹인 劉眞長이 한 번도 찾아 가 보지 못한 것을 탄식하며 ‘내가 輕薄尹이 되었네’ 라고 말했다.” 라는 典故를 이용하였다. 1句에서 말하는 邇英閣의 신하는 제목에서 언급하고 있는 王彥光(王葆)으로, 그는 隆興 元年, 左朝請大夫 벼슬을 한 사람이다. 陸游는 이 부분에서 경박한 경도의 장관이라고 비웃어도 두려워하지 않는 王彥光을 경험이 풍부한 사람이라고 말하고 있다. 그리고 頸聯은 그

131) 도서출판아라 편집부, 앞의 책, 143쪽. 曾鞏의 <方推官寄新茶> “采摘東溪最上春, 壑源諸葉品尤新, 龍團貢罷爭先得, 肯寄天涯主諾人 (동계에서 차를 따는 것은 상춘이 최고이고, 학원의 모든 잎들의 품질은 더욱 새롭다. 용단 공납을 모두 마치면 다투며 먼저 얻으려 하네. 하늘 끝의 황제에게 바친다면 사람들이 동의 하리라)”.

132) 錢仲聯, 앞의 책, 권1, 54쪽.

133) 錢仲聯, 위의 책, 권1, 55쪽, <<世說新語·寵禮>> 許玄度停都一月, 劉尹無日不往, 乃歎曰: “卿復少時不去, 我成輕薄京尹”.

134) 錢仲聯, 위의 책, 권1, 54쪽. 鄒志方, 앞의 책, 391쪽.

날 王彦光과 여기 저기 돌아보며 한 일과 생각을 썼고, 尾聯은 술을 깨는 효능이 있는 王彦光이 선물한 壑源茶를 노래하고 있다.

이와 같은 壑源茶는 宋代 蘇軾의 <次韻曹輔寄壑源試焙新芽><sup>135)</sup>에서도 찾아 볼 수 있다.

仙山靈草濕行雲 신령스런 산의 신령스런 차는 지나가는 운무에 젖어  
洗遍香肌粉末勻 향기로운 차 두루 씻으나 가루는 아직 흠어지지 않네(중략)  
戲作小詩君一笑 보잘 것 없는 시 재미삼아 쓰니 그대는 한바탕 웃지만  
從來佳茗似佳人 지금까지 좋은 차는 훌륭한 사람과 같다네

이 시는 曹輔가 壑源茶와 더불어 詩를 지어 보내니, 이에 次韻하여 이 詩를 써서 고마운 마음을 전하고 있다. 이 詩에서 蘇軾은 壑源茶를 신령스런 茶라고 말하고 있으며, 또한 좋은 차는 “훌륭한 사람과 같다.”라고 말하며 壑源茶를 예찬하고 있다. 위의 기록들은 모두 壑源茶를 예찬하고 있지만, 위의 기록들과 거리가 먼 기록도 있다. 錢仲聯 <陸游全集校注>卷1의 <謝王彦光提刑見訪並送茶><sup>136)</sup>에 보면 다음과 같은 注釋이 달려 있다.

“《民國福建通志·山經》卷一八建寧府建安縣：壑源山 在鳳凰山南. 《八閩志》云 ‘高峙數百丈, 此山之茶, 爲外焙冠’”

《민국복건통지·산경》권일팔건녕부건안현：학원산은 봉황산 남쪽에 있다. 《팔민지》에 이르기를 ‘높고 우뚝 솟아 수백 장이요 이산의 차는 외배에서 으뜸이라.’

이 기록을 보면 壑源산의 위치는 北苑茶가 생산되는 鳳凰산의 남쪽에 있고, 산세는 우뚝 솟아올라 수백 장이나 된다고 이야기 하고 있으며, 이 산에서 나는 茶는 外焙에서 으뜸이라고 말을 하고 있다. 여기서 류건집의 <宋代茶書의 註解><sup>137)</sup>에 실린 外焙에 대한 설명을 참고해서 보기로 하겠다.

“송대의 御茶는 주로 北苑에서 생산되었고, 가까이 壑源 근처에 私焙가 많았다. 북원의

135) 도서출판아라 편집부, 앞의 책, 권1, 149쪽.

136) 錢仲聯, 앞의 책, 권1, 54쪽.

137) 류건집, <宋代茶書의 註解>, 앞의 책, 上권, 166쪽.

어다원의 차는 거의가 공납되어버리니 일반인이 얻을 수가 없었다. 그래서 어다원에 종사한 경험이 있는 이들이 학원 근처에서 복원차 제작법을 사용해서 거푸집도 복원 것처럼 하여 만든 것을 淺焙라고 했다. 그리고 학원에서 좀 더 떨어진 곳에서 학원 것처럼 만들 것을 外배라 했다. 그러나 천배도 복원의 정배보다 못하고 外배는 더욱 질이 떨어졌다.”

위의 류건집의 설명과 위에서 필자가 제시한 자료들을 보면, 壑源茶의 맛은 官焙와 대적할 만 했고 이 茶는 壑源山 주변에 있던 沙溪의 茶보다 훨씬 높은 값으로 판매되었으며, 貢納까지 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그리고 徐海榮의 《中國茶事大典》에서 “正焙：指宋代生產貢茶的正宗山地北苑曾坑壑源諸焙（정배：송대 공차가 생산되는 전통적인 산지인 북원, 증갱, 학원의 모든 배소를 가리킨다.)”<sup>138)</sup>라고 말하고 있다. 이것으로 보면 錢仲聯의 注釋에서 壑源茶를 外焙라고 한 것은 잘못 기록한 것이 아닌가 하는 추측을 불러일으키게 한다.

#### (4) 蒙頂茶

蒙頂茶는 唐, 宋의 名茶이다. 四川省 邛崃山脈중의 蒙山에는 5개의 봉우리가 연꽃모양으로 둘러져 있으며, 이곳에서 나는 茶를 蒙頂茶 또는 蒙山茶라고 한다. 그곳에는 黃茶<sup>139)</sup>, 白茶, 綠茶가 있었고, 제조된 茶로는 草茶, 研膏茶, 不研膏茶 등이 있었다. 蒙頂茶는 唐代에 이미 貢茶하였고 宋代에도 여전히 貢茶가 진행되었기 때문에 이름이 세상에 널리 알려졌다.<sup>140)</sup> 이런 名茶인 蒙頂茶에 대하여 陸游의 <菴居><sup>141)</sup>에서 언급하고 있다.

南浮七澤吊沉湘 남쪽으로 초나라 칠택을 떠다니다 굴원을 조문하고  
西泝三巴掠夜郎 서쪽으로 삼파를 거슬러 올라가 야랑을 스쳐지나가네  
自信前緣與人薄 사람들과의 박한 전생의 인연을 스스로 믿으며  
每求寬地寄吾狂 넓은 곳에서 나의 어리석은 마음 의탁함을 매양 구하네  
雪山水作中濡味 설산의 물은 천하제일 중냉천<sup>142)</sup>의 맛을 만들어 내니

138) 徐海榮, 앞의 책, 378쪽.

139) 徐海榮, 위의 책, 116쪽. “黃茶：茶類名，六大茶類中之一。黃茶的名字最早出現在唐朝，是指茶樹芽葉自然發黃的黃茶。(차류명이다. 육대 차류 중의 하나이다. 황차의 이름은 唐朝에서 가장 먼저 출현한다. 이것은 차나무 싹이 자연적으로 황색을 발한 황차를 말한다.)”.

140) 徐海榮, 위의 책, 142쪽, 참조.

141) 錢仲聯, 앞의 책, 권2, 13쪽.

蒙頂茶如正焙香 몽정차는 마치 정배향 같구나  
儼有把茅端可老 만일 백발이 되도록 바르게 늙어 갈 수 있다면  
不須辛苦念還鄉 환향을 수고롭게 생각할 필요가 없네

이 詩는 淳熙 3년(1176) 2월 그의 나이 52세 때 成都에서 쓴 詩이다.<sup>143)</sup> 이 詩의 首聯에서는 戰國時代 말엽에 정치적으로 불우했던 楚나라의 屈原을 언급하고 있다. 陸游는 벼슬 도중에 여러 번 罷免을 당하기도 했고, 자기가 바라던 中原의 수복을 이루지 못했다. 그래서 그는 屈原의 懷才不遇함에서 자신의 모습을 찾는 同病相憐의 마음을 표현하고 있다. 頸聯은 천하제일의 中冷泉의 맛을 언급하고 있으며, 蒙頂茶는 北苑茶나 壑源의 茶처럼 맛이 뛰어나서 正焙香과 같다고 노래 하면서, 蒙頂茶의 우수성을 나타내고 있다. 그리고 “雪山-蒙頂, 水-茶, 作-如, 中濡-正焙, 味-香”으로 對句를 이루고 있다.

그리고 唐代 李肇의 《唐國史補》<sup>144)</sup>를 보면 다음과 같은 기록이 있다.

“風俗貴茶，茶之名品益衆。劍南有蒙頂石花，或小方，或散芽，號爲第一”

풍속에 차를 귀하게 여기니, 차의 명품은 더욱 많아지고, 강남에 몽정석화가 있는데, 혹은 소방이고, 혹은 산아로, 천하제일이라고 부른다.

이 기록을 보면 蒙頂茶는 唐代에 작은 모양의 片茶와 散茶<sup>145)</sup>로 존재했음을 말해 주고 있다. 이런 蒙頂茶는 唐代부터 유명했었으나 唐代 陸羽의 《茶經》에는 蒙頂茶에 대한 언급이 전혀 없다. 그래서 唐代의 詩人인 黎陽王은 陸羽가 이런 茶를 마셔보지 못한 것에 대해 아쉬워하며 아래의 <蒙山白雲岩茶><sup>146)</sup>를 읊었다.

聞道蒙山風味佳 몽산의 차는 풍미 좋다 들었는데

142) 錢仲聯, 앞의 책, 권2, 13쪽, 注釋 : 《太平寰宇記》丹徒縣:中冷泉, 天下第一泉 (단도현 : 중냉천은 천하제일의 샘물이다.)

143) 錢仲聯, 위의 책, 권2, 13쪽, 앞의 책, 393쪽.

144) 徐海榮, 앞의 책, 142쪽.

145) 金明培, 앞의 책 104쪽. 散茶 : ”陸羽의 《茶經》에도 등장하는 散茶로, 고행차인 片茶의 반대어이므로 일차를 뜻하는 말이다.“

146) 徐海榮, 위의 책, 622쪽.

洞天深處飽煙霞 신선이 산다는 동천에서 안개를 실컷 먹었기 때문이라(중략)  
 蟹眼不須煎活水 물을 끓이는데 꼭 활수로 할 필요는 없고  
 酪奴何敢問新芽 차는 어찌 새순인가를 물어야 하겠는가  
 若教陸羽持公論 만약 육우로 하여금 공정한 말을 하게 한다면  
 應是人間第一茶 응당 세상에서 제일가는 차라고 하리라

이 詩에서는 茶에 대한 지식이 풍부한 茶聖인 陸羽가 만약 이 蒙山白雲岩茶를 마셔본다면, 이 茶의 맛이 뛰어난을 인정할 것이라고 말하고 있다. 그리고 茶를 끓일 때는 活水를 이용하는 것이 좋지만, 굳이 좋은 물이 아니라도 이 지역의 茶는 우수한 맛을 낼 수 있다는 것도 더불어 말하고 있다.

蒙山에서는 오랜 기간 동안 매년 차를 채취하고 제조하여 貢茶 했는데, 특히 ‘仙茶’가 매우 신비롭다. 봄에 차에 싹이 나기 시작하면 縣官은吉日을 택하여 朝服을 걸치고, 모든 名山縣 72寺院의 和尚들과 산에 올라 ‘仙茶’를 배알했는데, 그 대열은 매우 웅대했다.<sup>147)</sup> 清代 趙懿의 <蒙頂茶說><sup>148)</sup>을 보면 ‘仙茶’에 대한 다음과 같은 기록이 있다.

“名山之茶美於蒙，蒙頂又美之，上清峰茶園七株又美之，世傳甘露慧禪師手所植也。二千年不枯不長，其茶，葉細而長，味甘而清，色黃而碧，酌杯中香雲蒙覆其上，凝結不散，以其異，謂曰仙茶。”

명산현의 차는 몽산에서 빼어나다. 몽정의 차 또한 우수한데, 상청봉차원의 일곱 그루의 차나무도 빼어나다. 세상에 감로라 전해지는데, 혜선사가 직접 손으로 심은 것이다. 이천년 동안 말라서 자라나지 않음이 없고, 그 차는 잎이 가늘며 길고, 맛은 달고 맑으며, 색은 황색과 녹색이고, 따른 잔속에 향기로운 구름이 그 위를 덮는 듯 하고, 영겨서 흩어지지 않으니 기이하여 선차라고 이른다.

이 내용으로 보면 상청봉의 일곱 그루 나무에서 생산되는 茶는 맛이 워낙 뛰어나기 때문에 모두 皇室에 공납하였고, 이 茶를 仙茶라고 불렀음을 알 수 있다.<sup>149)</sup> 이외에도, 毛文錫의 <茶譜><sup>150)</sup>를 보면 蒙頂茶를 마시면 오래된 병을 물

147) 莊晚芳, 唐慶忠, 唐力新, 陳文懷, 王家斌, 《中國名茶》, 浙江人民出版社, 1979년, 杭州, 참조.  
 148) 도서출판아라 편집부, 앞의 책, 권1, 43쪽 재인용.  
 149) 도서출판아라 편집부, 위의 책, 권1, 43쪽, 毛文錫의 <茶譜> 참조.  
 150) 金明培, 앞의 책, 116쪽.

리칠 수 있고, 용모가 젊어지며 마시면 地仙이 된다고 말하고 있다. 이는 蒙頂茶의 효능이 특별하여 마시면 신선에 까지 이르는 신비한 茶라고 극찬하고 있는 것이다.

여기서 마지막으로 陸游의 <睡起試茶><sup>151)</sup>를 보기로 하겠다.

笛材細織含風漪 대나무 촘촘하게 엮켜 바람에 잔물결치고  
蟬翼新裁雲碧帷 매미 날개는 새로 재단한 푸른 휘장 같네  
端溪硯璞斷作枕 단계의 벼루 돌을 깎아 베개를 만들고  
素屏畫出月墮空江時 하얀 병풍에 그린 달이 빈 강에 떨어질 때라  
朱欄碧甃玉色井 붉은 난간 푸른 벽돌 옥색의 우물  
自候銀餅試蒙頂 몸소 은병을 찾아 몽정차를 맛보네  
門前剝啄不嫌渠 문을 두드리는 사람들이 싫지는 않으나  
但恨此味無人領 이 맛 이해하는 사람이 없음이 다만 한스럽네

이 詩는 淳熙 元年(1174) 여름 그의 나이 50세 때 蜀州에서 쓴 것이다.<sup>152)</sup> 이 詩의 首聯은 여름날, 대나무에 부는 바람과 매미를 읊고 있다. 그리고 頤聯의 둘째 句는 다른 聯과 다르게 9言으로 이루어지고 있다. 頤聯은 첫 句에서 옥색의 물을 표현함으로써 茶를 달이기에 좋은 물임을 말해주고 있으며, 둘째 句에서는 은병을 가지고 맛이 뛰어난 蒙頂茶를 마시고 있는 모습을 노래하고 있다. 尾聯은 문을 두드리며 찾아오는 사람들은 싫지는 않지만, 蒙頂茶의 맛을 이해하는 사람이 드물어 한스러움을 표현하고 있다.

위에서 살펴본 名茶인 蒙山茶에 대하여, 明代 許次紆의 <<茶疏>>, <辨訛><sup>153)</sup> 조목에 서도 언급하고 있다.

“古人論茶，必首蒙頂。蒙頂山蜀雅州山也，往常產，今不復有。卽有之，彼中夷人專之，不復出山”

고인이 차를 논할 때면 반드시 몽정차를 먼저 한다. 몽정산은 촉의 아주산이다. 옛날에는 항상 생산했었는데, 지금은 더 이상은 없다. 즉 그것이 있으면, 그곳의 夷인들이 독

151) 錢仲聯, 앞의 책, 권1, 317쪽.

152) 위의 주)와 같음. 鄒志方, 앞의 책, 393쪽.

153) 徐海榮, 앞의 책, 142쪽 재인용.



접하기에, 더 이상 산 밖으로 나오지 않는다.

이 기록에서는 唐宋 이래로 貢茶해 오던 蒙頂茶가 明代에 이르러 夷인들이 茶를 독점했기 때문에 貢茶가 사라지게 됐음을 말하고 있다.

위의 내용을 종합해 보면, 蒙頂茶는 蒙山에서 생산되어 제작되는 茶를 말하며, 唐宋 이래로 皇室에 貢茶를 했고 그 맛이 매우 뛰어나기 때문에 예로부터 蒙頂茶의 품질을 예찬하는 기록들이 많았음을 알 수 있다. 그리고 蒙山の 仙茶는 신성하게 여겼기 때문에 예복을 입고 배알을 하는 상황까지 있었으며, 이처럼 유명했던 蒙頂茶는 明代에 이르러 夷인들이 독차지했기 때문에 貢茶를 더 이상 할 수 없었음을 알 수 있었다. 이런 名茶에 대해 陸游 또한 지나치지 않고 읊고 있으며, 그 또한 이 茶에 대한 예찬을 빼놓지 않고 있음을 볼 수 있다.

#### (5) 顧渚茶

長興縣 顧渚山에서 생산되는 茶를 顧渚茶, 顧渚春, 顧渚紫箏, 湖州紫箏, 長興紫箏이라고도 한다.<sup>154)</sup>이 茶는 唐代에 이미 貢納되었으며, 매년 淸明 이전에 장안에 공납했으므로 急程茶라고도 칭해졌다.

陸游의 詩 <過武連縣北柳池安國院煮泉試日鑄顧渚茶院有二泉皆甘寒傳云唐僖宗幸蜀在道不豫至此飲泉而愈賜名報國靈泉雲><sup>155)</sup>에서 錢仲聯은 <太平寰宇記><sup>156)</sup>의 내용을 아래와 같이 인용하고 있다.

“長興縣，顧渚，在縣西北三十里，昔吳王夫概顧其渚次，原隰平行，可謂都邑之所，今崖谷林薄之中，多產茶茗，以充歲貢”

장흥현의 고저는 현의 서북 삼십 리에 있다. 옛날 오왕 부개가 그 물가에 머물다 돌아 보며, 벌판이 평평하게 펼쳐져있어서, 도읍으로 삼을만한 곳이라고 말 할만 했다. 오늘날 벼랑의 숲이 무성한 곳에 차가 많이 생산되니 해마다 공납했다.

위의 자료에서는 顧渚山の 위치를 자세히 설명하고 있으며, 長興縣의 顧渚에는

154) 徐海榮, 앞의 책, 109쪽 참조.

155) 錢仲聯, 앞의 책, 권1, 209쪽.

156) 위의 주)와 같음.

숲이 무성하고 차가 많이 생산되며, 이 곳의 茶는 해마다 공납을 했음을 말하고 있다. 이런 顧渚茶는 陸游의 <仲秋書事><sup>157)</sup>에서도 살펴볼 수 있다.

客來深媿里閭情 객이 왔는데 마을의 정이 매우 부끄러운 것은  
近爲衰殘罷送迎 근래 쇠잔하여 배웅과 마중을 그만 두었기 때문이라  
旋置風爐煎顧渚 풍로를 설치하여 고저차를 달여서  
劇談猶得慰平生 허심탄회하게 얘기하니 일생을 위로할 수 있네

이 詩는 嘉定 元年(1208) 가을 그의 나이 83세 때 산음에서 쓴 <仲秋書事> 10首 중 4번째 詩이다.<sup>158)</sup> 이 詩의 1, 2句에서는 쇠잔해진 몸 때문에 손님이 오가도 마중과 배웅을 못하는 자신의 신세를 서술하듯이 읊고 있다. 3句는 風爐를 설치하여 茶를 달이고 있음을 말하고 있는데, 茶를 달일 때는 煎茶法을 이용하고 있다. 그리고 4句는 名茶인 顧渚茶를 달여 마시며 허심탄회하게 얘기하니, 자신의 일생을 위로할 수 있다는 생각으로 詩를 마무리하고 있다.

예로부터 名茶로 큰 영예를 누렸던 顧渚茶는 육유의 詩 外에도 여러 서적들에서 그 기록을 찾아 볼 수 있는데, 陸羽의 <<茶經>><sup>159)</sup> <八之出>의 ‘浙西’ 조목에 보면 다음과 같은 기록이 있다.

“以湖州上(湖州 生長城縣 顧渚山谷)”

호주에서 생산되는 차가 최상이다. (호주 장성현 고저산곡에서 생산되는 것)

그리고 唐代 李吉甫의 <<元和郡縣圖志>>, 卷二五<sup>160)</sup>에서도 고저차를 언급하고 있다.

“長城縣(今之長興縣)顧山, 縣西北二十里, 貞元(785-805)以後, 每歲以進奉顧山紫箏茶, 役工三萬人, 累月方華.”

157) 錢仲聯, 앞의 책, 권8, 38쪽.

158) 위의 주)와 같음. 鄒志方的 앞의 책, 397쪽.

159) 류건집, <<茶經註解>>, 앞의 책, 453쪽.

160) 도서출판아라 편집부, 앞의 책, 권1, 58쪽, 재인용.

장성현(지금의 장흥현) 고저산, 서북 이십 리, 정원이후, 매년 고저자순차를 공납하였다. 역공은 3만이고 여러 달 동안 변화했다.

이 기록으로 보면 顧渚茶는 唐代에 이미 貢納이 되고 있음을 알 수 있고, 일하는 役工이 三萬人에 이를 정도로 茶를 따고, 제작하는 것은 상황을 이루었음을 알 수 있다.

顧渚茶는 《茶經》을 쓴 陸羽에 의해서 세상에 이름이 알려졌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안사의 난 이후 陸羽는 顧渚山 일대에서 거주하였다. 그 당시 품질이 우수한 常州義興의 陽羨茶를 황제에게 바칠 것을 건의하였고, 陽羨茶가 황제에게 높은 평가를 받은 이후부터 貢茶의 범위가 확대되었다. 그때 陽羨茶가 생산되는 땅과 서로 이웃하고 있는 長興도 唐代, 代宗 廣德年間(763~764)에 貢茶를 하게 되었다. 顧渚茶의 품질이 陽羨茶보다 뛰어났기 때문에 진공의 수량은 해가 갈수록 증대되었고 명성도 갈수록 커졌다. 唐, 宋 때 貢納하는 顧渚茶는 餅茶<sup>161)</sup>였고, 明太祖 洪武 年間 뒤로는 芽茶도 공차하였다.<sup>162)</sup> 이처럼 貢茶로 유명했던 顧渚茶는 宋代 曾幾의 <煎茶><sup>163)</sup>에서도 노래하고 있다.

貧中有佳設 가난한 중에도 좋은 연회가 있으니  
石鼎事煎烹 石鼎에 차를 달이기를 일삼네  
顧渚草芽白 고저의 어린 차 싹은 하얗고  
惠山泉水清 혜산의 샘물은 맑네

陸游의 스승이자 茶를 즐겼던 曾幾는 이 詩에서 石鼎을 이용하여 茶를 달여 마시고 있는데, 曾幾는 煎茶法을 이용하여 茶를 달이고 있음을 볼 수 있다. 그리고 그는 여기에서 차 싹이 하얀색임을 말하고 있다. 이와 같이 名茶인 顧渚茶는 陸游의 또 다른 詩 <齋中弄筆偶書示子聿><sup>164)</sup>에서도 언급하고 있다.

左右琴樽靜不嘩 좌우에 거문고와 술잔 있어도 조용하여 시끄럽지 않고

161) 류진집, 《茶經註解》, 앞의 책, 112~132쪽, 참조.

162) 徐海榮, 앞의 책, 109쪽, 참조.

163) 《茶山集》, 卷4.

164) 錢仲聯, 앞의 책, 권5, 192쪽.

放翁新作老生涯 방옹은 노년의 생애를 새롭게 살아가네  
 焚香細讀斜川集<sup>165)</sup> 향을 피우고 사천집을 자세히 읽고  
 候火親烹顧渚茶 불을 살피며 친히 고저차를 끓이네  
 書爲半酣差近古 책은 일근히 취하니 古人에 가까이 가지 못하고  
 詩雖苦思未名家 시는 비록 애써 고심하지만 名家는 되지 못했네  
 一窗殘日呼愁起 창가에 지는 해는 근심을 불러일으키고  
 嫋嫋江城咽暮笳 가느다란 강성의 저녁 피리 소리에 목이 메이네

이 詩는 慶元 5년(1199) 말 그의 나이 75세 때 山陰에서 쓴 작품이다.<sup>166)</sup> 이 詩의 首聯은 노년에 조용하고 새롭게 삶을 보내는 작가 자신을 읊고 있다. 頷聯은 蘇軾의 아들 蘇過가 지은 책을 읽으며 顧渚茶를 끓이고 있음을 얘기하고 있는데, 여기서도 작자는 煎茶法을 이용하여 茶를 달여 마시고 있다. 그리고 이 聯은 “焚香-候火, 細讀-親烹, 斜川集-顧渚茶”로 완벽한 對句를 이루고 있다. 頸聯도 “書-詩, 爲-雖, 半酣-苦思, 差-未, 近古-名家”로 對句를 이루고 있고, 詩는 비록 고심하며 쓰지만 명망을 얻지 못한 사람임을 서술형식으로 쓰고 있다. 그리고 尾聯은 창가에 지는 해에 근심이 일어남을 쓰고 있는데, 마지막 句는 피리 소리에 근심이 더욱 깊어져 목 메이는 마음을 읊조리며 詩를 마무리 하고 있다.

陸游의 다른 작품인 <過武連縣北柳池安國院煮泉試日鑄顧渚茶院有二泉皆甘寒傳云唐僖宗幸蜀在道不豫至此飲泉而愈賜名報國靈泉雲><sup>167)</sup>에서는 다음과 같이 自注를 하고 있다.

“顧渚貯以紅藍縑囊”

顧渚茶는 紅藍의 비단 주머니에 저장한다.

그리고 또 그의 <同何元立蔡肩吾至東丁院汲泉煮茶><sup>168)</sup>를 보면 다음과 같이 읊고 있다.

165) 錢仲聯, 앞의 책, 권5, 192쪽 참조. 蘇軾의 아들 蘇過가 지은 文集.  
 166) 錢仲聯, 위의 책, 권5, 192쪽 鄒志方的 앞의 책, 396쪽.  
 167) 錢仲聯, 위의 책, 권1, 209쪽.  
 168) 錢仲聯, 위의 책, 권1, 245쪽.

雪芽近自峨嵋得 백설 같은 싹은 가까운 아미산에서 얻으니  
不減紅囊顧渚春 붉은 주머니의 고저에서 나는 차보다 뒤지지 않네

위의 두 首의 詩를 보면, 顧渚茶는 紅囊이나 紅藍의 비단 주머니에 저장한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위에서 살펴본 顧渚茶는 唐代에 이미 공납되었고, 매년 淸明 이전에 공납했기 때문에 急程茶라고도 칭해졌으며, 唐代부터 茶를 따고 제작하는 일은 매우 성황을 이루었음을 알 수 있다. 그리고 貢納하는 顧渚茶는 餅茶였고, 明 太祖 洪武年間에는 芽茶도 貢茶하였다. 이처럼 名茶인 顧渚茶에 대한 기록은 陸游의 작품에서도 찾아볼 수 있었으며, 예로 든 詩를 통해서 顧渚茶를 보관할 때는 紅囊이나 紅藍의 비단 주머니에 저장한다는 것을 알 수 있다. 그리고 顧渚茶를 달여 마실 때는 煎茶法을 이용하여 茶를 달여 마시고 있음을 볼 수 있다.

## 2) 花(果)茶 및 기타

### (1) 菊花茶

요즘 우리가 흔히 마시는 菊花茶는 국화꽃으로 만든 차를 직접 우려 마신다. 이때 茶를 마시며, 꽃을 띄워 마시기도 하기 때문에 꽃과 향을 함께 즐길 수 있어서 현대인들에게 친근함을 느끼게 한다. 中國에서도 일찍부터 菊花를 식재료로 사용하기도 하고, 茶로 끓여 마시기도 하였다. 宋代 司馬光의 <和昌言官舍十題 其八 甘菊><sup>169)</sup>을 보면 다음과 같은 기록이 있다.

野菊細瑣物 들국화는 자질구레한 물건이지만  
籬間私自全 울타리 사이에서 제멋대로 온전하네  
徒因氣味殊 다만 성질이 특별하기 때문에  
不爲庖人捐 요리사들이 버려두지 않네  
采升白玉堂 캐어서 백옥당에 올리는데  
薦以黃金盤 황금소반에 넣고 바친다네

이 시에서는 菊花의 맛이 특별해서 宋代 사람들의 식생활에서 특별한 대접을

169) 史鑄, 《菊花集譜》, 卷6.

받는 재료였음을 보여주고 있다. 이런 菊花를 이용하여 중국에서는 오래 전부터 차로 마셔왔음을 아래의 기록들을 통해서 찾아 볼 수 있다.

여기서 우선 陸游의 <冬夜與溥庵主說川食戲作><sup>170)</sup>을 살펴보기로 하겠다.

唐安薏米白如玉 촉주당안군의 울무는 희기가 옥과 같고  
 漢嘉栢脯美勝肉 한가의 목이버섯은 고기보다 맛있다네  
 大巢初生蠶正浴 들의 완두콩 싹이 바야흐로 돌아나 누에가 잎을 두르면  
 小巢漸老麥米熟 누에콩 싹은 점차 늙어 열매 맺어 익으려 하네  
 龍鶴作羹香出釜 용학 채소로 국을 끓이면 향이 가마솥에서 나오고  
 木魚<sup>171)</sup>淪菹子盈腹 종려 순으로 채소를 데치면 아들은 배가 불러  
 未論索餅與饌飯 국수와 국밥을 논하지 않고  
 最愛紅糟並炆粥 조미를 첨가한 채소 죽을 가장 좋아했지  
 東來坐閱七寒暑 동쪽 축에서 돌아 온 칠년의 세월을 앉아서 생각노니  
 未嘗舉箸忘吾蜀 짓가락을 들고 맛본 적이 없으니 나에게 축지방을 잊게 하네  
 何時一飽與子同 언제 그대와 더불어 배부르게 함께 먹고  
 更煎土茗浮甘菊 또 토차를 끓여 감국을 띄울까?

陸游는 乾道 6년(1170)에 夔州 通判으로 임명되면서 蜀에서 생활하게 된다. 그는 乾道 8년 四川宣撫使司幹辦公事兼檢法官을 거쳐서 成都府路安撫司參議官에 임명되었고, 그 뒤로 四川의 여러 지역에서 지방관 일을 맡아서 왔다. 그리고 陸游는 마지막으로 淳熙 5년(1178)에 提舉福建常平茶鹽公事を 맡아 建安으로 부임하면서, 蜀에서의 생활을 마무리 한다. 蜀에서 보낸 10년이란 시간은 陸游에게 매우 깊은 인상을 안겨준다. 그래서 그는 蜀으로 가던 여적을 기록한 유명한 <<入蜀記>> 6권을 쓰기도 했다. 陸游가 蜀에 머물던 시기는 문학적으로 가장 황금기로 간주되는 시기이다.<sup>172)</sup> 위의 詩는 陸游가 蜀에서의 관리생활을 마치고 고향 산음으로 돌아온 뒤인, 淳熙 11년(1184) 그의 나이 60세 때 쓴 작품이다.<sup>173)</sup> 이 詩는 顧雲艷의 <論陸游的茶詩與茶事><sup>174)</sup>의 ‘花(果)茶’ 條目에서도 고찰하고 있는

170) 錢仲聯, 앞의 책, 권3, 106쪽.

171) 漢語大詞典, 上海辭書出版社, 권4, 674쪽, 棕笋의 別名. 因其形如魚, 故稱. 宋 陸游 <冬夜與溥庵主說川食戲作> “龍鶴作羹香出釜, 木魚淪菹子盈腹”(종려순의 별칭이다, 그 모양이 고기 같기 때문에 그렇게 칭했다. 宋代 陸游의 용학채소로 국을 끓이면 향이 가마솥에서 나오고, 종려순으로 채소를 데치면 아들은 배가 불러)

172) 주기평, 앞의 책, 55~56 참조.

173) 錢仲聯, 위의 책, 권3, 106쪽. 鄒志方, 앞의 책, 395쪽.

詩로, 이 詩의 1, 2句에서는 蜀의 옥같이 흰 薏米와 고기보다 맛이 뛰어난 목이 버섯에 대하여 묘사하고 있다. 3, 4句는 그 지방의 곡식이 나고 자라는 모습을 노래했다. 그리고 5~8句는 蜀에서 생활했던 모습들을 돌아보며 서술하듯이 표현하고 있다. 9, 10句에서는 山陰에 돌아와 오랫동안 蜀의 음식을 맛보지 못했기 때문에 “나에게 축 지방을 잊게 하네.”라고 읊고 있다. 그리고 尾聯은 언제쯤 “또 토차를 끓여 감국을 띄울까.”라고 노래하며 詩를 마무리 하고 있다, 여기서 말하는 土茗은 蜀지방의 茶를 부르는 별칭으로, 四川에서 생산되는 茶이다. 陸游는 이 詩에서 宋代 蜀지방의 菊花茶를 회상하고 있는데, 이 부분에서는 土茗에 甘菊을 띄워서 마시는 蜀지방의 飲茶 모습을 들여다 볼 수 있다. 宋代의 菊花茶는 土茶의 苦味를 감소하거나 제거하는 것에 그 주요 쓰임이 있었다. 蜀지방의 茶는 입에 들여 놓을 수 없을 만큼 많이 썼다. 그래서 蜀지방에서는 茶를 끓일 때면 단맛인 菊花를 함께 넣어 끓이는데, 이는 쓴 맛을 감소시키기 때문이었다.<sup>175)</sup> 이처럼 菊花로 茶의 맛을 돋우는 풍습은 宋代 陶穀의 《清異錄》卷下 <薜茗錄><sup>176)</sup>의 ‘冷面草’조목에서도 살펴 볼 수 있다.

“符昭遠不喜茶，嘗爲御史，同列會茶，歎曰，此物面目嚴冷，了無和美之態，可謂冷面草也。飯餘嚼佛眼<sup>177)</sup>芎，以甘菊湯送之，亦可爽神。”

부소원은 차를 좋아하지 않았다. 일찍이 어사가 되어 동료들과 모여 차를 마시며 탄식하여 말하기를, 이 물건은 본래 성질이 차다. 조금도 부드러운 맛의 없는 냉면초(차)라고 말할 수 있다. 밥을 먹은 후에 불안의 궁궁이를 씹고, 감국탕으로 그것을 넘기면 정신을 시원하게 할 수 있다.

이 기록을 보면 符昭遠이 茶를 마시는 걸 좋아하지 않았기 때문에 동료들과 모여서 茶를 마실 때면 바로 甘菊湯을 이용하여 茶의 맛을 도왔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이렇게 하면 다른 사람들처럼 茶를 마실 수 있을 뿐 아니라 또한 정신을 차릴 수 있기 때문이었다. 이 기록에서는 甘菊이 茶의 맛을 돕는 작용을 말했을

174) 顧雲艷, <淺論陸游茶詩中的花果茶>, 앞의 논문.

175) 위의 주)와 같음.

176) 《欽定四庫全書》, 앞의 책, 卷下.

177) 金明培, 앞의 책, 128쪽 참조, 佛眼 : 五眼의 하나, 모든 法의 眞性を 비쳐보는 부처의 눈, 이러한 뜻이 있는 궁궁이의 명산지로 추정된다.



뿐만 아니라 또한 甘菊이 정신을 맑게 해 주는 효능까지 언급하고 있다.<sup>178)</sup> 그러나 위의 <菴茗錄>의 기록은 甘菊을 직접 차와 함께 넣어서 끓인 것인지, 아니면 甘菊湯을 따로 끓여서 차의 맛을 도왔는지는 알 수 없어서 아쉬운 점이 있다.

차를 달일 때 국화를 이용하는 것은 唐代 皎然的 <九日與陸處士羽飲茶><sup>179)</sup>에서도 찾아볼 수 있다.

九日山僧院 구월 중앙절 산의 암자에는  
東籬菊也黃 동쪽 울타리의 국화가 노랗다  
俗人多泛酒 속인들은 술에 국화를 띄우겠지만  
誰解助茶香 누가 그것이 차의 향을 돕는 것을 알리요

이 시는 중앙절에 <茶經>을 쓴 陸羽와 더불어 차를 마시며 쓴 시이다. 이 시에서는 술에 菊花를 띄워 마시는 풍속 외에, 菊花로 차의 향을 돕는 唐代의 독특한 풍습을 보여주고 있다. 이 시가 세상에 나온 이후부터 重陽節에는 차로 술을 대신하는 새로운 풍속이 생겼다.<sup>180)</sup> 이와 같은 風俗 외에, 菊花에 대한 또 다른 기록을 宋代 史鑄의 <甘菊><sup>181)</sup>에서 살펴 볼 수 있다.

南陽佳種傳來久 남양의 좋은 품종 오래전부터 전래되니  
濟用須知味若飴 유익하게 쓰이는데, 모름지기 맛이 엿과 같이 달다는 것을 안다네  
苗可代茶香自別 싹은 차를 대신 할 수 있고 향은 특별하며  
花堪入藥效尤奇 꽃을 약에 넣으면 효능은 더욱 기이하네

이 시는 甘菊을 읊고 있는데, 2句에서는 甘菊의 맛이 엿과 같이 달다는 것을 말하고 있으며, 3句에서는 甘菊의 싹은 차를 대신할 수 있고 향도 특별하다고 말하고 있다. 이 구절은 지금까지 국화꽃을 차에 띄워 마신다는 생각과는 아주 다른 菊花의 잎을 차 대신 이용함을 볼 수 있다. 이는 宋代 菊花茶에 대한 새롭고 특이한 자료라고 말 할 수 있다.

178) 顧雲艷, <淺論陸游茶詩中的花果茶>, 앞의 논문, 참조.

179) <全唐詩>, 第23冊, 卷817쪽.

180) 김길자, 앞의 책, 91쪽 참조.

181) 史鑄, <菊花集譜>, 卷6.

《本草綱目》<sup>182)</sup>에 보면 다음과 같은 기록이 있다.

“《本經》言菊花味苦，《別泉》言菊花味甘。諸家以甘者爲菊，苦者爲苦蕒，惟取甘者入藥，謹按：張華《博物志》，言菊有兩種，苗花如一，惟味小異，苦者不中食。”

《本經》에는 국화의 맛이 쓰다고 말하고 있으며, 《別泉》에는 국화의 맛이 달다고 말하고 있다. 이방면의 전문가들은 단 것은菊이라고 하고, 쓴 것은苦蕒(野菊)라고 한다. 오직 단것만을 취해서 약에 넣는다. 삼가 예를 들 건데 張華의 《博物志》에는 ‘국화에는 두 종류가 있고, 苗花는 同一하여 오직 맛이 조금 다를 뿐이다. 쓴 것은 먹기에 알맞지 않다.’라고 말하고 있다.

위의 《本草綱目》의 내용을 보면, 국화의 싹과 꽃은 맛이 거의 동일하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이는 菊花의 잎을 茶 대신 이용하는 風習을 기록하고 있는 宋代 史鑄의 <甘菊><sup>183)</sup>의 내용을 뒷받침해 줄만한 자료라고 할 수 있다.

위에서 제시한 내용들을 종합해 보면, 중국에서는 菊花가 일찍부터 사람들의 식생활에서 친숙했으며, 이미 당대부터 菊花로 차의 맛을 도왔다는 것을 알 수 있다. 그리고 宋代에는 甘菊을 차에 띄워 차의 쓴맛을 제거하기도 하였고, 菊花의 싹을 茶 대신 이용했다는 것도 알 수 있다. 그리고 宋代 史鑄의 <甘菊>의 마지막 句를 보면 菊花의 약효를 언급함으로써 甘菊茶는 사람들의 건강에 도움이 된다는 것도 알 수 있다.

## (2) 茱萸茶

茱萸는 짙은 향기가 나는 식물이다. 중국의 옛 사람들은 茱萸가 짙은 향이 있기 때문에 재앙을 사라지게 하고 사악한 것을 피하게 해주는 神物이라고 여겼다. 그래서 茱萸에게 신성한 의의를 부여하였다. 《太平御覽》<sup>184)</sup> <風土記> 중에 다음과 같은 기록이 있다.

“俗上九月九日，謂爲上九，茱萸到此日，氣烈，熟，色赤，可折。其囊以插頭，云辟惡，氣禦冬”

182) 《欽定四庫全書》本 李時珍, 《本草綱目》.

183) 史鑄 <菊花集譜>, 앞의 책.

184) 《太平御覽》, 권91, 藥部八.

통속적으로 상구월구일은 중앙절을 말하는 것이다. 수유가 이날에 이르면, 일기가 뜨거워 익는데, 색은 적색이고 수유를 꺾을 수 있다. 수유낭을 머리에 꽂으면 악을 물리치고, 기는 거울을 막는다고 한다.

이 기록을 보면, 중국에서는 중앙절(음력 9월9일)에 茱萸를 머리에 꽂아 복을 기원하기도 하고 茶로 마시기도 했다. 이런 茱萸茶는 악을 물리친다는 의미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고대 중국 사람들의 눈 속에 비치는 茱萸茶는 이미 평범한 음료가 아니고 모종의 영험한 성격을 가진 음료였다.<sup>185)</sup> 이런 茱萸茶는 陸游의 <荊州歌><sup>186)</sup>에서도 찾아 볼 수 있다.

楚江鱗鱗綠如釀 초강은 고기비늘처럼 출렁이는데 푸르기가 술과 같고  
銜尾江邊系朱舫 꼬리를 물고 강변에 붉은 배들을 매었네  
東征打鼓掛高帆 동으로 출정하는데 북을 치며 높이 돛을 걸고  
西上湯豬聯百丈 서쪽으로 오르니 돼지를 삶은 배가 백길이나 이어졌네  
伏波古廟占好風 복파사의 옛 사당은 좋은 풍속 지키고  
武昌白帝在眼中 무창의 백제성이 눈 속에 들어오네  
倚樓女兒笑迎客 누각에 기댄 여인 웃으며 객을 맞이하고  
淸歌未盡千觴空 맑은 노래 다 끝나기 전에 천 잔의 술 비우네  
沙頭巷陌三千家 사시의 거리에는 삼천의 집  
煙雨冥冥開橋花 안개비가 어둑어둑 꽃잎이 피어나네  
峽人住多楚人少 협인들이 많이 살고 초인 들은 적은데  
土鑪爭餉茱萸茶 토기 茶鑪의 수유차를 다투어 대접하네

이 詩는 陸游가 淳熙 14(1187)년 그의 나이 63세 때 嚴州에서 쓴 詩이다.<sup>187)</sup> 陸游는 이 詩에서 唐代 李白이 읊었던 <荊州歌>와 같은 제목을 이용하여 詩를 썼다. 이 詩 1, 2句는 楚江에 출렁이는 푸른 물결과 강에 즐비하게 정박하고 있는 배들의 풍경을 읊고 있고, 3句에서는 出征하는 모습, 4句에서는 시인의 눈에 들어오는 주변의 모습을 읊고 있다. 5, 6句에서는 古廟, 白帝城을 읊고 있으며, 7,

185) 顧雲艷, <淺論陸游茶詩中的花果茶>, 앞의 논문, 참조.

186) 錢仲聯, 앞의 책, 권3, 246쪽.

187) 錢仲聯, 위의 책, 권3, 246쪽. 鄒志方, 앞의 책, 394쪽.

8句에서는 紅樓의 여자와 술잔을 기울이는 모습을 썼는데, 이 부분은 소재를 선택함에 있어서 다양성을 지닌 宋詩의 특징을 보여주고 있다. 9, 10句는 沙市의 거리와 굴꽃이 피어나는 모습을 읊고 있으며 마지막 聯에서는 “土鑪爭餉茱萸茶 (토기 茶鑪의 수유차를 다투어 대접하네.)”라고 읊으며 茱萸茶를 언급하고 있다. 작가가 이 詩 제목으로 읊고 있는 荊州지역은 茶와 茱萸가 많이 생산되는 지역이다. 錢仲聯은 《陸游全集校注》188)에서 茱萸茶에 대하여 공영달의 <詩, 唐風, 椒聊 > 中の 정의를 인용하여 注釋을 달고 있다

“陸機疎曰.....椒樹似茱萸.....蜀人作茶, 吳人作茗, 皆合煮其葉以爲香”

육기가 진술하여 말하기를.....초수는 수유와 같다.....촉인이 차를 만들었고, 오인도 차를 만들었다. 그 잎을 모두 합해서 끓이고는 향기롭다고 여겼다

위의 注를 보면 茱萸茶는 茱萸와 茶를 함께 넣어서 끓여 마시는 형태이고, 茶와 茱萸를 함께 끓이면 향기가 좋음을 알 수 있다. 茱萸茶에 대한 기록은 陸游의 詩 외에 다른 시인들의 詩에서도 찾아 볼 수 있는데, 宋代 釋紹曇의 <偈頌一百一十七首 其八十二>189)를 살펴보기로 하겠다.

九月九 구월 구일

重陽節 중양절

不向東籬賞菊花 동쪽 울타리에서 국화를 감상하지 않고

只點茱萸茶一啜 단지 수유차를 마신다

이 詩를 보면 국화꽃이 한창인 중양절에 茱萸茶를 마시는 宋代 사람들의 생활 모습을 엿볼 수 있다. 宋代 釋了惠의 <偈頌七十一首 其五十五>190)에도 茱萸茶를 마시는 풍습을 볼 수 있다.

孟嘉已前 멩가 이전

188) 錢仲聯, 앞의 책, 권3, 247쪽.

189) 顧雲艷, <淺論陸游茶詩中的花果茶>, 앞의 논문, 재인용.

190) 위의 주)와 같음.

淵明去後 도연명이 죽은 후  
 誰家籬畔欠黃花 누구의 집엔들 울타리에 국화가 없겠나만  
 那個杯中無白酒 그 술잔 속에는 백주가 없네  
 重陽只是九月九 중양절은 단지 9월 9일  
 阿呵呵 하하하  
 始信茱萸茶苦澀 수유차의 씹쓸하고 떼음을 비로소 믿나니  
 展眉人少皺眉多 눈살을 펴는 사람 적고 얼굴을 찡그리는 사람 많네

이 詩에서도 茱萸를 중양절에 끓여 마셨다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다. 그리고 茱萸茶의 맛이 씹쓸하고 떼기 때문에 사람들이 눈살을 찡푸리는 것을 볼 수 있다. 그리고 아래의 宋代 項安世의 <茱萸茶><sup>191)</sup>를 보면, 茱萸茶를 神物로 여기는 것 외에 또 다른 효능을 가지고 있음을 말하고 있다.

城郭千山隘 성곽은 천산이라 험하고  
 晨昏二氣並 아침저녁으로 음양이 합치하네  
 乍如冰底宿 잠시 얼음 밑에 머무는 것 같다가  
 忽似甌中行 홀연 시루 중에 행하는 것 같네  
 蚯蚓方雄長 장기가 바야흐로 성행하니  
 茱萸可捍城 수유로 성을 지킬 수 있다네  
 龍團寧小忍 용단차가 어찌 작다고 서운해 하리  
 異味且同傾 뛰어난 맛이라 또한 함께 기울이네

이 詩는 茱萸茶라는 제목으로 읊고 있다. 이 詩의 5, 6句에서는 “蚯蚓方雄長, 茱萸可捍城 (장기가 바야흐로 성행하니, 수유로 성을 지킬 수 있다네.)”라고 말하고 있다. 여기서 말하는 “蚯蚓”는 瘴氣를 말하는데, 瘴氣는 산림 속이 습하고 열이 폭폭 쪼면, 사람이 병에 이르는 기체이다. 宋代에 이런 질병은 남방특유의 지방병으로 여겨졌다. 項安世은 이 詩에서 성곽에 瘴氣가 유행하는 것을 茱萸茶로 지킬 수 있다고 말하고 있다. 이것으로 보면 茱萸茶는 瘴氣로 인해 생겨나는 병을 치료하는 효능을 가지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이것은 위에서 언급했던 약을 물리치는 영험적인 茱萸茶의 효험과는 대비되는 실제적의 茱萸茶의 효능을 말해주

191) 項安世撰, 《平庵梅稿》, 卷3.

고 있는 것이라고 할 수 있다.

茱萸茶에 대해 언급한 詩는 위에서 예로 든 詩들 외에 宋代 釋子益의 <偈頌七十六首 其四十七><sup>192)</sup>도 있어서 宋代 茱萸茶를 연구하는데 도움을 주고 있다.

위에서 살펴본 茱萸茶는 茶와 함께 넣어서 끓여 마시는 형태의 茱萸茶이다. 그러나 이런 방식으로 茶를 마시는 것에 대하여 모두가 긍정적으로 생각하지는 않았다. 陸羽의 <<茶經>> 六之飲을 보면 다음과 같은 기록이 있다.

“飲有粗茶，散茶，末茶，餅茶者。乃斫，乃熬，乃煬，乃舂，貯於瓶缶之中，以湯沃焉，謂之庵茶。或用蔥，薑，棗，桔皮，茱萸，薄荷之等，煮之百沸，或揚令滑，或煮去沫，斯溝渠間棄水耳，而習俗不已。”

마시는 것에는 조차, 산차, 말차, 병차가 있다. 자르고, 튀어내고, 불에 말리고, 질구에 찧어서 작은 항아리나 병에 넣고서, 끓는 물을 부어 마시는데, 이것을 암차법이라고 한다. 흑자는 파, 생강, 대추, 꿀꺽질, 수유, 박하 등을 넣고 오래 끓인 다음에, 떠오르는 것을 부드럽게 하며, 끓을 때 생기는 거품을 제거하기도 한다. 이런 것은 하수구에 버려질 물 일 뿐인데도, 이러한 습속은 그치지 않는다.

茶聖인 陸羽는 茶에 茶 이외의 기타 재료를 넣으면 茶의 본래의 맛에 영향을 주기 때문에, ‘도량에 버려야 하는 폐수와 같다’라고 말을 하고 있는데, 여기서 陸羽는 茱萸도 언급하고 있다. 陸羽의 이런 지적에도 불구하고 茶와 다른 재료를 섞어 마시는 풍습은 宋代에 여전히 성행했음을 알 수 있다.

茱萸茶는 위에서 살펴본 쓰임 외에 다른 용도로도 쓰였다. 吳元敬의 <婚禮，喪祭禮中の 茶禮俗><sup>193)</sup>에 보면 “중국에서는 결혼 時에 茱萸茶를 대접하는 풍속이 있다.”라는 내용이 있다. 그러나 이 논문에서는 이를 증명할 만한 근거 자료는 첨부하지 않고 있어서 아쉬움이 있다.

위에서 살펴본 茱萸茶의 내용을 요약해 보면, 陸游가 시로 읊었던 ‘荊州’ 지역은 茱萸가 많은 지역이고, 이 茱萸는 짙은 향이 있기 때문에 재앙을 사라지게 하고, 사악한 것을 피하는 神物로 여겨졌다. 그리고 중국의 습하고 열기가 많은 지

192) 顧雲艷, <淺論陸游茶詩中的花果茶>, 앞의 논문, 재인용. 宋代 釋子益의 <偈頌七十六首 其四十七> “好彩從來奔靨家，隨分一盞茱萸茶。(빛깔이 너무 좋아 집으로 부지런히 달려가, 한잔의 수유차를 타네.)”.

193) 吳元敬, <婚禮，喪祭禮中の 茶禮俗>, 숙명여대, 2003년.

역에서는 瘴氣 때문에 일어나는 병을 물리치기 위하여 茱萸茶를 마셨음을 알 수 있다.

### (3) 橄欖茶

橄欖茶는 ‘元寶茶’라고도 한다. 宋代 사람들은 茶와 橄欖을 함께 넣어 끓여 마셨는데, 그들은 橄欖으로 차의 향기를 돕게 하였다. 橄欖은 술을 해독하고, 소화를 촉진해 주는 효과가 있어서 사람들과 친근하였다. 이런 감람에 대하여 熊蕃의 《宣和北苑貢茶錄》<sup>194)</sup>에서도 언급하고 있다.

“至景祐中，監察御史丘荷撰《御泉亭記》，乃云唐季敕福建罷貢橄欖，但贄臘面茶”

경우 연간에 이르러, 감찰어사인 구하가 지은 《御泉亭記》에 이르기를, 당나라 말기에 북건에 조서를 내려 감람 바치기를 그만 두게 하고, 다만 납면차만 보내게 하였다.

위의 기록을 보면 橄欖은 唐代 貢納 물품에 속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이렇게 귀하게 여겼던 橄欖을 陸游의 고향인 산음에서는 茶로 마시는 풍속이 있었다. 陸游는 평생 각지를 돌아다니며 벼슬하였다. 그러나 관직을 쉬게 되면 항상 고향 山陰으로 돌아와서 생활하였다. 그는 일생의 절반을 고향 산음에서 생활하였기 때문에 그의 고향 山陰의 차 풍속은 그에게 큰 영향을 주었다. 그의 詩 속에서는 고향 山陰의 茶인 橄欖茶도 찾아볼 수 있다. 그의 <夏初湖村雜題><sup>195)</sup>를 보면 다음과 같이 읊고 있다.

寒泉自換菖蒲水 차가운 샘이 창포물로 저절로 바뀌니  
活火閑煎橄欖茶 활화를 피워 한가하게 감람차를 달인다  
自是閑人足閑趣 이로부터 한가로운 사람 한가로운 뜻 넉넉하노니  
本無心學野僧家 본래 들의 승가에서 무심히 배운 것이라네

이 詩는 嘉泰 2년 여름 그의 나이 78세 때 고향 山陰에서 썼다.<sup>196)</sup> 이 詩 1, 2

194) 도서출판아라 편집부, 앞의 책, 권1, 72쪽.

195) 錢仲聯, 앞의 책, 권6, 45쪽.

196) 위의 주)와 같음. 鄒志方, 앞의 책, 397쪽.



句에서는 샘물과 活火를 이용하여 작가의 고향에서 유행했던 橄欖茶를 달이는 모습을 읊고 있다. 그리고 3句는 茶를 달이는 시인의 한가롭고 넉넉한 마음을 표현하는 情을 읊고 있다. 마지막 句에서는 한가한 마음으로 茶를 달여 마시는 것은 ‘승가에서 무심히 배운 것’이라는 말을 하며 시를 마무리를 하고 있다. 이 詩에서 작가가 달이는 橄欖茶는 茶와 橄欖을 함께 넣어 끓이는 형태의 橄欖茶이다.<sup>197)</sup> 이와 같은 橄欖茶에 대한 기록은 陸游의 <午坐戲詠><sup>198)</sup>에서도 찾아볼 수 있다.

貯藥胡蘆二寸黃 약호로 쌓아두니 두 치나 누렁고  
煎茶橄欖一甌香 감람차를 다리니 주발 가득 향기롭네  
午窗坐穩摩癡腹 낮에 창가에 앉아 재주 없는 배 어루만지노라니  
始覺龜堂白日長 귀당의 낮이 길다는 것을 비로소 깨닫네

이 詩는 慶元 6년 그의 나이 76세 되던 해 겨울, 고향인 산음에서 쓴 詩이다.<sup>199)</sup> 이 詩의 둘째 句에서는 橄欖茶를 달이는 모습과 그 茶의 향기를 노래하고 있다. 그리고 3, 4句에서는 창가에 앉아 나른한 겨울의 낮을 지내고 있는 작가의 모습을 읊고 있다. 이 詩에서 읊은 橄欖茶도 橄欖과 茶를 함께 넣어 끓인 茶이다.<sup>200)</sup>

위에서 살펴 본 茶와 橄欖를 함께 넣어 끓여 마시는 풍습 외에, 山陰 지방에서는 새해를 맞이하여 손님에게 茶를 권할 때, 두 알의 푸른 감람을 茶碗에 넣어 줌으로써 新春 축복의 뜻을 나타내 보이기도 하였다.<sup>201)</sup>

이와 같은 橄欖茶는 清代의 <調鼎集><sup>202)</sup>에서도 살펴 볼 수 있는데, 이 서적에서는 橄欖茶를 만드는 법에 대하여 기록하고 있다.

“橄欖數枚 木錘敲碎, 同茶入少砂壺, 注滾水蓋好, 少停可飲”

197) 顧雲艷, <淺論陸游茶詩中的花果茶>, 앞의 논문, 참조.

198) 錢仲聯, 앞의 책, 권5, 307쪽.

199) 위의 주)와 같음. 鄒志方, 앞의 책, 396쪽.

200) 顧雲艷, <淺論陸游茶詩中的花果茶>, 앞의 논문 참조.

201) 위의 주)와 같음.

202) 위의 주)와 같음.

감람 몇 매를 나무망치로 두드려 부수고, 차와 함께 오지 주전자에 놓는다. 팔팔 끓는 물을 부어 뚜껑을 덮고, 조금 기다리면 마실 수 있다.

위의 기록에서는 橄欖을 망치로 두드려서 부수고 茶와 함께 넣어서 끓이는 모습을 볼 수 있다. 이와 같이 차 달이는 법은 陸游가 말한 橄欖茶 만드는 법과 대동소이 하다.<sup>203)</sup> 이런 橄欖茶는 宋代 邦佐의 <和許宰寓武邑賡楊丞靖安八詠 其六><sup>204)</sup>에서도 언급하고 있다.

好語飛來散綺霞 좋은 글이 아름다운 노을에 날아와 흩어지는 듯 하니  
清新俊逸屬詩家 청신하고 뛰어난 시인에 속하네  
著人似醉菖蒲酒 사람을 창포주에 취한 것 같게 하고  
有味如嘗橄欖茶 운치가 있어 마치 감람차를 맛보는 것 같다.

이 시에서는 청신한 좋은 글은 창포주에 취한 것 같은 느낌이고 또한 “운치가 있어 마치 橄欖茶를 맛보는 것 같다”고 노래하며 橄欖茶의 맛을 언급하고 있다. 위의 邦佐의 詩외에 宋代 劉過의 <都中留隨州李判官><sup>205)</sup>에서도 橄欖茶를 살펴볼 수 있다.

茶添橄欖味 차에는 감람의 맛을 첨가하고  
酒借蛤蜊香 술은 조개의 향을 빌리네  
絕品宜春醉 뛰어난 물품이라 봄에 취하기에 좋고  
新烹趁日長 새로 차를 달이는데 해가 기네

이 詩에서도 橄欖의 맛을 茶에 첨가하는 모습을 찾아 볼 수 있다. 宋代에는 이처럼 茶와 橄欖을 함께 茶로 끓여 마시는 것을 즐겼다. 그러나 茶에 다른 재료를 섞어서 끓이면 茶의 본래의 맛을 제대로 낼 수가 없다고 하여 다른 재료를 섞은 것을 기피하기도 한다. 明代 屠隆의 《考槃餘事》<sup>206)</sup>의 擇果 조목에 다음과 같은 기록이 있다.

203) 顧雲艷, <淺論陸游茶詩中的花果茶>, 앞의 논문 참조.  
204) 《雙峰先生存稿》, 권6.  
205) 《龍洲集》, 卷7.  
206) 도서출판아라 편집부, 앞의 책, 권1, 321쪽.

“茶有眞香，有佳味，有正色。烹點之際，不宜以珍果香草雜之..... 凡飲佳茶，去果方覺清絕。雜之則無辨矣。若必用曰所宜，核桃，榛子，杏仁，欖仁，菱米，栗子，雞豆，銀杏，新筍之類，或可用也。”

차에는 본래 가지고 있는 향기가 있고, 좋은 맛을 가지고 있으며, 바른 빛깔이 있으므로, 차를 달일 때는 진귀한 과일이나 향기 나는 풀을 섞는 것은 알맞지 않다.....대저 좋은 차를 마시려면, 과실을 물리쳐야 뛰어나고 맑은 것을 느끼고, 실과를 섞으면 차 맛을 분별할 수가 없다. 만약 꼭 섞어야 한다면 알맞은 것은, 호두, 개암, 행인, 감인, 마름쌀, 밤, 병아리콩, 은행, 햇죽순 류는 간혹 쓸 수도 있다.

위의 내용을 보면 實果를 섞어서 달이면 차가 가지고 있는 본래의 향기와 맛을 분별 할 수 없기 때문에 섞어서 달이는 것은 알맞지 않음을 말하고 있다. 반드시 섞어야 한다면, ‘호두, 개암, 행인 등을 간혹 쓸 수도 있다.’라고 말하고 있다. 이와 같이 明代에는 부정적인 생각을 했지만, 宋代에는 橄欖과 茶를 함께 달이는 풍습을 여전히 즐기고 있음을 볼 수 있다.

차로 마셨던 橄欖에 대한 기록은 元代의 洪希文의 <嘗新橄欖><sup>207)</sup>에서도 찾아볼 수 있다.

橄欖如佳士 감람은 훌륭한 선비와 같고  
外圓內實剛 밖은 둥글고 안의 열매는 단단하네  
爲味苦且澀 맛은 쓰고 짝고  
其氣清以芳 그 기운은 맑고 향기롭다.  
侑酒解酒毒 술을 권하면 술독을 풀어 주고  
投茶助茶香 차에 넣으면 차향을 돕는다  
得鹽卽回味 소금을 넣으면 곧 그 맛이 돌아오고  
消食尤奇方 소화를 도우는 더욱 기이한 처방이라  
宮商舌底發 오음 중의 궁상은 혀 밑에서 생겨나고  
星宿胸中藏 성수 별자리는 가슴속에 간직하네

이 詩 1, 2句에서는 橄欖은 훌륭한 선비와 같다고 표현하고 있고, 3, 4句에서는

207) 《續軒渠集》，卷2, <嘗新橄欖>.

“爲味苦且澀, 其氣清以芳 (맛은 쓰고 떫고, 그 기운은 맑고 향기롭다.)”라고 하여, 그 맛과 향을 얘기하고 있다. 그리고 5~8句에서는 술의 독을 풀어 주고 소화를 도와주는 橄欖의 효능과 茶에 넣으면 茶香을 돕는 역할을 한다고 얘기하고 있으며, 이때 “得鹽卽回味 (소금을 넣으면 맛이 돌아온다.)”라고 말을 하고 있다. 이 기록을 보면 宋代에 橄欖과 茶를 함께 끓여 마시던 풍습이 元代까지 이어져 내려오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위에서 살펴본 내용들을 정리해 보면, 宋代 山陰에서는 橄欖茶를 마시는 풍습이 있었으며, 橄欖茶를 달일 때는 茶와 함께 넣어서 끓이는 방법을 취했는데, 이때 橄欖을 茶에 넣어 茶의 맛을 돕게 하는 모습을 볼 수 있다. 그리고 橄欖은 술의 해독과 소화를 돕는 작용이 있으며, 橄欖茶를 마시는 풍습은 元代까지 내려오고 있음을 알 수 있다.

#### (4) 薑茶

薑茶는 宋代 사람들에게 매우 환영받는 음료로 薑茶를 마시면 술이 깨고 졸음을 몰아내기 때문에 宋代 巴蜀지역에서는 茶에 생강을 함께 넣어 끓여 마시기도 하였다.<sup>208)</sup>

이런 薑茶에 대하여 陸游의 詩에서도 언급하고 있다. 아래에서 陸游의 <西窗><sup>209)</sup>을 먼저 살펴보기로 하겠다.

西窗偏受夕陽明 서쪽 창문 한쪽은 석양빛을 받아 밝고  
 好事能來慰此情 좋은 일은 능히 와서 나의 마음을 위로 하네  
 看畫客無寒具<sup>210)</sup>手 그림을 보는 객은 기름진 음식을 든 손이 없고  
 論書僧有折釵評 글을 논하는 승은 서범을 평하네  
 薑宜山茗留閑啜 생강은 산차와 어울리니 머물며 한가롭게 마시고  
 豉下湖蓴喜共烹 메주는 호수의 순채 나물에 넣어 즐겁게 함께 끓이네  
 酒炙朱門非我事 술과 구운 고기, 부귀한 집은 내가 섬기지 않으니

208) 顧雲艷, <淺論陸游茶詩中的花果茶>, 앞의 논문.

209) 錢仲聯, 앞의 책, 권4, 186쪽.

210) 錢仲聯, 위의 책, 권4, 187쪽. <續晉陽秋> : “桓玄好蓄法書名畫, 客至常出而觀, 客食寒具, 油污其畫, 後遂不設寒具 (환현은 명필의 서첩이나 명화를 모으기를 좋아 했다. 객이 오면 항상 내놓아 보여 주었다. 객이 기름진 음식을 먹다가 기름이 그 그림을 더럽혔다. 그 후에는 결국 기름진 음식을 준비하지 않았다.)”

諸君小住聽松聲 그대들 잠시 머물며 물 끓는 소리나 듣게나

이 詩는 陸游가 紹熙 5년(1194) 여름 그의 나이 70세 때 고향 산음에서 쓴 詩<sup>211)</sup>로, 顧雲艷의 <論陸游的茶詩與茶事><sup>212)</sup>의 ‘薑茶’ 조목에서도 논하고 있다. 陸游는 이 詩에서 고향 산음에서 한가롭게 지내는 자신의 모습을 있는 그대로 읊고 있어서 詩를 감상하는 사람으로 하여금 평온한 휴식을 느끼게 해준다. 이 詩의 首聯에서는 詩人의 앞에 펼쳐지는 前景과 좋은 일로 자신의 마음을 위로 받는 것을 노래하고 있다. 頷聯은 그림을 감상하며 글을 논하고 있는 모습을 읊고 있으며, 頸聯은 薑茶를 마시고 있는 모습을 노래하고 있다. 이 聯의 “薑宜山茗”에서 말한 것은 茶에 생강을 넣은 후 끓여서 茶湯을 만드는 것이다. 이런 薑茶는 습기가 많을 때 마시면 濕寒의 기운을 제거 할 수 있다.<sup>213)</sup> 尾聯은 부귀를 탐하지 않는 자신의 모습을 표현하고 있으며, 물 끓는 소리, 즉 ‘松聲’를 언급하며 詩를 마무리하고 있다.

이와 같이 宋代에 사람들이 즐겨 마셨던 薑茶는 唐代부터 이미 茶로 마셨음을 알 수 있다. 아래의 唐代 王建의 <飯僧><sup>214)</sup>을 보면 다음과 같이 읊고 있다.

別屋炊香飯 별실에서 맛있는 밥을 짓는데  
薰辛不入家 향초의 매운 맛은 집에 들어오지 않네  
溫泉調葛面 따뜻한 샘물로 갈분을 고루 섞고  
淨手摘藤花 깨끗한 손으로 등꽃을 따네  
蒲鮓除青葉 소금에 절인 바닷고기에 푸른 잎을 제거하니  
芹齋帶紫芽 미나리 요리는 자색 싹을 드리우네  
願師常伴食 스승님을 항상 모시고 식사하기를 원하는 것은  
消氣有薑茶 나쁜 기운 사라지게 하는 강차가 있기 때문이라

東晉시기의 僧들은 坐禪修行시에 정신을 맑게 하고, 생각을 풍부하게 하기 위하여 茶蘇, 즉 일종의 茶와 생강, 계수나무, 꿀, 대추 등의 향료를 함께 섞어서 끓인 음료를 마셨다.<sup>215)</sup> 이 詩에서 보면, 唐代의 僧들도 나쁜 기운을 가라앉히기

211) 錢仲聯, 앞의 책, 권4, 186쪽. 鄒志方, 앞의 책, 394쪽.

212) 顧雲艷, <淺論陸游茶詩中的花果茶>, 앞의 논문.

213) 위의 주)와 같음.

214) 全唐詩, 卷299.

위하여 薑茶를 마셨다는 것을 알 수 있다.

薑茶는 陸游의 시 외에 宋代 蘇轍의 <和子瞻煎茶><sup>216)</sup>에서도 읊고 있음을 볼 수 있다.

君不見 그대는 보지 못 했는가  
園中茶品天下高 민에는 차품이 천하에서 제일 드높음을  
傾身事茶不知勞 몸을 기울여 차를 짓는 해도 수고로움을 알지 못하네  
又不見 또 보지 못했는가  
北方俚人茗飲無不有 북방 사람의 차는 마시지 못하는 것이 없어서  
鹽酪椒薑誇滿口 소금, 유즙, 산초나무, 생강이 입 안 가득 향기롭다네

이 시에서는 북방 사람의 차는 없는 것이 없어서 “소금, 유즙, 산초나무, 생강이 입 안 가득 향기롭다네.”라고 하여 생강을 차로 마시고 있음을 말해 주고 있다. 그리고 宋代 陳師道の <寄豫章公三首許官茶未寄><sup>217)</sup> 其二를 살펴보면 다음과 같이 읊고 있다.

愧無一縷破雙團 부쉬 놓은 단차가 조금도 없음을 부끄러워하며  
慣下薑鹽枉肺肝 습관적으로 생강과 소금을 넣으니 속이 안 좋네.

이 시에서 작가는 團茶가 없어서 ‘습관적으로 생강과 소금을 넣고 마셨다.’라고 읊고 있다. 이를 보면 宋代 사람들은 생강에 소금을 넣어서 차를 끓여 마시는 습관이 있음을 볼 수 있다. 이와 같이 생강과 소금을 넣어 끓여 마시는 방법은 宋代 蘇軾의 <和蔣夔寄茶><sup>218)</sup>에서도 언급하고 있다. 위의 내용을 보면 차에 생강을 넣어 마시는 일은 宋代에 보편적이었음을 알 수 있다.

위에서 살펴본 차에 생강과 같은 향이 짙은 것을 함께 넣어 끓여 마시는 방법에 대하여, 모든 사람들이 긍정적으로 받아들이지는 않았다. 아래의 蔡襄의 <茶

215) 顧雲艷, <淺論陸游茶詩中的花果茶>, 앞의 논문, 참조.

216) <變城集>, 上冊, 99쪽.

217) 陳師道, <後山詩注>, 卷2.

218) 도서출판아라 편집부, 앞의 책, 148쪽. 宋代, 蘇軾의 <和蔣夔寄茶> “老妻稚子不知愛, 一半已入薑鹽煎 (부인과 아이들은 차 끓이는 법을 알지 못하나 좋아하여, 반은 이미 생강과 소금을 넣어 끓였다.)”.

錄》219)의 <香> 조목에 보면 다음과 같은 기록이 있다.

“茶有眞香，而入貢者微以龍腦和膏，欲助其香，建安民間皆不入香，恐奪其眞，若烹點之際，又雜珍果香草，其奪益甚，正當不用”

차에 진향이 있어, 공납하는 차는 정교하고, 용뇌로 고와 어울리게 하여 차 향기를 도우려 했다. 건안 지방의 민가에서는 차의 진향을 빼앗을까봐 아무향도 넣지 않았다. 만약 끓여서 점다 할 때, 진과나 향초를 섞으면 그 진향을 빼앗는 것이 더욱 심하니 응당 쓰지 않았다.

이것으로 보면 蔡襄은 茶를 끓일 때 珍果나 香草를 넣으면 차의 본래의 향을 빼앗기 때문에 써서는 안 된다는 부정적인 견해를 가지고 있음을 볼 수 있다. 蔡襄의 《茶錄》외에 明代 張源의 《茶錄，點染失真》<sup>220)</sup>을 살펴보기로 하겠다.

“茶自有眞香，有眞色，有眞味，一經點染，便失其眞。如水中著城。茶中著料，碗中著果，皆失真。”

차에는 참된 색, 향, 미가 있다. 조금이라도 한번 오염되면 바로 그 참됨을 잃는다. 물에 찐 맛이 섞여 있거나 차에 다른 재료가 넣거나 차 그릇에 과일 향이 배이게 되면 모두 참됨을 잃는다.

張源은 찐 맛을 섞으면 차의 참 맛을 잃을 수 있음을 말하고 있고, 茶에 다른 색이 물들거나, 茶 그릇에 과일 향이 배는 것도 茶의 참됨을 잃게 된다고 말하고 있다. 그렇지만 宋代에는 생강과 소금을 함께 넣어 끓여 마셨음을 볼 수 있다.

위에서 살펴본 자료를 보면, 東晉 시기의 僧들은 坐禪修行시에 정신을 맑게 하고 생각을 풍부하게 하기 위하여 茶蘇, 즉 일종의 茶와 생강 계수나무 껍 등을 섞는 방식으로 마셨고, 唐代에도 僧들은 나쁜 기운을 가라앉히기 위하여 薑茶를 마셨다는 기록이 남아 있으며, 宋代의 薑茶는 茶와 생강 그리고 소금을 넣어 먹는 풍습이 있었음을 알 수 있다. 宋代에는 이처럼 생강을 茶와 함께 달여 마시는

219) 도서출판아라 편집부, 앞의 책, 1권, 67쪽.

220) 도서출판아라 편집부, 위의 책, 1권, 323쪽 재인용.



풍습이 보편적이었으나, 그에 대한 부정적인 견해를 제시하는 기록들도 찾아 볼 수 있다.

### (5) 梅花茶

梅花茶는 앞에서 살펴봤던 菊花茶, 茱萸茶, 薑茶, 橄欖茶와는 製造 방법부터 다르다. 여기서 우선 梅花茶를 읊고 있는 陸游의 <初春書懷><sup>221)</sup>를 살펴보기로 하겠다.

甫及初春日已長 바야흐로 초춘에 이르니 해가 이미 길어지고  
偶同鄰曲集山房 우연히 이웃 사람과 산방에 모였네  
囊盛古墨靴紋皺 주머니에 낡은 먹을 담는데 신의 무늬 주름졌고  
箬護新茶帶勝方 새로 만든 차는 대껍질로 싸서 허리에 찼네  
老境不嫌來冉冉 노년이 서서히 다가오는 것이 싫지 않으니  
流年直死去堂堂 세월이 흘러 바로 죽어가도 당당하다네  
清泉冷浸疏梅蕊 맑은 샘물에 냉기가 스미고 매화 꽃술은 성기지만  
共領人間第一香 세상에서 제일가는 향이라는 걸 모두가 안다네

이 詩는 陸游가 嘉泰 4년(1204) 봄 그의 나이 80세 때 山陰에서 지은 것이다.<sup>222)</sup> 이 詩의 首聯은 초봄에 이웃 사람들과 山房에 모여 있는 모습을 읊고 있다. 頷聯에서는 주머니에 먹을 담고 주름이 진 신발을 신은 모습과 茶를 허리에 차고 다니는 宋代 사람들의 생활 모습을 살펴 볼 수 있다. 頸聯은 老年이 오면 죽음도 당당히 맞을 수 있다는 작자의 담담한 마음을 나타내고 있다. 그리고 “老境-流年, 不嫌-直死, 來-去, 冉冉-堂堂”으로 對句를 이루고 있다. 尾聯은 냉기가 스미는 맑은 샘물에 매화꽃이 성기게 떠 있는 모습과 세상에서 제일가는 매화차의 향을 찬미하고 있다. 이 聯의 “清泉冷浸疏梅蕊” 부분에서는 梅花茶를 만드는 과정을 언급하고 있다. 이 부분에서 말하는 梅花茶는 매화의 꽃술을 담가두었던 샘물을 이용하여 茶를 달이는 것을 말한다.<sup>223)</sup> 이 방법을 이용하여 만든 梅花茶는 단지 꽃향기를 맡을 수 있을 뿐, 그 꽃은 볼 수가 없으며 그 맛이 매우 향기

221) 錢仲聯, 앞의 책, 권6, 240쪽.

222) 위의 주)와 같음. 鄒志方, 앞의 책, 397쪽.

223) 顧云艷, <淺論陸游茶詩中的花果茶>, 앞의 논문 참조.

롭고 순수하다. 이것은 일종의 宋代 梅花茶를 만드는 방법이라고 할 수 있다.<sup>224)</sup> 이와 같이 茶에 향을 스미게 하는 방법은 晚唐의 詩人인 陸龜蒙의 <奉和襲美茶具十詠><sup>225)</sup>에서도 살펴 볼 수 있다.

山遙縱高下 산은 아득히 높고 낮게 늘어서 있고  
 火候還文武 불은 살피며 적당히 조절하네  
 見說焙前人 불에 차를 볶는 이전의 사람에게 들은 바 있는데  
 時時炙花脯 때때로 꽃을 포로 여기며 구웠다네

이 詩는 차잎을 볶을 때에 꽃을 첨가하여 불에 볶는 것을 말한다. 이 때 花香이 적당하게 茶에 스며들면 茶가 완성되는 것이다. 이 시에서 花茶를 만드는 법은 宋代의 梅花茶를 만드는 법과 조금 다르긴 하지만 茶에 꽃의 향을 스미게 하여 茶를 마셨다는 공통점을 찾을 수 있다.<sup>226)</sup> 이처럼 茶에 향을 섞은 것은 宋代 蔡襄의 《茶錄》<sup>227)</sup>에서도 살펴 볼 수 있는데, 여기서는 貢納하는 茶에는 龍腦香을 섞어서 茶의 향을 도왔다는 기록이 남아 있다. 이와 같이 茶에 향기를 스며들게 하여 花茶를 만드는 방법은 後代에도 계속 이어지게 된다. 明代 屠隆의 《考槃餘事》 木樨<sup>228)</sup>편을 보면 다음과 같은 기록이 있다.

“玫瑰，薔薇，蘭蕙，橘花，梔子，木香，梅花，皆可作茶。諸花開時，摘其半含半放蕊，其香氣全者，量其茶多少，摘花爲伴。花多則太香，而脫茶韻。花少則不香，而不盡美。三停茶葉一停花，始稱。假如木樨花，須去其枝蒂及塵垢蟲蟻，用瓷罐，一層茶，一層花，投間至滿，紙箬紮固，入鍋重湯煮之。取出待冷，用紙封裹，置火上焙幹收用，則花香滿頰，茶味不減。諸花仿此。”

혜당화, 장미꽃, 난초꽃, 혜란꽃, 굴꽃, 치자꽃, 목향꽃, 매화꽃 등은 모두 차를 만들 수 있다. 여러 꽃들이 필 무렵 절반 썬 핀 꽃 중에 꽃술의 향기가 온전한 것을 따서, 차의 량을 헤아려 따온 꽃과 섞는다. 꽃이 많으면 향이 강하여 차의 운치가 떨어진다. 꽃이

224) 顧云艷, <淺論陸游茶詩中的花果茶>, 앞의 논문 참조.

225) 高澤雄, 黎安國, 劉定鄉, 앞의 책, 63쪽.

226) 顧云艷, <淺論陸游茶詩中的花果茶>, 위의 논문 참조.

227) 도서출판아라 편집부, 앞의 책, 권1, 67쪽, “茶有眞香，而入貢者微以龍腦和膏，欲助其香（차는 진향이 있지만 공납하는 차에는 용뇌향을 섞어서 차 향기를 도우려 했다.)”

228) 도서출판아라 편집부, 위의 책, 권1, 319쪽.

적으면 향기가 없고 맛도 좋지 않다. 찻잎 3에 꽃 1로 정하면 비로소 적당하다.

가령 목서꽃의 경우는 모름지기 그 가지나 꼭지, 먼지, 벌레 등을 제거하고, 자기 그릇에 차 한 컵 꽃 한 컵씩 쌓아 가득 채우고, 종이와 대꺾질로 단단히 묶은 후, 솥에 넣어 증탕으로 삶는다. 꺼내어 식기를 기다렸다가 종이로 봉하여 싸고, 불 위에서 쪄어 말리고 거두어들여 이용한다. 이렇게 하면 꽃향기가 가득하여 기분이 좋아지고 차 맛도 줄지 않는다. 여러 꽃들도 이와 같은 방법을 모방할 수 있다.

이 기록에서는 明代 花茶만드는 방법을 설명하고 있다. 그리고 梅花茶도 이와 같은 방법을 이용하여 만든다고 말하고 있다. 이 기록에서 말하는 明代 梅花茶는 宋代의 梅花茶와 만드는 방법은 다르지만, 梅花의 향기를 차에 스미게 하여 차를 마신다는 기본 방법은 같다고 할 수 있다. 그리고 宋代와 明代의 梅花茶의 공통점은 梅花茶를 마실 때 梅花를 직접 볼 수 없고 단지 梅花의 향기만을 맛보고 느낄 수 있다는 것이다. 그리고 위의 기록에서는 꽃의 채취시기와 차와 꽃을 혼합하는 量, 꽃의 손질, 솥에서 증탕으로 삶아 내는 방법 등등을 자세하게 설명하고 있어서 宋代의 梅花茶가 明代로 오면서 제작방법이 어떻게 달라지는지 알 수 있는 중요한 자료가 되고 있다.

위에서 살펴본 내용에서 알 수 있듯이 唐代에도 花茶를 만들어 마시긴 하였지만, 宋代 花茶가 만들어진 것은 花茶 제작의 역사상 중요하고 새로운 기점으로 여겨지고 있다. 이는 後代の 花茶 제작에 든든한 기초가 되었기 때문이다.<sup>229)</sup> 특히 위에서 살펴본 陸游의 詩는 宋代의 다른 詩人들의 詩에는 찾아보기 힘든, 宋代 梅花茶의 제작과정을 읊고 있기 때문에 宋代 梅花茶에 대한 연구에 아주 귀한 자료가 되고 있다.

#### (6) 기타

위에서 살펴본 北苑茶, 日鑄茶, 蒙頂茶, 顧渚茶 등과 같은 茶는 貢茶로 널리 알려진 茶들이다. 그러나 宋代에는 貢茶는 하지 않았지만, 이름이 알려진 名茶들이 있다. 이런 茶들은 陸游의 詩에서도 등장한다. 이런 茶들은 貢茶처럼 세상에 많이 알려지지 않는 않았기 때문에 전해 내려오는 자료들도 그리 많은 편이 아니다. 그래서 筆者는 본 논문에서 ‘기타’라는 조목에서 그런 茶들을 간단하게 고찰하고

229) 顧云艷, <淺論陸游茶詩中的花果茶>, 앞의 논문 참조.

자 한다.

### (가) 桃花茶

桃花茶는 宋代 名茶이다. 이 茶는 興國軍(지금의 湖北 陽新)의 남쪽 桃花寺의 샘물을 이용하여 만든 茶로 桃花絶品이라고도 칭한다. 《興國州志》<sup>230)</sup>에 보면 다음과 같은 기록이 있다.

“厚嶺山，俗稱厚腦山，在排市背後，崖谷峻深，居民稠密。山北有峰，名桃花尖，石泉甘冽，裏人用以造茶，稱桃花絶品。”

후령산은 속칭 후뇌산이라고도 한다. 배시 뒤쪽에 있다. 계곡은 매우 험하지만 거주하는 주민들은 많고, 산 북쪽에는 산봉우리가 있는데 도화첨이라고 한다. 석천은 달고 차다. 마을 사람들은 이것을 이용해 차를 제조하였는데 도화절품이라 칭한다.

그리고 《湖北通志》 卷22의 《輿地紀勝》<sup>231)</sup>에도 위의 내용과 같은 기록이 있다. 위의 두 기록을 보면 厚嶺山의 桃花尖이란 곳에 있는 샘물의 맛이 좋기 때문에 마을 사람들은 그 물을 이용하여 茶를 만들었고, 그 차의 맛은 매우 뛰어났음을 알 수 있다.

桃花茶는 陸游의 詩에서도 노래하고 있는데, 그의 詩 <題徐淵子環碧亭亭有茶山曾先生詩><sup>232)</sup>를 살펴보면 다음과 같은 내용이 있다.

茶山丈人厭嚚嘩 다산 어른은 시끄러운 것을 싫어하여  
幅巾每訪博士家 수건은 두르고 매양 장기년을 방문했네.  
小亭談笑不知暮 작은 정자에서 담소하니 해가 저무는 줄도 알지 못하시고  
往往城上聞吹笳 늘 성위에서 호드기 부는 소리를 들으셨네  
興來傑作粲珠璧 흥이 오면 아름다운 옥 같은 걸작을 지으셨는데  
歲久妙墨亡龍蛇 세월이 오래 지나니 묘한 먹에는 용과 뱀이 없어졌네

230) 徐海榮, 앞의 책, 108 재인용.

231) 도서출판아라 편집부, 앞의 책, 권2, 33쪽. 《湖北通志》 卷22의 《輿地紀勝》 “桃花寺，在永興縣南桃花尖山之下，寺有甘泉，里人用以造茶，味勝他處，號桃花絶品 (도화사는 영흥현 남쪽 도화첨산의 아래에 있다.寺에는 단 샘물이 있는데, 마을 사람들이 이것을 이용하여 차를 만든다.맛이 다른 곳보다 뛰어나며, 매화 절품이라 부른다.)”.

232) 錢仲聯, 앞의 책, 권3, 129쪽.

郎君弟子多白發 세 선비와 나는 백발이 많고  
 回頭日月如奔車 세월을 돌아보니 달려가는 수레와 같네  
 徐卿赤城古仙子 서대부는 청성산에서 선인이 된지 오래 되었지만  
 十年四海推才華 10년 토록 사해에서 뛰어난 재능을 추천하네  
 覽觀陳跡喜不寐 오랜 자취들을 두루 살펴보니 기뻐서 잠을 이루지 못하고  
 旋補罅漏支傾斜 틈이 생긴 것을 금방 매우고 치우친 것을 받쳐 세우네  
 曲池還浸古來月 굽은 연못에는 예부터 달을 담고고  
 叢莽忽見當時花 수풀 우거진 곳에는 홀연 꽃이 보이네  
 重題舊句照高棟 옛글에 대해 다시 시를 짓는데 높은 마룻대 빛나고  
 力振風雅排淫哇 풍아함에 힘써 음란함을 배척하네  
 席間紵袍已散鴣 자리 사이의 솜옷은 이미 넓게 흩어지고  
 堂上講鼓初停搗 당위의 강고는 비로소 멈추었다 치네  
 速宜力置竹葉酒 죽엽주를 차림에 신속히 힘써야지  
 不用更淪桃花茶 다시는 도화차를 달일 필요 없다네

위의 詩는 淳熙 12(1185)년 그의 나의 61세 가을 산음에서 지은 시<sup>233)</sup>로 徐淵子의 環碧亭에 있는 고인이 된 스승인 曾幾의 <張耆年教授置酒官舍環碧散步上園煎桃花茶>를 둘러보며 느끼는 감회를 詩로 읊고 있다.<sup>234)</sup> 1, 2句는 茶山 선생이 張耆年를 항상 방문했다는 내용을 기록하고 있다. 이 詩에서 말하는 環碧亭은 張耆年이 세운 것이다. 3~6句는 環碧亭에서 담소하며 옥 같은 詩를 읊었던 曾幾을 회상하고 그 감회를 적고 있다. 7, 8句는 陸游와 함께 있는 세 사람의 선비와 자신의 백발을 보며 세월의 무상함을 토로하고 있다. 9, 10句는 徐似道(字: 淵子) 즉 天台縣의 仙子에 대하여 노래하고 있다, 여기서 말하는 徐似道는 詩의 제목에 나오는 徐淵子를 말한다. 11, 12句는 여러 자취를 살펴보니 감회가 깊어 잠을 이루지 못하는 모습을 읊고 있다. 15, 16句는 스승의 詩를 보면서 詩를 쓰는 자신을 노래하고 있다. 마지막 聯에서는 “桃花茶를 다시는 달일 필요 없다네.”라고 노래하고 있는데, 이는 桃花茶를 달이며 한가롭게 노닐던 옛 스승이 이미 고인이 되어 지금은 없음을 간접적으로 표현하고 있다.

233) 錢仲聯, 앞의 책, 권3, 129쪽. 鄒志方, 앞의 책, 395쪽.

234) 錢仲聯, 위의 책, 권3, 129쪽. 陸游는 이 詩에서 “桃花茶, 見曾公詩(桃花茶는 曾幾의 시에서 봤다)”라고 自注 하고 있으며, 錢仲聯은 注釋에서 曾幾의 <張耆年教授置酒官舍環碧散步上園煎桃花茶> 詩를 예로 들고 있다.

위에서 말하는 桃花茶는 宋代 蘇軾의 <問大治長老乞桃花茶栽東坡><sup>235)</sup>에서 찾아 볼 수 있다.

周詩記苦茶 주나라의 시에 차에 대한 기록이 있는데  
茗飲出近世 차를 마시는 것은 근세에 나왔네  
初緣厭梁肉 처음에는 기장과 고기에 물린 것에 말미암았고  
假此雪昏滯 이것을 빌어 혼미하게 막힌 것을 풀었네  
嗟我五畝園 아 나의 다섯 이랑의 밭  
桑麥苦蒙翳 뽕나무와 보리가 무성하게 그늘을 드리웠네  
不畝寸地閑 손바닥만 땅을 한가하게 놀리지 않으려고  
更乞茶子栽 또 다시 차 종자를 빌어다 심었네

蘇軾은 桃花茶를 맛보고 그 맛이 좋음을 알고, 桃花茶 종자를 얻어다가 東坡 언덕에 심었음을 이 詩의 제목에서 밝히고 있다. 蘇軾의 詩 외에 宋代 曾幾의 <張耆年教授置酒官舍環碧散步上園煎桃花茶><sup>236)</sup>에서도 桃花茶를 찾아 볼 수 있다.

何許清尊對物華 어찌 술잔으로 자연의 경치를 대하나  
廣文官舍似僧家 광문의 관사는 승가와 같네  
向人只合供談笑 사람이 짝짓고 모여 함께 담소를 하는데  
領客猶能辦咄嗟 객을 인솔하며 큰 소리를 칠 수 있다네  
光動杯盤環碧水 빛은 잔과 소반에서 움직이며 푸른 물을 감돌고  
香隨珠履上園花 향은 구슬 신발을 따라 동산의 꽃에 오르네  
公如不厭過從數 공이 왕래를 자주 하는 것을 싫어하지 않은 것 같으니  
但煮東坡所種茶 오직 동파가 심은 차를 달이네

이 詩에서는 曾幾가 環碧亭에서 한가하게 노닐며 桃花茶를 달이는 모습을 볼 수 있다. 이 詩의 마지막 句에 보면 “但煮東坡所種茶 (오직 동파가 심은 차를 달이네)”라고 하여 蘇軾의 <問大治長老乞桃花茶栽東坡> 중에서 차 종자를 빌어다 심었던, 그 桃花茶를 달이고 있음을 말하고 있다. 그리고 이 시는 위에서 예로

235) 도서출판아라 편집부, 앞의 책, 권1, 149쪽.

236) 《茶山集》, 券6.

들었던 陸游의 시 <題徐淵子環碧亭亭有茶山曾先生詩>의 마지막 句와 연결하여 생각할 수 있다. 陸游는 이 시를 보면서 스승인 曾幾가 桃花茶를 마시며 環碧亭에서 한가하게 노닐던 것을 회상했고 이제는 고인이 되어 볼 수 없기 때문에 “不用更瀹桃花茶 (다시는 도화차를 달일 필요 없다네.”라고 읊고 있는 것이다.

위에서 살펴본 내용들을 간단히 정리해 보면, 桃花茶는 宋代에 名茶로 興國軍(지금의 湖北 陽新)의 桃花尖山에 있는 桃花寺에서 나는 샘물을 이용해서 만든 茶라는 것을 알 수 있다. 그리고 이 茶에 대하여 陸游 및 蘇軾, 曾幾 등도 詩로 노래했음을 볼 수 있다.

#### (나) 丁坑茶

丁坑茶는 宋代 名茶로 白茶이며 紹興에서 생산된다.<sup>237)</sup> 여기서 우선 丁坑茶을 언급하고 있는 陸游의 <秋日郊居><sup>238)</sup>를 살펴보기로 하겠다.

秋日留連野老家 가을날 고향에 여러 날 머무는데  
朱盤鮓鱸粲如花 붉은 소반 위의 소금에 절인 고기와 쌀은 꽃과 같네  
已炊藟散眞珠米 이미 진주 같은 쌀로 밥을 지었고  
更點丁坑白雪茶 또 정갱의 백설같은 차로 점차하네

이 詩는 紹興 3년 그의 나이 68세 때 山陰에서 쓴 詩이다.<sup>239)</sup> 이 詩는 가을날 고향에서 머물며 밥을 짓고 丁坑茶를 마시는 자신의 모습을 읊고 있다. 마지막 聯에서는 “更點丁坑白雪茶 (또 정갱의 백설같은 차로 점차하네.)”라고 읊고 있다. 이 부분에서는 눈 같이 하얀 乳花를 띄우며 點茶하는 모습을 볼 수 있다. 그리고 宋代 高似孫 <<剡錄>><sup>240)</sup>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은 기록이 있다.

“越產之擅名者, 有.....雲門山之丁坑茶.”

越에서 생산되어 이름을 드날리는 것은..... 운문산의 정갱차가 있다.

237) 徐海榮, 앞의 책, 2쪽.

238) 錢仲聯, 앞의 책, 권4, 8쪽.

239) 위의 주)와 같음. 鄒志方, 앞의 책, 396쪽.

240) <<欽定四庫全書>>本, 高似孫, <<剡錄>>.



여기서는 越지방의 雲門山에서 나는 丁坑茶가 유명함을 말하고 있다. 그리고 또 范仲淹의 《清白堂記》<sup>241)</sup>에는 다음과 같은 기록이 있다.

“山巖之下 獲廢井，視其泉清而色白，味之甚甘，以建溪，日鑄，臥龍，雲門之茗試之 甘液華滋，悅人襟靈”

산 바위 아래의 황폐정, 그 샘을 보면 맑고 색이 하얀데, 그 맛이 매우 달아서, 건계, 일주, 와룡, 운문의 차로 그것을 맛보면, 달콤한 액에 유화가 피어올라, 사람의 마음을 기쁘게 하니 신묘하다.

위의 두 기록을 보면 雲門山에서 나는 丁坑茶는 建溪, 日鑄茶와 함께 거론할 정도로 맛이 뛰어나고 신묘함을 알 수 있다.

위에서 살펴본 陸游의 詩 외에, 그의 <北窗><sup>242)</sup>에서도 丁坑茶를 언급함을 볼 수 있다.

簾影參差午漏前 발그림자는 낮의 물시계 앞에서 들쭉날쭉하고  
盆山綠潤雨餘天 동이 같이 늘어선 산은 비온 뒤에 녹음이 푸르네  
詩無傑句眞衰矣 시는 뛰어난 구가 없어 참으로 쇠한 듯 하고  
酒借朱顏卻悵然 술로 붉은 얼굴을 빌려 봐도 도리어 슬퍼지네  
海燕理巢知再亂 바다제비는 둥지를 정리하더니 다시 어지럽히고  
吳蠶放食過三眠 오나라 누에는 실컷 먹고 세 번째 잠을 자네  
名泉不負吾兒意 뛰어난 샘물은 나의 뜻을 저버리지 않으니  
一掬丁坑手自煎 정갱차를 한 움큼 손에 쥐고 스스로 차를 달이네.

이 詩는 嘉泰 4년 여름 그의 나이 80세 때 山陰에서 쓴 詩이다.<sup>243)</sup> 이 詩의 首聯은 눈앞에 펼쳐지는 여름날의 풍경을 읊고 있다. 頷聯은 詩는 쓰지만 뛰어난 것이 없음을 말하고 있다. 그리고 늙어가는 얼굴에 술로 혈색을 돌게 해 보지만 마음은 슬퍼짐을 표현하고 있다. 頸聯은 바다제비와 누에를 언급하며 작가 주변의 풍경들을 이야기하고 있다. 그리고 尾聯은 맛이 뛰어난 물로 丁坑茶를 달이는

241) 徐海榮, 앞의 책, 2쪽, 재인용.

242) 錢仲聯, 앞의 책, 권6, 279쪽.

243) 위의 주)와 같음. 鄒志方, 앞의 책, 397쪽.

작가 자신의 모습을 노래하고 있다.

위의 내용들을 살펴보면, 丁坑茶는 陸游의 고향의 차로, 맛이 신묘하고 뛰어나서 陸游가 즐겨 마셨음을 알 수 있다.

#### (대) 花塢茶

宋代 名茶로 紹興의 蘭亭에서 생산된다.<sup>244)</sup> 이곳은 陸游의 고향으로 茶市까지 형성되었던 곳이다. 陸游의 <蘭亭道上> 其二<sup>245)</sup>를 살펴보면, 그 당시 茶市가 형성된 紹興蘭亭의 모습을 들여다 볼 수 있다. 花塢茶에 대한 자료는 宋代 高似孫의 《剡錄》<sup>246)</sup>에서도 “蘭亭之花塢茶 (난정의 화오차)”라는 구절을 찾아 볼 수 있으며, 아래의 陸游의 <蘭亭道上><sup>247)</sup>其三에서도 찾아 볼 수 있다.

陌上行歌日正長 두둑 위를 노래하며 걷는데 해는 바야흐로 길고  
吳蠶捉績麥登場 오나라 누에에서 실을 뽑고 보리는 마당에 옮겼네  
蘭亭酒美逢人醉 난정의 술은 좋아 사람을 만나면 취하고  
花塢茶<sup>248)</sup>新滿市香 화오차는 새로워 저자에 가득 향기 나네

이 詩는 陸游의 고향에서 생산되는 花塢茶에 대하여 읊고 있는데, 이 詩의 1句는 蘭亭에서 두둑 위를 한가롭게 걷고 있는 작자의 모습을 그리고 있다. 2句는 누에의 실을 뽑고, 보리를 마당으로 옮기는 농촌의 일상을 읊고 있다. 그리고 3句에서는 난정의 술을 언급하고 있으며, 마지막 句에서는 花塢茶의 향기가 저자 거리에 가득함을 노래하고 있다.

위에서 살펴본 자료에 의하며 花塢茶는 茶시장이 형성될 정도로 茶 산업이 발달한 陸游의 고향, 紹興의 蘭亭에서 생산되는 名茶라는 것을 알 수 있었다.

#### (라) 安樂茶

244) 徐海榮, 앞의 책, 65쪽.

245) 錢仲聯, 앞의 책, 권8, 165쪽. <蘭亭道上 其二> “蘭亭步口水如天, 茶市紛紛趁雨前, 烏笠遊僧雲際去, 白衣醉叟道傍眠 (난정의 어귀를 걷는데 물이 하늘과 같이 푸르고, 비 내리기전에 차시가 분분하네, 삿갓 쓴 客僧은 구름 가로 떠나가고, 하얀 옷의 취한 노인 길가에서 잠을 자네.)”.

246) 錢仲聯, 위의 책, 권8, 165쪽 재인용.

247) 위의 주)와 같음.

248) 위의 주)와 같음. 陸游는 이 詩에서 “花塢 茶名 (화오는 차명이다.)”라고 自注 하고 있다.

安樂茶는 宋代 名茶로 草茶이다. 여기서 安樂茶를 읊고 있는 陸游의 <雜興><sup>249)</sup>을 먼저 살펴보기로 하겠다.

暮年常苦睡爲祟 노년이 늘 괴로우니 잠을 자는 빌미가 되고  
好事新分安樂茶<sup>250)</sup> 좋은 일은 있으면 안락차를 새로이 분차 하네  
更得小瓢吾事足 또 작은 표주박이라도 얻으니 나의 일에 족하고  
山家風味似僧家 산사람의 고상한 맛은 승가와 같네

이 詩는 慶元 5년(1199) 가을 그의 나이 75세 때 고향 산음에서 쓴 詩이다.<sup>251)</sup> 이 詩 첫 句에서는 노년의 괴로움 때문에 잠을 자게 됨을 말하고 있다. 2句에서는 曾召南이 보내준 安樂茶를 分茶하고 있음을 표현하고 있다. 그리고 3句에서는 작은 것에 스스로 만족하는 자신의 마음을 읊고 있으며, 마지막 句에서는 이런 자신의 품미는 僧가와 같다고 노래하며 詩를 마무리 하고 있다.

陸游의 시에 등장하는 安樂茶에 대하여 宋代 王象之의 <輿地紀勝> 卷二五<sup>252)</sup>에는 다음과 같이 기록 하고 있다.

“雲居山在建昌.....(山)出茶, 號安樂茶, 草茶中最爲絕品.”

운거산은 건창에 있는데.....산에서 차가 나온다. 安樂茶라고 부르는데 草茶중에 뛰어난 차이다.

이 기록을 보면, 安樂茶의 產地가 建昌에 있는 雲居山(지금의 江西省九江市永修縣西南部)임을 알 수 있고, 더불어 草茶라는 것도 확인할 수 있다. 그리고 宋代 洪芻의 <題雲居寺詩><sup>253)</sup>에서도 安樂茶를 시로 읊고 있는 것을 볼 수 있다.

雙澗遠輸功德水 두개의 계곡은 공덕의 물을 멀리 나르고  
四山深闕法王家 사방의 산은 부처의 집을 깊게 잠그네

249) 錢仲聯, 앞의 책, 권5, 136쪽.

250) 錢仲聯, 위의 책, 권5, 136쪽, 陸游가 “曾召南提幹近送安樂茶來(曾召南幹辦公事가 근래에 안락차를 보내 왔다.)”라고 自注하였다..

251) 錢仲聯, 위의 책, 권5, 136쪽. 鄒志方, 앞의 책, 396쪽.

252) 徐海榮, 앞의 책, 58쪽.

253) <全宋詩>, 22冊, 北京大學出版社.

曲肱聊寄吉祥臥 팔을 베개 삼아 팔자 좋게 누웠다가  
緩帶來嘗安樂茶 느슨하게 몸에 지니고 온 안락차를 맛보네

이 詩는 雲居寺를 읊고 있는 시로 1, 2句에서는 雲居寺의 주변의 풍경을 읊고 있고 3, 4句에서는 작가가 팔베개를 베고 한가롭게 누웠다가 安樂茶를 맛보는 모습을 읊고 있다.

위에서 제시한 자료들 외에, 宋代 釋慧空의 <雪堂仍舊老師和予送可師新字韻見招復作五首寄之兼呈無證 其四><sup>254</sup>에서도 “茶分安樂春 (安樂茶를 분차하네.)”라는 구절을 찾아 볼 수 있다.

위의 자료들을 보면, 草茶인 安樂茶는 宋代의 여러 시인들이 읊고 있음을 볼 수 있다. 이것으로 보면 安樂茶는 宋代 사람들에게 친근한 茶였다는 것을 알 수 있다.

### 3. 茶具

#### 1) 兔毫盞

宋代에는 茶湯에 乳花를 띄우고 마시는 것을 즐겼다. 乳花의 색은 흰색이기 때문에 푸르거나 흰색 잔은 잘 어울리지 않고, 검은 빛이 나는 잔에 잘 어울린다.<sup>255</sup> 그렇기 때문에 宋代 사람들은 찻잔의 색은 검푸른 것을 귀하게 여겼고, 잔의 표면에 하얀 털이 나타난 것을 상품으로 여겼다. 왜냐하면 그런 잔을 사용하면 茶色이 잘 나타나기 때문이다.<sup>256</sup> 이런 사람들의 취향을 반영하여 建安에서

254) 《釋慧空的詩詞全集》.

255) 류건집, 《宋代茶書의 註解》, 앞의 책, 上권, 55쪽. 참조. 채양의 《茶錄》 茶盞 조목: “茶色白. 宜黑盞. 建安所造者紺黑. 紋如兔毫. 其坯微厚. 燻之久熱難冷. 最爲要用. 出佗處者. 或薄或色紫. 皆不及也. 其青白盞. 鬪試家自不用 (차의 색이 희기 때문에 검은색 잔이 어울린다. 건안에서 만든 잔은 감흑색에다 토끼털 같은 무늬가 있고 잔이 약간 두꺼워서 데우면 오랫동안 잘 식지 않아 사용하기에 아주 좋다 다른 지역에서 생산되는 것은 얇거나 자색이 나서 모두 건안에서 생산되는 것에 미치지 못한다. 청백색의 잔은 투차하는 사람들에게 쓰이지 않는다.)”.

256) 류건집, 《宋代茶書의 註解》, 위의 책, 上권, 123~124쪽 참조. 趙佶의 《大觀茶論》 “盞色貴青黑, 玉毫條達者爲上, 取其煖發茶采色也. (잔의 색은 검푸른 색을 귀하게 여긴다. 흰털무늬가 나타나는 것을 최상으로 여긴다. 그런 잔을 사용하면 차의 색이 잘 나타나기 때문이다.)”.

만들어졌던 兎毫齋는 감혹색에다 토끼털 같은 무늬가 있고, 齋이 약간 두꺼워서 茶가 잘 식지 않기 때문에 사람들에게 환영을 받았다. 여기서 兎毫齋를 언급하고 있는 陸游의 <雨晴><sup>257)</sup>을 살펴보기로 하겠다.

閑曳枯筇自在行 한가롭게 마른 지팡이 짚고 자유로이 걸으며  
 曲廊小閣賞新晴 굽은 행랑 작은 누각에서 비 갠 모습을 감상하네  
 幽禽葉底吟風久 새들은 나무 밑에서 풍월을 읊은 지 오래고  
 殘雨枝間照日明 쇠잔한 비 나뭇가지 사이에 햇빛 맑게 비추네  
 茶映齋毫新乳上 차는 토끼털 문양 잔의 새 하얀 거품 위에서 빛나고  
 琴橫薦石細泉鳴 풀과 돌에 가로놓인 작은 샘에서 거문고가 울리네  
 亦知老健終難恃 늙어서 건강은 끝내 믿기 어려운 것이니  
 且復蕭然得此生 또 쓸쓸히 이 생을 마무리 해가네

이 詩는 紹熙 3년(1192) 陸游 나이 68세 여름 山陰에서 지은 시이다.<sup>258)</sup> 이 시의 首聯에서는 지팡이를 짚고 한가롭게 걸으며 누각의 비 갠 모습을 감상하는 작자의 모습을 읊고 있다. 頷聯의 첫 句에서는 새들의 울음소리를 ‘風月을 읊는 모습’으로 의인화하여 표현하고 있으며, 2句에서는 나뭇가지 사이로 스며들어오는 맑은 햇빛의 모습을 읊고 있어서, 청각적인 효과와 시각적인 효과가 조화롭게 묘사되고 있음을 볼 수 있다. 頸聯이 첫 句는 토끼털 모양이 그려진 찻잔에 하얀 거품이 빛나는 모습을 묘사하고 있고, 2句는 샘에서 물이 솟아나는 소리를 거문고 소리에 비유하고 있다. 이 부분도 頷聯과 마찬가지로 시각적인 효과와 청각적인 효과를 하얀 거품이 빛나는 모습과 거문고 소리로 나타내고 있다. 그리고 尾聯에서는 노년에 쓸쓸히 살아가는 작자 자신의 모습을 읊조리며 시를 마무리하고 있다.

위의 시 외에 陸游의 <夢遊山寺焚香煮茗甚適既覺悵然以詩記之><sup>259)</sup>에서도 兎毫齋를 언급하고 있다.

257) 錢仲聯, 앞의 책, 권3, 473쪽.

258) 錢仲聯, 위의 책, 권3, 473쪽. 鄒志方, 앞의 책, 396쪽.

259) 錢仲聯, 위의 책, 권4, 300쪽.

平日居山恨不深 평소엔 산에 사니 한이 깊지 않지만  
 覽來差足慰幽尋 잠시 와 그윽한 곳에서 조금의 위로를 얻네  
 僧歸共說道逢虎 스님이 돌아오며 길에서 호랑이를 만난 것을 함께 얘기하는데  
 院靜惟聞風滿林 정원은 고요하여 숲에서 바람소리 오직 들려오네  
 毫盞雪濤驅滯思 토끼털 문양의 잔에 눈 같은 물결은 막힌 생각을 몰아내고  
 篆盤雲縷洗塵襟 향기로운 소반에서 피어나는 수증기는 세속적인 생각을 씻어내네  
 此行殊勝邯鄲客 이번 여행은 한단객의 여행보다 훨씬 좋고  
 數刻清閑直萬金 몇 시간 조용하고 한적하니 만금의 가치이네

이 시는 慶元 元年(1195) 陸游의 나이 61세 여름에 산음에서 쓴 詩이다.<sup>260)</sup> 이 詩는 山寺에서 茶를 달여 스님과 마시며 느끼는 생각들을 꿈이라는 가상현실의 상황을 빌어 읊고 있다. 이 詩의 首聯은 평소의 한스런 마음을 그윽한 절에 와서 위로를 받는 것을 묘사하고 있다. 頷聯은 스님과 얘기하는 모습과 주위에서 들려오는 자연의 소리를 읊고 있다. 그리고 頸聯의 첫 句는 토끼털 문양의 찻잔에 하얗게 피어오른 乳花의 모습을 보면서 막혔던 생각을 몰아내고 있음을 말하고 있고, 둘째 句는 향기가 피어오르는 소반의 수증기로 世俗에 찌든 생각을 씻어냄을 묘사하고 있다. 그리고 尾聯은 꿈속의 여행은 만금의 가치를 지녔다고 노래를 하고 있다.

위의 두 首의 시들에서 언급하고 있는 兔毫盞은 宋代의 유명한 茶具인 建盞의 雅稱이다. 이 盞은 建州에서 생산되었으며 가마터는 宋의 甌寧(지금의 建陽 水吉과 建甌 小松일대)일대에 있다. 建盞의 모양은 윗부분이 벌어져있고 배 부분이 깊으며 얇고 둥근 다리가 있는 작은 茶碗이다. 盞은 무거워 鐵과 같고 두드리면 소리가 경쇠처럼 울린다. 배 부분의 두터운 흑색 유약이 특색이며, 유약 속에는 가는 실과 같은 은색 結晶이 있다. 그 물결무늬는 鷓鴣새의 얼룩무늬와 매우 흡사하고, 또 褐色의 兔毫 모양과 같다. 그런 모양 때문에 이 잔을 兔毫盞 혹은 鷓鴣斑이라고 이름 하였다. 이런 建盞은 鬪茶하기에 좋은 조건을 갖추고 있기 때문에 鬪盞으로 사용하였으며, 이 찻잔은 또한 貢品에 속하기도 하였다.<sup>261)</sup> 이와 같은 兔毫盞을 읊은 陸游의 詩는 위의 詩 외에 <試茶><sup>262)</sup>, <村舍雜書><sup>263)</sup>, <閑

260) 錢仲聯, 앞의 책, 권4, 300쪽. 鄒志方, 앞의 책, 396쪽.

261) 徐海榮, 앞의 책, 292쪽 참조.

262) 錢仲聯, 위의 책, 권2, 270쪽. “綠地毫甌雪花乳, 不妨也道入閩來 (토끼털 무늬 검은 잔에 눈꽃

中>264) 등이 있다. 이와 같은 兔毫盞은 唐代 呂巖의 <大雲寺茶詩>265)에서도 살  
펴볼 수 있다.

兔毛甌淺香雲白 兔毫盞에 담으면 은은한 향기에 눈같이 희고  
蝦眼湯翻細浪俱 끓이면 새우 눈 지나 잔잔한 파도 일어나네

이 시를 보면 토끼털 문양의 찻잔에 담긴 눈같이 희고 향기로운 차를 읊고 있  
다. 이것으로 보면 토끼털 무늬를 새겨 넣는 찻잔은 唐代에도 이미 제작하여 사  
용하였음을 알 수 있다. 그리고 南宋 審安老人의 <茶具圖贊>을 보면 ‘陶寶  
文’266)에 대한 기록이 있다.

“名去越 字自厚 號兔園上客 出河濱而無苦窳，經緯之象，剛柔之理，炳其縕中，虛已待物，  
不飾外貌，位高秘閣，宜無愧焉”

이름은 거월이고 자는 자후이며 호는 토원상객이다. 하빈에서 만들어지며 거칠지 않은  
도자기이며, 가로 세로의 모양과 강하고 부드러운 무늬로 다듬어졌고, 그 무늬가 팽팽  
한 중에 빛이 나며, 자신을 비우고 물건을 받을 준비를 하며, 밖을 꾸미지 않으니 비각  
이라는 높은 지위에 마땅히 부끄럽지 않다네.

<茶具圖贊>의 내용들은 茶具를 의인화하여 설명하고 있는 茶書이다. 여기서  
말하는 陶寶文은 兔毫盞의 戲稱으로267), 도(陶)는 姓氏를 말하며 도자기라는 뜻  
이다. 그리고 寶文은 宋代 벼슬인 文閣學士에서 따온 것으로, 文자는 紋자와 통  
하며 잔에 새겨진 무늬를 말한다. 그리고 ‘兔園上客’에서 兔園은 BC2세기에 제위  
했던 梁孝王이 만든 宮園으로 정원이 매우 아름다워서 그곳에서 많은 文人들이  
문학과 예술을 논했던 곳이다. 여기서 말하는 上客은 그곳에 온 손님 중에 上客  
이라는 뜻이다.268) 審安老人은 <茶具圖贊>에서 문학과 예술을 논하는 文人 중

같은 하얀 거품 때문에, 민지방에 오는 것을 꺼리지 못하네)”.  
263) 錢仲聯, 앞의 책, 권5, 119쪽. “雪落紅絲硯, 香動銀毫甌 (눈처럼 홍사석 맷돌에서 떨어지고, 하  
얀 털 문양의 잔에 향이 떠다니네.)”.

264) 錢仲聯, 위의 책, 권4, 223쪽. “活眼硯凹宜墨色, 長毫甌小聚茶香 (원형 반점 무늬 벼루는 오목  
하여 먹색을 내기에 적당하고, 긴 토끼털 문양의 작은 찻잔에 차향을 모으네)”.  
265) 도서출판아라 편집부, 앞의 책, 권1, 44쪽.  
266) 류건집, <宋代茶書의 註解>, 앞의 책, 下권, 151쪽 참조.  
267) 徐海榮, 위의 책, 295쪽.  
268) 류건집, <宋代茶書의 註解>, 위의 책, 下권, 151쪽 참조.



에 귀한 사람을 兪毫蠶에 비유함으로써 兪毫蠶이 宋代 사람들에 의해 귀하게 여겨지고 있었음을 간접적으로 나타내고 있다.

위의 내용을 간단히 정리해 보면 宋代에는 茶湯에 흰색의 乳花를 띄우고 마시는 것을 즐겼기 때문에 사람들은 茶色이 잘 나타나는 검푸른 찻잔, 즉 宋代 建安에서 생산되었던 잔의 표면에 하얀 털이 있는 감흑색의 兪毫蠶을 귀하게 여겼음을 알 수 있다.

## 2) 風爐

風爐는 唐代 陸羽가 설계해서 만든 煮茶하는 燃具로 鼎形의 모양을 갖추고 있다. 徐海榮은 《中國茶事大典》<sup>269)</sup>에서 “風爐는 後世에 ‘茶鼎, 茶灶, 茶爐’라고 일컬어지며 만들어졌다.”라고 기록하고 있다. 그렇지만 정확히 언제부터 ‘茶鼎, 茶灶, 茶爐’라고 칭해지며 만들어졌는지는 언급하고 있지 않다. 그러나 아래에서 고찰하고 있는 陸游의 시를 살펴보면, 宋代에 風爐, 茶鼎, 茶灶라는 세 가지의 명칭을 가진 燃具를 사용하고 있음을 볼 수 있다. 이 세 가지의 명칭으로 만들어진 燃具는 모두 그 쓰임은 비슷하나, 그 모양은 각각의 다른 특징을 가지고 있음을 볼 수 있다. 여기서 우선 風爐를 언급하고 있는 陸游의 <老學庵北窗雜書><sup>270)</sup>를 살펴보기로 하겠다.

自置風爐北窗下 스스로 북창아래 風爐를 설치하고  
勒回睡思賦新詩 잠 생각을 억지로 물리며 새로운 시를 짓네

이 시에서 언급하고 있는 風爐는 이동이 가능한 것으로 작자가 원하는 곳에 설치해서 茶를 달여 마시고 있음을 알 수 있다. 그리고 그 외, <仲秋書事><sup>271)</sup>, <自詒><sup>272)</sup>에서도 風爐를 언급하고 있다. 이런 차를 달일 때 사용하는 燃具인 風爐는 陸羽의 《茶經》<sup>273)</sup> 四之器에 자세히 설명하고 있다.

269) 徐海榮, 앞의 책, 266쪽 참조.

270) 錢仲聯, 앞의 책, 권7, 180쪽.

271) 錢仲聯, 위의 책, 권8, 38쪽. “旋置風爐煎顧渚, 劇談猶得慰平生 (風爐를 설치하여 고저차를 달여서, 허심탄회하게 얘기하니 일생을 위로 할 수 있네).”

272) 錢仲聯, 위의 책, 권5, 358쪽. “飯餘解帶摩便腹, 自取風爐煮晚茶 (식후에 허리띠를 풀어 살찐 배를 만지며, 스스로 風爐를 취해 늦게 채취한 차를 달이네).”

273) 도서출판아라 편집부, 앞의 책, 권1, 12쪽.

“風爐：以銅，鐵鑄之，如古鼎形。厚三分，緣闊九分，令六分虛中，致其汗漫，凡三足.....其三足之間，設三窗，底一窗以爲通飆漏爐之。”

風爐는 구리나 쇠로 만드는데 모양은 古鼎과 같다. 두께는 서푼이고 口緣部는 넓어 아홉 푼인데, 그 중의 여섯 푼은 비워두고 흠손으로 세밀하게 바른다. 風爐는 모두 발이 세 개다.....그 세 발 사이에 창 세 개를 만들고, 아래에 창 하나를 만들어서 바람이 통하고 재가 빠지도록 한다.

이 기록을 보면 風爐는 세 개의足과 세 개의窓이 있으며 아래는 창이 하나 더 있어서 통풍이 잘 되고 재가 잘 빠지게 되어 있음을 알 수 있다. 그리고 風爐의 三足, 三窓 위에는 각각 글자가 쓰여 있으며, 風爐 외벽에는 花鳥山水, 小草流水 혹은 几何 문양으로 장식되어 있어서 예술적 맛을 더해 주고 있다.<sup>274)</sup> 이런 風爐는 唐代 이전에는 鼎이라고 자주 칭해졌는데<sup>275)</sup>, 晉代 左思의 <嬌女詩>에 “心爲茶菴劇, 吹噓對鼎鑪 (마음에서 차를 마시고 싶은 생각이 들어, 鼎에 대고 훌훌 입 바람을 불어대네.)”라는 구절에서 鼎을 언급하고 있음을 볼 수 있다. 이런 茶鼎을 “陸羽는 다경에서 風爐라고 규정하였으며, 이에 風爐라는 이름으로 부르게 되었다.”라고 陳宗懋가 <中國茶葉大辭典><sup>276)</sup>에서 말하고 있다. 그러나 ‘茶鼎’이란 명칭은 陸羽보다 後代에 활동한 唐代 시인인 皮日休의 <茶中雜詠·茶鼎><sup>277)</sup>에서도 찾아볼 수 있다.

龍舒有良匠 龍舒에 뛰어난 장인이 있어  
鑄此佳樣成 이곳에 쇠를 부어 아름다운 모양 이루었네  
立作菌蠹勢 세우면 영지버섯 같은 형상이 되고  
煎爲潺湲聲 달이며 물이 흐르는 소리 들리네

이 시에서 皮日休는 茶鼎이란 제목으로 시를 읊고 있다. 여기서 皮日休는 茶鼎의 모습을 영지버섯의 형상과 비슷하다고 묘사하고 있다. 그리고 이런 茶鼎은 宋

274) 徐海榮, 앞의 책 266쪽.

275) 陳宗懋, 앞의 책, 542쪽 참조.

276) 위의 주)와 같음.

277) 高澤雄, 黎安國, 劉定鄉, 앞의 책, 60쪽.

代 시인인 陸游의 시에서도 자주 등장하고 있는데, 아래에서 陸游의 <南窗><sup>278)</sup>을 살펴보기로 하겠다.

暄妍一窗日 온 창가에 비치는 해는 따뜻하니 아름답고  
的皦數枝梅 몇 가지의 매화는 희고 선명하게 빛나네  
小鼎煎茶熟 작은 鼎에 차가 익어 가니  
幽人作夢回 은자는 꿈에서 깨어나네  
新春又將近 신춘이 또 가까워지려하니  
晚景但堪哀 저녁 경치에 다만 슬픔을 건딘다네  
用底舒懷抱 어떤 것을 이용하여 회포를 풀까  
殘書闔復開 남은 책 간직했다가 다시 펼친다네

이 詩는 慶元 3년(1197)말, 그의 나이 73세 때 산음에서 쓴 시이다.<sup>279)</sup> 이 시의 首聯에서는 강가에 가득 빛나는 겨울 햇살에 매화꽃이 맑고 선명하게 빛나는 모습을 읊고 있다. 頷聯에서는 차를 달일 때 사용했던 小鼎을 언급하고 있으며, 茶가 익어가는 향기에 隱者가 잠에서 깨어나는 모습을 볼 수 있다. 여기에서 말하는 隱者는 고향 산음에서 살고 있는 자기 자신을 표현함인지 아니면 타인을 의미하는지 시에서 밝히고 있지 않아서 정확히 누구인지 알 수 없다. 그러나 陸游는 이 시기에 관직생활을 그만두고 고향 산음에서 계속 생활했기 때문에 자기 자신을 표현한 것으로 추측해 볼 수도 있다. 頷聯은 新春이 가까워지는 시기에 저녁 경치를 보며 슬픔을 건디는 마음을 노래하고 있다. 그리고 尾聯은 무심히 흘러가는 세월에 대한 회포를 남은 책으로 떨쳐버리려는 작자의 마음을 찾아 볼 수 있다.

위의 두 자료를 보면 陸羽가 茶鼎을 風爐로 규정하였다고 하지만 陸羽보다 후대 시인의 시와 宋代에도 茶鼎이 등장하고 있다. 그러므로 茶鼎을 “陸羽는 茶經에서 風爐라고 규정하였으며, 이에 風爐라는 이름으로 부르게 되었다.”라고 기록하고 있는 《中國茶葉大辭典》<sup>280)</sup>의 내용에 疑問이 제기된다.

위의 詩들에서 언급하고 있는 茶鼎은 분명히 風爐와는 다른 모습을 하고 있다.

278) 錢仲聯의 앞의 책, 권4, 447쪽.

279) 위의 주)와 같음. 鄒志方的 앞의 책, 396쪽 참조.

280) 陳宗懋, 앞의 책, 542쪽 참조.

茶鼎은 세 개의足과 두 개의耳가 있는 器物로 鼎이라고도 한다. 銅으로 만들면 銅鼎이라고 하고, 도자기로 만들면 石鼎이라고 불렀다.<sup>281)</sup> 이런 茶鼎에 대하여 陸游의 <攏爐><sup>282)</sup>에서도 언급하고 있다.

梟鼎<sup>283)</sup>煎茶非俗物 오리모양 손잡이 茶鼎에서 차를 달이니 속된 물건이 아니요  
雁燈開卷愜幽情 안죽 등에서 책을 펴니 그윽한 정에 흐뭇하네

이 詩는 淳熙 10년(1183) 10월, 陸游의 나이 58세 때 산음에서 쓴 詩이다.<sup>284)</sup> 이 시에서는 오리 모양 손잡이를 가진 茶鼎을 묘사하고 있어서, 宋代 茶鼎의 형상을 연구하는데 도움이 되고 있다. 그 외, 陸游의 <初春感事><sup>285)</sup>, <病中雜咏十首><sup>286)</sup>, <冬晴与子坦子聿游湖上><sup>287)</sup>에서도 茶鼎을 언급하고 있으며, <效蜀人煎茶戲作長句><sup>288)</sup>에서도 살펴볼 수 있다.

正須山石龍頭鼎<sup>289)</sup> 마땅히 산석으로 만든 용머리가 새겨진 茶鼎으로 차를 달여야 하지만  
一試風爐蟹眼湯 風爐의 게눈처럼 끓어오르는 물로 맛을 보네(중략)  
飯囊酒甕紛紛是 저 밥통, 술주정병이 널려 있으니  
誰賞蒙山紫筍香 누가 몽산의 뛰어난 자순향을 완상할까

이 詩는 紹熙 五年(1194年) 그의 나이 70세 때, 山陰에서 쓴 시이다.<sup>290)</sup> 이 시에서는 돌을 재료로 하여 만든, 용머리 모양의 형상이 그려진 茶鼎과 風爐를 동시에 언급하고 있다. 陸游는 이 시에서 蒙頂茶 처럼 귀한 茶는 ‘용머리가 새겨진

281) 徐海榮, 앞의 책, 287쪽 참조.

282) 錢仲聯, 앞의 책, 권3, 41쪽.

283) 錢仲聯, 위의 책, 권3, 41쪽 주석 참조. 梅堯臣의 <飲劉原甫舍人家同江鄰幾陳和叔學士觀白鵬孔雀梟鼎> “大誇梟柄鼎, 不比龍頭杓 (오리 모양 손잡이 茶鼎을 크게 자랑하지만, 용머리 모양의杓과 비교가 되지 않는다)”

284) 錢仲聯, 위의 책, 권3, 41쪽. 鄒志方, 앞의 책, 393쪽

285) 錢仲聯, 위의 책, 권5, 327쪽. “活火靜看茶鼎熟, 清泉自注研池寬 (활화를 피워 차가 茶鼎에서 익어가는 것을 조용히 보고, 맑은 샘물 벼루에 넉넉하게 따르네.)

286) 錢仲聯, 위의 책, 권8, 281쪽. “茶煎小鼎初翻浪, 燈映寒窗自結花 (小鼎에 차를 달이는데 방금 물결 일렁이고, 등이 차가운 창을 비추니 꽃무늬가 질로 맺히네.)”

287) 錢仲聯, 위의 책, 권5, 185쪽. “會挈風爐並石鼎, 桃枝竹裏試茶杯 (때마침 風爐와 石鼎을 가지고, 붉은 대 안에서 찻잔을 맛본다.)”

288) 錢仲聯, 위의 책, 권4, 258쪽.

289) 錢仲聯, 위의 책, 권4, 258쪽 참조 石龍頭鼎 : 韓愈 <石鼎聯句詩> “龍頭縮菌蠢 (영지 모양의 石鼎에는 용머리가 움추려 있고)”.

290) 錢仲聯, 위의 책, 권4, 258쪽, 鄒志方, 앞의 책, 396쪽.

茶鼎'으로 茶를 달여야 하지만, '風爐'로 달여 마시고 있음을 말하고 있다. 이 詩의 내용으로 보면 茶鼎과 風爐는 같은 용도로 사용되는 燃具이지만 두 개의 이름으로 구분하고 있음을 볼 수 있다. 여기서 鼎에 대한 《說文解字》의 기록을 살펴보기로 하겠다.

“鼎三足兩耳，和五味之寶器也”

鼎은 세 개의 다리와 두 개의 귀, 다섯 가지 맛을 조화롭게 하는 진귀한 기물이다.

이 기록을 보면 鼎은 세 개의 다리와 두 개의 귀를 가지고 있으며, 다섯 가지의 맛을 조화롭게 하는 귀한 기물임을 말하고 있다. 위의 詩는 당시에 貢茶했던 名茶인 蒙頂茶를 달이는 모습을 읊고 있는 詩이다. 그러므로 이 詩의 작자는 당시에 귀하게 여겨졌던 茶를 달일 때에는 龍의 머리가 새겨진 龍頭鼎으로 옹당히 끓여야 한다고 말하고 있다. 그러나 陸游은 이 詩에서 龍頭鼎대신 風爐로 맛을 보고 있음을 묘사하고 있다. 이것으로 보면 茶鼎과 風爐는 사용하는 용도는 같지만 품질의 등급이 서로 다른, 즉 茶鼎은 風爐보다 품질의 등급이 높은 器物일 가능성이 제기 할 수 있다.

다음으로 茶灶를 언급한 陸游의 <泛湖><sup>291)</sup>를 살펴보기로 하겠다.

筆床茶灶釣魚竿 필상과 茶灶를 갖추고 낚시하며 장대 드리웠는데  
澌澌平湖淡淡山 평평한 호수 넘실대고 산은 어렴풋이 보이네  
浪說枕戈心萬里 마구 지결이며 창을 베고 누우니 마음은 만리를 가지만  
此身常在水雲間 이 몸은 항상 수운 사이에 있네

이 시는 淳熙 15년(1188) 가을, 陸游의 나이 64세 때 山陰에서 쓴 詩이다.<sup>292)</sup> 이 詩의 1, 2句에서는 筆床과 茶灶를 갖추고 낚시를 하면서 눈에 들어오는 풍경을 묘사하고 있다. 그리고 3句에서는 “창을 베고 누우니 마음은 萬리를 가지만”이라는 표현으로 나라를 걱정하는 작자의 마음을 표현하고 있다. 그리고 4句는 마음은 나라를 항상 걱정하지만 몸은 水雲 사이에 있는 자신을 말하고 있다. 위

291) 錢仲聯, 앞의 책, 권3, 306쪽.

292) 錢仲聯, 위의 책, 권3, 306쪽. 鄒志方, 앞의 책, 395쪽.

의 시 외에 陸游의 <閑遊><sup>293)</sup>에서도 茶灶를 살펴볼 수 있다.

江邊小市舊經過 강변 소시를 오래 전에 지나갔는데  
歲月眞如東逝波 세월은 참으로 동으로 흘러가는 물결 같네  
茶灶酒壚多識面 茶灶와 술집은 낮이 익고  
少留賣藥買漁蓑 잠시 머물며 약초를 팔고 어부가 입는 도롱이를 사네

이 詩는 開禧 元年(1205) 閏 8월 陸游의 나이 81세 때 山陰에서 쓴 詩이다.<sup>294)</sup> 이 詩의 1, 2句에서는 예전에 지나갔던 강변의 小市를 추억하며 세월의 흐름이 빠름을 말하고 있다. 그리고 3句는 茶灶와 술집은 낮이 익음을 말하고 있으며, 4句는 잠시 머물며 약초를 팔고 도롱이를 사는 작자의 모습을 묘사하고 있다. 이 詩들에서 언급하고 있는 茶灶는 중국 고대에 茶를 찌는 燃具로 일반적으로 烟窓이 없는 것으로,<sup>295)</sup> 陸羽의 《茶經》<sup>296)</sup>, 二之具에 다음과 같은 기록이 있다.

“灶：無用突者”  
灶는 연통이 없다

이 기록에서 陸羽는 “灶는 연통이 없다.”라고 말하고 있다. 그리고 唐代 陸龜蒙의 <奉和襲美茶具十詠 茶灶><sup>297)</sup>를 보면 다음과 같은 기록이 있다.

無突抱輕嵐 연통이 없으니 가벼운 아지랑이 같은 것이 쌓여  
有煙映初旭 연기가 아침 해에 빛나네

위의 陸龜蒙의 “無突抱輕嵐 (연통이 없으니 가벼운 아지랑이 같은 것이 쌓여)”라는 句는 茶灶가 연통이 없는 것임을 정확히 증명 하고 있다. 이런 茶灶는 釜, 甌 등과 함께 조립하여 사용하였으며 制茶과정 중에 蒸靑(차를 찜)을 할 때 사용하기도 하였고, 차를 끓일 때도 사용하였다.<sup>298)</sup> 여기서 陸游의 <閑遊><sup>299)</sup>를 살펴

293) 錢仲聯, 앞의 책, 권7, 30쪽.  
294) 위의 주)와 같음. 鄒志方, 앞의 책, 397쪽.  
295) 徐海榮, 앞의 책, 282쪽.  
296) 도서출판아라 편집부, 앞의 책, 권1, 9쪽.  
297) 도서출판아라 편집부, 위의 책, 권1, 44쪽.

보기로 하겠다.

平生長物掃除盡 평생의 쓸모없는 물건은 깨끗이 버려 버리고  
猶帶筆床茶灶來 오직 필상과 茶灶만 가지고 왔다네

여기서 陸游는 茶灶를 휴대하고 왔음을 말하고 있어서, 야외에서 茶를 끓이는 용도로도 사용되었음을 알 수 있다.

위에서 살펴본 바에 의하면 風爐, 茶鼎, 茶灶는 그 사용하는 용도는 서로 비슷하지만, 그 모양에서 각각의 특징을 가지고 있다. 風爐는 三足 三窓에 窓을 하나 더 내어 재가 잘 빠지도록 하고 있고, 風爐 외벽에는 花鳥山水, 小草流水 혹은 几何문양이 장식되어 있다. 茶鼎은 세 개의 발과 두 개의 귀가 있으며, 손잡이 부분에 오리 모양으로 되어있는 것도 있고, 용머리 모양이 새겨진 모습도 살펴 볼 수 있다. 그리고 茶灶는 연통이 없는 燃具로 釜, 甌 등과 함께 조립하여 사용하였으며, 茶를 찌거나 야외에서 茶를 끓일 때 사용하였음을 알 수 있다.

### 3) 茶籠

茶籠은 차를 보관하거나 炙茶할 때, 그리고 신분이 높은 관료들이 茶를 선물할 때 포장용으로 사용했던 茶具로 金, 銀, 銅의 絲로 짜서 만들었다. 中國의 法門寺에서는 唐代 宮闕에서 전용으로 사용하였던 茶籠이 출토되었는데, 그 茶籠의 모양은 매우 精美하고 고급스러우며 아름다웠다.<sup>300)</sup> 여기서 우선 茶籠을 언급하고 있는 陸游의 <初夏>를<sup>301)</sup>살펴보기로 하겠다.

淡靄輕颺入夏初 열은 아지랑이 가벼운 바람 초여름으로 들어가고  
一窗新綠鳥相呼 온통 창문에는 신록이 우거지고 새는 서로 부르네  
出門易倦常歸臥 문을 나서면 쉽게 권태로워 항상 돌아와 드러눕고  
著句難工但自娛 시를 써도 능숙하기 어려워 단지 스스로 즐길 뿐이네  
花徑蝶閑無墮蕊 꽃길의 나비는 한가롭게 날아다니는데 꽃은 무성하고

298) 徐海榮, 앞의 책, 282쪽, 참조.

299) 錢仲聯, 앞의 책, 권7, 468쪽.

300) 徐海榮, 위의 책, 286쪽 참조.

301) 錢仲聯, 위의 책, 권5, 97쪽.



酒樓人散有空墟 술집에는 사람들이 흩어지니 빈 술집만 남아있네  
 閩川茶籠猶沾及 민강의 차룽의 차가 때에 맞추어 이르니  
 肺渴朝來頓欲蘇 가슴 속의 갈증이 아침부터 수그러들더니 다시 되살아 내려하네

이 詩는 慶元 5년(1199) 여름 陸游의 나이 75세 때 山陰에서 지은 詩이다.<sup>302)</sup> 이 詩의 首聯은 신록이 우거지고 새가 우는 초여름 풍경을 읊고 있다. 頷聯은 날씨가 무더워 외출하기도 권태롭게 느껴지고, 詩는 능숙하지 않지만 시를 즐긴다고 말하고 있다. 이 부분에서는 자신의 시 창작 능력을 겸손하게 표현하는 작자의 모습을 엿볼 수 있다. 頸聯에서는 초여름의 무성한 꽃과 나비 그리고 사람들이 모두 돌아간 텅 빈 酒樓를 노래하고 있다. 尾聯에서는 福建에서 茶가 도착하니, 茶를 마시고 싶은 생각에 갈증이 되살아남을 이야기 하고 있다. 이 부분은 唐代 張固의 《幽閑鼓吹》<sup>303)</sup>에 나오는 崔造의 이야기를 전고로 삼아 읊고 있다. 여기서 말하는 崔造라는 사람은 관직에 있을 때 종종 金銅茶籠<sup>304)</sup>에 담긴 茶를 선물 받았다. 그러나 그가 관직에서 물러난 뒤에는 茶를 선물로 보내오는 사람이 없었다. 그래서 그는 하는 수 없이 金銅茶籠의 茶를 선물 받고 싶은 마음에 다시 관직에 나아갔다고 전해진다. 위의 내용으로 보면 宋代에는 官職에 있는 사람에게 茶를 선물 할 때 金銅茶籠을 이용하였음을 알 수 있다. 여기서 육유의 <十一月十八日蒙恩再領沖佑鄰里來賀謝以長句><sup>305)</sup>를 살펴보겠다.

綠章封事徹虛皇 푸른 종이의 상소문을 허황에게 전달하니  
 黃紙除書降野堂 누런 종이에 임명장이 시골집에 내려졌네  
 海上春常探先到 바다 위에 봄이 오면 항상 찾으며 먼저 이르렀는데  
 壺中日已不勝長 신선세계 같은 날은 오래도록 다하지 못하게 되었네

302) 錢仲聯, 앞의 책, 권5, 97쪽. 鄒志方, 앞의 책, 396쪽.

303) 徐海榮, 앞의 책, 286. 唐代張固《幽閑鼓吹》云：“崔造相，將退位，親厚皆勉之；長女賢，知書，獨勸相國，遂決退。一二歲中，居閑躁悶，顧謂兒侄曰：‘不得他諸道金銅茶籠子，近來總四掩也。’遂復起（唐代，張固의《幽閑鼓吹》에 이르기를：崔造가 자리에서 물러나려고 하는데 정의가 두터워 모두가 그를 격려했다. 장녀는 어질고 학식이 있어 혼자서 宰相을 권했는데, 드디어 물러나기를 결정한다. 한 두 해가 지나가니 조바심이 난 崔造는 자제들에게 돌아보며 말하기를；‘다른 여러 지역의 金銅茶籠에 담은 것을 얻을 수가 없고 근래에는 늘 사망의 문이 닫혀있구나.’ 하고는 드리어 다시 나아가 직무를 맡았다.)”

304) 徐海榮, 위의 책, 286쪽 참조, “這裏的茶籠指名茶的包裝物（여기의 茶籠은 名茶를 포장 하는 기물을 가리킨다.）”.

305) 錢仲聯, 위의 책, 권4, 49쪽.

冰銜再署仙班貴 고귀한 관직에 다시 복무하게 되니 신선의 반얼처럼 귀하고  
 鶴料重支玉粒香 관리의 봉급 다시 수령하니 옥 같은 쌀알이 향기롭다네  
 便掛朝冠亦良易 바로 예모를 걸어 두니 또한 매우 편안하여  
 金銅茶籠本相忘 금동 차룽의 진면목을 잊고 있었네

이 詩는 紹熙 3년 말(1192), 그의 나이 68세 때 山陰에서 지은 詩이다.<sup>306)</sup> 이 詩의 首聯은 道教 사원인 ‘冲佑万年宮’에서 관리로 일하게 되었음을 말하고 있다.<sup>307)</sup> 頷聯은 계절을 즐기며 한가롭게 노닐던 시간들이 다시 일을 하게 됨으로써 사라지게 됐음을 이야기하고 있다. 頸聯은 관직에 다시 복무하게 된 기쁨과 봉급을 수령한 느낌을 쓰고 있으며, “冰銜-鶴料, 再署-重支, 仙班-玉粒, 貴-香”으로 對句를 이루고 있다. 그리고 尾聯은 金銅茶籠을 언급하고 있다. 이 부분도 위의 <初夏>의 尾聯처럼 唐代 張固의 <<幽閑鼓吹>>에 나오는 崔造의 이야기를 典故로 삼아 읊고 있다.<sup>308)</sup>

宋代에는 福建茶使를 역임하다가 퇴임하면 3년 동안은 관례로 퇴임한 관리에게 茶를 보내 주었다.<sup>309)</sup> 이것에 대하여 陸游는 위의 詩에서 아래와 같이 自注하고 있다.

“往時嘗使閩者例饋茶三年, 今不講已久, 余蓋未嘗霑及也.”

이전에 복건지역에서 관리를 지낸 자에게는 3년 동안 차를 보내는 관례가 있다. 지금은 중시하지 않은지 이미 오래이다. 나는 아마도 때에 맞추어 보내온 것을 아직 맛보지 못했다.

이 기록을 보면 宋代에는 福建茶使를 역임한 관리에게는 퇴임 후 3년 동안 관례로 茶를 보내는 관습이 있었지만, 陸游의 시대에 와서는 그 관례를 그리 중시하지 않았음을 알 수 있다.

306) 錢仲聯, 앞의 책, 권4, 49쪽. 鄒志方, 앞의 책, 396쪽.

307) 錢仲聯, 위의 책, 권4, 25쪽 참조.

308) 徐海榮, 앞의 책, 286, 참조.

309) 徐海榮, 위의 책, 286, 참조.

茶籠은 위에서 살펴 본 것처럼 茶를 저장하는 것에만 사용했던 것이 아니라 茶를 관리에게 선물할 때 담아 보내는 용도로도 사용되었다. 그러나 이런 茶籠은 모든 사람들이 사용했던 것이 아니라 민간에서는 茶籠 대신 箬竹로 만든 것을 사용하였고, 이를 蕪籠이라고 불렀다.<sup>310)</sup> 여기서 말하는 蕪籠에 대한 기록은 蔡襄의 《茶錄》<sup>311)</sup> 茶籠 조목에서 살펴 볼 수 있다.

“茶不入焙者，宜密封裹，以蕪籠盛之，置高處，不近濕氣”

배로에 넣지 않은 차는 마땅히 촘촘히 싸서 봉하고 蕪籠에 담아 높은 곳에 두고 습기를 가까이하지 않도록 한다.

이 기록에서는 茶를 보관하는 용도로 蕪籠을 사용하고 있음을 볼 수 있다. 그리고 宋代, 蘇軾의 <求焦千之惠山泉詩><sup>312)</sup>에도 보면 다음과 같이 읊고 있다.

故人憐我病 옛 친구가 내가 병이 난 것을 불쌍히 여겨  
蕪籠寄新馥 약롱에 담은 신선하고 향기 나는 차를 보내 왔네  
欠伸北窗下 북창 아래서 하품을 하며  
晝睡美方熟 낮잠을 즐기는데 바야흐로 차가 익어 가네

이 詩에서는 친구가 병이 든 蘇軾을 불쌍히 여겨서 蕪籠에 신선하고 향기 나는 茶를 보내 왔음을 말하고 있다. 여기서는 차를 선물 할 때 蕪籠을 사용하고 있음을 볼 수 있다.

위의 내용을 요약해 보면, 宋代에는 福建茶使를 역임하다가 퇴임한 관리에게는 3년 동안은 관례로 茶를 보내 줬는데, 茶를 포장 할 때는 金銅茶籠과 같은 고급 茶籠을 사용하여 포장을 하였음을 알 수 있다. 그리고 宋代 官吏들이 茶를 선물로 주고받을 때도 金銅茶籠을 이용하였는데, 민간에서는 차를 저장하거나 선물할 때 金銅茶籠 대신 蕪籠을 사용했음을 알 수 있었다.

310) 徐海榮, 앞의 책, 286, 참조.

311) 도서출판아라 편집부, 앞의 책, 권1, 67쪽.

312) 도서출판아라 편집부, 위의 책, 권1, 147쪽.

#### 4) 茶鑪

唐代에는 茶를 끓일 때, 생철로 만든 鍱<sup>313)</sup>이라는 茶具를 사용하였다. 鍱을 만들 때는 안쪽의 거푸집에는 흙을 발라 미끄럽게 하여 씻기 쉽게 하였고, 바깥쪽의 거푸집에는 모래를 발라서 까칠까칠하게 하여 불길을 잘 받아들이게 했다. 그리고 鍱의 아랫부분을 길게 하였는데, 이는 열효율을 높이기 위함이었다.<sup>314)</sup> 이처럼 唐代에는 차를 끓이는 茶具도 세심하게 설계, 제작하여 사용하였음을 볼 수 있다. 그러나 唐代에 茶를 달일 때 사용했던 鍱은 宋代 陸游의 詩에서는 찾아볼 수가 없다. 그의 詩에서는 煎茶할 때 사용했던 또 다른 宋代의 茶具가 등장하고 있음을 볼 수 있는데, 이는 바로 茶鑪이다. 여기서 宋代의 차를 달이는 茶具인 茶鑪를 구체적으로 살펴보기 이전에, 우선 茶鑪를 언급하고 있는 陸游의 <秋夜歌><sup>315)</sup>를 살펴보기로 하겠다.

書生白首無處著 서생의 흰 머리카락 드러나지 않은 곳이 없고  
病臥空齋夜蕭索 병들어 빈 서재에 누운 밤은 쓸쓸하네  
茶鑪颺颺候湯熟 茶鑪에서 썩썩 소리 들리니 물 끓는 것을 살피고  
燈檠簌簌看燼落 촛대에 타고 남은 찌꺼기가 줄줄 흐르며 떨어짐을 보네  
山童喚起已復倒 산 아이가 부르니 일어났다가 조금 후에 다시 쓰러지고  
顧影自笑如孤鶴 그림자를 돌아보며 외로운 학 같은 나 자신을 비웃는다  
人言富貴墮駭機 사람이 부귀를 말하면 재앙으로 떨어지니  
一生窮愁正不惡 일생이 곤궁하고 근심스러움이 반드시 싫지는 않네  
架上故裘破見肘 시렁 위의 낡은 갖옷은 팔꿈치가 헤어지고  
床頭殘酒傾到脚 베갯머리의 남은 술은 굽을 기울여 따르네

이 詩는 淳熙 12년(1185) 가을, 陸游의 나이 61세 때 山陰에서 쓴 詩이다.<sup>316)</sup> 이 詩의 1, 2句는 老年에 병들어서 書齋에 누운 쓸쓸한 작가의 모습을 읊고 있다. 3句는 茶鑪의 물 끓는 소리를 노래하며 청각적인 효과를 나타내고 있고, 4句에서는 촛대에서 촛농이 줄줄 흐르는 모습을 읊으며 시각적 효과를 나타내고 있

313) 徐海榮, 앞의 책, 303쪽.

314) 도서출판아라 편집부, 앞의 책, 권1, 12쪽, 陸羽의 <茶經>의 四之器.

315) 錢仲聯, 앞의 책, 권3, 126쪽.

316) 錢仲聯, 위의 책, 권3, 126쪽. 鄒志方の 앞의 책, 395쪽.

다. 그리고 5, 6句는 기력이 떨어져 힘이 없는 자신의 그림자를 외로운 학에 비유하고 있다. 7, 8句는 사람이 부귀를 탐하면 재앙이 이르니, 일생이 곤궁하지만 곤궁함에서 오는 근심이 그리 싫지 않음을 노래하며, 작자 자신의 삶의 태도를 나타내고 있다. 그리고 9句는 낡은 갓옷과 팔꿈치가 헤어진 옷을 언급하는 것으로 자신의 곤궁한 생활상을 나타내고 있으며, 10句는 앓아누운 벵갓머리에서 술을 따라 마시는 작자의 모습을 노래하며 시를 마무리하고 있다.

이 詩의 3句에서는 이 부분에서 고찰하고자 하는 茶鑪를 언급하고 있다. 이 茶鑪에 대하여 《漢語大詞典》<sup>317)</sup>을 살펴보면 “茶鑪은 茶를 다리는 釜”라고 말하고 있다. 그리고 이 사전에서는 陸游의 <西齋雨後><sup>318)</sup>의 “香椀灰深微炷火，茶鑪聲細緩煎湯”句를 예로 들어 놓고 있다. 그리고 《康熙字典》<sup>319)</sup>을 살펴보면, <詩經·召南>의 “維錡及釜”句의 釜에 대하여 “有足曰錡，無足曰釜 (다리가 있는 것은 錡라고 하고, 다리가 없는 것은 釜)”라고 註를 달고 있다. 위의 두 자료를 종합해보면, 茶鑪은 茶를 달일 때 사용하는 釜로 다리가 달려있지 않은 것임을 알 수 있다. 이를 뒷받침해 줄 수 있는 자료가 있는데, 元末明初의 瞿佑의 <茶鑪><sup>320)</sup>을 살펴보기로 하겠다.

有耳原非鼎彝材 귀는 있으나 본래 세발달린 茶鼎이 아니고  
只宜烹茗待賓來 단지 차를 끓이는데 적당하니 손님 오기를 기다리네

여기서는 茶鑪이 세발달린 茶鼎이 아님을 밝히고 있다. 그리고 이 詩에 달린 註釋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이 기록하고 있다.

“鑪，溫器如茶鑪，酒鑪此詩描述的茶鑪是用來烹茶的茶具，應是兩邊有耳的甬壺形式”

鑪은 溫器로 茶鑪과 酒鑪이 있는데 여기서는 茶鑪을 묘사하고 있다. 차를 끓이는 데 사용하는 다구이다. 마땅히 양쪽 가에 두 귀가 있고 甬壺의 형상을 하고 있다.

317) 《漢語大詞典》，上海辭書出版社，2008 제9권 384쪽, 煎茶用的釜.....宋 陸游 <西齋雨後> “香椀灰深微炷火，茶鑪聲細緩煎湯 (주발에는 향이 피어오르고, 재는 깊어 불은 희미하게 타고, 茶鑪에서 물 끓는 소리는 가늘고 느리네)”.

318) 錢仲聯, 앞의 책, 권2, 148쪽.

319) 《康熙字典》.

320) 高澤雄, 黎安國, 劉定鄉, 앞의 책, 187쪽.

이 註釋과 위의 자료들을 종합해보면, 茶鑪는 茶를 달일 때 사용하는 茶具로, 다리가 달리지 않은 弔壺(주전자와 비슷한 모양)의 형상을 하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이런 茶鑪는 銀, 銅, 鐵로 만들어진 것이 있고, 또 도자기와 돌로 만들어진 것이 있는데 이를 石鑪, 土鑪이라고한다. 그리고 茶鑪는 雅稱으로 茗鑪 또는 간단히 鑪이라고도 한다.<sup>321)</sup> 여기서 茶鑪를 언급하고 있는 陸游의 또 다른 시 <成都歲暮始微寒小酌遣興><sup>322)</sup>을 살펴보기로 하겠다.

革帶頻移紗帽寬 가죽 띠가 자주 움직이니 오사모가 헐렁하고  
 茶鑪欲熟篆香殘 茶鑪에는 차가 익으려하니 향은 은은하네  
 疏梅已報先春信 성긴 매화는 이미 먼저 봄소식을 알리고  
 小雨初成十月寒 가랑비는 바야흐로 시월의 한기를 이루네  
 身似野僧猶有發 몸은 들의 승려와 같지만 머리카락은 아직 있고  
 門如村舍強名官 문은 시골집 같으나 이름난 관리라 억지부리네  
 鼠肝虫臂元无擇 쥐의 간, 벌레의 팔 같은 하찮은 것이라도 가릴 수 없으니  
 遇酒猶能罄一歡 술을 만나면 한바탕 기뻐하며 다 비울 수 있다네

이 詩는 乾道 8년(1172)말, 陸游의 나이 48세 때 成都府安撫使參議官을 맡고 있는 시기에 쓴 작품이다.<sup>323)</sup> 首聯의 둘째 句에서는 “茶鑪에는 차가 익으려하니 향은 은은하네.”라고 묘사하며 茶鑪를 언급하고 있다. 그리고 이 시의 頷聯에서는 봄소식을 알리는 매화와 봄은 왔지만 한기를 느끼는 날씨를 읊고 있다. 頸聯은 작자 자신의 몸은 승려와 같지만 머리카락이 나 있는 자신의 모습과 문은 시골집 같지만 이름난 관리라 억지 부리는 작자 자신의 모습을 노래하고 있다. 그리고 尾聯은 하찮은 물건도 가릴 형편이 아니기 때문에 술을 만나면 한바탕 기쁘게 비우는 작자의 모습을 볼 수 있다.

茶鑪는 위의 陸游의 시외에, <思蜀><sup>324)</sup>, <閑居><sup>325)</sup>, <雨中作><sup>326)</sup>에서도 언급

321) 徐海榮의 앞의 책, 285쪽.

322) 錢仲聯의 앞의 책, 권1, 221쪽.

323) 위의 주)와 같음. 鄒志方, 앞의 책, 392쪽.

324) 錢仲聯의 위의 책, 권3, 140쪽. “柑美傾筠籠, 茶香出土鑪 (목이버섯 맛이 좋으니 대나무 바구니 기울이고, 차는 향기롭게 土鑪에서 나오네)”.

325) 錢仲聯의 위의 책, 권4, 49쪽. “土鑪茶七碗 瓦甌稷三升 (土鑪에서 일곱 주발의 차를 끓이고, 시루에서 기장 석 되를 찌네)”.

하고 있다. 그리고 육유의 詩 외에도 唐代 皎然의 <飲茶歌送鄭容><sup>327)</sup>에서도 茶鑪를 살펴볼 수 있다.

雲山童子調金鑪 운산의 소년이 금당을 고르게 배합하니  
楚人茶經虛得名 초인의 다경은 이름을 헛되이 얻은 것이라네

그리고 그의 <對陸迅飲天目山茶因寄元居士晟><sup>328)</sup>에도 茶鑪를 노래하고 있다.

投鑪湧作沫 차당에 넣으니 거품이 솟아오르고  
著椀聚生花 주발에 달라붙어 유화가 피어오르네

이 두 首의 詩을 쓴 皎然은 唐代의 시인이다. 첫 번째로 예를 든 그의 시에서는 金鑪를 언급하고 있고, 두 번째 시에서도 茶鑪를 언급하고 있다. 이처럼 唐代 시인의 시에서 茶鑪가 언급되는 것을 보면, 陸羽의 《茶經》에서 茶 달이는데 사용되었던 茶具인 鍤를 기록해 놓고 있지만, 宋代에 등장하는 茶 달이는 茶具인 茶鑪는 唐代에 이미 사용되고 있었음을 알 수 있다.

위에서 살펴본 내용들을 종합해 보면, 宋代에 茶를 달일 때 사용했던 茶鑪는 甬壺의 형상을 하고 있으며 銀, 銅, 鐵 또는 도자기와 돌과 같은 재료를 사용하여 제작하였다. 이런 茶鑪는 唐代 시인인 皎然의 詩에도 등장하는 하고 있어서 唐代부터 茶鑪를 제작하여 사용하였음을 알 수 있다.

## 5) 磑, 碾

宋代에는 點茶法이 유행하였다. 點茶란 고풍인 茶를 곱게 갈아서 체에 거른 후, 그 가루를 茶碗에 넣고 끓인 물을 부어 茶筴으로 휘저으며 차를 타는 방법이다. 그리고 宋代에는 點茶法을 이용하는 鬪茶, 分茶까지 성행하였기 때문에 곱게 간 茶를 얻는 것 또한 중요시 되었다. 陸游의 詩 뿐만 아니라 다른 詩人의 詩에도 磨茶에 관한 내용들이 자주 등장하고 있으며, 여러 茶書들에도 磨茶에 대한

326) 錢仲聯, 앞의 책, 권4, 413쪽. “茅屋松明照, 茶鑪雪水煎 (초가집에는 소나무가 밝게 비추고, 土鑪에는 눈 녹인 물을 달이네)”.

327) 高澤雄, 黎安國, 劉定鄉, 앞의 책, 21쪽.

328) 高澤雄, 黎安國, 劉定鄉, 위의 책, 22쪽.



기록들이 남아 있다.

차를 갈 때는 먼저 깨끗한 종이에 잘 싸서 망치로 부순 다음에 충분히 가는 데,<sup>329)</sup> 차를 가는 작업은 차를 마실 때마다 한다. 왜냐하면 차를 간 직후에는 차의 색깔이 흰색이지만 갈아서 시간이 오래 지나면 색깔이 변하기 때문이다. 陸游의 詩에서도 磑<sup>330)</sup>와 碾<sup>331)</sup>을 이용하여 차를 가는 모습을 묘사하고 있다. 먼저 아래에서 陸游의 <池亭夏晝><sup>332)</sup>를 살펴보기로 하겠다.

造物寧非念老生 조물주는 어찌 노생을 생각하지 아니하고  
池亭幽事悉施行 연못 정자의 그윽한 일 모두 다 실행하나  
群魚聚散忽無跡 무리의 고기들 모였다 흩어져 흩연 흔적이 없고  
孤蝶去來如有情 외로운 나비 가고 음은 정이 있는 듯 하네  
小磑落茶紛雪片 작은 맷돌에서 차가 눈송이처럼 어지럽게 떨어지고  
寒泉得火作松聲 차가운 샘물에서 불을 피우니 물 끓는 소리 일어나네  
曲肱假寐翛然寤 옷을 입은 채 팔을 베고 잠시 졸다가 소연히 깨어나는데  
不爲敲門夢不成 누가 문을 두드린 건 아니지만 꿈은 이루지 못했네

이 詩는 嘉定 元年(1208) 여름, 그의 나이 84세 때 산음에서 쓴 詩이다.<sup>333)</sup> 이 詩의 首聯은 조물주가 늙어 가는 陸游는 생각하지 않고, 연못의 정자에 이미 여름의 경치를 만들어 내고 있음을 말하고 있다. 頸聯에서는 “小磑落茶紛雪片 (작은 맷돌에서 차가 눈송이처럼 어지럽게 떨어지고)”라고 읊고 있는데, 이는 곱게 갈아진 차가 맷돌에서 떨어지는 모습을 하얀 눈송이로 표현하고 있는 것이다. 그리고 尾聯은 여름 낮에 한가롭게 즐기고 있지만 잠은 이루지 못하는 작자의 모습

329) 도서출판아라 편집부, 앞의 책, 권1, 67쪽, 宋代, 蔡襄의 《茶錄》 “碾茶先以淨紙密裹捶碎, 然後熟碾 (차를 갈 때는 먼저 깨끗한 종이에 잘 싸서 망치로 부순 다음에 충분히 간다.)”.

330) 錢仲聯, 앞의 책, 권4, 112쪽, 이 책 注釋에 黃庭堅의 <雙井茶送子瞻詩> “落磑霏霏雪不如”句를 예로 들어 놓고 있다. 그리고 ‘<http://dict.variants.moe.edu.tw/yitib/frb/frb03001.htm>’ 에 보면 “磑 : 石磨, 碾去穀物外皮的農具. 北齊書. 卷十八. 高隆之傳: “又鑿渠引漳水周流城郭, 造治碾磑, 並有利於時”, 宋. 黃庭堅. <雙井茶送子瞻>: “我家江南摘雲瘦, 落磑霏霏雪不如 (磑 : 돌 맷돌, 곡물 외피를 갈아 제거하는 농구이다. 북제서, 권18, 高隆之傳에: “또 도랑을 파고 漳水를 끌어다 성곽에 두루 흐르게 하고, 물을 이용하여 맷돌을 가니 모두 때에 이로움이 있네.”, 송, 황정건, <雙井茶送子瞻>: “우리 고향 강남에서 만 차를 맷돌에서 가는데 떨어지며 흩날리는 모습은 눈도 따라갈 수 없네)”라는 설명이 있다.”.

331) 류건집, 《茶經註解》, 앞의 책, 170쪽, 碾은 한약방에서 약재를 부수어 작게 만드는 藥碾 같은 것이다. 徐海榮의 앞의 책 289쪽 茶碾: “古代碾茶器具, 頗類似今中藥鋪的藥碾(고대에 차를 가는 기구이다. 지금 중국의 약을 가는 藥碾과 매우 흡사하다.)”.

332) 錢仲聯, 위의 책, 권7, 486쪽.

333) 錢仲聯, 위의 책, 권7, 486쪽. 鄒志方, 앞의 책, 397쪽.

을 노래하고 있다. 이 시에서는 磴을 이용하여 茶를 가는 모습을 볼 수 있다. 여기서 말하는 磴는 곡식의 외피를 갈아서 제거하는데 사용하는 맷돌을 말한다. 이런 맷돌을 이용하여 차를 가는 모습은 陸游의 <喜得建茶><sup>334)</sup>에서도 살펴 볼 수 있다.

玉食何由到草萊 진귀한 차가 어떻게 황야에까지 이르렀는가  
 重奩初喜坼封開 겹쳐진 상자를 비로소 즐겁게 개봉하네  
 雪霏庾嶺紅絲磴 눈이 유령산의 홍사석 맷돌에 날리고  
 乳泛閩溪綠地材<sup>335)</sup> 유화가 민계 건안지역의 토호잔에 떠다니네  
 舌本常留甘盡日 혀끝에 종일도록 단맛이 남아있고  
 鼻端無復甃如雷 다시는 우뢰같이 코를 골지 않게 되었네  
 故應不負朋遊意 응당 친구의 뜻을 저버리지 않으려고  
 自挈風爐竹下來 풍로를 들고 대나무 아래로 왔다네

이 詩는 嘉泰 元年(1220) 봄, 그의 나이 76세 때 산음에서 쓴 시이다.<sup>336)</sup> 그는 交遊가 돈독했던 朱熹가 보내준 建茶를 받아들고 이 詩를 썼다.<sup>337)</sup> 이 詩의 首聯은 벗이 보내준 귀한 茶를 받아 들고 기쁜 마음으로 개봉하는 모습을 표현하고 있다. 頷聯은 친구의 정성스런 뜻을 저버리지 못해, 茶를 곱게 갈아서 당시에 유행했던 建安 지역의 兎毫齏으로 茶를 마시는 모습을 실감나게 표현하고 있다. 그리고 이 詩의 頷聯은 “雪-乳, 霏-泛, 庾嶺-閩溪, 紅絲-綠地, 磴-材”로 對句를 이루고 있다. 頸聯은 建安 지역의 우수한 茶의 맛에 대하여 예찬하는 情을 노래하고 있는데, 이 聯도 또한 “舌本-鼻端, 常留-無復, 甘-甃, 盡-如, 日-雷” 등으로 對句를 이루고 있다. 이 시에서는 朱熹가 보내준 차를 庾嶺山에서 나는 紅絲石으로 만든 맷돌을 이용하여 갈고 있음을 묘사하고 있다. 그리고 또 그의 <初夏閑居><sup>338)</sup>에서도 맷돌을 언급함을 볼 수 있다.

野水楓林久寄家 들 물가 단풍든 숲에 집을 오래 의탁하여

334) 錢仲聯, 앞의 책, 권5, 325쪽.

335) 錢仲聯, 위의 책, 권2, 270쪽, 건안지역에서 만든 兎毫무늬에 紺黑색의 甌.

336) 錢仲聯, 위의 책, 권5, 325쪽. 鄒志方の 앞의 책, 396쪽.

337) 叢書編委會編撰, 앞의 책, 213쪽 참조.

338) 錢仲聯, 위의 책, 권7, 136쪽.

慣將枯淡作生涯 고담하게 생애를 만들어 가는 것에 습관이 되려하네  
 小樓有月聽吹笛 작은 누각에는 달뜨고 피리 부는 소리 들리고  
 深院無風看磑茶 깊은 정원에는 바람 없고 맷돌의 차가 보이네  
 靜岸葛巾穿薜蔚 조용히 갈건 쓰고 초목이 무성한 곳 지나  
 閑拖筇杖入谿谿 한가롭게 지팡이를 끌고 넓은 산 계곡으로 들어가네  
 平居每與兒孫說 평소에 아들 손자와 늘 함께하니 기쁘지만  
 切勿人前一語誇 사람 앞에서 한마디 말도 자랑하지 않네

이 詩는 開禧 2년(1206) 여름, 그의 나이 82세 때 山陰에서 쓴 詩이다.<sup>339)</sup> 이 詩의 首聯은 가을 숲에서 고담하게 살아가는 것이 습관이 된 작자 자신을 읊고 있다. 頷聯에서는 밤하늘에 뜬 달, 피리 소리, 맷돌의 차를 노래하며, 청각적 효과와 시각적 효과를 나타내고 있다. 그리고 “小樓-深院, 有月-無風, 聽-看, 吹笛-磑茶”로 對句를 이루고 있다. 頸聯은 초목이 무성한 곳을 한가롭게 노니는 작자의 모습을 읊고 있으며, 尾聯은 매양 손자와 함께 즐겁게 지내지만 사람들에게 자랑하지 않는 陸游의 생활 태도를 나타내고 있다. 이 詩는 노년에 고향 산음에서 지내는 작자의 모습이 담겨 있는데, 여기서도 茶를 갈 때 쓰는 맷돌을 언급하고 있다. 위의 詩에서 살펴본 것처럼 陸游의 詩에서는 茶를 가는 맷돌을 자주 언급하고 있으며, 그 맷돌을 만드는 재료로는 庾嶺山에서 나는 紅絲石을 이용하고 있음을 묘사하고 있어서 宋代 맷돌의 재료 연구에도 도움이 되고 있다.

위에서 茶를 갈 때 이용했던 맷돌을 살펴보았다. 그러나 宋代에는 茶를 갈 때 맷돌 외에 藥을 가는 藥碾과 매우 흡사한 碾을 이용하기도 하였다. 이런 碾은 唐代부터 사용하였는데, 唐代의 碾은 굴나무, 배나무, 뽕나무, 오동나무, 산뽕나무 등의 재료로 만들어 사용하였다.<sup>340)</sup> 그러나 宋代에는 碾을 만드는 재료가 다르게 나타난다. 여기서 陸游의 <晝臥聞碾茶><sup>341)</sup>를 살펴보기로 하겠다.

小醉初消日未晡 조금 취했던 것이 바야흐로 사라지니 해는 아직 서너시  
 幽窗催破紫雲腴 그윽한 창가에서 자색 차 갈기를 재촉하네  
 玉川七碗何須爾 玉川子 盧仝의 일곱 잔의 차가 어찌 이와 같을 수 있을까

339) 錢仲聯, 앞의 책, 권7, 136쪽. 鄒志方, 앞의 책, 397쪽.

340) 류건집, <茶經註解>, 앞의 책, 170쪽, 참조.

341) 錢仲聯, 위의 책, 권2, 277쪽.

銅碾聲中睡已無 동연 소리 속에 잠은 이미 사라지네

이 詩는 淳熙 6년(1179) 그의 나이 55세, 7월에 建安에서 지은 詩이다.<sup>342)</sup> 이 詩는 낮에 술에 취해 누워서 茶를 가는 소리를 들으며 쓴 시이다. 이 詩의 1, 2 句에서는 술기운에서 깨어나는 작자가 茶를 가는 것을 재촉하고 있는 모습을 묘사하고 있다. 3句에서는 玉川子 盧仝의 <走筆謝孟諫議寄新茶><sup>343)</sup>에 등장하는 일곱 잔의 茶를 언급하고 있다. 이 시에서 陸游는 지금 같고 있는 茶가 玉川子の 茶에 뒤지지 않음을 이야기하고 있다. 그리고 4句에서는 銅碾의 소리에 잠이 사라짐을 이야기하고 있다. 이 詩에서 陸游는 銅으로 된 碾을 사용하고 있음을 볼 수 있다.

그리고 北宋의 徽宗 皇帝가 저술한 《大觀茶論》<sup>344)</sup>을 보면 碾에 대하여 다음과 같은 기록이 있다.

“碾以銀爲上，熟鐵次之”

연은 은으로 만든 것이 좋고, 숙철로 만든 것이 그 다음이다.

그리고 蔡襄의 《茶錄》<sup>345)</sup>에도 “茶碾以銀或鐵爲之 (다연은 은이나 쇠로 만든다)”라고 말하고 있다. 이들 내용을 보면 宋代에는 은으로 만든 碾을 최고로 생각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그리고 陸游의 詩 외에 蘇軾의 <詠茶詩><sup>346)</sup>에서도 碾을 언급하고 있다.

採取枝頭雀舌 가지 끝의 작실차를 따다가

342) 錢仲聯, 앞의 책, 권2, 277쪽. 鄒志方, 앞의 책, 394쪽.

343) 도서출판아라 편집부, 앞의 책, 권1, 41쪽. 盧仝, <走筆謝孟諫議寄新茶> “一碗喉吻潤，兩碗破苦悶，三碗搜枯腸，惟有文字五千卷，四碗發輕汗，平生不平事，盡向毛孔散，五碗肌骨清，六碗通仙靈，七碗喫不得 唯覺兩腋習習清風生 (첫째 잔은 입술과 목을 적혀주고, 둘째 잔은 고민을 씻어 주고, 셋째 잔은 무더진 붓끝이 풀리니 생각나는 글이 오천권이 되고, 넷째 잔은 가벼운 땀이 솟아 평생 불평스럽던 일들이 모공을 통해 사라진다네, 다섯째 잔은 살과 뼈를 맑게 하고, 여섯째 잔은 신선의 영과 통한다오, 일곱째 잔은 마시지 않았는데 두 거드랑이에서 맑은 바람 일어나네.)”

344) 류건집, 《宋代茶書의 註解》, 앞의 책, 上권, 120쪽.

345) 도서출판아라 편집부, 위의 책, 권1, 67쪽, 재인용.

346) 김길자, 앞의 책, 258쪽.

帶露和煙搗碎 이슬과 안개 드리운 것을 찧어 부수고  
 結就紫雲堆 끝나니 자색 구름이 쌓였네  
 輕動黃金碾 황금 연을 가볍게 돌리니  
 飛起綠塵埃 푸른 가루가 피어나네  
 老龍團 眞鳳髓 용단차와 봉병차

여기서 蘇軾은 황금 碾을 사용하여 茶를 가는 모습을 얘기하고 있다. 그리고 宋代 王炎의 <次韻韓毅伯趣諸先輩送茶><sup>347)</sup>에서도 碾을 사용하고 있는 모습을 찾아 볼 수 있다.

위의 내용들을 보면, 宋代에는 茶를 갈 때 맷돌을 이용하였는데, 맷돌의 재료로는 庾嶺山에서 나는 紅絲石을 이용하였다. 그리고 宋代에는 藥碾과 매우 흡사한 金, 銀, 銅, 鐵 등의 재료로 만든 碾을 이용하여 茶를 갈아 이용하기도 하였다.

## V. 結論

多量の 茶詩를 창작한 陸游의 고향은 名茶가 생산되는 山陰이다. 그래서 그의 생활은 저절로 茶事와 친숙하게 되었다. 그는 茶書를 탐독하여 茶에 대한 지식을 넓혔으며 茶道를 익혔다. 그런 그의 茶에 대한 지식들은 茶詩에 고스란히 담겨져 있어서 宋代 茶詩 연구에 중요한 자료를 제공해 주고 있다.

이런 陸游의 茶詩에 대하여 중국에서는 비교적 많은 연구가 이루어지고 있으나, 국내에서는 연구가 거의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 그래서 본고에서는 陸游의 茶詩를 중심으로 宋代의 茶文化를 고찰하였다.

본고 제2장의 ‘陸游의 生涯와 創作 背景’에서는 陸游의 生涯, 陸游 茶詩 概括, 茶詩 創作 背景을 考察했다. ‘陸游의 生涯’ 부분에서는 陸游의 生涯를 연도 별로

347) 도서출판아라 편집부, 앞의 책, 권1, 185쪽. 宋代, 王炎의 <次韻韓毅伯趣諸先輩送茶> “碾 破雲龍還不飲, 灑灑金荷扶玉筍 (연으로 운용차를 갈지만 마시지 않으니)”

들어다보면서, 當時 그의 생활을 묘사하고 있는 詩를 예로 들어 놓았다. ‘陸游 茶詩 概括’에서는 陸游 茶詩의 내용을 간단히 언급했고, ‘茶詩 創作 背景’에서는 陸游가 茶詩를 創作하게 된 背景을 山陰出身, 陸羽仰慕, 官職生活, 憂國精神, 田園生活, 文學的 傾向 등으로 분류했다.

陸游는 名茶 產地인 山陰에서 오랫동안 생활하면서 보고 듣고 경험한 것들을 茶詩에 담아내었다. 그리고 그는 陸羽를 仰慕하여 그가 쓴 《茶經》을 항상 들고 다니며 耽讀했는데, 이는 그의 茶詩의 내용을 깊이 있게 만들었으며 또한 茶詩 創作의 밑거름이 되었다. 陸游는 평생 동안 여러 지역에서 官職生活을 하면서 여러 지역의 名茶를 맛볼 기회까지 얻게 된다. 그는 그 지역들에서 보고 들은 茶에 대한 지식들을 茶詩에 반영해 내고 있다. 이 외에 陸游는 憂國의 마음을 茶詩에서 토로하기도 하였다. 그는 寫景詠物, 田園閑適, 交遊 등의 詩에서 憂國精神과 일상에서 느끼는 감정을 함께 담아내는 것처럼 茶詩에서도 어지러운 세상에 대한 비판과 탄식을 쏟아내며 憂國의 마음을 드러내고 있다. 그리고 그는 晩年에 고향에서 지내면서 茶를 소재로 한 詩를 多量으로 창작했다. 이런 그의 茶詩 창작 배경은 宋代 시인들의 茶詩를 創作하는 文學的 경향과도 연관 지어 살펴 볼 수 있다.

제3장에서는 ‘宋代 以前の 茶文化’를 간단히 살펴보고, 이어서 宋代 茶文化를 貢茶制度, 研膏茶 製造, 茶館의 盛行, 茶書編纂, 茶馬貿易, 茶道의 變遷 등으로 나누어 고찰했다. ‘宋代 以前の 茶文化’ 부분에서는 中國에서 차 마시는 풍습이 생겨난 시기에 대해 언급했다. 그리고 茶를 식용으로 사용한 春秋時期, 茶를 약용으로 사용했던 기록인 西漢의 《神農食經》 등을 예로 들며 漢代부터 唐代까지의 茶文化를 간단히 기술하였다. ‘宋代 茶文化’의 ‘貢茶制度’ 부분에서는 宋代의 貢茶制度를 고찰하였다. 宋代에는 皇室에 貢茶하기 위해 北苑에 御茶園을 지정하였고, 여기서는 茶의 표면에 龍鳳 등의 도안들을 그려 넣은 龍鳳茶를 만들었다. 그리고 貢茶는 北苑 지역에서만 이루어 졌던 것이 아니라 여러 名茶 산지에서도 이루어 졌다. ‘研膏茶 製造’ 부분에서는 茶의 잎을 시루에서 찌고, 膏을 짜서 고품차로 만드는 섬세한 제조과정과 研膏茶의 모양, 研膏茶의 생산지역들을 언급하였다. ‘茶館의 盛行’ 부분에서는 화려한 장식을 하고 손님을 맞이했던 宋代 茶館을 살펴보았다. 當時의 茶館은 누구든지 자유롭게 출입할 수 있었고, 그곳에서는

交遊도 하고 정보도 교환했으며, 각종 오락프로그램을 즐기기도 했다. 그리고 陸游의 시를 통해서 茶館은 도심에만 있었던 것이 아니라 군대가 주둔하는 陣營 근처에도 있었음을 알 수 있다. 그리고 ‘茶書編纂’ 부분에서는 宋代 茶書에 茶의 製造, 貢茶, 飲茶俗, 茶具 등 다양한 내용들을 수록하고 있음을 기술하였다. 그 茶書에 실려 있는 내용들은 陸游의 茶詩에도 반영되어 나타나고 있어서 宋代의 茶書들은 陸游의 茶詩에 많은 영향을 주었다고 할 수 있다. ‘茶馬貿易’에서는 唐代에 시작된 茶馬貿易이 宋代 神宗 熙寧 7년(1074)에 이르러 제도적으로 정착됨을 볼 수 있다. 그리고 宋代에는 軍馬를 얻기 위해 茶馬貿易의 규모가 확대되었으며, 茶馬貿易은 몇 가지 기본 규정이 있었음을 기술하였다. ‘茶道の 變遷’ 부분에서는 먼저 茶道에 대한 정의를 정리하였고, 뒷부분에서는 宋代에 들어오면서 변천된 몇 가지 茶道들을 고찰 하였다. 宋代는 研膏茶와 點茶가 유행했다. 그리고 分茶라는 새로운 茶藝활동이 생겨났으며 茶의 맛을 비교하고 겨루는 鬪茶가 일반화되는 茶道の 변화가 있었다.

이어서 ‘陸游 茶詩에 나타난 宋代의 茶文化’를 ‘茶事’, ‘茶名’, ‘花(果)茶 및 기타’, ‘茶具’ 부분으로 나누어 고찰하였다. ‘茶事’ 부분에서는 宋代에 유행했던 煎茶과 點茶, 鬪茶, 分茶, 活水, 活火 등을 차례대로 살펴보았다.

陸游의 <擁爐>, <題野人壁> 등에서는 唐代에 유행했던 煎茶를 언급하고 있다. 이것으로 보면 宋代에는 點茶法이 유행했지만 여전히 煎茶法도 존재했음을 알 수 있다. 그리고 ‘點茶’ 부분에서는 陸游의 <茅亭>, <秋日郊居> 등에서 읊고 있는 宋代에 유행했던 點茶에 대하여 고찰하였다. 點茶法은 鑪에 茶를 넣고 물을 부어 筥으로 擊拂하는 과정을 거치는데, 매 과정마다 매우 섬세하고 정성이 들어간다. 그리고 잔 위에 乳花를 피어 올리는 技藝性도 첨가된 飲茶法이다.

陸游의 茶詩에서는 宋代에 성행했던 鬪茶도 언급하고 있다. 鬪茶는 貢茶 製造人들이 茶의 품질을 겨루는 것에서 시작되었고, 찻잎의 품질과 茶를 우려내는 기술로 승부를 겨루었다. 이런 鬪茶는 점차 茶의 技藝로 發展하여 茶의 色, 香, 味를 중시 여겼다. 宋代에는 이런 鬪茶가 보편적인 茶俗 활동이 되었고, 많은 지방에서 성행하였다. 그리고 그의 <北窗>, <疏山東堂晝眠> 등에서는 分茶를 노래하고 있다. 分茶는 茶를 다루는데 능한 사람이 茶湯 위에 그림, 文字, 禽獸, 꽃 등의 다양한 物像을 그려내는 일종의 技藝로 宋代에 성행했다.



宋代 사람들은 茶를 마실 때 茶의 色, 香, 味를 좌우할 수 있는 活水를 이용하였다. 陸游의 <試茶>에는 당시 사람들이 최상급의 물이라고 여겼던 谷簾水를 읊고 있다. 그리고 ‘活火’에서는 陸游의 <初春感事>에서 언급하고 있는 活火를 고찰하였다. 찻물을 끓일 때는 빨갛이 가지고 있는 특유의 냄새가 탕에 스며들면, 茶의 참맛을 해치기 때문에 分茶와 鬪茶를 즐겼던 宋代 사람들은 活火, 즉 숯불을 이용하여 茶를 달여 마셨다.

‘茶名’ 부분에서는 宋代에 貢茶 했던 北苑茶, 壑源茶, 顧渚茶, 日鑄茶, 蒙頂茶, 를 고찰하였다. ‘北苑茶’에서는 陸游의 <飯後偶題>, <雪夜作> 등에서 언급하고 있는 北苑茶를 고찰하였다. 北苑茶는 宋나라 때 황실 전용의 御茶園이 있던 建安鳳凰山의 東溪水畔에 있는 北苑 지역의 차를 말한다. 이 지역에서 생산 되는 茶는 南唐 말부터 宋代를 거쳐 元代까지 조정에 貢茶를 했는데, 宋代에는 이 지역에서 龍鳳茶와 龍團茶, 密雲龍 등의 名茶가 만들어져 貢茶하였다.

‘日鑄茶’에서는 陸游의 <過武連縣北柳池安國院煮泉試日鑄顧渚茶院有二泉皆甘寒傳云唐僖宗幸蜀在道不豫至此飲泉而愈賜名報國靈泉雲>, <三遊洞前岩下小潭水甚奇取以煎茶>등에 나타난 越洲 會稽縣 東南의 日鑄嶺에서 생산되는 日鑄茶를 고찰하였다. 이 茶는 맛이 뛰어나서 南宋시기에는 貢納하였고, 보관할 때는 밀랍을 입힌 종이에 붉은 색 단사를 찍어 보관하는 모습을 엿볼 수 있다. 그리고 ‘壑源茶’ 부분에서는 陸游의 <謝王彥光提刑見訪並送茶>, <堂中以大盆漬白蓮花石菖蒲條然無復暑意睡起戲書> 등에서 읊고 있는 壑源茶를 고찰하였다. 이 茶의 품질은 아주 뛰어나서 宋代 황실에 貢納하였다. 壑源은 貢茶산지인 北苑과 멀리 떨어져 있지 않았으며 北苑과 더불어 正焙라 칭해졌다. 그리고 이 茶는 壑源山 주변에 있던 沙溪의 茶보다 훨씬 높은 값으로 판매되었다. ‘蒙頂茶’ 부분에서는 陸游의 <睡起試茶>, <菴居> 등에서 읊고 있는 蒙頂茶를 고찰하였다. 蒙頂茶는 唐, 宋의 名茶로 四川, 邛崃山脈 중의 蒙山에서 생산되는 차로 唐, 宋代에 貢茶하면서 이름이 세상에 널리 알려졌다. 이런 蒙頂茶는 明代에 이르러 夷인들이 차를 독차지했기 때문에 貢茶를 더 이상 할 수 없었다. 그리고 ‘顧渚茶’ 부분에서는 陸游의 <仲秋書事>, <齋中弄筆偶書示子聿> 등에서 언급하고 있는 長興縣 顧渚山에서 생산되는 顧渚茶를 고찰하였다. 이 茶는 唐代에 이미 貢納되었으며 매년 清明 이전에 공납했기 때문에 急程茶라고도 칭해졌다. 여기서 貢納하는 顧渚茶는 餅茶였

으며 明太祖 洪武年間에는 芽茶도 貢茶하였다. 그리고 顧渚茶를 보관할 때는 紅囊이나 紅藍의 비단 주머니에 저장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다.

‘花(果)茶 및 기타’ 부분에서는 花(果)茶을 먼저 살펴보고 이어서 기타 茶를 고찰하였다. ‘菊花茶’ 부분에서는 陸游의 <冬夜與溈庵主說川食戲作>에서 언급하고 있는 菊花茶를 고찰하였다. 菊花는 唐代부터 차의 맛을 돕는데 사용되었고, 宋代에는 甘菊을 차에 띄워 茶의 쓴맛을 제거 하였고 菊花의 싹은 茶 대신 이용하였다. ‘茱萸茶’ 부분에서는 陸游의 <荊州歌>에 나타난 茱萸茶를 고찰하였다. 茱萸는 짙은 향이 있기 때문에 재앙을 사라지게 하고, 사악한 것을 피하는 神物로 여겨졌다. 그리고 瘴氣 때문에 일어나는 병을 물리치기 위하여 茱萸茶를 마셨다. 그리고 ‘橄欖茶’ 부분에서는 陸游의 <夏初湖村雜題>에 나타난 橄欖茶를 살펴보았다. 宋代 사람들은 茶와 橄欖을 함께 넣어 끓여 마셨는데, 그들은 橄欖으로 차의 향기를 돕게 하였다. 橄欖은 술을 해독하고 소화를 촉진해 주는 효과가 있어서 宋代사람들과 친근하였다. ‘薑茶’ 부분에서는 陸游의 <西窗>에서 언급하고 있는 薑茶를 고찰하였다. 東晉시기의 僧들은 坐禪修行시에 茶蘇, 즉 일종의 茶와 생강, 계수나무, 꿀 등을 섞는 방식으로 차를 달여 마셨고, 唐代에도 僧들은 나쁜 기운을 가라앉히기 위하여 薑茶를 마셨다. 그리고 宋代에는 茶에 생강 그리고 소금을 넣어 마시는 풍습이 있었다. ‘梅花茶’ 부분에서는 陸游의 <初春書懷>에서 읊고 있는 梅花茶에 대하여 살펴보았다. 宋代의 梅花茶는 매화의 꽃술을 담가두었던 蓼를 이용하여 茶를 끓이는 것을 말한다. 이렇게 만들어진 梅花茶는 단지 꽃향기를 맡을 수 있을 뿐, 그 꽃은 볼 수가 없다.

‘기타’에서는 陸游의 시에 나타난 名茶이지만 貢茶는 하지 않았던 桃花茶, 丁坑茶, 花塢茶, 安樂茶 등을 고찰하였다.

‘茶具’ 부분에서는 陸游詩에 나타난 茶具인 兔毫盞, 風爐, 茶籠, 茶鑪, 硯, 碾 등을 고찰하였다. ‘兔毫盞’ 부분에서는 宋代에 유행했던 ‘兔毫盞’을 살펴보았다. 宋代에는 茶湯에 乳花를 띄우고 마시는 것을 즐겼기 때문에 흰색의 乳花와 잘 어울리는 흑색에 토끼털 같은 무늬가 있는 兔毫盞을 사람들이 귀하게 여겼음을 알 수 있다. ‘風爐’ 부분에서는 風爐와 그 쓰임은 같지만 모양과 이름이 다른 茶鼎, 茶灶 등을 비교하며 살펴보았다. 그리고 ‘茶籠’ 부분에서는 차를 저장하는 용도 외에 고급 관리들이 차를 선물할 때 포장용기로 사용하였던 茶籠에 대하여 알아

보았다. 그 외 宋代茶具인 茶鑪, 磑, 碾 등의茶具들을 고찰하였다.

본 논문에서는 陸游 茶詩에 나타난 茶 채취, 제작과정, 茶事, 貢茶, 花(果)茶,茶具 등과 같은 宋代 茶文化를 한꺼번에 조망할 수 있었다. 陸游는 이와 같이 宋代의 飲茶 文化를 한눈에 들여다 볼 수 있는 多量の 茶詩를 創作해서 宋代 茶詩 변영에 일조 하였다. 이는 이전 시기에 없던 茶詩 創作의 모습이다. 한 시대의 茶文化를 모두 들여다 볼 수 있는 陸游의 茶詩는 茶의 經典이라고 해도 손색이 없다. 宋代에는 陸游 외에 많은 시인들의 詩에서도 茶詩가 창작되고 있어서 宋代의 茶詩 창작은 宋代 詩文學 部分에서 소홀히 할 수 없는 부분이라 생각한다. 筆者는 본 논문에서 고찰한 陸游 茶詩로 인해, 宋代 茶詩 創作이 宋代 詩文學의 한 특징으로 부각되길 기대해 본다.

본 論文에서는 120여 首의 陸游 茶詩를 예로 들어가며 宋代 茶文化를 고찰하였다. 陸游 茶詩속에는 본고에서 고찰한 내용 외에, 茶를 선물로 주고받는 모습이 나타나 있고, 寺刹의 僧侶들과의 교류하는 모습 등도 살펴 볼 수 있다. 앞으로 만약에 기회가 주어진다면 陸游 茶詩를 完譯하여 陸游 茶詩 좀 더 깊고 폭넓게 研究해 보고자한다.

## 【參考文獻】

### I. 사전류

도서출판아라 편집부, 《중국차문화대사전》, 도서출판아라, 2013

《漢語大詞典》, 上海辭書出版社, 2008

徐海榮, 《中國茶事大典》, 華夏出版社, 北京, 2000년

陳宗懋, 《中國茶葉大辭典》, 中國輕工業出版社, 2015년

龔建華, 《中國茶典》, 經史文庫, 2002

### II. 단행본류

錢仲聯, 《陸游全集校注》, 杭州, 浙江教育出版社, 2011

주기평, 《육유시가연구》, 서울, 도서출판 역락, 2010

염숙, 엄영옥, 《중국역사 속에 꽃피운 茶 문화》, 전남대학교 출판부, 2009

조기정, 《한·중 차문화 연구》, 서울, 학연문화사, 2014

于北山, 《陸游年譜》, 上海, 上海古籍出版社, 2006

鄒志方, 《陸游詩詞選》, 北京, 中華書局, 2005

기세춘, 신영복, 《中國歷代詩歌選集》, 돌베개, 1994년

류건집, 《宋代茶書의 註解》, 도서출판 이른아침, 2012

김길자, 《中國茶詩》, 현암사, 1999년

류건집, 《茶經註解》, 서울, 도서출판 이른 아침, 2010

鄒志方, 《陸游研究》, 北京, 人民出版社, 北京, 2008

박영환, 《중국의 차문화》, 서울, 도서출판 문현, 2009

棚橋篁峰著, 석도윤, 이다현 共譯, 《중국차문화》, 서울, 하늘북, 2006

누노메 초후 지음, 정수일 옮김, 《중국각다문화사》, 동국대학교 출판부, 2012년

金明培, 《中國의 茶道》, 서울,明文堂, 2007

莊晚芳, 唐慶忠, 唐力新, 陳文懷, 王家斌, 《中國名茶》 浙江人民出版社, 1979년  
 唐譯, 《圖解茶經》, 北京, 內蒙古出版集團, 2011  
 叢書編委會編撰, 《中國茶文化》, 北京, 外文出版社, 2010  
 嚴修, 《陸游詩詞導讀》, 北京, 中國國際廣播出版社, 2009  
 주기평, 《육유시선》, 서울, 지식을 만드는 지식, 2011  
 高澤雄, 黎安國, 劉定鄉, 《古代茶詩名篇五百首》, 武漢市, 湖北人民出版社,  
 2014.  
 《欽定四庫全書》本 李時珍, 《本草綱目》

### Ⅲ. 논문류

嚴英旭, <宋代 茶文化와 陸游의 茶詩研究>, 中國人文科學 第49輯 2010  
 劉黎明, <宋代茶俗과 陸游의 咏茶詩>, 文史雜誌, 1998, 第 5期  
 박병선, <中國 茶詩 研究>, 中國語文學論集, 제77호, 2009  
 付玲玲, <陸遊茶詩研究>, 曲阜師範大學, 碩士論文, 2006  
 揚之水, <兩宋茶詩與茶事>, 《文學遺產》, 2003, 第 2期  
 劉煥群, <陸游爲何茶詩多多>, 農業考古, 2004  
 徐銀美, <宋代의 飲茶生活과 茶 産業의 發展>, 慶星大 韓國學研究所, 2002  
 余悅, 周春蘭, <中國宋代茶文化的繁榮與特色(續)>, 《農業考古》, 2007, 第2期  
 고연미, <宋代 分茶와 吉州窯 茶盞의 문양장식에 관한 一考>, 원광대학교,  
 2010  
 顧云艷, <陸游的《晨雨》与宋代的“斗茶”>, 鎮江高專學報, 第 21卷, 第 2期 2008  
 顧云艷, <論陸游的茶詩與茶事>, 江南大學, 2008  
 顧云艷, <淺論陸游茶詩中的花果茶>, 江南大學, 《農業考古》, 2009, 02期  
 徐銀美, <茶書와 宋代 茶文化>, 경성대, 2002  
 餘悅, 馮文開, 王立霞, <北宋茶詩與文士雅趣簡論>, 河北學刊, 第27卷 第6期,  
 2007  
 徐京美, <宋代茶詩中的貢茶采制特色>, 江南大學人文學院

김진숙, <唐代의 飲茶文化>, 韓國茶學會誌, 제13권, 제1호, 2007  
吳元敬, <臨安茶館을 통해 본 南宋朝都市茶文化>, 숙명여대  
楊永兵, <試論宋代茶官的功能>, 雲南大學中國經濟史所  
品維新, <宋代茶馬貿易研究>, 《茶葉機械雜誌》, 1996年, 第2期

#### IV. 인터넷 자료

##### 1. 影印本 (<http://sou-yun.com/eBookIndex.aspx>)

《欽定四庫全書》

《茶山集》

《拙軒集》

《眉山文集》

《全唐詩》

《平庵悔稿》

《雙峰先生存稿》

《龍洲集》

《續軒渠集》

《後山詩注》

《剡錄》

《菊花集譜》

《東坡全集》

##### 2. 기타

<http://dict.variants.moe.edu.tw/yitib/frb/frb03001.htm>

## 【Abstract】

During Song Dynasty, tea culture was prosperous, e.g. tea market was formed, Chamamaoyi(茶馬貿易) was established, and Chaguan(茶館) was prevalent. Along with such social atmosphere, many books related to tea study were published, and poets' tea poems were continued to be created.

Poet of Song Dynasty, Luyou(陸游) was the poet who composed poems the most among the Chinese poets in history. Luyou(陸游)'s hometown was Shanyin(山陰), where famous tea was produced. Accordingly, his life naturally became familiar to Chashi(茶事). He broadened knowledge about tea through poring over books about tea, and learned tea ceremony. This way, his knowledge about tea was fully included in his tea poems, which provide important data for Song Dynasty, tea poem research. As the amount of his poems was large, subject of poems was various. For example, there were patriotism, love of the people, exchange, tranquility, etc. besides, various subjects of poems are transmitted, however, one of them was the poem on tea.

Therefore, the researcher investigated Life of Luyou(陸游), Summary of Luyou(陸游) tea poem, and Creation background of Luyou(陸游) tea poem, in Luyou(陸游)'s life and creation background in order to consider tea culture of Song Dynasty. In Life of Luyou(陸游), this research briefly investigated life of Luyou(陸游), and in Summary of Luyou(陸游) tea poem, this research investigated the contents of his tea poems briefly.

In Creation background of Luyou(陸游) tea poem this research investigated the background that Luyou(陸游) came to create tea poem by dividing into six matters.

In Tea culture before Song Dynasty this research briefly investigated the origin to start to drink tea, the period of Weijinnanbeichao(魏晉南北朝) and Tea culture of Tang Dynasty. Also, this research investigated by dividing



into Gongcha(貢茶) system, Yangaocha(研膏茶) production, prevalence of Chaguan(茶館), compilation of tea book, and change of Chamamaoyi(茶馬貿易), Chadao(茶道).

In Gongchazhidu(貢茶制度), it was determined that Longfengcha(龍鳳茶) was manufactured, which drew patterns as yongbong on the tea lump at yuchayuan(御茶園) of Beiyuan(北苑) to Gongcha(貢茶) the Imperial family. In Yangaocha(研膏茶) production, shape of Yangaocha(研膏茶) and production area yangaocha were investigated through data. Besides, this research considered prevalence of Chaguan(茶館), compilation of tea book, and change of Chamamaoyi(茶馬貿易), Chadao(茶道), etc. based on relevant records.

Also, in Tea culture in Luyou(陸游) tea poem, this research investigated by dividing into Chashi(茶事), Chaming(茶名), and Chaju(茶具). In Chashi(茶事) part, this research investigated Jianchafa(煎茶法) and Dianchafa(點茶法), which were popular during the Song Dynasty, and investigated Doucha(鬪茶), which competed with its color, fragrance, and taste of tea during the Song Dynasty, and buncha which was added with artistry. Also, investigated in order of Huoshui(活水), Huohuo(活火), which were highly regarded to enjoy this tea drinking life.

Then, this research considered famous tea. For example, there were Beiyuancha(北苑茶), Guzhucha(顧渚茶), Rizhucha(日鑄茶), Mengdingcha(蒙頂茶), Heyuancha(壑源茶), which were Gongcha(貢茶) to the government of Song Dnyasty, also, there were Huaguocha(花果)茶 such as Juhuacha(菊花茶), Ganlancha(橄欖茶), Jiangcha(薑茶), and besides, other famous tea appeared. In this poem, which commented about such famous tea, this research investigated unique tea drinking culture of Song Dynasty, effectiveness of tea, producer of tea, and storage method, etc.

In Chaju茶具 part, this research investigated Tuhaozhan(兔毫盞), Fenglu(風爐), Chalong(茶籠), Chadang(茶鐺), Wei(磑), Nian(碾) which are Chaju(茶具) that appeared in Luyou(陸游)poem. In Tuhaozhan(兔毫盞) part, this research

investigated Tuhaozhan(兔毫盞) of Song Dynasty that had rabbit fur pattern, and in Fenglu(風爐), considered Chading(茶鼎), Chazao(茶灶), etc. that had different name and shape, which had the same use with Fenglu(風爐). Also, in Chalong(茶籠), this research investigated Chalong(茶籠), that was used to pack the tea to store or present a gift. Besides, this research investigated Chadang(茶鐺), Wei(磗), Nian(碾).

Luyou(陸游) poems have abundant materials to investigate Song Dynasty tea culture, besides the contents in the above. In the next opportunity, the researcher wishes to additionally investigated various contents related to this.